

신어의 조사 연구

1994

국립국어연구원

머 리 말

말은 끊임없이 변화를 계속한다. 특히 단어는 음운이나 문법에 비해 변화가 빠르다. 지금까지 사용되던 단어가 사라진다는지, 새로운 단어가 생기는 일이 자주 발생한다. 단어형성론에서는 단어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에 관심을 갖는데 신어 목록은 단어형성론의 좋은 자료가 된다. 신어는 일시적으로 사용되다 없어지기도 하고 국어의 단어로 정착하기도 한다.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후에 신어 목록에 포함됐던 단어들의 사용을 검토하면 국어에서 어떤 유형의 말들이 정착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신어가 국어 어휘론 연구의 자료가 되는 또다른 이유이기도 하다. 신어는 여러 가지 요인으로 생겨나지만 그 중에서도 새로운 사물이나 현상의 표현이 중요한 요인으로 꼽힌다. 따라서 신어 목록은 사회의 변화 방향을 분석하는 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다. 이러한 신어에 대한 연구 결과들은 어문 정책의 방향을 설정할 때 기초 자료가 될 것이다.

이러한 뜻에서 신어의 조사와 연구는 매우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서는 신어에 대한 언어학적 조사가 아직 이루어진 일이 없다. 시사나 경제 용어를 중심으로 수험이나 일반 상식을 위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조사가 있었고, 때로는 일부 호사가의 심심풀이로 약간의 신어 수집이 행해졌을 뿐이다. 우리 원에서 1994년도 연구 사업으로 추진한 「신어의 조사 연구」는 우리의 신어에 대하여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언어학적 조사가 될 것이다.

이 조사 보고서의 대상인 신어는 1994년에 간행된 신문과 잡지에 사용된 일반 어휘 중에서 사전에 올림말로 채택된 적이 없는 단어들이다. 그러므로 이번 조사와 같은 일이 10년, 20년 전에 행해졌더라도 사용되었을 만한 단어가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다시 말하면 이 보고서에 신어라고 처리된 단어 중에는 언중에 따라 신어라는 데 동의할 수 없는 단어가 있을 것이다. 또 단어를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서는 하나의 단어라 하는 데 주저되는 신어도 있을 것이다. 더욱이 조사 대상인 간행물도 매우 제한되었는데 여기에 제시하는 1,634개 신어에 대하여 뜻풀이나 생성 배경까지 보여야 할 것이나, 아쉽지만 시간 관계로 신어 목록만 보이기로 하였다.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이 조사 보고서는 여러 가지로 미비하다. 우리 원에서도 앞으로 조사를 계속하면서 보완할 계획을 갖고 있으나, 이 보고서를 계기로 신어에 대한 연구가 학계에서 본격적으로 일어나 우리의 미비와 잘못이 보완되고 바로잡아지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1994년 12월 일
국립국어연구원
원장 안병희

일 러 두 기

1. 조사 방법

신어는 사회 각 분야에서 만들어지고 있다. 그 말을 사용하는 사람이 신어라는 것을 의식하면서 사용하기도 하고, 의식하지 못하면서 사용하기도 한다. 신어가 처음 사용되었을 때 조사하여 언제 어디서 누가 그 말을 처음 썼다는 기록을 남기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의 말이나 글을 조사하여 신어를 수집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 말은 일시적으로 사용되다가 사라져서 그렇다 해도 글 역시 현실적으로 모든 문헌을 다 섭렵하여 신어를 찾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조사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많은 문헌을 조사하는 것이 최선일 것이다. 여기서는 여건이 미비하여 일부 신문과 잡지에 국한하여 신어를 수집하는 것으로 그쳤다. 신문이나 잡지는 사회 변화를 많이 반영하여 신어가 다른 문헌보다 빨리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한정된 노력으로 최대의 결과를 얻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다.

조사한 신문 및 잡지는 다음과 같다.

(1) 신문 : 동아일보 1994년 8월 12일 - 10월 10일(짜수일)

조선일보 1994년 8월 13일 - 10월 11일(홀수일)

기타 5월 - 10월 12일 사이의 각종 신문

(2) 잡지 : 新東亞 422 : 94년 11월 1일 발행

月刊朝鮮 172 : 1994년 7월 1일 발행

시사저널 245 : 1994년 7월 7일

247 : 1994년 7월 21일

249 : 1994년 8월 9일

260 : 1994년 10월 20일

영레이디 154 : 1994년 6월 1일

여성중앙 300 : 1994년 10월 1일

먼저 대상 문헌을 읽으면서 신어라고 보이는 단어를 표시하고 이 단어가 사전에 수록됐는지를 확인하였다. 사전에 수록되었으면 제외했다. 최근에 간행된 대사전인 한글학회편 우리말큰사전, 금성판 국어대사전, 민중서림판 국어대사전에서 확인하였다.

수집된 신어의 인용문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신어가 새로 추가된 경우도 있었다. 조사 보조원 및 담당 연구원의 검토에도 불구하고 신어라고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새삼 눈에 띄면서 확인된 것이다.

2. 선정 기준

신어의 범위에는 기존의 언어와 유연성이 없이 새롭게 창조된 말, 기존의 언어재를 이용하여 만든 말, 외국어에서 수입한 말을 모두 포함시켰다. 사전에 수록된 말은 신어에서 제외했는데, 사전에 수록되어 있는 말이라도 의미가 다르게 사용된 말은 신어에 포함시켰다.

신어의 범위는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조사를 하면서 신어로 볼 것인지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몇 가지 기준을 세우기는 했지만 조사자의 판단에 의존하는 것은 어느 정도 불가피했다. 의미를 알기 어려운 말들은 판단에 더욱 어려움을 겪었다. 이러한 이유로 원고가 완성되기 전까지 신어로 보기 어려운 것들을 삭제하는 작업을 계속 했다.

기존의 언어재를 이용하여 만든 말 중에는 합성법과 파생법에 의해 만들어진 말이 가장 많다. 합성법에서 부딪치는 문제는 합성어로 볼 것인가, 구로 볼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구로 본다면 당연히 신어가 아닐 것이나 이를 판단할 기준이 아직 뚜렷하게 제안된 적이 없다. 조사자의 판단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 사전에서 접사로 인정하기는 했지만 접사가 붙은 말 중에는 단어로 인정하기 어려운 말들도 있었다. 자주 발견되는 것으로는 ‘-용(用), -론(論), -급(級), -식(式)’이 붙은 말이다. 이 경우 기존 사전의 태도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즉 사전에서 같은 부류의 단어가 올라 있으면 단어로 인정하는 태도를 취했다.

국어 사전에 오른 단어는 신어로 보지 않았다. 사전에 오르지 않은 단어라 해도 국어에서 오래 전부터 사용되었다고 판단되는 단어는 제외했다. 이들은 미등재 표제어는 될지언정 신어는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조사자가 명백히 알고 있는 단어가 아니면 신어와 미등재 표제어를 가리키는 쉽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때로는 국어에서 사용되기 시작한 시점을

집작할 수 있는 단어도 있다. 예를 들어 ‘노래방’의 경우 노래방이라는 업소가 생긴 시점이 곧 그 단어가 국어에 수용된 시기가 될 것이다. 작년이나 그 앞서에 신어를 조사한 적이 있다면 이 단어는 신어로 등록되었을 것이고 1994년에 나온 문헌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여기서는 그 단어를 신어로 조사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신어가 조사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사용 연한이 오래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신어로 보았다.

일상 생활에서 사용되지 않았으며 부자연스러운 조어라고 판단되는 단어는 제외하였다. 여기에 해당하는 것은 우선 신문의 제목에서 사용된 말들이다. 제목에 사용된 말들의 경우는 공간 배치, 두드러짐 등을 위해 의도적으로 말을 만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기사 내용에서 그 단어가 나오지 않는 경우는 제외했다. 광고에서 사용되는 말도 어느 정도 이러한 성격이 있기 때문에 같은 경우라고 판단되는 말은 제외했다. 부자연스러운 조어는 유행어에서도 종종 나타난다.

단어 부류에 따라 다른 기준에 부합해도 신어로 보지 않기도 했다. 정보가 대중화되면서 전문어와 일반어의 구분이 어려워지고 있다. 그렇다고 사전에 수록되지 않은 전문어를 다 신어라고 조사하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이에 따라 전문어로 볼 수 있는 신어는 비전문적인 내용의 기사에서 나타난 말을 신어에 포함시켰다. 속어, 은어는 쓰임이 확대되면서 일반인이 널리 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다른 기준에 어긋나지 않으면 신어에 포함시켰다. 고유명사는 신어로 보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그러나 고유명사에 다른 성분이 붙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현대맨, 바그너광’과 같은 예들이다. 이들은 구성 성분 중에서 고유명사보다는 일반어가 단어의 중심이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신어로 보았다. 단어의 형태로 사용되는 유행어 중에는 사전에 오르지 않은 말들도 있다. 유행어는 일시적으로 널리 사용되다가 사용 범위가 축소되거나 전혀 사용되지 않는 말이기 때문에 조사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렇지만 실제로 조사를 하다 보면 유행어 여부를 판단하기란 쉽지 않다. 유행어처럼 사용되고 있어도 다른 기준을 고려했을 때 신어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은 조사 대상에 포함시켰다.

3. 조사 결과

조사된 신어는 모두 1,634개이다. 기존의 언어와 유연성이 없이 새롭게 창조된 말은 없

다. 이 중에서 사전에 수록된 단어와 형태는 같으나 의미가 달라서 조사된 단어는 모두 45개이다. 이를 제외한 나머지 단어의 기원별 구성은 다음과 같다.

구성 분포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	고유어 +한자 어	고유어 +외래 어	한자어 +외래 어	고유어 +한자 어+외 래어	계
단어수	80	897	207	217	43	136	9	1,589
빈도(%)	5	56	13	14	3	9	1	101

한자어가 여전히 신어 생성에서 우세함을 보여준다. 한자어가 포함된 단어 전체를 합치면 1,259개로 전체의 79%를 차지한다. 이에 비해 고유어는 349개 22%, 외래어는 395개 25%에 불과하다. 한자어의 비중이 높기는 하지만 한문의 조어 방식을 따라 만들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 한자어의 수는 그리 많지 않다. ‘건학(建學), 관의(官意), 내원(來院), 내점객(來店客), 분도(分道)’ 등 아무리 넓게 잡아도 수십을 넘지 못한다. ‘백인백색(百人百色), 이부동생(異父同生), 조강지부(糟糠之夫)’는 ‘십인십색(十人十色), 이복동생(異腹同生), 조강지처(糟糠之妻)’와 같이 이미 존재하는 한자어의 구성을 흉내내서 이루어진 말이어서 주목된다.

신어 목록에는 접사를 포함하여 의존적인 성분으로 볼 수 있는 말들이 자립적인 성분에 붙어 만들어진 말들이 다수 있다. 특히 한자어에서 많이 나타난다. 아래의 표는 한자어 중에서 10개 이상의 단어에 나타나는 의존적인 성분의 분포를 조사한 것이다.¹⁾

1) IC 분석에 의해서 의존적인 성분은 한번씩만 분석했다. ‘-’은 성분 어느 쪽에 자립 성분이 붙는가를 나타낸 것이다. 결합되는 성분의 기원 분류는 바로 앞이나 뒤에 오는 성분의 기원을 기준으로 하였다. 이에 따라 ‘자기방어적’, ‘한견주의’는 한자어에 붙은 것으로 계산했다.

결합 성분의 기원 의존 성분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	총 계
-성(性)	1	64	5	70
-화(化)	2	38	7	47
재(再)-		39		39
-력(力)		26	1	27
-적(的)		23	2	25
-자(者)		23		23
비(非)-		23		23
신(新)-		16	3	19
-인(人)	1	12	2	15
무(無)-		15		15
최(最)-		15		15
-제(制)		11	3	14
-족(族)	2	4	8	14
-주의(主義)		12	1	13
고(高)-		13		13
초(超)-		11	2	13
탈(脫)-		11	1	12
대(大)-	1	10		11
-세(勢)	1	9		10
반(反)-		8	2	10
주(主)-	1	8	1	10
폐(廢)-		7	3	10
총 계	9	398	41	448

고유어 성분 중에서 두드러진 것은 ‘하다’가 결합된 경우와 ‘되다’가 결합된 경우이다. ‘하다’가 결합된 말은 모두 91개가 있는데, 이중 앞 성분이 고유어인 경우는 3개, 외래어인 경우는 19개이고 나머지는 한자어이다. 한자어 중에서 ‘화(化)’ 뒤에 다시 ‘하다’가 붙은 말은 26개이다. ‘되다’는 모두 26개가 있다. 이중 앞 성분이 외래어인 경우가 4개이고 나머지는 모두 한자어이다. 한자어 중에서 ‘화(化)’ 뒤에 다시 ‘되다’가 붙은 신어는 모두 16개이다. 다음으로 높은 빈도로 나타나는 고유어 성분은 ‘-거리’가 붙은 말이다. 모두 10번 나타나는데 앞 성분은 한자어가 9번이고 외래어가 1번이다.

외래어 중에서는 ‘-룩(look)’과 ‘-맨(man)’이 두드러진다. ‘-룩’이 붙은 말은 모두 8번 나

타나는데 모두 의상 패션을 가리키는 데 사용되는 말이다. 그 앞에 오는 성분도 모두 외래어이다. 이에 비해 모두 11번 나타난 ‘-맨’은 한자어와 결합된 예도 4번이나 보인다.

4. 제시 방법

4.1. 표제어, 인용문, 출전의 형태로 제시하였다

4.1.1. 표제어

- 한글로 기본형을 제시했다
- 인용문에서 영문자가 사용되었을 때는 () 안에 영문자를 병기했다

4.1.2. 인용문

- 되도록 신어의 쓰임을 잘 보여줄 수 있는 것을 선택하여 의미를 알기에 충분하도록 길게 제시했다
- 원문의 모습을 반영하되 어문 규범에 어긋나는 부분은 손질했다
- 인용문이 긴 경우는 불필요한 중간 부분을 일부 생략하기도 했다. ‘-중략-’이라고 표시했다
- 유사한 문맥에서 사용된 예는 중복하여 제시하지 않았다
- 여러 문헌에서 발견되면 여러 개를 제시하기도 했다
- 표제어는 글자체를 달리하여 눈에 잘 띄도록 했다
- 표제어가 여러 번 나올 때는 그 중에서 한 곳만 글자체를 달리했다

4.1.3. 출전

- 신문은 신문명, 날짜, 면수를 표시했다
- 잡지는 잡지명, 통권, 면수를 표시했다

4.2. 번역어와 원어 등 관련어가 같은 인용문에서 사용되었을 때는 어느 한쪽에서 ‘’ 뒤에 다른 단어를 보여주어 참조하게 했다

4.2.1. 덜 사용된다고 판단되는 쪽에서 다른 단어를 참조하게 했다

4.2.2. 다른 말을 참조하게 할 때는 인용문, 출전을 따로 제시하지 않았다

4.3. 사전에 올라 있는 단어이지만 의미가 달라서 조사한 말 뒤에는 ‘ 의미가 다름’이라는 표시를 하여 구분하였다

4.4. 신어 역순 목록을 따로 제시했다

4.4.1. 마지막 음절 초성을 기준으로 역순으로 배열했다

4.4.2. 사전에 올라 있는 단어이지만 의미가 달라서 조사된 말 앞에는 ‘*’를 붙였다

자 례

머 리 말	iii
일 러 두 기	v
1. 조사 방법	v
2. 선정 기준	vi
3. 조사 결과	vii
4. 제시 방법	x
신어 목록	1
ㄱ	1
ㄴ	24
ㄷ	30
ㄹ	39
ㅁ	42
ㅂ	57
ㅅ	74
ㅇ	97
ㅈ	119
ㅊ	148
ㅋ	157
ㅌ	162
ㅍ	168
ㅎ	177
신어 역순 목록	189

신어 목록

ㄱ

가격파괴

「가격파괴」로 일컬어지는 유통 혁명의 거센 영향권 내에 들어 있는 일본에서는 최근 갖가지 기현상이 속출하고 있다. <조선일보 94.9.9. 11면>

가구원

통계청측은 『경기 활황으로 임금 상승률이 높아지고 여성들을 비롯한 가구원들의 취업이 늘어난 데다 증시 호조, 전세값 상승 등의 영향으로 배당금, 이자, 임대료 등의 재산 소득이 급증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조선일보 94.9.3. 11면>

가다서기

크고 육중한 차체를 가진 미국차는 주차공간이 넉넉지 못한 국내 도심 여건을 고려할 때 불편하기 그지없다. 또 가다서기를 반복하는 열악한 교통 상황에서 불필요한 연료 소비도 많아 경제적이지 못한 점도 있다. <한국일보 94.9.19. 18면>

가드펜스

서울시는 무단횡단 사고가 많은 도봉구 도봉로 삼성전자 앞 등 28개 지점에 가드펜스 안전병 미끄럼 방지 포장 등 안전 시설을 올 연말까지 설치키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조선일보 94.9.15. 29면>

가마솔더워

미녀 가수 최연제(23·본명 이연제)가 가마솔더워에 시원한 맛바람 작전으로 여름 인기 사냥에 나섰다. 작년 <너의 마음을 내게 준다면>으로 해성처럼 떠오르며 ‘텔런트 선우용녀의 딸’이란 꼬리표를 떼고 홀로서기에 성공한 그녀는 이제 신인 가수란 굴레를 벗고 보다 성숙한 모습으로 팬들 앞에 다가섰다. <일간스포츠 94.8.1. 13면>

가맹점

그러나 롯데가 가진 국내 최대의 유통업체란 이미지와 상품력·자금력이 장기적으로는 업계 판도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란 점에는 이의없이 받아들이고 있다. 오히려 롯데의 본격 가세가 최근 가맹점들과의 마찰로 위축돼 있던 편의점 업계의 분위기를 새롭게 바꾸는 계기가 돼 다른 유통업체와의 경쟁에서 편의점이 우위로 오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란 긍정적인 기대감도 내비치고 있다. <중앙일보 94.8.10. 29면>

가방모찌

연예계에 첫 발을 디딘 신인의 경우 스타가 되기까지는 능력 있는 매니저의 물심양면의 뒷바라지가 요구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것은 최근에 일어난 현상일 뿐이고, 과거에는 대부분 연예인 개인이 자신의 일을 직접 처리하는 게 더 일반적이었다. 매니저가 있다고 해도 연예인의 가방이나 들어주는 소위 가방모찌이자 심부름꾼에 지나지 않았다. <영레이더154 480면>

가속화되다

21세기를 향해 세계가 무한경쟁 시대로 나아가고 있으며 각종 정보의 홍수로 인해서 보다 가속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인간성 상실의 문제는 새롭게 정립되어야 할 역사적 과제다. <조선일보 94.9.29. 13면>

가십성

그런 뜻에서 우리는 우리 정치의 비생산성과 가십성을 탈피하기 위해서도 지금 이런 식으로 서로가 막 뒤에서 공격하고 책상 밑으로 발길질하는 치사한 「성명 장난」을 그만두기를 권고한다. <조선일보 94.10.5. 3면>

얼마전 모 언론사는 김 대통령 가족에 관한 가십성 기사를 썼다가 청와대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기도 했다. 그 언론사의 고위 간부는 차후 김대통령 가족 관련 기사는 확실한 것이 아니면 쓰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다고 한다. <신동아422 118면>

가이드라인

TV 프로그램의 폭력지수를 계량화하는 작업이 여론 조사 기관 또는 민간 단체에 의해 시작되면, 방송사들도 지금처럼 기준없는 제작이나 편성에 신중을 기하게 되리라고 본다. 이와 함께 폭력이나 선정에 대한 제작 가이드라인도 마련되어야 한다. <조선일보 94.9.27. 16면>

가정 부인네

“아빠, 아라베스크 호텔로 뷔페 먹으러 가요.” -중략-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가정 부인네들이 자기의 남편한테 하거나 남편을 가리켜 하는 말이다. ‘말’에 대해서 깊은 생각을 하지 않는 보통의 여느 부인네들만

이 아니라 이론바 최고학부를 나왔다는 ‘교양녀’들이 텔레비전에 나와서 하는 말이기도 하다. <한겨레신문 94.8.28. 9면>

가족호텔

내리해양관광휴양지는 찻집 토산물 및 토산품 판매장 전통 간이 음식점과 같은 판매 시설과, 게이트볼장, 배구장 농구장 수영장 국궁장 배드민턴장 등의 체육 시설 가족호텔 콘도 유스호스텔 여관 방갈로 등의 숙박 시설 놀이 시설 등의 시설물들이 들어설 예정이다. <조선일보 94.9.3. 28면>

간부직

우리가 누누이 지적했듯이 構造的(구조적) 비리를 근본적으로 척결하려는 改革(개혁) 프로그램을 마련하지 못한 채 간부직 대상의 투망식 司正(사정) 중심으로 개혁을 추진한 한계 때문인 것이다. <조선일보 94.9.15. 3면>

간식거리

차인표는 일요일인 지난 4일 간식거리를 잔뜩 사들고 극단 신시가 14일부터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에서 공연하는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 연습장인 구룡사를 찾은 것. <조선일보 94.9.7. 17면>

간이형

공동 개발은 빠르면 오는 96년 4월부터라도 시작, 건설비를 일본이 현재 사용 중인 원자로부터 3~4할 쉰 간이형으로 개발한다는 것이다. <조선일보 94.8.29. 2면>

간접광고

만화가 홍보 수단으로 인기를 모으면서 만화를 이용한 간접광고가 등장했다. -중략- 이같은 방식을 처음으로 시도하여 화제를 모으고 있는 것은 동원 참치. 최근 <만화로 재미있게 풀어보는 프로야구 퀴즈 특급>(이동규 그림, 호산문화 펴냄)을 통해 간접광고를 선보였다. <만화로...>는 지난해 7월 초판을 낸 책으로, 프로야구의 인기로 힘입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동원산업은 호산문화의 협조를 받아 제2판 5쇄부터 동원참치 광고를 신게 됐다. 즉, 기존 만화책의 내용 중 일부를 손질해서 광고를 삽입한 것이다. <일간스포츠 94.6.5. 15면>

간접영향권

기상청은 제26호 태풍 오키드가 북상함에 따라 28일 남해 먼 바다 등이 간접영향권에 들겠다고 밝혔다. <동아일보 94.9.28.30면>

간접화법

80년초 쿠바의 카스트로는 관영신문을 통해 쿠바 주민들이 당국의 제지를 받지 않고 해외 이주를 할 수 있다는 정부 입장을 간접화법으로 발표했다. <조선일보 94.8.21. 2면>

♣ 의미가 다름

간판주

한국 최고의 간판주가 교체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92년 이후 3년째 한국 주식시장에서 부동의 정상상을 지켜온 태광산업 주식이 최근 한국이동통신의 추격으로 '황제'의 자리를 위협받고 있는 것이다. <한겨레신문 94.9.6. 8면>

갈비촌

이들 대형 갈비집들은 장암리 477 일대에만 P이동갈비 W산골갈비 N갈비 C갈비 등 20개 업소가 갈비촌을 형성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음식점들이 2~3층의 불법 건축물을 지어 영업해 오고 있다. <동아일보 94.9.28. 27면>

갈비살

여러 겹의 고탄력 너도밤나무 갈비살이 매트리스에 가해지는 압력을 골고루 분산시켜 온몸을 부드러우면서도 단단하게 받쳐주는 새로운 침대입니다. <여성중앙300 242면 광고>

갈참

중고참·고참을 지나 제대를 몇달 앞둔 갈참이 되면 오전에는 '(비디오) 한편 때리기'로, 오후에는 '(낮잠) 한숨 때리기'로 시간을 보낸다. <신동아422 253면>

감각파

감각파 에로티시즘의 대명사 <북카치오 94>(유중환 감독)가 매혹적인 자태의 신인 여배우들을 대거 기용, 섹시 스타 부재에 허덕이는 영화가 최고의 화제로 떠올랐다. <일간스포츠 94.8.1. 15면>

감독권자

崔 장관은 이날 국회 내무위에 출석, 『천인공노할 집단 살인 범행을 막지 못한 것에 대해 치안 감독권자로서 정중히 사과한다』며 유감을 표명하고 이같이 밝혔다. <조선일보 94.9.23. 1면>

감별력

영화·비디오는 △ 영상 산업 진흥 강화 △ 국민의 감별력 및 비판적 적응력 배양 △ 정부 차원의 수입 편수 제한 등의 규제가 먼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겨레신문 94.8.11. 11면>

감산점

재판부는 또 『자진해서 구인에 응했다』는 점도 기각 결정의 논거로 제시했는데, 만약 그것을 加算點(가산점)으로 친다면 그들이 구인에 완강히 불응하면서 농성을 하고 항의 「투쟁」을 한 것은 그렇다면 減算點(감산점)으로 쳐야 할 판인데, 이에 대해서 재판부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도 궁금하다. <조선일보 94.9.1. 3면>

감소세

특히 지난 92년부터 증가세를 보였던 담배 수출이 올해엔 다시 감소세로 돌아설게 확실시된다. <문화일보 94.9.14. 9면>

상장기업의 순이익은 지난 88년 26.4%의 증가세를 보였으나, 89년 2.2%의 감소세로 돌아선 뒤 92년까지 내리 4년간 감소세를 보였으며, 특히 92년은 20%의 감소세를 보였다. <조선일보 94.9.17. 11면>

감염자

지난 5월은 에이즈가 알려지기 시작한 86년 이래 가장 많은 14명의 감염자가 발견된 달이었다. <시사저널245 4면>

감정화되다

그동안 한-미 통상 관계는 양국간의 상호 불신, 여건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인해

필요 이상으로 확대되고 感情化된 感(감)이 있다. <조선일보 94.9.11. 3면>

강수

공연히 회담 초기에 특별사찰이란 強手를 두다가 『대화를 통한 해결』 자체를 무산시킬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다. <조선일보 94.8.2. 2면>

강슛

후반 들어 공세를 취한 문일은 13분에 정재곤의 패스를 박병주가 페널티에어리어 오른쪽서 잡아 강슛, 골 네트를 흔들며 명암을 갈라놓고 만 것이다. <조선일보 94.9.29. 27면>

강슛하다

양팀은 후반 들어 일진일퇴의 공방을 벌이다가 추가 득점 없이 승부차기에 들어가는 듯 했으나 경기 종료 직전 정환주의 재치 있는 센터링 볼을 정재곤이 골에어리어 오른쪽서 받아 논스톱으로 강슛한 것이 네트에 걸리며 문일에게로 승리가 돌아가고 말았다. <조선일보 94.10.1. 27면>

강요성

팀원의 자발성과 창의력을 존중해 원하는 일만 맡긴다. 강요성 지시는 거의 없다. 신규 사업을 시작할 때는 손실 범위를 책정해 실패에 대한 책임 추궁을 하지 않는다. 반면 사업 결과가 좋으면 포상을 한다. <한겨레신문 94.9.5. 8면>

강제화하다

한미은행은 또 월 1회 이상 연월차 휴가를

권장 사항으로 못박았고 내년부터는 이를 강제화할 방침. <조선일보 94.9.1. 10면>

개미군단

종합주가지수 1000 돌파에도 불구하고, 고객 예탁금이 850배(3월말)의 3조1천억원대에도 못 미치고 있다는 사실은 현재의 주식 시장이 개미군단(소액 개인 투자자)의 폭넓은 호응이 아닌 일부 큰손(금융기관 대기업)에 의해 주도되고 그 과실이 독점되고 있음을 뜻한다. <한국일보 94.9.19. 7면>

개발력

삼구통상 CATV 사업 추진 본부 金炳琛(김병채) 부장은『홈쇼핑 사업의 성공 여부를 결정짓는 것은 상품 개발력』이라고 말했다. <조선일보 94.10.7. 39면>

개방화되다

지난 88년 공연 정지라는 최악의 상황을 맞았던 바탕골 소극장의 <매춘>이 다음해 공연윤리위원회의 '사전 심의' 조항을 폐지하는 데 일조했던 점에 비취 볼 때, 경찰의 이번 조치가 개방화되고 있는 문화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 아니냐는 게 연극계의 부풀어 오르는 우려이다. <한겨레신문 94.8.28. 14면>

개성인

백인백색의 개성인들이 모여 있는 신촌에는 거리마다 집집마다 그들의 빛깔을 담고 있다. <조선일보 94.10.7. 40면>

개인서비스

이번 특별 관리 대상 품목은 쌀 참쌀 콩

사과 배 밤 고추 배추 마늘 양파 쇠고기 돼지고기 조기 명태 김 등 15개 농축수산물과, 신사복 숙녀복 구두 학생 운동화 아동화 소주 맥주 청주 두부 참기름 식용유 등 11개 공산품 및 이용료 미용료 목욕료 설렁탕 자장면 등 5개 개인서비스이다. <조선일보 94.9.3. 10면>

개인연금

개인연금 시대가 활짝 열렸다. 국가 재정으로 국민들의 노후를 보살펴 줄 수 없으니 국민 개개인이 스스로 대비하라는 것이다. <시사저널245 66면>

개최권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 총회를 하루 앞둔 4일 한국의 고위 관계자는『태국의 방콕이 재정난을 앞세워 광고 대행사를 OCA가 선정하려는 데 크게 반발, 계약을 미루고 있다』며『만일 이 계약이 이번 총회 기간 중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대안이 없기 때문에 13회 대회 개최권이 부산으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선일보 94.10.5. 30면>

객장

그러나 최근 주가 상승은 일부 고가 우량주에 집중되고, 일반 투자자들이 많이 갖고 있는 금융주 등 대중주들은 철저히 소외당해 1천 포인트 돌파에도 불구하고, 증권사 객장 분위기는 그리 밝지 않은 편이다. <조선일보 94.9.17. 11면>

개단

눈감작할 사이에 벌어진 이같은 사복 경찰

끼리의 이중 오인 사격으로 지하철 구내에 있던 승객들은 갯단끼리의 총질인 줄 알고 놀라 대피하는 등 한때 큰 소동을 벌였다. <동아일보 94.8.26. 8면>

갱스터랩

갱스터랩(gangsta rap)이 랩 뮤직계에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갱스터랩이란 거칠고 순탄하지 못한 과거를 지닌 갱 출신들이 음악이라는 돌파로 랩을 선택해 보통 랩보다 훨씬 강렬하고 좌충우돌 웅얼웅얼거리는 하나의 장르로 자리잡은 랩을 이야기한다. <일간스포츠 94.8.30. 32면>

각출료

95년 7월부터 농어민에게 국민연금 제도를 확대 적용하되 **각출료**의 일부를 농특세에서 지원하고 가입 상한 연령을 65세 미만까지로 5년 확대한다. <조선일보 94.9.27. 7면>

거름망

일본 이코마(生驅)市는 부엌에서 음식 찌꺼기를 걸러내는 싱크대 배수구 **거름망**을 무료로 나눠준다. <조선일보 94.9.17. 28면>

거북은행

경부고속도로는 대전 인터체인지 - 죽암휴게소 구간에서 시속 20~30km의 서행운행을 했고 영동고속도로와 만나는 신갈분기점부터는 **거북은행**을 했다. <동아일보 94.10.4. 31면>

거저줍다

해태는 2회 이견열-박병호의 연속 2루타로 2점을 얻었고 5회 이순철의 타구를 LG유

격수가 빠뜨리는 사이 3점을 거저줍는 행운까지 겹쳤다. <조선일보 94.9.1. 27면>

거품

이같은 실물 시장과 자금 시장의 괴리, 즉 심상치 않은 **거품**이 금융권 일각에서 생성돼 조금씩 국민 경제 전반으로 퍼져나가고 있다. <한국일보 94.9.19. 7면>

♣ 의미가 다름

거품화하다

그러나 제조업 취업자 수는 미미한 증가에 그친 반면 도소매업 및 음식 숙박업 취업자 수는 급격히 늘어 제조업 주도로 건설하게 이루어져 온 최근의 경기 호황이 서비스업 쪽으로 **거품화**할 우려를 낳고 있다. <동아일보 94.8.24. 11면>

건강성

소설가 **崔性珏**씨도 『이같은 패륜아를 낳은 것은 기형적인 가치관을 가진 우리 사회』라며 『우리 사회가 **건강성**을 회복하는 것만이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동아일보 94.9.22. 3면>

한 사회의 성숙성과 **건강성**은 갈등 구조의 정치적 사회 정책적 해소 능력에도 연관되지만, 그에 못지않게 사회적 규범과 공공질서의 권위에도 밀접히 연관되어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조선일보 94.9.23. 3면>

건살구

건포도와 작게 자른 **건살구**는 술을 부어 둔다. <여성중앙300 573면>

건실화하다

특히 他 기업 출자 제한 제도는 잉여금이 생기면 다른 기업에 출자하기보다 자기 기업을 키워 나가는 데 사용하도록 해 회사를 전문화시키고 재무 구조를 건실화하며, 문어발식 확장을 억제하겠다는 취지다. <조선일보 94.8.31. 11면>

건전성

공보처는 애초 △ 지역 사회에 대한 기여도나 연고성, 출자자의 적합성과 성격 등을 고려해 판단하는 '주주 및 임원의 적격성' 항목에 4백50점 △ 재정 능력이나 재산 축적 과정의 건전성, 사업 운영 건전성 등에 3백점 등 자의적 판단이 가능한 항목에 높은 점수를 배정하고 방송 운영 능력과 직결된 조직·인력 운영 계획, 프로그램 편성 및 확보 계획 등에는 2백50점만 할애해 제도적으로 방송 운영 능력 외적인 요인이 개입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그동안 받아왔다. <한겨레신문 94.8.11. 3면>

최근 부녀회들은 알뜰 시장과 같은 각종 수익 사업을 적극적으로 벌이고 있지만 수익금의 많은 부분이 아파트에 환원되지 않아 건전성을 의심받는 곳이 적지 않다. <조선일보 94.10.5. 19면>

건전화하다

정부는 재정 긴축을 통한 경기 과열을 억제하고 통일에 대비한 재정 수지를 건전화하려는 목적에 내년도 예산안을 일반 회계에서 7천억원을 채무상환에 돌려 사실상 첫 흑자예산안으로 편성했다. <조선일보 94.10.1. 19면>

건학

홍총장은 선언문에서 『한국 사회는 지금 심각한 도덕적 위기에 봉착해 있다』고 전제하고 『황폐한 도덕과 지성의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고려대가 제2의 建學(건학) 결의로 나서기로 했다』고 말했다. <조선일보 94.10.11. 31면>

결개그림

한때 구속 사태까지 몰고온 「결개그림」이 지금은 버젓이 국립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등 갖가지 격변상의 묘사에서 현 사회에 대해 전반적인 냉소가 드러난다. <조선일보 94.9.23. 15면>

결신증

시골 마을에서 식품점 배달원으로 일하는 길버트 그레이프(자니 텡)의 콩가루가정이 소개된다. 아버지가 목을 매 자살했고 어머니는 2백kg이 넘는 결신증 환자다. 누나는 노처녀로 늙어가고 있고 철부지 여동생은 멧부리기에 바쁘다. 정박아인 남동생은 틈만 나면 높은 곳에 기어 오르는 말쑥꾸러기다. <문화일보 94.6.16. 16면>

검은돈

가끔 검은돈의 은신처로 등장하는 CD(양도성 예금증서)가 시판 10년만에 발행고 20조원을 돌파하며 은행 주력 상품으로 급부상했다. <조선일보 94.8.19. 11면>

노승우 의원(민자)은 “현행 실명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차명거래를 사실상 인정해 검은돈이 얼마든지 활개치도록 한 데 있다”고 지적하고 “우리나라도 돈세탁을 막기

위해 돈세탁 방지법을 입법화해 관련자를 형사처벌하고 돈세탁을 거친 재산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겨레신문 94.10.1. 4면>

겉핥기

그래서 이번 국방위 국감은 과거 어느 때보다 진지한 정책 감사의 면모를 보였다는 평가를 받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자신들이 군의 위기로까지 규정했던 사건을 그들 스스로 또 하나의 「인기 품목」쯤으로 여기고 「겉핥기 국감」으로 지나쳤거나, 어이없는 따돌림을 당했다는 비판을 면치 못하게 된 것이다. <조선일보 94.10.7. 3면>

게임메이커

연세는 이상민과 서장훈, 고려는 쌍돛대 전희철 현주엽이 각각 대표팀에 차출됐으나, 고려는 박재현 박훈근으로 80% 이상 땀질이 가능한데다 게임메이커인 김병철과 슈터 양희승이 건재,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조선일보 94.9.29. 26면>

게임팩

7월 1일부터 컴퓨터 불법복제 사범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가운데 불법복제된 컴퓨터 게임팩을 밀수입해 시중에 판매해 온 업체가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조선일보 94.8.29. 31면>

겨울잠

아이티의 한낮은 찌는 듯이 덥다. 그러나 이 나라의 정국은 아직도 긴 겨울잠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 <조선일보 94.9.25. 6면>

♣ 의미가 다름

겨자탄

미군은 이번 아이티 침공에서 새로운 비살상용 무기를 다수 선별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돌 등으로 무장한 민간인들을 쫓기 위해 사용할 최루탄 및 겨자탄과 고출력 레이저 및 섬광탄, 적을 꼼짝 못하게 만드는 끈적거리는 연기 등이 새로 등장할 것이라고 <인터내셔널 디펜스 뉴스>가 전했다. <한겨레신문 94.9.17. 5면>

격려성

국회 국방위는 6일 해군본부에 대한 감사도중 金東鎭 육군 참모총장을 감사장으로 불러 53사단 장교 탈영 사고에 대한 후속 조치를 보고 받았으나, 질책보다는 격려성 발언들이 주류를 이뤄 처음 사건을 따졌을 때와는 대조적. <조선일보 94.10.7. 4면>

격려자

이 『공해』의 매개질-주사과의 배후 조종자는 몰라도 격려자 고무자를 한국 사회에서는 다양한 분야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조선일보 94.8.27. 5면>

견학자

문화재 건축 전문 시공사인 志軒건설 金榮一 상무는 -중략- 「우리 것은 왜소한 것」이라고 왜곡된 통념을 가진 견학자들이 한국식 3층 높이의 웅장함에 놀라고 있다고 말했다. <조선일보 94.9.11. 13면>

결식노인

油公 울산컴플렉스는 울산 YMCA와 공동

으로 최근 울산시 달동 종합사회복지관에 결식노인들에게 무료 점심을 제공하기 위한 식당을 열었다. 이번 사업은 유공이 식재료비 일체를 부담하고 울산 YMCA 자원봉사자들이 조리 및 주방일을 담당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중앙일보 94.8.10. 28면>

결함투성이

많아야 2~3개의 응용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우리에게 시카고는 어쩌면 필요 없을, 그리고 주체하기에 결코 녹록하지도 않을 대단히 많은 신기술들을 강요할 것이다. 그리고 이토록 많은 기능과 기술을 수용하다 보니 「시카고」는 어쩌면 그 옛날 결함투성이의 윈도우 3.0을 재현할지도 모른다. <전자신문 94.9.9. 22면>

겹경사

최근 이탈리아 밀라노의 제46회 세계사격 선수권대회에서 금 3, 은 2, 동 2 등 무더기 메달을 따내는 기염을 토해 축제 분위기에 휩싸인 한국 사격 대표팀에 경사가 잇따르고 있다. 대한사격연맹(회장 김남구)이 자체 규정에 따라 모두 1억8천만 원에 이르는 거액의 포상금을 풀기 때문이다. -중략- 이들은 또 체육진흥공단에서 지급하는 연금도 타는 겹경사를 맞았다. <한겨레신문 94.8.11. 15면>

신원은 내수와 주가에서 모두 1위를 차지하는 겹경사를 맞보았다. 수출 전문업체였던 신원은 89년 내수 공략 이후 전체 매출액에선 훨씬 앞서 있으면서도 내수 부문에서는 나산과 대현에 밀려오다 올 들어 마침내 내수 1위를 차지했다. <한겨레신문 94.8.29. 8면>

경기력

이제 태권도는 한국의 전유물이 아니다. 스페인 등 라틴세가 벌써부터 경기력-행정력에서 도전하고 있으며 여자의 경우 신장-체력이 월등한 유럽-미국세에 중주국의 자존심을 구긴 지 오래다. <조선일보 94.9.5. 25면>

경륜장

눈썰매장 경륜장 볼링장 수영장 관광지 개발 풍물시장 운영 골재 채취 등 수익 사업을 통해 재정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경기도 내 일선 시, 군들이 각종 아이디어를 짜내고 있다. <동아일보 94.8.20. 27면>

경쟁라운드

UR에 이은 「뉴라운드」라고 불리는 분야가 다 여기에 해당된다. 예를 들면 환경라운드(Green Round)나 競爭라운드(Competition Round) 등도 역내 국가간 무역자유화 추진 일정에 포함시켜 논의해 나가자고 주장했다. <조선일보 94.9.1. 11면>

경제정의

경제정의 부재가 狹富 소비를 부르고 또 이것이 사회 구성원 간 골을 깊게 해 갈등을 증폭시킨다는 것이다. <동아일보 94.9.24. 1면>

경종적

민자당은 박홍 총장 발언의 경종적 의미를 강조하며 박 총장을 강력히 변호했다. -중략- 문정수 사무총장은 “박 총장의 얘기를 계량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사회 각계각층

이 병들고 늙아빠진 사상에 집착해 있는 것에 경종을 울리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한다”면서 “사회 지도층은 박 총장의 우국충정 어린 경종을 귀담아 듣고 주사파가 더 이상 만연하지 않도록 단속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겨레신문 94.8.27. 4면>

경직성

서울대생 오유진(25·경영3) 씨는 “박 총장과 문의 최대 피해자는 한총련 간부들이 아니라 오히려 사회 분위기의 경직성으로 비판적 사고마저 잃어버린 국민과 우리 사회 전체”라면서 “터무니없는 발언을 그대로 수용해 전파한 언론들도 박 총장과 함께 각성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한겨레신문 94.8.21. 15면>

경직화

정보 발신지로서의 위치가 역전된 배경은 여러 가지로 설명될 수 있다. 우선 주일대사관 관계자들은 그동안 북한에 대한 정보를 폭넓게 축적하고 분석해 온 한국의 각 기관들의 능력이 객관적으로 입증됐기 때문으로 풀이한다. 또한 북한 체제의 경직화로 일본에 있는 총련 관계자들이 변화의 흐름을 체계적으로 설명할 정보를 갖지 못하거나 능력이 떨어졌다는 점도 지적된다. <한겨레신문 94.8.26. 5면>

경찰력

「민간경비업」도 부족한 경찰력을 보완하고 각 계층의 다양한 경비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보다 확대돼야 한다. <조선일보 94.10.1. 29면>

계량적

민자당은 박홍 총장 발언의 경종적 의미를 강조하며 박 총장을 강력히 변호했다. -중략- 문정수 사무총장은 “박 총장의 얘기를 계량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사회 각계각층이 병들고 늙아빠진 사상에 집착해 있는 것에 경종을 울리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한다”면서 “사회 지도층은 박 총장의 우국충정 어린 경종을 귀담아 듣고 주사파가 더 이상 만연하지 않도록 단속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겨레신문 94.8.27. 4면>

계량화하다

이제는 TV 프로그램의 폭력지수(暴力指數)를 계측해야 한다. 「지존과 사건」 발생 이후 TV 비디오 등 영상매체 전반의 문제점이 부각되면서, 차체에 폭력을 계량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조선일보 94.9.27. 16면>

계산속

극 중에서 그는 『언니(최진실)가 뭇땀에 그런 보잘것없는 남자(이병헌)랑 결혼하려는 지 모르겠다』며 신세대다운 계산속을 보이다가도, 직장 다니는 어머니를 위해 집안일이며 동생 챙기기도 도맡아 하는 착한 딸이다. <조선일보 94.8.21. 15면>

계산원

국내 첫 할인점이라 할 수 있는 창동점은 계산원과 진열대에 상품을 채우는 직원 외에 종업원을 두지 않는 소비자 셀프서비스, 무배달, 묶음판매 등의 독특한 관리·영업 방법을 통해 줄어드는 비용을 가격에 반영시켜 상품값을 정사가격보다 30% 가까이

싸게 했다는 게 E-마트쪽의 설명이다. <한겨레신문 94.9.8. 8면>

계파성

趙 의원은 현재로서는 비주류층이 전폭적인 지원을 할지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스스로도 『파벌싸움화된 경선은 본선에서당이 총력전을 펼 수 없게 한다』며 계파성을 배척하고 있다. <조선일보 94.9.5. 4면>

계획범죄

이들의 이런 범행이 환각 상태나 정신병적인 충동에 의해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게 아니라 치밀하게 준비된 계획범죄라는 점도 주목된다. <한겨레신문 94.9.22. 3면>

고가차

관악소방서는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2백80명의 인원과 소방차 24대, 고가차 2대, 화학차 1대 등 모두 34대의 차량을 갖추게 된다. <조선일보 94.9.7. 29면>

고강도

전노대와 대기업 노조들이 제2노총 설립 등 재야 노동계의 당면 목표를 앞두고 勢과시를 위한 고강도 투쟁이 예상되고 있어 철도·지하철의 동시파업 움직임을 적기에 차단하지 못할 경우 80년대 이후 최악의 노사 분류로까지 비화될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다. <한국일보 94.6.21. 30면>

이임생은 청소년 대표와 94 바르셀로나 올림픽 대표를 거치면서 1m 83·79kg의 육중한 몸집에서 나오는 힘과 고강도의 점프력을 갖춘 수비로 명성을 떨쳤으며, 그와 몇

진 콤비를 이뤘던 강철은 빠른 스피드와 지칠 줄 모르는 체력으로 부동의 오른쪽 풀백으로 자리를 굳혔다. <한겨레신문 94.8.11. 15면>

고객님

명함에 뽀뽀 대신 휴대폰 전화번호를 적어드렸어요. 신뢰감도 있고 고객님의 불편사항도 즉시 상담해 드릴 수 있으니 실적도 물론 오르겠죠. <월간조선172 15면>

고급화

이들 품질 인증 쌀은 아직 전체 쌀의 1.5%인 6만t 정도에 불과하지만, 20kg짜리의 경우 다른 상표 쌀보다 1천원 가량 비싼 3만3천~3만6천에 거래되는 등 쌀의 고급화 및 차별화를 이끌고 있다. <조선일보 94.9.29. 19면>

고급화하다

그리고 대중 교통수단인 시내버스를 고급화하여 차량 실내를 아늑하게 꾸미고, 경음악이 흘러나오는 가운데 녹음테이프를 각 정류장을 알리는 등 이용 승객의 편의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조선일보 94.9.23. 13면>

고기능

라이시 장관을 비롯한 던롭위원회는 일단 미국이 일본이나 독일에 비해 최근의 고용구조 변화를 반영하는 高기능의 일자리를 충분히 공급하지 못하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조선일보 94.8.19. 11면>

고기술

일본은 오는 10월 1일부터 전략적으로 민

감한 高科技 제품의 對韓 수출 규제를 완화할 것이라고 통산성(MITI) 관리가 16일 말했다. <조선일보 94.9.17. 2면>

고부가가치

반도체 자동차 高부가가치 전자 제품을 대량 생산해 국제 시장에 성공적으로 수출하고 있는 한국과, 광물 농수산물 등을 주로 생산하는 칠레의 경쟁력을 수치로 비교하고 한국이 뒤지는 것으로 서열을 매기는 것은 상식으로 이해하기 힘들다고 했다. <조선일보 94.9.27. 10면>

고성장

현재 대림통상, 로얄토토에 이어 업계 3위의 시장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는 이 회사는 주택 60만호 건설 정책에 힘입어 지난 5년 사이 매출액이 50억원에서 1백93억원으로 4배 가량 늘어나는 고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한겨레신문 94.9.1. 8면>

이는 앞으로 高성장-高주가-高원화 시대를 맞아 국내 자금 시장이 크게 움직이고, 특히 기업의 경영 환경과 개인의 투자 활동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을 시사하고 있다. <조선일보 94.9.17. 1면>

고수익

이런 감세 혜택을 감안하면 금융권 최고의 고수익 상품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조선일보 94.8.23. 10면>

고스톱족

특급 호텔 객실에서 웬 고스톱? 서울 시내 각 특급 호텔마다 고스톱 손님들로 골머리

를 썩이고 있다. -중략- 시내 중심가에 자리잡은 L호텔은 '서머 패키지'를 실시한 지난달부터 고스톱판을 벌이는 손님들이 몰려들기 시작, 요즘은 주말의 경우 20~30여개의 객실이 고스톱족들에 의해 점유당하고 있다고 말한다. <스포츠조선 94.7.29. 19면>

고신장

웰컴은 지난 2분기 방송 광고 분야에서만 75.3%라는 고신장을 기록하며 다크호스로 부상했다. <조선일보 94.9.5. 11면>

고원화

이는 앞으로 高성장-高주가-高원화 시대를 맞아 국내 자금 시장이 크게 움직이고, 특히 기업의 경영 환경과 개인의 투자 활동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을 시사하고 있다. <조선일보 94.9.17. 1면>

고위급

중국과 베트남은 15일 국경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고위급 회담을 재개했다. <동아일보 94.8.16. 7면>

고전압

삼성중공업이 이번에 개발한 전자선 가속기는 제자·염색·염료 폐수 등 분해가 어려운 물질에 고진공·고전압 속에서 발생된 전자선을 쬔어 이 물질의 화학 결합을 분쇄, 재처리할 수 있다. <중앙일보 94.8.10. 27면>

고주가

이는 앞으로 高성장-高주가-高원화 시대를 맞아 국내 자금 시장이 크게 움직이고, 특히 기업의 경영 환경과 개인의 투자 활동

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을 시사하고 있다. <조선일보 94.9.17. 1면>

고탄력

여러 겹의 고탄력 너도밤나무 갈빗살이 매트리스에 가해지는 압력을 골고루 분산시켜 온몸을 부드러우면서도 단단하게 받쳐주는 새로운 침대입니다. <여성중앙300 242면 광고>

고품질

그럼에도 일본 기업들이 한국에 관심을 갖는 것은 한국이 숙련된 노동력과 사회 기반시설, 기술력 등에서 동남아나 중국보다 한 단계 위이기 때문이다. 정해진 기간에 고품질을 갖춘 제품을 납품할 수 있는 곳으로는 한국이 최적격이다. <한겨레신문 94.9.1. 8면>

펄프를 덜 사용하고도 고품질의 인쇄 용지를 싼 값에 제조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됐다. <조선일보 94.10.5. 23면>

고학력자

13일 열린 이 콘테스트에는 碩士(석사) 이상의 고학력자만 20여명이 몰린 것을 비롯, 영어 학원 강사, 前 미스 남가주, CF 모델 등 다양한 경력자들이 지원, CATV에 대한 젊은층의 뜨거운 관심을 나타냈다. <조선일보 94.9.15. 23면>

고할인

이번 바젠세일의 특징은 각 백화점마다 자사 브랜드를 비롯, 40~50%의 고탈인 품목을 크게 늘렸다는 점이다. <조선일보

94.9.29. 19면>

백화점마다 차이는 있지만 예년에 비해 40% 이상 고탈인을 하는 품목이 늘어난 점도 특징이다. <조선일보 94.10.7. 33면>

고해성사

「헐리우드 키드의 생애」는 처음 거짓말을 하고 도둑질을 배웠던 기억처럼 쉽게 내보이지 못할 고해성사다. <동아일보 94.8.12. 18면>

♣ 의미가 다름

골수팬

OB 투수 김익재가 27일 잠실 롯데전에 앞서 덕아웃을 찾아온 한 팬으로부터 보약을 전달받고 감격. OB의 골수팬이라고 밝힌 정진성 씨(43)는 14게임에 나가 1패를 기록해 속칭 '슬픔조'의 일원이 된 김익재를 격려하기 위해 영지와 여러가지 약재를 섞은 보약 한달치를 싸들고 온 것. <스포츠조선 94.5.28. 4면>

골잡이

또 노정윤의 소속팀으로 유명한 산프레체는 올 시즌 전반기 우승팀으로 하세크(체코) 등 골잡이들이 준비해 공격력이 돋보이는 팀이다. <조선일보 94.9.11. 22면>

골풀

경기 방식은 가로 20~25m, 세로 15~20m의 구장에서 경기 시간(30분) 동안 2팀(1팀당 5명)이 순서를 정해 스틱으로 공을 때려 3개의 문(게이트)을 통과한 뒤 중앙에 세워진 골풀을 맞춰 점수를 얻는 것이다.

<조선일보 94.8.29. 21면>

공개념화하다

대기나 수질 오염 추방이 그러하듯이 소음 공해도 공개념화해야 한다. <조선일보 94.8.23. 5면>

공교육비

한해 무려 10조원이 넘는다는 사교육비 지출은 서슴지 않으면서 공교육비 부담에는 인색한 잘못된 교육 현실부터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조선일보 94.9.7. 15면>

사학은 공립과 비교하여 볼 때 교원 확보를 비롯한 실험실습비 및 시설도 부족할 뿐 아니라, 고등학교의 경우 93년 현재 학생당 연간 공교육비가 41만원도 채 안 된다. <한겨레신문 94.9.13. 5면>

공동육아

맞벌이 부모들의 최대 고민인 육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슷한 처지의 30대 맞벌이 부부들이 뜻을 모아 실험적인 공동육아 터전을 만들었다. <동아일보 94.8.20. 16면>

공동화

張永達 의원(전주 완산)도 『金永三 대통령은 92년 대선 때 전주시의 직할시 승격을 공약했는데, 호남 지역에 대한 공약은 안 지켜도 된다는 것인가』라며 『군사정권 30년 동안 호남에 대한 차별 정책으로 인구가 수십만명씩 빠져나가는空洞化(공동화) 현상을 빚게 한 것에 대해 민자당 대표부부터 뼈아픈 반성을 해야 한다.』고 주장. <조선일보 94.9.17. 4면>

공론화하다

輿圀은 그같은 방향의 행정 구역 개편 문제를 적극 公論化하고, 필요하다면 공청회는 물론 시-군통합 때처럼 해당 직할시-도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주민 여론조사도 실시키로 했다. <조선일보 94.9.3. 1면>

공사화하다

김영삼 대통령은 22일 『정부는 우정 사업의 질적 도약을 위해 97년부터 우정 기구를 公社化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선일보 94.8.23. 2면>

공생주의

저자는 미국 문단에서 家長 대접을 받는 원로 작가이다. 그린라운드와 21세기라는 대전환기를 맞아 인류에게 『지구촌 생명체의 공생주의』를 애타게 호소하기 위해 쓴 책이라 할 수 있다. <조선일보 94.8.13. 10면>

공안몰이

“주위 동료들이 박 총장의 말을 액면 그대로 믿고 ‘정말 큰 일이다’고 할 때는 똑같은 ‘주사파’로 몰릴까봐 반박도 못했다”는 최 씨는 “대학 총장이 과거 군사 정권에서나 있었던 공안몰이에 앞장서고 있는 게 안타깝기 짝이 없다”고 말했다. <한겨레신문 94.8.20. 12면>

공조수사

정부와 民自黨은 23일 강력 폭력 조직 범죄 예방을 위해 현재 운영 중인 「조직폭력특별수사대」를 지방청 및 경찰서 단위로 확대 운영하는 한편 관할권 다툼이 없도록

공조수사 체제를 강화기로 했다. <동아일보 94.9.24. 2면>

공주병

극중에서 심은하는 좋은 대학을 나왔지만 한 직장엔 오래 있지 못하는 공주병 환자 나승리 역을 맡았고, 그의 고종사촌 박성빈 역으로 캐스팅된 이창훈은 요즘 젊은이답지 않게 성실한 대학 2학년생으로 등장한다. <여성중앙300 848면>

공테크

공간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空테크」 바람이 일고 있다. 최근 2~3년 사이 시간 경쟁력 제고를 위한 「時테크」가 많은 기업에 전파된 데 이어 공간의 기능성 쾌적성 경제성을 통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려는 공테크가 빠른 속도로 파급되고 있다. <한국일보 94.9.15. 11면>

과밀화

도시 과밀화 문제의 뿌리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소외되어 농촌을 빠져 나올 수 밖에 없는 농촌의 과소화에 있다. <동아일보 94.9.22. 5면>

과소비

문제는 최근의 이런 과소비 현상은 불로소득 계층에 의해 주도되어 갈수록 도를 넘고 있으며 저소득층의 상대적 박탈감을 증폭시키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고 있다는 데 있다. <동아일보 94.9.24. 2면>

과소화

도시 과밀화 문제의 뿌리는 정치 경제 사

회 문화적으로 소외되어 농촌을 빠져 나올 수 밖에 없는 농촌의 과소화에 있다. <동아일보 94.9.22. 5면>

과시파

헬스장을 찾는 학생들 가운데는 체력 향상과 함께 올여름 해변가에서 자신의 근육질 몸매를 뽐내기 위해 구슬땀을 흘리는 '과시파'들도 적지 않다. <스포츠조선 94.7.30. 21면>

과학수

예를 들어 의류는 값비싼 디자이너 브랜드 보다는 값이 싸면서도 자신이 직접 코디해 개성을 나타낼 수 있는 제품이 선호되고 음료수 하나를 선택해도 식물성 섬유 음료나 생수 미네랄워터 같은 과학수를 마신다. <일간스포츠 94.6.30. 31면>

관광특구

교통부가 27일 발표한 제주 등 5개 지역에 대한 관광특구 지정은 그동안 관광특구 지정 신청을 한 지역의 주민들과 관광업계의 큰 관심 사항이었다. 관광특구에서는 기존의 식품위생법이나 공중위생법의 영업 시간 제한을 받지 않고 24시간 영업을 가능하다. 따라서 이 지역에서 숙박업, 음식점, 술집, 단란주점, 전자오락실, 목욕탕 등 식품접객업이나 공중위생업을 하는 사람은 물론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로 부동산 가격 상승 등이 기대되기 때문에 일반 주민들로서도 자신들의 지역이 특구로 지정받을 것 인지의 여부에 관심을 쏟아왔다. <한겨레신문 94.8.28. 14면>

관리력

남녀 배구 대표팀이 불안하다. 관리력 부재와 선수 선발에 혼선을 빚고 있는데다 코칭 스태프와 선수간의 '불화설' 등이 나돌며 오는 10월 히로시마 아시안 게임을 앞두고 전력 불안을 드러내고 있다. <일간스포츠 94.6.8. 8면>

관의

관료가 한 달만 자리에 있으면 官權(관권)이 생긴다. 두 관료가 두 달만 있으면 官意(관의)가 민의를 제치게 된다. <조선일보 94.9.9. 1면>

관행화되다

그러나 경기 상승으로 세입이 늘어날 때면 으레 追更(추경)을 편성해 지출을 확대해 온 것이 거의 관행화됐던 것이다. <조선일보 94.9.27. 3면>

광고맨

“따라서 프로급 광고맨들의 활약상을 그리는데 만큼 영화 광고도 뭔가 다른 영화와의 차별성을 뒤야 한다”는 게 이번 광고 문안을 만든 영화기획자인 유희숙 씨의 말이다. <스포츠조선 94.9.28. 32면>

광공해

광공해란 공해와 광해의 복합 조어. 대도시의 하늘을 뒤덮고 있는 먼지층에 인공 불빛이 되반사돼 밤하늘을 밝게 만드는 현상. 광공해가 심하면 밤 하늘은 본래의 까만색을 잃어버리고 희뿌옇게 바래져 별을 볼 수 없게 된다. <동아일보 94.9.22. 17면>

광역권

전국을 7개 광역권으로 나눠 균형 개발하는 계획 가운데 처음으로 아산만 광역권 개발 사업 내용이 6일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냈다. <조선일보 94.9.7. 5면>

광역화

정부는 -중략- 蔚山の 직할시 승격과 釜山 大邱 仁川의 주변 지역 편입을 통한 광역화 등은 계속 추진키로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일보 94.8.31. 2면>

광해

日 환경청은 최근 지나치게 현란한 조명으로 생기는 광해와 밀집한 고층 빌딩 사이에서 발생하는 강풍 공해의 실태를 국가차원에서 처음으로 조사해 이들 공해의 불쾌도 등을 나타내는 기준치의 설정을 검토키로 했다. <동아일보 94.8.18. 6면>

괘씸죄

서울 형사지법 배석판사로 근무하던 63년에는 朴正熙 최고회의 의장의 대통령 출마를 반대하는 글을 썼다는 이유로 「괘씸죄」로 구속된 宋堯讚 前 육참총장을 구속적부심에서 석방하는 용기를 보여주기도 했다. <조선일보 94.9.9. 2면>

그 배경을 놓고서도 ‘집중 포화를 예방하고 장래를 위해 비축해 놓는 보호용 퇴각이다’, ‘차세대를 겨냥한 듯한 행보와 대통령 차남 현철 씨와의 불화로 인한 괘씸죄 적용이다’는 등 관측이 엇갈렸다. <시사저널249 21면>

이번 통일원 국감, 그 가운데서도 통일정책 실에 대한 국감이 그 어느 때보다 강도 높

을 거란 얘기가 벌써부터 떠돌았었다. 통일원 예산 3억여원이 외통위 소속 의원들의 外遊 비용으로 전용된 사실이 통일정책실에서 제출한 국감 자료에 나와 언론에 공개됐기 때문이다. 때문에 꾀씸죄를 면하기가 어려울 거란 얘기였다. <동아일보 94.9.30. 4면>

괴박테리아

최근 유럽에서 집단으로 발생한 사람의 살을 파먹는 괴(怪)박테리아 환자가 국내에서도 이미 발생해 숨졌다는 주장이 나왔다. <스포츠조선 94.5.27. 18면>

괴자금

박일 의원(민주)은 은행감독원에 대한 이날 감사에서 “최근 사채 시장에는 2%의 커미션만 주면 연리 6% 정도의 자금을 수조원까지 주겠다는 이른바 ‘괴자금 파문’이 날로 확산되고 있다”면서 “이러한 거액 사채자금을 알선해 주겠다고 재벌이나 중소기업을 찾아다니고 있는 사람이 전현직 금융계 고위인사들이라는데 이들이 누구냐”고 물었다. <한겨레신문 94.10.1. 4면>

괴청년

비주류측은 전날 밤부터 「스포츠형 머리의 건장한 청년」 1백여명을 동원, 행사장인 3층 국제회의장으로 올라가는 모든 통로를 차단했다. -중략- 이처럼 괴청년들의 철통같은 경비 속에 치러진 대회에서 비주류측은朴대표와 楊淳植 鄭相九 韓英洙 金龍煥 劉守鎬 朴哲彦 林春元 최고위원의 선출권을 만장일치 박수로 통과시키고, 金東吉 공동 대표를 상임고문으로 추대했다. <조선일

보 94.10.11. 4면>

교양녀

“아빠, 아라베스크 호텔로 뷔페 먹으러 가요.” -중략-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가정 부인네들이 자기의 남편한테 하거나 남편을 가리켜 하는 말이다. ‘말’에 대해서 깊은 생각을 하지 않는 보통의 여느 부인네들만이 아니라 이른바 최고학부를 나왔다는 ‘교양녀’들이 텔레비전에 나와서 하는 말이기도 하다. <한겨레신문 94.8.28. 9면>

구시대적

이 경험은 특히 어떤 노사 분쟁이라도 초기에 개입하면 모두 해결할 수 있다는 구시대적 노동 행정에 실질적인 쐼지를 박았다는 점에서 노동 행정의 주무부서인 노동부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한겨레신문 94.8.24. 18면>

구원책

북한이 『3不 현상』을 일시에 타결하는 유일무이한 구원책으로 매달리기 시작한 것이 핵이다. <조선일보 94.8.27. 3면>

구입가

이른바 「리펀드(Refund)」라고 불리는 미국의 현금 환불 제도는 소비자가 제품 구입 1개월 이내 반품을 원할 경우 제품의 하자 여부와는 상관없이 무조건 구입가로 환불해 주는 것이다. <문화일보 94.6.16. 9면>

구제율

감사원이 지난 91년부터 93년까지 3년 동안 국세청의 조세 관련 불복 사항에 대한

처리 실태를 감사한 결과 조세 반환 청구 행정 소송의 정부 패소율이 37.7%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서울 지방 국세청의 경우 지난 93년 97건의 이의 신청 가운데 1건만 받아들이는 등 직권시정률이 매우 낮았고, 심사 청구와 심판 청구 구제율은 각각 7.6%, 24.7%로 초기 불복 단계보다 상급심에 가서야 구제되는 사례가 훨씬 많았다. <한겨레신문 94.8.24. 2면>

구조재편성

☞ 리스트럭처링

국민차

과거 버스 같은 대중교통 수단 위주의 자동차 생산을 개인 승용차 위주로 전환, 한국의 「국민차」와 같은 「인민차」(韓貨 가격 4백만원대 미만)를 대량 보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조선일보 94.10.5. 6면>

국산화

현재 16메가D램의 경우 장비 20% 내외, 원부자재 50% 정도의 국산화를 실현한 삼성전자는 2백56메가D램에서 장비 30% 이상 원부자재 70% 이상을 국산화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동아일보 94.8.30. 11면>

국산화율

우리나라 개인용 컴퓨터의 '국산화율'은 가격 기준으로 노트북 컴퓨터가 15%에 불과하며 데스크톱 컴퓨터도 40%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겨레신문 94.5.20. 6면>

국제깡

「국제깡」으로 불리는 이 수법은 국내 사채

업자들이 급전을 유통하려는 사람들에게 고리의 선이자를 댄 돈을 빌려주고 신용카드를 받아 내국인 출입이 금지된 미군 부대나 외국에 가 현금 서비스를 받거나, 외국에 있는 교포 상점과 결탁해 상품 매출 전표를 허위로 작성해 카드사로부터 현금을 지급받는 것이다. <한국일보 94.6.18. 31면>

국책대

선정된 8개 대학 중 7개 학교가 모두 각 지역의 종합국립대학이라는 점이다. 이는 이번 국책대 선정에 참여한 대다수의 사립대학들을 우롱한 처사인 것이다. <동아일보 94.8.24. 19면>

군심

영관급 중견 간부들은 군 경력과 지식도 상당하고 초급 간부들을 꿰뚫어 보고 있다. 이들이 바로 軍心(군심)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조선일보 94.10.1. 7면>

굳히기

20일 프로야구 잠실 경기서는 김재현의 선제 만루포와 유지현의 굳히기 솔로 홈런에 힘입어 한화를 6대1로 제압했다. <조선일보 94.8.21. 23면>

굴삭력

이 굴삭기는 엔진 출력 1백80마력에 16.7t의 버켓 굴삭력을 갖고 있으며 12가지 작업 특성이 자동 선택되는 첨단 제어 시스템을 채택했다. <조선일보 94.9.5. 11면>

권력층

북한 권력층 내부의 반김정일 세력이 국제

사회에 자신들의 존재를 알리고 「김정일 체제가 구축되지 못하고 있음」을 전달할 의도로 보인다. <동아일보 94.8.24. 1면>

귀족화하다

이와 함께 일부 사립학교를 귀족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편으로 학교 성적이 우수하나 경제적 이유로 원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못하는 학생은 장학금을 확충하는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이다. <한겨레신문 94.9.13. 5면>

규제책

반면 예상되는 상업주의 만연에 대한 규제책을 세우라는 지적도 높았다. <조선일보 94.9.27. 25면>

그늘집

특위는 재해 예방 시설비 예치 여부, 입장료 징수 실태, 이용 요금표 게시 여부, 부킹 질서, 회원 운영 위원회 조직, 그늘집 등의 허가 및 음식 요금, 클럽 하우스 운영, 오수 정화 시설, 농산물 판매대 설치 등 50개 항목을 중점 조사했다. <동아일보 94.10.10. 29면>

그랜드슬래머

태권도의 '그랜드슬래머' 김재경(24·상무)은 이미 92 바르셀로나 올림픽과 세계 선수권, 아시아 선수권 등 종합 타이틀을 세 개나 차지한 화려한 경력을 갖고 있어 '신예'나 '기대주' 등의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 <한겨레신문 94.9.29. 18면>

그랜드슬램

한양대는 이어 8회 1사만루서 4번 이학균이 좌중간 그랜드슬램을 뽑아 승리에 쐐기를 박았다. <조선일보 94.9.9. 27면>

♣ 의미가 다름

그런지룩

美國이 엉뚱하게도 헌옷 수출로 째짤한 재미를 보고 있다. 유럽과 아시아 각국에서 몇년 전부터 낡고 닳은 청바지나 헌옷을 걸쳐 입는 이른바 그런지룩(GRUNGE LOOK)이 대유행하면서 美製 헌옷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동아일보 94.9.26. 13면>

그린라운드

저자는 미국 문단에서 家長 대접을 받는 원로 작가이다. 그린라운드와 21세기라는 대전환기를 맞아 인류에게 『지구촌 생명계의 공생주의』를 애타게 호소하기 위해 쓴 책이라 할 수 있다. <조선일보 94.8.13. 10면>

그린맨

이 캠프에서 대원들은 그린 콘서트 등을 통해 환경 파괴의 심각성을 알아보고 자연 보호 대책 등을 논의했으며 평소 환경 보전에 모범을 보여온 4명을 그린맨으로 뽑았다. <동아일보 94.9.12. 31면>

국내 환경 운동을 위해 애쓰는 그린맨들을 찾아내고 환경 정보를 전하는 이 프로그램에서 홍학표는 『주부들은 물론, 온가족이 실천할 수 있는 생활 속의 환경 정보를 전하겠다』고 다짐. <조선일보 94.10.11. 16면>

그린면허증

경찰청은 2일 안전 운전에 대한 제도적 지원 대책의 하나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운전 면허 적성 검사 면제 범위 확대안을 마련했다. -중략- 확대안에 따르면 현재 5년으로 돼 있는 적성검사 유효 기간 중 무사고·무행정처분을 받은 모범운전자는 적성검사 면제 기간을 2년 더 연장, 7년으로 하고 이 기간 중에도 무사고·무벌점을 기록하게 되면 향후 7년 동안 적성검사를 면제하는 그린면허증을 교부받게 된다. <중앙일보 94.9.3. 22면>

그린웨이

☞ 녹색길

극미량

어떤 냄새 속에 극미량의 다른 냄새가 섞여 있어도 이를 구별해 내 알려주는 '인공코'가 영국의 뉴트로닉스라는 업체에 의해 개발됐다. 영국 상공부와 양조업계 후원으로 개발된 이 냄새 감지 장비의 상품명은 인간의 코 구조를 단순화시켰다는 뜻에서 '노우즈' 즉, '코'로 지어졌다. <한겨레신문 94.8.28. 6면>

극성팬

연예인에게 민감한 10대들을 포함한 팬들은 자신의 우상을 상대로 닮아가고 싶은 욕망과 그들을 실제로 만나봤으면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는 게 사실이다. 개중에 극성팬들은 순수한 의미의 만남보다는 보다 적극적인 방법으로 연예인들과의 접촉을 시도하고 있다. <영레이디154 538면>

극장가

지난 17일부터 21일까지 5일간의 추석 황금연휴 기간 동안 극장가에 만만치 않은 관객이 몰린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조선일보 94.9.23. 16면>

근절책

李恒均 관세청장은 24일 전국 세관장 회의를 개최, 이같이 밝히면서 공직 사회 비리 근절책의 일환으로 자체 사정 활동을 강력히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조선일보 94.9.25. 11면>

근접비행사고

우리나라 상공에서 항공기 운항 중 서로 안전 거리 이내로 접근, 스쳐가는 이른바 '근접비행사고'(NEAR MISS)가 자주 발생, 항공기 공중 충돌 등 대형 사고의 위험이 상존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조선일보 94.10.5. 30면>

금융인

그에 따르면 한국의 경쟁력이 급락하고 정부의 간섭이 심하며, 금융의 자율성이 없고 중앙은행 정책이 경제 발전에 부정적이며 금융인이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이다. <조선일보 94.10.13. 5면>

금융전업기업가

금융전업기업가란 말 그대로 「오로지 금융업만을 하겠다는 사람」이다. 제조업같은 非금융업을 같이 해서는 안 되며, 기업이 아닌 개인이어야 한다. 은행 주식을 갖고 대주주 노릇을 하긴 하되 주식을 사는 돈은 회사돈이 아닌 자신의 호주머니에서 꺼내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중앙일보

94.9.3. 28면>

내년부터 은행 지분의 12%까지 소유할 수 있는 금융전업기업가 제도가 처음 도입되고 기존의 대주주들은 지분을 한도를 현행 최고 8%에서 4%까지 줄여야 한다. <조선일보 94.8.27. 8면>

급배기

보일러는 급배기 방식에 따라 자연 급배기식과 강제 급배기식 제품으로 나뉜다. <한국일보 94.9.19. 18면>

급배기하다

그동안 소비자들이 값이 싸 많이 찾았던 제품은 연소용 공기를 자연 통기력에 의해 급배기하는 자연 급배기 방식이었으나 올 들어 업체들이 생산을 중단하거나 공급 물량을 대폭 줄였다. <한국일보 94.9.19. 18면>

급부상하다

‘마스크’는 뉴라인 시네마가 5천만 달러의 막대한 제작비를 투입, 메이저급 흥행 영화사로 급부상하기 위해 기획된 초대형작으로 미국 2천여 극장에서의 개봉과 동시에 박스 오피스 상위 순위에 랭크된 화제작이다. <스포츠조선 94.8.20. 23면>

이에 따라 올해 초부터 실력자로 급부상한 당 정치국 상무위원 후진타오(52)와 천안문 사태와 관련해 실각했으나 복권의 조짐이 보이는 전 당총서기 자오쯔양 등이 후계 구도와 관련해 주목을 받고 있다. <한겨레신문 94.8.22. 5면>

급수난

제29호 태풍 「세스」가 12일 큰 피해를 남기지 않은 채 오전 10시쯤 동해쪽으로 빠져 나갔다. 세스는 경북 등 남부 지방에 1백50~35mm의 단비를 내려 급수난 완화와 발작물 해갈에 큰 도움을 주었다. <조선일보 94.10.13. 31면>

급신장세

중화학공업이 13%대의 급신장세를 거듭하는 데 비해 경공업 증가율은 3%에도 못미치고 있다. <조선일보 94.8.25. 3면>

급팽창

현재 국제 외환시장은 올 들어 하루 평균 1조 3천억 달러(1천40조 원)의 천문학적 거금이 국경을 넘나들며 거래될 정도로 급팽창을 거듭하고 있다. <문화일보 94.9.14. 6면>

급행권

그러나 金 대통령의 친서가 과연 北核 문제 해결의 急行券(급행권) 구실을 해낼지는 여전히 안개 속에 있는 상태라고 할 수밖에 없다. <조선일보 94.9.23. 5면>

기념비적

김대통령은 “암과 투병하면서 것처럼 방대한 작품을 완간하게 된 것은 우리 문학사에 기념비적인 업적을 남긴 것”이라며 “소설 속의 주인공이 온갖 풍상을 겪으면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끈질기게 살아가는 모습이야말로 우리 한국인의 모습”이라고 평가. <동아일보 94.8.28. 4면>

기능성

여성스런 분위기에 활동성과 기능성을 갖

취 남성적 분위기를 가미한 이 패션쪽을
백화점들은 구색을 많이 갖추 놓았다. <조
선일보 94.10.7. 37면>

기대주

프로 20년의 브래들리는 30회의 우승으로
지금까지 총 상금 4백53만 6천 달러를 획
득, 상금 랭킹 1위를 달리고 있으며 한국의
자존심 원재숙은 올들어 일본서 세 차례나
우승, 상승세를 타고 있는 기대주. <조선일보
94.10.7. 27면>

기동로

장단반도~서울간의 최단 접근로에 시가지
를 형성함으로써 적이 선택할 수 없는 기
동로로 만들기 위함일 것이다. <조선일보 94.
9.29. 5면>

기동화

범행의 속도를 가하고 범죄의 광역화 기동
화를 부추기는 도난 차량 처리를 신속히
해야 한다. 도난 차량이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되어 온 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동아일보 94.9.30. 3면>

기름띠

충북 청원군 강외면 쌍청리 (주)대한제지
(대표 梁승학)에서 1일 새벽 3~4시 사이
기름탱크에 보관 중이던 벙커C유 1천여 리
터가 밸브 고장으로 유출, 인근 미호천으로
유입돼 금강 상류 지역까지 5km를 오염시
켰다. 사고가 발생하자 대한제지 직원과 공
무원 등 2백여명이 미호천과 금강의 합수
지점인 금남교와 미호천교 등 5곳에 오일
펜스를 치고 기름띠 수거 작업을 벌였다.

<동아일보 94.9.2. 29면>

기본예절

교육부는 이와 관련, 일선 학교에서 초, 중,
고교생들에게 자연 훼손 안하기, 공공 장소
에 휴지, 쓰레기 안 버리기, 공원 등에서
꽃나무 꺾지 않기 등 기본예절 교육을 강
화토록 당부했다. <동아일보 94.9.16. 31면>

기쁨조

승객이 줄어 들어 고민하고 있는 중국의
택시기사들은 승객 유치를 위해 택시 안에
항상 예쁜 여성을 태우고 승객이 타면 이
여성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하고 있다.
-중략- 난징에서는 이미 택시의 20%가 이
런 대화 서비스는 물론이고 필요하면 추가
서비스도 제공하는데, 어떤 승객들은 '기쁨
조' 여성이 없는 택시는 아예 탈 생각을 하
지 않는다고 한다. <한겨레신문 94.9.1. 6면>

기사화하다

이보다는 코스타리카의 수출 업체 신용 조
사를 정확히 하라든가 혹은 위조 선적 서
류를 조심하라고 하는 편이 더 정확한 기
사가 될 듯 싶다. 비록 사소한 것이지만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기사화했으면 한
다. <조선일보 94.9.23. 13면>

기성학자

기성학자들은 비판 이론과 급진 이론을 소
개하는 것마저 꺼려, 운동권 학생들이 「地
下」에서 좌파 이론을 도입해야 하는 웃지
못할 일도 있었다. <조선일보 94.9.3. 6면>

기장화

더욱이 유통 구조의 현대화와 각동 도산매상의 기장화가 자연스럽게 유도되고 부가가치세나 특소세는 물론 소득세의 탈세는 설 땅이 없어질 것이다. <조선일보 94.8.29. 7면>

기정사실화하다

아직까지 정 고문쪽은 서울시장 후보 문제는 물론 내외연 가입 의사도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 미국 방문을 마치고 돌아오는 대로 명확한 의사 표명을 하겠다는 것이 현재의 입장이다. 그런데도 당내에서는 정 고문의 내외연 가입을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이며, 정 고문이 내외연의 지지를 등에 업고 서울시장 후보로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한겨레신문 94.8.25. 4면>

기준치

이처럼 급격한 시장 위축은 지난달 말 소비자 연맹이 한국수도연구소를 통해 시험한 결과 크롬·니켈 같은 중금속이 기준치 이상으로 나왔다는 내용이 알려졌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한겨레신문 94.8.24. 6면>

기초과학자

%기초과학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갈릴레이의 지동설, 뉴턴의 만유인력법칙, 아인슈타인의 상대성원리, 왓슨과 크릭의 유전자구조론, 허블의 우주팽창론 등 과학사의 기념비적인 업적들은 모두 기초과학의 소산이다. 기초과학자들의 이런 연구 성과에 힘입어 인간은 새로운 세계관에 눈 떴을 뿐만 아니라, 차세대 첨단 기술 개발의 굳건한 토대를 끊임

없이 확대 재생산해 낼 수 있었다. <한겨레신문 94.8.31. 9면>

기획력

1986년 한국페스티벌앙상블을 창단한 박은희 씨는 세련된 감각의 기획력으로 주목받는 피아니스트. <조선일보 94.10.5. 15면>

길거리농구

제2회 나이키 코카콜라 3인조 길거리농구 대회 결선이 3,4일 양일간 한강시민공원 이촌 지구서 개최된다. <조선일보 94.9.1. 27면>

깜빡이

농민들은 인도가 없는 도로를 보행하게 되어 위험에서 벗어나기 어렵고, 경운기는 도로를 횡단도 하고 질주도 하여야 하는데 깜빡이가 없으니 뒤에 오는 자동차는 경운기가 회전을 하는지 모르고 추월을 하다가 대형사고를 일으키게 된다. <조선일보 94.9.1. 13면>

깜짝쇼

민주당 李基澤 대표가 10여일전 휴가를 끝내면서, 「KT 휴가 구상」으로 깜짝쇼를 하려다 차일피일해 오던 상황 <조선일보 94.9.1. 4면>

이 깜짝쇼는 연인 코넬트를 위한 스타인의 완벽한 작품이었다. 스타인은 추천통에 당첨자 명단 대신 자신의 청혼서를 넣은 것을 비롯 관객들에게 쪽지를 미리 나누어주며 도움을 요청했고 결과는 성공이었다. <일간스포츠 94.8.4. 27면>

기본적으로 군의 개혁은 인사에서 나타나

게 되는데, 하나회 등 사조직 제거는 있어야 될 일이고 환영받은 일이지만 과정보다 칭찬받을만 했느냐에는 의문이 있어요. 프로그램에 의해 차근차근 진행됐다기보다 깜짝쇼라는 평가가 나왔으니까요. <신동아 422 240면>

깜찍이

깜찍이 탤런트 김수정이 '열일곱살의 반란'을 감행한다. 김수정은 KBS 1TV 가정의 달 특집극인 '5월의 여행'(성위환 극본 김종식 연출)에서 가출소녀 다솜이 역을 맡아 열연 중이다. <스포츠조선 94.5.27. 25면>

깡순이

이본은 얼마전에도 KBS TV 드라마 '느낌'의 촬영 도중 미사리 조정 경기장에서 발목을 빼인 적도 있었지요. 무명 시절에는 모음료 CF를 촬영하던 중 팔 골절상을 입어 깡스한 채로 촬영을 마친 적도 있었던 '깡순이'의 면모를 또 한번 과시한 셈이네요. <스포츠조선 94.8.9. 26면>

깡업자

변화가를 지나다 보면 속칭 「깡업자」라 불리는 불법 카드 대출업자들의 안내 전단을 나눠주는 사람들 때문에 짜증이 날 정도이다. <조선일보 94.9.9. 13면>

깍기

은행 투자신탁회사 보험회사 등 기관 투자자들이 증권 회사들 사이의 과당 경쟁을 이용, 사실상 깍기에 해당하는 특정금전신탁 양도성예금증서(CD) 저축성보험 등 각종 금융 상품 가입을 증권회사들에 강요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아일보 94.10.4. 10면>

깍기성

증권회사들의 이같은 깍기성 금융 상품 가입 액수는 지난 7월말 현재 총 1조 8백72억원에 이를 뿐 아니라 일부는 자기 자본에 필적하는 금액을 특정 금융 상품에 묶어두고 있어 증권사 자금 운용에 심각한 제약 요인이 되고 있다. <동아일보 94.10.4. 10면>

꼬리표

미녀 가수 최연제(23·본명 이연제)가 가마솔더위에 시원한 맞바람 작전으로 여름 인기 사냥에 나섰다. 작년 <너의 마음을 내게 준다면>으로 혜성처럼 떠오르며 '탤런트 선우용녀의 딸'이란 꼬리표를 떼고 홀로서기에 성공한 그녀는 이제 신인 가수란 굴레를 벗고 보다 성숙한 모습으로 팬들 앞에 다가섰다. <일간스포츠 94.8.1. 13면>

♣ 의미가 다름

끌어내리다

해태는 한화를 4위로 끌어내리며 3위 자리를 차지했다. <조선일보 94.9.5. 25면>

끼워팔기

선물용 세트 상품이 가격 인상이나 끼워팔기의 편법으로 악용되고 있다. <한국일보 94.9.19. 18면>

L

나뉘먹기

나눠먹기 풍습이 점차 사라지고 급기야 상사 동료 부하 직원들을 모두 배제한 채 독식하는 일이 성행하는 것은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이기주의를 반영하는 것이지만, 무엇보다 비리를 되도록 숨기고 은밀하게 저지르는 데서 비롯된 경향이라는 분석이다. <신동아422 415면>

나들이객

전기료를 아끼려고 야간에 시설물의 불을 끄면 문화 시설이 적막강산 같다며 난리고, 마당의 외등 하나 절약하려 해도 해질녘 이곳을 찾는 가족 단위 나들이객이 많아 어려움이 있어요. <조선일보 94.10.9. 8면>

나박나박

무는 나박나박 썰고, 고추와 대파는 어슷하게 썬다. <여성중앙300 583면>

나시옷

명동의 한 가방 가게 점원은 “여름철 나시옷(슬리브리스)이나 형광 컬러의 강렬한 의상 소재에는 투명 비치백이 잘 어울린다. 멋쟁이들에게 속 들여다 보이는 것쯤은 문제가 안 되는 듯하다”고 설명했다. <일간스포츠 94.8.1. 31면>

나열주의

그러나 이같은 긍정적인 개발 지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번 계획도 나열주의와 망라주의의 전시적 성격을 떨어버리는 데는 실패한 것 같다. <조선일보 94.9.7. 3면>

나으리님

나으리님들께오선 다쳐시진 않으셨습니까

요? 그 놈을 돼지게 조져라. 저 중놈이 애초부터 양반 욕 보이려구 미친 척한 게다. <스포츠조선 94.5.25. 17면>

나체족

“아무리 덥다지만 웬 나체족.” 오는 27일 피카디리에서 개봉되는 본격 여성 영화 ‘커피 카피 코피’의 태국 촬영 현장. 광고대행사의 CF 감독으로 변신한 김병세는 “남자들끼리야 팬찮지만 영화 속에서 나를 계속 쫓아다니는 진희경이 이 장면을 봤더라면 어떤 표정이었을까 궁금하다”고 한마디. <스포츠조선 94.8.4. 27면>

낙전

공중전화 사용자 대부분은 낙전 수입이 공공사업에 쓰인다면 기꺼이 도울 생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대부분은 이 사실을 몰라, 전화를 끝냈을 때 돈이 남아있으면 다음 사람을 위해 남겨두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겨레신문 94.8.6. 8면>

낙시인

환경을 생각하는 낙시인들의 꼼꼼한 준비가 낙시터와 냇강의 오염을 줄일 수 있다. <조선일보 94.8.31. 1면>

난분해성

분해되는 데 5백년이 걸린다는 물질들이다. 그런데도 낙시인들은 「편하다」는 이유로 이런 난분해성 미끼통을 애용하고 있다. <조선일보 94.8.31. 28면>

남성스럽다

부권이 실추되고 다수의 여성 선생님 아래

서 교육된 남자들이 점점 여성화돼 가는 실정이다. 그런 상황을 더 부채질하듯 TV 나 영화에서 걸핏하면 눈물을 흘리는 남자, 성인이 되어서도 자기주장이 없는 이른바 마마보이들을 쉽게 발견하게 되는 현실에서 이런 강한 캐릭터들은 상실해 가는 남성스러움을 재발견하게 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영레이디154 327면>

남직원

감정·기획·조사·연구직 등 종합직과 일반 사무·출납·타자직 등 일반직으로 직군을 나뉜 남직원은 종합직에, 여직원은 일반직에 넣는 이 '신인사 제도'는 80년대 중반 일본 금융권에서 도입하기 시작해 90년대 초 우리나라에 들어왔다. <한겨레신문 94.8.11. 10면>

내부자

李 씨는 현대백화점 고객 명단을 현대백화점에 근무하는 친구로부터 구했다는 20대의 주 마담이라는 여자에게서 얻었다고 주장, 고객의 개인 정보 누출이 백화점 내부자 소행임을 시사했다. <조선일보 94.9.25. 27면>

내원

발병 후 병원 도착 시간은 평균 3.1시간, 내원 후 혈전 용해제 투여시까지 소요된 시간이 30분이었다. <조선일보 94.10.9. 17면>

내점객

L백화점의 한 관계자는 “하루 3만~4만명의 내점객 가운데 50% 이상이 더위를 피하러 오는 어슬렁족들로 분석되고 있다”면서 “에어컨을 풀가동하고 있지만 워낙 사

람들이 많아 적정 실내 온도로 맞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혀를 찼다. <스포츠조선 94.8.2. 19면>

내추럴하다

과일을 담을 그릇을 고를 때는 과일의 색과 놓일 장소의 분위기를 생각한 뒤 결정한다. 생각했던 그릇에 비해 과일이 적을 때는 구멍이 숭숭 나 있어 안이 들여다 보이는 철망 바구니를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목기를 사용하는 것도 내추럴한 분위기를 낼 수 있어 좋다. <여성중앙300 277면>

노땅

관중들은 처음에는 박수로 답하고 다음에는 몸으로 답했다. 공연 시작한 지 1시간이 조금 지나자 모두 무대 앞으로 몰려 갔다. 엉덩이가 무거운 노땅들을 빼놓고는 모두 말이다. <영레이디154 343면>

노래극

늘씬한 미녀들이 환경 보호 캠페인을 겸한 노래극으로 시원한 여름을 선사한다. <조선일보 94.8.13. 14면>

노래방

한국에는 노래방이다 술집이다 해서 놀 수 있는 곳이 얼마든지 있지만 북한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월간조선172 212면>

그러나 그도 김건모의 「핑계」나 재즈를 좋아하고, 노래방에 가면 최신 가요를 섭렵하는 건강한 신세대다. <조선일보 94.9.5. 16면>

노른자위

온화하고 원만한 대인 관계로 「국제 신사」라는 별명이 붙은 국제 금융 전문가.
-중략- 재무부 노론자위 부서를 거치지 않고도 장관직에 발탁됐을 정도로 노력형. <조선일보 94.10.5. 4면>

♣ 의미가 다름

노림수

카스트로는 대통령이 된 클린턴에게 다시 쿠바인들의 탈출을 묵인하는 노림수를 쓰고 있다. <조선일보 94.8.21. 2면>

노메달

그러나 여자 축구는 일본에 5대 0으로 대패했으며 3체급 4명이 출전한 여자 역도도 노메달의 부진을 보였다. <조선일보 94.10.5. 27면>

노비자

정부소식통은 『영종도 국제도시는 홍콩을 모델삼아 여행객들이 노비자로 입국. 거의 무관세로 쇼핑을 즐길 수 있게 해 주는 등 한국식 법률 관행이나 행정 규제를 받지 않는 파격적인 개념의 자유도시를 건설한다는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조선일보 94.8.13. 1면>

노사정

여기에 현대중공업 (주)금호 광주공장 등의 파업이 가세, 예년에 못지않은 노사정(勞使政)의 대립 구도가 재연됐었다. <동아일보 94.8.26. 30면>

노외

서울시는 시내 주차난과 소통난을 해소하

기 위해 31개 지하철 환승 주차장과 1백99개 노외 주차장을 새로 조성, 11만대분의 주차 능력을 확충키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조선일보 94.8.13. 21면>

노운동가

30분 인터뷰에 벌써 피곤해 보이는 老운동가의 마지막 인사였다. <조선일보 94.8.23. 2면>

노챔프

이형철은 지난 18일 세계권투협회(WBA) 주니어밴텀급 타이틀을 획득함으로써 노챔프 기간 9개월, 8차례의 세계 도전 실패로 바닥을 모르고 추락하던 한국 권투에 희망의 빛을 던졌다. <한겨레신문 94.9.22. 18면>

노출욕

디자인업계에 종사하는 박모씨는 “현재 유행하는 란제리룩은 일본에서 10대들 사이에 유행한 것이 우리 브랜드로 수입 처리된 것”이라고 꼬집은 뒤 “국내 업체의 경우 제조 판매에 따른 위험 부담을 지지 않기 위해 아예 일본 것을 직수입하는 경향도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일부 업체의 상흔과 여성들의 무분별한 노출욕을 비난했다. <스포츠조선 94.7.30. 15면>

노타임

劉 六단은 시중 노타임인데, 梁 九단은 조금씩 뜸을 들이고 있다. <조선일보 94.9.7. 16면>

노트북컴퓨터

세계가 한지붕인 정보화 시대에 살면서 외국 기업인들은 비행기든 대기실이든 시간

만 있으면 노트북컴퓨터를 사용하며 잠시라도 업무 수행에 여념이 없는 모습을 볼 때 우리 기업인들도 그들과 당당히 맞서 국제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컴퓨터와 친숙한, 즉 컴맹에서 벗어나야 하겠다. <동아일보 94.8.22. 12면>

노후화

특히 전력 부문에서는 석탄의 생산량 감소, 수력 발전의 한계와 함께 기존 발전소 시설의 노후화로 고전하고 있지만 막대한 예산 때문에 새 발전소 건설은 엄두를 못내고 있다. <조선일보 94.8.17. 3면>

발행 부수는 한때 1백50만부까지 기록했으나, 최근에는 용지난과 인쇄 시설의 노후화 등으로 인해 50만부 정도로 떨어진 것으로 전해진다. <조선일보 94.10.1. 2면>

녹색경찰

이 중에서 청색 셔츠를 입었다고 해서 ‘청색경찰’이라고 불리는 4백여명은 자치에 대비해 퇴역 게릴라나 현지 지원자 중에서 새로 뽑은 사람들이다. 나머지 2천여명은 해외에서 활동하던 팔레스타인 해방군들이다. 녹색 베레모를 쓴 이들을 ‘녹색경찰’이라고 부른다. <한겨레신문 94.5.20. 1면>

녹색길

그리고 생물 다양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범국가적인 국토의 자연 복구 계획을 세워야 한다. 다시 말해 도시·공단·도로 건설로 생태계가 단절돼 버린 국립·도립·군립 및 시립 공원과 자연 보존 지역 등을 생물 다양성 보전망으로 묶어야 한다. 이 보전망은 도시와 마을 사이를 잇는 녹색길(그린웨이)

그리고 전국의 국공립공원·자연 보존 지역 생태계를 이어주는 연결 통로로 유기적으로 구성된다. <한겨레신문 94.8.17. 8면>

녹색운동

지난 마지막 경제적 호황은 환경에 영향을 끼치게 됨으로써 녹색운동을 가열시켰다. 그후 정부와 기업들은 국가 정책과 기업 전략에서 환경 단체들의 요구를 들어 주지 않으면 안 되었다. <동아일보 94.9.26. 5면>

녹색정향

그런가 하면 당시 환경 보호 反核 등 이른바 녹색定向 (Green Orientation)의 後물질주의적 가치가 급속히 부상하기 시작했는데 여러나라의 사민당들이 이들 가치를 선호하는 사회 집단들, 예컨대 신중산층과 고학력자 및 전후세대들을 제대로 품에 안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있었다. <동아일보 94.10.6. 6면>

녹손

독일 굴지의 제약회사인 획스트사는 15일 인체에 유해한 오존가스를 산소로 전환시킬 수 있는 새로운 합성물질 녹손 (NOXON)을 개발했다고 발표했다. <동아일보 94.8.16. 7면>

녹즙기

3년전부터 간 질환을 고치려고 신선초를 비롯한 야채를 녹즙기로 갈아 아침 저녁으로 마시면서 건강을 회복,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 <조선일보 94.8.31. 13면>

녹취하다

검찰은 이 군 등이 디스켓에 담겨있는 김정일에 대한 충성의 편지를 암기 학습하고, 『구국의 소리 방송』 등을 녹취한 유인물을 복사해 각 대학 총학생회 사무실 등에 배포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조선일보 94.8.25. 31면>

논란거리

얼마전 교육부가 국민학교 정규 과목까지도 학원 과외를 허용하겠다는 내용을 立法豫告해 상당한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조선일보 94.9.23. 15면>

논쟁점

「문학과 사회」는 문학 내의 각종 논쟁점들에 대해 우리 문학계에서 최근 새롭게 성취한 연구 결과들을 집성해 놓은 문학개론서이다. <동아일보 94.8.20 15면>

논쟁터

과테말라 온두라스 등 중남미 지역을 대상으로 한 섬유류 위탁가공무역은 미국의 수입 규제 조치를 회피하고 우회 수출 거점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섬유류 논쟁터 지역인 중남미에서 생산된 제품은 대부분 지리적으로 인접한 미국에 판매되고 있다. <동아일보 94.8.18 10면>

놀이방

이 건물은 워드프로세서, 팩시밀리, 복사 서비스를 대행해 주는 비즈니스 센터를 비롯, 수영장, 문화 센터, 독서실, 놀이방, 슈퍼마켓, 전문 클리닉 등 각종 서비스 시설을 갖춰 한 건물 내에서 의식주와 사회 문화 생활을 모두 해결할 수 있도록 한 설계

가 특징. <동아일보 94.9.26. 11면>

농반진반

독고영재는 31일 SBS TV '스타 다큐멘터리'에 출연, 임주리의 '립스틱 질게 바르고'를 부르는가 하면 8월 7일 방송되는 KBS 1TV '열린 음악회'에도 나와 같은 노래를 구성지게 열창했다는 것. 특히 텔런트로서는 첫 출연한 '열린 음악회'에서는 오리지널 여자키대로 고난도의 '립스틱'을 소화해 내 '프로그램을 가수 데뷔전의 시험 무대로 삼은 거 아니냐'는 농반진반의 얘기까지 흘러나오고 있다. <스포츠조선 94.7.30. 19면>

농어가

세금 우대 저축 중 하나인 농어가 목돈 마련 저축 제도는 현재처럼 일정 기간 비과세하고 가입 한도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조선일보 94.8.31. 10면>

뇌물성

정부는 31일, 올해의 전반적 경기 활성화, 상품권 발행 허용 및 司正 분위기 완화에 따라 이번 추석을 계기로 공직 사회에 금품 주고받기가 되살아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뇌물성 선물 주고받기를 강력히 단속, 근절해 나가기로 했다. <조선일보 94.9.1. 2면>

눈높이

꼬마 요리사의 기본 제작 의도는 중간 과정은 없고 결과만이 중시되는 인스턴트 문화 시대에 어린이 스스로 음식을 만들어 봄으로써 음식의 소중함, 고마움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깨닫게 하려는 것이었다. 특히 어린이들이 자기와 비슷한 또래

가 직접 음식을 만드는 것을 봄으로써 좀 더 친근감을 갖고 적극적인 자세로 시청하도록 유도하고자 한 것이다. 이는 눈높이를 맞추는 데도 도움이 된다. <한겨레신문 94.8.16. 14면>

♣ 의미가 다름

눈도장

사실 조의원은 국회 부의장 인선 과정에서 '동교동의 뜻'을 거스르고 홍영기 의원을 밀면서부터 동교동과의 관계가 악화됐었다. 따라서 서울시장 후보에 관한 한 동교동의 생각이 무엇인지 불투명한 지금으로서는 일단 눈도장부터 찍고 보는 것이 급선무다. <시사저널 260 26면>

눈썰매장

눈썰매장 경륜장 볼링장 수영장 관광지 개발 풍물 시장 운영 골재 채취 등 수익 사업을 통해 재정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경기도 내 일선 시, 군들이 각종 아이디어를 짜내고 있다. <동아일보 94.8.20. 27면>

뉴미디어

인덕 전문과 전남 전문은 방송통신과를 신설, CATV 방송과 뉴미디어 방송 실시에 따른 유-무선 방송의 운영-관리분야에서 일할 전문 기술 인력 양성에 나섰다. <조선일보 94.9.5. 30면>

뉴비즈니스

X세대의 특징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HEALCI. 즉 Health(건강), Education(교육), Amusement(오락), Leisure(레저), Culture(문화), Intelligence(지

성)·Information(정보)·감성 부문을 중시하는 한편 두뇌·인간 중심의 뉴비즈니스가 태동된다는 것이다. <일간스포츠 94.6.30. 31면>

이 협의회는 뉴비즈니스를 『기왕에 없던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기존 사업이라도 새로운 고객층을 만들고, 경영 관리에 혁신적 방법을 도입해 놓은 성장을 보이는 기업이나 사업』으로 정의한다. <조선일보 94.8.29. 9면>

뉴스거리

영화제를 열고 세계적인 스타들이 초청되어 오면 세계적인 뉴스거리가 되고 그만큼 국가적인 위신도 올릴 수 있다. <조선일보 94.8.23. 5면>

능률화

싱가포르 정부 운영의 또 하나의 특징은 능률화이다. 철저히 비용 개념이 적용되고 있다. <조선일보 94.9.15. 5면>

넌비

위의 의견은 한마디로 일종의 넌비(NIMBY) 현상이라고 본다. 서울만 복잡하고 지방은 복잡하지 않다는 의견인지, 지방 톨게이트에 몇 km 씩 늘어선 차량행렬은 도외시해도 된다는 의견인지 묻고 싶다. <조선일보 94.8.25. 13면>

□

다각화시키다

하지만 이제는 92년 이후 적자로 돌아선 회사 경영을 정상화하고 수익성이 떨어지

는 모방업 대신 경영을 다각화시키는 새로운 「창업」의 과제를 걸머지게 됐다. <조선일보 94.9.27. 10면>

다국적군

아이티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유엔의 노력이 무산된 가운데 미국은 30일 美 주도의 다국적군 1만명이 즉각 훈련을 시작할 것이라고 발표, 아이티 침공이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조선일보 94.9.1. 7면>

다단계

유럽연합을 3개 국가群으로 묶어 단계적으로 통합을 추진한다는 소위 「多단계 통합안」을 놓고 유럽 국가들이 분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조선일보 94.9.9. 6면>

다매체

내년 4월 시범 방송에 돌입할 지역 민방의 출범은 역시 내년 시작되는 CATV 및 위성방송 발사 시점과 맞물려 방송 선진국형인 「多매체 多채널 시대」로 진입하는 방송사의 의미있는 전환점이기도 하다. <중앙일보 94.8.10. 4면>

이밖에 KBS는 10대 기획으로 영국 BBC, 일본 NHK 등을 심층 취재한 「다매체 시대의 세계 공영방송」, 미니시리즈 「스칼렛」과 화제작 영화시리즈, 특별 기획 「孝」 시리즈를 10월중 연속 방송할 계획이다. <조선일보 94.9.17. 16면>

지나친 시청률 경쟁으로 인한 프로그램 저질 시비에서 벗어나 수 있듯이 방송사가 다매체 다채널 시대의 급변하는 외부 환경에 대응하는 감량 경영과 경비 절감 등 본질

적 경영합리화 노력없이 광고 시간 연장만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시청자를 불모로 한 안이한 대처 방식으로 지적되고 있다. <동아일보 94.8.30. 21면>

다운사이징

또한 국내 보험사중 가장 많은 영업점을 거느린 삼성생명보험도 정보시스템의 다운사이징을 적극 검토중으로 곧 구축에 착수할 예정이다. 정보 시스템의 다운사이징은 전산실이 쥐고 있는 전산 시스템 운용권과 중앙컴퓨터(호스트)에 집중돼 있는 전산 자원을 현업 실무자와 그의 개인용 컴퓨터로 분산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한겨레신문 94.9.22. 11면>

다채널

내년 4월 시범 방송에 돌입할 지역 민방의 출범은 역시 내년 시작되는 CATV 및 위성방송 발사 시점과 맞물려 방송 선진국형인 「多매체 多채널 시대」로 진입하는 방송사의 의미있는 전환점이기도 하다. <중앙일보 94.8.10. 4면>

지나친 시청률 경쟁으로 인한 프로그램 저질 시비에서 벗어나 수 있듯이 방송사가 다매체 다채널 시대의 급변하는 외부 환경에 대응하는 감량 경영과 경비 절감 등 본질적 경영합리화 노력없이 광고 시간 연장만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시청자를 불모로 한 안이한 대처 방식으로 지적되고 있다. <동아일보 94.8.30. 21면>

다핵화

도시 공간 구조의 다핵화, 지구 중심의 집중 개발, 도심-부도심-주변도시와의 기능

연계 강화 등을 발전 방향으로 잡은 이 계획의 핵심은 한강을 축으로 한 5개 거점 지구의 개발이다. <조선일보 94.9.9. 28면>

단독플레이

그러나 당시 차 실장의 '힘'이 김 부장을 압도하고 있었고 특히 박 대통령에 대한 충성이 광신적이었던 점을 감안한다면 차 실장이 단독플레이로 선수를 쳤을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보는 견해도 적지 않다. <신동아422 231면>

단식사하다

활동 게릴라 수는 2백여명으로 추산되며 진압군에 비해 일당백의 수세에 있으나 아일랜드계 미국인 등의 자금·무기 지원과 자체 조달로 장기전을 펼쳐 왔다. 81년엔 보비 샌즈 등 체포된 대원 10명이 감옥에서 단식사해 세계의 동정을 샀다. <한겨레신문 94.9.2. 7면>

단체장

내년의 지자체 선거는 15개 시·도지사, 2백75개 시장·군수·구청장, 5천1백70명에 이르는 지방의원 등 5천5백여명에 가까운 공직자를 선출하는 사상 초유의 매머드 선거다. 특히 정치적 비중에 있어 지방의원과는 비교가 안 되는 단체장을 뽑는다. <조선일보 94.8.29. 3면>

담요부대

매매춘 시장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안마시술소, 티켓 다방, 인삼찜집 나아가 관악산 등에서 노인네들을 상대하는 담요부대에다 주로 일본일을 상대하는 닛지(기생)까

지 광범위하다. <영레이디154 563면>

답변석

지금까지는 법원행정처장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답변석에 섰었다. <조선일보 94.9.23. 4면>

닷지

매매춘 시장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안마시술소, 티켓 다방, 인삼찜집 나아가 관악산 등에서 노인네들을 상대하는 담요부대에다 주로 일본일을 상대하는 닛지(기생)까지 광범위하다. <영레이디154 563면>

당구맨

아버지가 밥을 젓가락으로 집어 먹다가 흘렸다. 당구맨 왈 『아버지, 뽕살이네요』 『이놈아, 큐질이 안 좋은 걸 어떡하냐』 아버지가 밥을 먹고 김치를 잡으려고 젓가락질을 하다가 헛젓가락질을 하고 말았다. 『아버지, 웬 히로.』 아버지가 김치를 왕창 집어 먹었다. 『아버지, 왕시네루.』 <전자신문 94.5.20. 31면>

당인

『다른 것은 다 차치하고라도, 당 사무처에 접수도 안된 전당대회가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는 것이다. 신민당의 黨印(당인)도 아직은 金 대표의 손에 있는 상태이다. <조선일보 94.10.11. 4면>

대가뭉

이같은 강수량은 대체로 50~60년만의 가뭄에 해당하며, 특히 임하댐의 경우는 2백년만에 대가뭄을 겪는 상황이다. <조선일보 9

4.9.25. 11면>

대규모화

공안 당국이 '이적성'을 강조하는 또다른 이유는 최근 들어 학생 시위의 대규모화 등 한총련의 '반정부성'이 두드러진다는 점도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겨레신문 94.5.20. 18면>

대박프로

홍콩 무협물이나 에로틱 서스펜스물 중에는 극장 개봉시 참패했지만 비디오로 출시돼 소위 '대박프로'(크게 터졌다는 의미로 3만장 이상 대량 판매에 성공한 프로)가 된 것들이 적지 않다. <일간스포츠 94.8.19. 17면>

대반격

강우석 감독의 '음모 꾸미기'가 본격화되자 요즘 충무로 영화가에서는 "우석이가 또 사고 쳤다"는 은어가 나돌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투캅스'로 30억여원을 벌어들인 '재간꾼' 강우석 감독이 외화의 무차별 공격에 대해 대반격을 선언하고 나섰기 때문. <스포츠조선 94.9.3. 17면>

대변신

그런데 이런 표기법이 '1+1+1+2'로 바뀔 조짐이 보이고 있다. 이는 주류가 2에서 1+1로 분화하는 대신 김상현계의 비주류도 2에서 1로 위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동교동계가 이기택계와의 연대를 유지하면서도 독자적인 세력 확보를 기정사실화하고 있고 이런 연장선에서 비주류였던 정대철 고문의 '대변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겨레신문 94.8.21. 4면>

대성공작

각사 노조가 이처럼 일제히 문제 삼고 나서는 것은 "이번 특집 방송으로 증거없이 되풀이되는 박 총장의 주장에 우리 사회를 또다시 매카시 광풍에 휩쓸리게 만드는 빌미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토론회에서 사회를 맡은 정병수 문화방송 해설위원은 "박홍 총장의 심정이 충분히 토론했다는 점에서 이번 토론회는 대성공작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겨레신문 94.8.27. 3면>

대여점

책 대여점이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여성 잡지나 대하소설류, 에세이류의 책들이 진열돼 독자 대중들의 발길을 끄는 모양이다. 비디오 대여점에 비한다면 책 대여점은 아직 소수에 불과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그 급격한 증가 경향에 많은 이들이 놀라움을 표시한다. <중앙일보 94.8.10. 13면>

대외비

현대백화점 관계자는 『모든 회원에게 매달 DM을 발송하기 때문에 회원 주소와 전화번호까지 적힌 자료는 회사 내부에서 어렵지 않게 열람할 수 있으나 회원들의 한달 상품 구입 액수까지 기록된 자료는 대외비로서 회사내에서도 담당자를 빼고는 입수는 물론 열람도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조선일보 94.9.23. 30면>

대원칙

청와대와 외무부 사이에 특별 사찰 명칭

문제에 관한 한 시각 차이가 분명히 있다. 그렇지만 북한 핵 문제 해결의 기본 방식에서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도 많다. 양쪽 모두 북한 핵의 과거 규명이 이뤄져야 한다는 대원칙을 포기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한겨레신문 94.8.26. 3면>

대중주

대중주라고 할 수 있는 소주는 출고량이 41만 1천 1백 42kl, 11억4천 만병(3백 60ml 기준)으로 성인 한사람 당 38.1병을 마셔 작년 상반기의 33.8병보다 크게 늘었다. <동아일보 94.8.14 9면>

대증적

더욱 큰 문제는 총리실의 이러한 위상 변화가 이런 시한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데에 있다. 물론李 총리는 취임 이후 수질 오염, 철도 파업 등 노사 분규, 김일성 사망에 따른 조문 논쟁 등 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대응조치를 취해 왔다. 그러나 그러한 조치들은 對症的인 것이었고 보다 지속적이고 개혁적인 업무 추진 모습은 보여주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동아일보 94.9.8. 5면>

대추격전

올 시즌 프로 축구가 막판에서 가열되고 있다. 후반 리그가 시작될 때만 해도 올시즌 우승은 일화와 현대간의 대결로 판가름날 것으로 예상됐으나, 최근 포철과 LG가 대추격전을 벌이며 4개팀이 우승 사정권에 진입, 판도 예측이 힘들어진 것이다. <조선일보 94.9.17. 26면>

대충돌

야구에서도 한-일이 14일 오후 2시 금매달을 놓고 대충돌을 벌일 전망이다. <한겨레신문 94.10.12. 18면>

대표성

그러나, 시공 회사가 곧바로 아파트 관리 회사에 관리를 위탁하고, 1년쯤 지난 뒤 관리 회사 직원들이 「친분이 있는」 입주자들을 중심으로 대표 회의를 구성하는 곳이 많다. 그럴 경우 대표 회의의 대표성은 떨어지며, 심한 경우 아파트 하자 발생시 시공 회사에 편드는 일도 생길 수 있다. <조선일보 94.10.5. 19면>

대행권

삼성그룹 제일기획은 관례처럼 대부분 대행해 오던 삼성 계열사 광고 물량도 9월 1일부터는 다른 광고 회사와 공개 자유 경쟁을 거쳐 대행권을 따겠다는 「新광고 서비스」를 선언해, 삼성 계열사들은 다른 그룹 계열 광고 회사에도 광고를 맡길 수 있게 됐다고. <조선일보 94.9.1. 10면>

대혈투

근육질의 대형 액션 스타 돌프 룬드그랜이 '지옥의 혈투'를 시작한다. 스포츠 액션 드라마로 전세계의 화제를 모으는 펜타트론(원제 Pentathlon). 자유를 꿈꾸는 동독 출신의 올림픽 스타가 미국으로 망명, 그를 추적하는 테러 집단과의 목숨 건 대혈투가 통쾌하게 펼쳐지는 액션 초대작. <일간스포츠 94.6.5. 13면>

대형전

대형건의 경우 진돗개가 7만~10만원, 아키다 15만원, 개중에 덩치가 가장 큰 그레이트테이 20만원, 혀가 새파란 차우차우 30만원, 영화 「베토편」에서 나오는 세인트버나드가 25만원선이다. <한국일보 94.5.24. 29면>

대형주

하지만 은행 증권 등 장기적인 소의 종목과 럭키 호남석유화학 등 실적 호전 대형제조주와 증가 대형주 등으로 매기가 집중되며 9백60포인트를 상향 돌파하는 강세를 보였다. <조선일보 94.8.23. 10면>

대호황

이와 함께 이번 여름철 대호황 덕분에 한전이 올해 거둬들일 전력 판매 수입은 역사상 최대 규모인 9조원을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한겨레신문 94.9.7. 23면>

대혼란

러시아 원동 지방의 고려인들이 다시 뛰고 있다. 일제 강점기에 핍박을 피해 연해주로 이주하거나 사할린에 강제 징용된 사람들의 후손인 이들이 최근 대혼란에 빠진 러시아 경제의 소용돌이 속에서 한인 특유의 억척스러움을 발휘하며 앞장서 달리고 있는 것이다. <한겨레신문 94.8.20. 4면>

대화형매체

그는 또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 보급이 늘고 있는 컴퓨터 게임이나 CDI, CD롬 등 대화형매체(interactive media)의 폭력 묘사는 청소년에게 더욱 자극적이므로 비디오나 영화보다 심의를 더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선일보 94.9.29. 30면>

대활약

동대부고는 청소년 대표인 장민석이 1골 1어시스트를 하는 대활약에 힘입어 청구에 2대 0으로 낙승, 문일과 4강 진출을 다투게 됐으며 <조선일보 94.9.29. 27면>

댄디룩

요즘은 남녀노소 구분없이 청바지를 즐겨 입는다. 유행 패턴도 댄디룩, 카이보이룩, 탈색 진, 가죽 진 등 실로 다양하다. <스포츠조선 94.9.5. 25면>

더블데이트

『젊은 남자』에서 색마처럼 행동하는 톱모델 지망생인 한은 재이와 진이(전미선)를 동시에 만나 더블데이트를 즐긴다. <스포츠조선 94.8.16. 27면>

더블캐스팅되다

『루치아』(소프라노)에는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콩쿠르서 최고상을 받은 박미혜, 스위스 취리히 오페라 극장 프리마돈나 박수정이 더블캐스팅됐다. <조선일보 94.9.29. 15면>

데이터베이스화하다

NTT(일본전신전화)의 협력으로, 와세다대, 東京大, 오사카대 등 16개 대학의 연구자들은 세계적인 연구 정보 네트워크인 인터넷을 이용, 내년 봄부터 데이터베이스화한 강의와 연구 정보를 상호 이용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조선일보 94.9.11. 7면>

데이트코스

요 몇 년 사이 속칭 러브호텔로 불리는 강

남, 신림동, 신촌 근처의 여관 밀집 지대나 북한강변, 경춘가도 등에는 장급여관의 신축이 붐을 이루고 있다. 이곳이 아베크족들의 새로운 데이트코스로 인기를 모으면서 잠시 들러 사랑을 즐기려는 사람들의 수요가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영레이디154 565면>

도깨비살림

출판사 경영이라는 게 마치 도깨비살림과 같아 앞날을 점치기 어려우나 별 일이 없는 금년에는 2억원 정도의 흑자가 예상된다고 한다. <신동아422 123면>

도둑워지다

나일강의 하상이 퇴적물로 높아지고 그에 따른 범람으로 도시도 도둑워진 탓이라고 한다. <조선일보 94.9.11. 9면>

도세

다만 미국에서는 탈세를 꾀하는 사람은 없다. 盜稅는 물론 없다. 그저 지극히 합법적인 節稅를 꾀할 뿐이다. <조선일보 94.9.29. 1면>

도전권

常昊 六단은 최근 馬曉春이 갖고 있는 대국수 타이틀에 도전권을 따낸 것으로 확인됐다. <조선일보 94.9.5. 16면>

독서력

교보문고는 『燈火可親(등화가친)의 계절을 맞아 독서력이 국력이라는 명제를 실천하기 위해 출판사들의 협조를 받아 민간 차원의 독서 운동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조

선일보 94.10.1. 15면>

독소전

그러나 북한은 생물전 독소전에 대해서는 화학전보다 관심이 적다. 생물전 독소전을 수행하는 데는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북한은 흑사병 간장병 비브리오 콜레라 등 13종의 세균을 보유하고 있으며 실험소 2개 연구시설 4개를 갖고 있다. <동아일보 94.9.2. 4면>

돈바람

저자는 자본주의화되는 과정에서 돈과 性이 중국 사회를 어떻게 타락시키고 있는지 그 변화상을 상세히 소개하고 있다. 예를 들어 돈바람이 불면서 중국인들은 체면과 염치도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 저자가 한 중국인 교수에게 책을 사달라고 부탁하자 이 교수는 책값을 무려 10배나 비싸게 받았으며 그 책값을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해 다른 학자들과 만나는 것조차 방해했다는 것이다. <동아일보 94.9.10. 14면>

돈세탁

“수표로 이루어진 입·출금을 현금으로 한 것처럼 꾸미기”, “전표상의 수표 번호 바꾸기나 은행 창구 직원간에 수표 맞바꾸기.” 범죄나 탈세, 뇌물 등과 연관된 ‘검은돈’을 ‘깨끗한 돈’으로 탈바꿈시키는 이른바 돈세탁의 대표적인 수법이다. <한겨레신문 94.9.7. 8면>

앞으로 고객과 짜고 「돈세탁」을 도운 금융기관 직원에게는 면직이나 정직, 감봉 등 중징계 조치가 내려진다. <조선일보 94.9.7. 11면>

돌병풍

정다산의 문집에 고려장법(高麗葬法)이라는 항목이 나온다. 고려시대의 무덤 속에는 돌병풍을 둘러 공간을 만들고 노부모를 양식과 더불어 생매장하여 일정 시일 동안 살다 죽게 하는 기로속(棄老俗)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조선일보 94.9.11. 5면>

동거녀

동거녀 K씨는 두달 전까지 옷공장에 나가 일을 했고 최근에는 친척이 경영하는 음식점에 나가 일할 정도로 N 씨의 형편이 썩 좋지 못했으나 지난 21일 N 씨집에 르망 승용차 자동차세 납세 고지서가 배달되기도 했다는 것이다. <조선일보 94.9.25. 26면>

동시다발적

<한국방송공사> <문화방송> <서울방송> 등 세 방송사가 지난 25일 밤 박홍 총장의 여의도클럽 초청 토론회에서의 발언 내용을 일제히 긴급 편성해 내보낸 것과 관련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중략- 각 방송사는 이런 동시다발적인 중계에 대해 이번 토론회가 '국민적 관심사'라는 점을 이유로 들고 있다. <한겨레신문 94.8.27. 3면>

동정표

민자당의 한 고위 당직자는 "3승 전략은 여전히 유효하다"면서도 "막연히 민자당을 싫어하는 반민자표에 현 후보 동정표가 가세하면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수밖에 없다"라고 털어 놓았다. <시사저널249 17면>

되돌리다

정부는 내년도 방위비를 올해보다 10%에 근접하는 비율로 증가시킬 계획이라고 한다. 문민정부 출범 이래 하강 추세를 보였던 방위비 증가 비율을 3년만에 되돌리는 것이다. <조선일보 94.9.53면>

되반사

광공해란 공해와 광해의 복합 조어. 대도시의 하늘을 뒤덮고 있는 먼지층에 인공 불빛이 되반사돼 밤하늘을 밝게 만드는 현상. 광공해가 심하면 밤 하늘은 본래의 까만색을 잃어버리고 회부영계 바래져 별을 볼 수 없게 된다. <동아일보 94.9.22. 17면>

뒤집기

야구는 9회말 투아웃부터 LG가 뒤집기 쇼를 펼치며 몸달은 삼성을 울렸다. -중략- 4일 프로야구 잠실 경기서 선두 LG는 김영직의 9회말 끝내기 역전타로 삼성을 2대 1로 꺾었다. <조선일보 94.9.5. 25면>

♣ 의미가 다름

뒷힘

그러나 이런 통합 논의는 순전히 N-金 대표의 「밀사」들간에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힘을 받지 못하고 있다. 각 당의 복잡한 사정을 극복할 뒷힘이 보장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조선일보 94.8.31. 4면>

드잡이질

이날 오전 한판 드잡이질을 겪었던 박찬종 대표가 오후에 열린 한 공개토론회에 참석해 한 발언은 가히 회극적이다. <한겨레신문 94.9.7. 2면>

특점력

태평양은 팀 타율 0.246으로 8개 구단 중 최하위지만, 4년 연속 3할대에 도전하는 노장 윤덕규와 장거리포 김경기·김동기를 축으로 한 타선의 특점력이 돋보였다. <한겨레신문 94.9.17. 11면>

디엠(DM)

신세계는 또 지난 93년부터 카드 사용 실적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는 「신용 평점제」를 실시해 회원당 카드 사용 한도액을 1백만원에서 1천만원까지 세분화했으며, 매달 회원들에게 백화점 DM(직접투입우편물)을 발송해 자신의 신용 평점, 구매 한도, 연체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조선일보 94.9.23. 30면>

이 회사는 또 올 연말까지 종이로 출력하는 것을 없애고 전산으로만 자료를 검색할 수 있도록 전산 시스템을 개발하고 외부 업체에 의뢰하던 상품정보우편(DM)발송을 자체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DM 발송 기기를 도입해 설치키로 했다. <동아일보 94.9.24. 10면>

디자인계

『좋은 디자인은 시차 없이 각국에 퍼질 정도로 디자인계는 점점 더 세계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만의 독특한 개성을 갖지 않고서는 승부할 수 없다는 면에서는 더 지역화하고 있다고 말할 수도 있지요.』 <조선일보 94.10.7. 23면>

딜

나중에 알려진 사실이지만 김경재 씨가 쓴

회고록 육필 원고의 일부가 서울 김재규 정보부장의 책상 서랍 속에서 발견됐다는 것을 보면 김씨는 회고록 발간을 앞세워 서울과 끈질긴 딜(거래)을 했고 이 딜의 결과에 따라 파리에 갔던 것으로 유추된다. <신동아 422 233면>

딱지

安 씨는 『90년쯤 이 땅에 대한 환지증명서(일명 딱지)를 인천시 정책보좌관 姜麒秉 씨(강기병)에게 4천만원을 받고 팔았는데, 얼마 뒤 姜 씨가 이를 다시 1억 1천만원에 제3자에게 팔아 7천만원의 전매 차익을 남겼다며 고맙다는 인사 표시로 1천 5백만원을 가져와 받았다』고 진술했다고 검찰 관계자는 전했다. <조선일보 94.9.15. 2면>

딸랑이

청각 반응은 딸랑이나 목소리로 알아본다. 좌우 한 쪽 방향에서 한 번 『딸랑』 소리를 낸다. 바로 눈이 커지며 반응을 보이는 것이 정상. <조선일보 94.8.17. 19면>

땡처리

노점상 金모씨는 『동대문 동평화시장 등에서 이른바 땡처리로 나온 덩핑 물건을 받아오나 이 이상 값을 내려 팔 수는 없다』고 말했다. <중앙일보 94.10.4. 31면>

떡갈비

담양 읍내 신(申)식당(0684-82-9901~2)은 별미 떡갈비의 원조다. 갈비살을 뼈에 얹어 천연 양념을 계속 발라가며 구워 낸 맛이 입안에서 스르르 녹는 듯하다. <여성중앙 300 412면>

2

라디엔티어링

이색 걷기 대회 '라디엔티어링'이 2천5백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22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에서 열렸다. 라디엔티어링이란 라디오 생방송을 들으면서 퀴즈 형식으로 전달되는 통과 지점을 찾아가 확인 도장을 받고 최종 목적지까지 가는 새로운 형식의 걷기 운동. SBS 주최, 스포츠조선 후원으로 열린 이 대회는 올해로 3번째를 맞는데 '지구마을 사랑의 걷기 대회'라는 부제가 걸렸다. <스포츠조선 94.5.23. 19면>

란제리룩

디자인업계에 종사하는 박모씨는 "현재 유행하는 란제리룩은 일본에서 10대들 사이에 유행한 것이 우리 브랜드로 수입 처리된 것"이라고 꼬집은 뒤 "국내 업체의 경우 제조 판매에 따른 위험 부담을 지지 않기 위해 아예 일본 것을 직수입하는 경향도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일부 업체의 상흔과 여성들의 무분별한 노출욕을 비난했다. <스포츠조선 94.7.30. 15면>

랭크되다

오리지널과 마찬가지로 두 사람의 하모니가 일품인 이 곡은 빌보드 싱글 차트 30위권으로부터 데뷔해 2주만에 6위에 랭크되는 초고속 상승세를 보이면서 정상을 넘보고 있다. <조선일보 94.9.15. 19면>

러브호텔

요 몇 년 사이 속칭 러브호텔로 불리는 강남, 신림동, 신촌 근처의 여관 밀집 지

대나 북한강변, 경춘가도 등에는 장급여관의 신축이 붐을 이루고 있다. 이곳이 아베크족들의 새로운 데이트코스로 인기를 모으면서 잠시 들러 사랑을 즐기려는 사람들의 수요가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영레이디154 565면>

지존과의 다음 「공격」의 목표는 러브호텔이었다 한다. 그 이유를 짐작하기는 그리 어렵지 않다. 그들은 광신적인 도덕가들이기 때문에 비도덕적인 러브호텔을 「썩쓸이」하겠다는 것은 아니었다. <조선일보 94.9.27. 5면>

러시아제

경찰은 이씨가 "부산에 가기로 한 것은 단순히 그곳에 러시아제 불법 무기가 나뒀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 이씨가 김씨로부터 온라인으로 선수금조로 5백만원을 받은 점 △ 이씨가 부산행 계획에 관해 진술을 자주 바꾸는 점 등을 들어, 이씨를 추궁하고 있다. <한겨레신문 94.9.26. 19면>

러시안블렛

30일 새벽 0시 55분께 제주 남제주군 대정읍 무릉리 서귀포 경찰서 무릉파출소 안에서 이 파출소 김성진(23) 순경이 야간 근무 중 술을 마시고 이른바 러시안블렛 게임 시범을 보인다고 실탄을 넣은 채 권총 장난을 하다 동료인 고상림(25) 순경을 쏜 지게 했다. <한겨레신문 94.10.1. 15면>

레게

요즘 붐을 이루고 있는 레게를 듣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분위기로 느낄 수 있는 카

폐가 있다. 6월 25일 서울 신촌역 근처에 문을 연 '주빌리'는 지하 1층과 2층을 틈 공간 활용이 색다른 데다가 여기저기 늘려 있는 복과 희귀한 실내장식이 자메이카에 있는 토속 선술집을 연상케 한다. <시사저널 245 95면>

레게 룩

올여름 거리에서 관찰되는 다양함 젊은이들의 멋내기 중 가장 두드러지는 형태는 힙합룩 또는 레게룩으로 불리는 새로운 팝 음악의 유행이 불러온 다소 생소하면서도 재미있는 패션이다. <동아일보 94.8.20. 16면>

레이브

리메이크 앨범에 삽입된 신곡 『떠나버려!』라는 곡은 유럽과 일본에서 선풍을 일으키고 있는 '레이브'(정신없이 빠르고 현란하다는 의미에서)의 일종. <중앙일보 94.10.12. 45면>

레토릭

북한은 어떤 형태의 제재든 선전포고로 간주, 대응하겠다고 선언했는데, 북한의 레토릭이다. -중략- 제재가 지속돼 정권 유지가 어려워지면 조금씩 도발을 시작할 것이다. 전쟁을 할 수 있다는 결의를 보이기 위해서도 북한은 뭔가를 해야 한다. 비무장지대에서의 소규모 분쟁이나 테러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 긴장은 상승작용을 일으켜 커질 것이다. 낮은 단계의 제재에 저항을 많이 하면 전면 제재, 정면 대결로 간다는 것을 북한은 잘 알고 있다. <월간조선172 118면>

로비성

이같은 국제 관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통부는 원칙을 수정하면서 항공사간의 불필요한 로비성 소모 경쟁과 감정 대립을 유발시키고 있으니 한심스럽기만 하다. <조선일보 94.8.29. 19면>

로비스트

워싱턴 로비스트 자격으로 북한을 방문했습니다. 북한 당국자들에게 「당신들이 땅을 내고 돈을 들여서 병원 건물을 지어라. 그러면 의료 기자재와 의약품을 지원하겠다」고 상담했어요. <월간조선172 221면>

로열층

53평형에서는 로열층이 4억6천만원, 1층과 맨 위층인 15층이 4억~4억1천만원으로 가격 차이는 5천만~6천만원에 달했다. <동아일보 94.9.12. 15면>

룩제

국내 룩계의 간판스타 김종서가 세번째 독집 앨범 발표와 동시에 대형 콘서트를 준비하며 인기몰이에 시동을 걸고 있다. <조선일보 94.8.25. 16면>

룩카페

신촌골이 떠나가도록 외치는 구호로 행사는 시작됐다. 응원단의 몸짓에 따라 하나가 되어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른다. 가수 신승훈, 이승환 등이 초청돼 나온 2부에선 노천극장이 노천 룩카페로 변했고, 흥겨운 음악에 맞춰 만여명이 한꺼번에 몸을 흔들었다. <영레이디154 487면>

롱런하다

한국영화는 정상권에서 통련하던 『투캅스』가 10위권 밖으로 밀려나 앞으로의 추이가 관심거리고, 대중상 수상작 『두 여자 이야기』(41위)가 50위 안에 새로 진입했다. <조선일보 94.8.17. 16면>

그같이 일관된 광고 출연을 통한 이미지 관리를 통해, 연기자로, 광고 모델로 모두 통련한 김혜자의 깊은 속마음을 부러워하는 이가 더 많은 것이다. <조선일보 94.8.31. 21면>

루어낚시

최근 보급이 활발한 「루어낚시」는 인조 미끼를 사용하는데다 밑밥도 별로 들지 않기 때문에 오염이 덜한 편이다. <조선일보 94.8.31. 28면>

루프코일

카메라는 주로 교차로 등 혼잡한 도로상에 매설된 자동감지장치(루프코일)와 연결돼 신호 차선 위반은 물론, 끼어들기 난폭 운전 등 각종 위반 차량을 족집게처럼 뽑아낸다. <조선일보 94.9.1. 31면>

루프홀

금융 소득 종합 과세 제도는 금융 상품 중 두 가지 루프홀(탈출구)을 인정하고 있다. <조선일보 94.8.23. 10면>

리뉴얼

金 사장은 사근사근한 성격에 세련된 매너로 롯데월드를 맡으면서 내부를 거의 다 바꾸는 리뉴얼 작업을 펼쳤다고 그룹측은 설명했다. <조선일보 94.9.27. 11면>

리메이크

첫 주에 10위권을 넘보고 있는 김 베신저-알렉 볼드윈 부부 주연의 리메이크 영화 「젯어웨이」의 인기는 예상됐던 것. <조선일보 94.9.7. 16면>

리메이크하다

「젯어웨이」는 스티브 매킨-알리 맥그로우가 주연했던 70년대의 동명 영화를 리메이크한 작품. <조선일보 94.8.31. 19면>

리스트럭처링

엔高에다 그동안의 리스트럭처링(구조재편성) 노력 등의 효과로 미국 기업의 대외 경쟁력이 향상되고 있는 상황과 무관치 않다. <조선일보 94.9.7. 3면>

미국의 우승에는 흔히 「리스트럭처링」이라고 불리는 기업 재편이 크게 한몫 거들었는데, 그것은 대량 해고에 의한 감량 경영으로 생산성을 높이는 수법이다. <한겨레신문 94.9.13. 5면>

리엔지니어링

우선 오는 97년까지 1천5백억원을 들여 산업 자재와 필름 분야를 대규모 확충하고, 주력이던 原系는 리엔지니어링을 위해 97년까지 3천5백억원을 들여 컴퓨터 자동화하기로 했다. <조선일보 94.8.31. 10면>

리펀드

이른바 「리펀드(Refund)」라고 불리는 미국의 현금 환불 제도는 소비자가 제품 구입 1개월 이내 반품을 원할 경우 제품의 하자 여부와는 상관없이 무조건 구입가로 환불

해 주는 것이다. <문화일보 94.6.16. 9면>

립서비스

물론 표면적으로는 『한국 정부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美 당국자들은 되풀이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진행되고 있는 美-北 협상 과정에 한국측 목소리가 실리고 있다는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한국 정부의 최소한의 체면을 고려한 「립서비스」인 셈이다. <조선일보 94.9.3. 2면>



마니플리테

경찰의 이 조처는 이탈리아 정·재계에 대한 사정 수사인 '깨끗한 손'(마니플리테)의 수사팀인 밀라노 사정 검사팀을 지휘하는 프란체스코 사베리오 블레리 검사장이 베를루스코니 총리에 대한 수사를 시사한 뒤에 취해진 것이다. <한겨레신문 94.10.8. 5면>

마당극

1~3일 낮 12시 전통 혼례식을 재연하며, 3일 오후 1시엔 놀이패 「신명」의 마당극 「돼지풀이」가 벌어진다. <조선일보 94.9.27. 17면>

마당놀이극

94 미스코리아 8명이 오늘(13일) 오후 6시 30분부터 방송될 MBC 여름특집 『아름다운 것이 좋다』에 출연, 마당놀이극 『그린 그린』으로 숨겨진 장기를 과시한다. <조선일보 94.8.13. 14면>

마당발

이로써 확실한 체육계 실제로 발돋움한 그가 이번에 부회장직을 맡게 된 건 행동반경이 넓어 마당발로 통하는 데다 평소 탱크처럼 물불 가리지 않고 뛰어드는 추진력을 김운용 대한체육회 회장이자 부위원장인 높이 평가한 덕분이었다는 게 체육계 중론. <조선일보 94.8.25. 27면>

♣ 의미가 다름

마라톤협상

이홍구 통일원 장관을 수석 대표로 하는 남쪽 대표단과 김용순 최고인민회의 통일정책위원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북측 대표단은, 이 날 마라톤협상에서 정상회담 시기와 장소 문제에 대해 집중 협의했다. <시사저널245 6면>

현대중공업 노사는 협상 「마지노선」으로 잡았던 23일 오후 2시부터 8시반까지 마라톤협상을 벌여 그동안 최대 쟁점이었던 무노동 무임금과 고소 고발 취하 등 2개항 중 회사측이 고소 고발 문제에 대해 유연한 입장을 보이고 노조측도 한발 양보함으로써 자울타결의 극적 드라마를 엮어냈다. <동아일보 94.8.24. 30면>

마마보이

부권이 실추되고 다수의 여성 선생님 아래서 교육된 남자들이 점점 여성화돼 가는 실정이다. 그런 상황을 더 부채질하듯 TV나 영화에서 걸핏하면 눈물을 흘리는 남자, 성인이 되어서도 자기주장이 없는 이른바 마마보이들을 쉽게 발견하게 되는 현실에서 이런 강한 캐릭터들은 상실해 가는 남성스러움을 재발견하게 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영레이디154 327면>

배우 박상민이 최근 촬영을 시작한 이명세 감독의 「남자는 괴로워」에서 헤어스타일까지 바꾸고 「마마보이」 분위기 가득한 X세대 신입사원역을 맡아 열연중이다. <조선일보 94.9.9. 16면>

마이너스 옵션제

시공업체가 아파트 골조와 내벽 공사까지만 담당하고 내부 마감과 실내 인테리어는 입주자가 자신의 취향대로 꾸미는 마이너스 옵션제가 국내 처음으로 시행된다. <동아일보 94.9.16. 27면>

마이크로미니

그동안 마이크로미니나 스위퍼맥시(바닥을 쓸고 다닌다는 비유적 표현) 등 아주 짧거나 거추장스럽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긴 스커트 또는 원피스 말고는 구경하기 힘들 정도로 미니와 맥시의 공존 체제는 완강한 것으로 비쳐져 왔다. <동아일보 94.8.20. 9면>

마이크로컨트롤러

또 마이크로컨트롤러를 내장해 취침할 때나 외출시 적정 온도를 유지해 주는 적정 온도 유지 기능과 겨울철 동결 방지 기능, 연료 적정량 공급 기능 등을 자동화한 제품들이 나와 있다. <한국일보 94.9.19. 18면>

마크맨

그러나 문제는 수비에 있다. 최고의 공격수인 에체베리가 결장하고 있는 볼리비아에는 산체스와 크리스탈도 등 2명의 우수한 미드필더를 보유하고 있어 한국 수비진을 긴장시키고 있다. 김 감독은 이들에게 전담 마크맨을 붙일 예정이지만 누구를 선택하

느냐는 고민을 갖고 있다. <한국일보 94.6.21. 23면>

마피아적

‘참여민주사회와 인권을 위한 시민연대’ 운영위원장 이삼열 교수(숭실대 철학과)는 “범죄 수법의 엽기성과 마피아적 조직성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면서 “이번 사건은 우리 사회의 잘못된 교육 제도 속에서 청소년들이 버림받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준 것”이라고 말했다. <한겨레신문 94.9.22. 3면>

만족도

대우증권의 고객만족지원팀은 산하 지점들에 ‘공포의 조직’이다. 지난해 9월과 올해 2월 이 팀은 전국 73개 지점을 대상으로 고객 만족도 조사를 실시했다. 지점마다 주요 고객 5백명 가운데 50명을 무작위로 뽑아 직접 면담을 통한 설문 조사를 한 것이다. <한겨레신문 94.9.26. 8면>

만효자

레슬링은 앞서 벌어진 예선에서도 3개의 은메달을 확보함으로써 한국팀의 만효자 노릇을 톡톡히 해 일본 추격의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한겨레신문 94.10.6. 1면>

말피

무엇보다도 중국, 러시아, 일본이 바라는 분단의 고착화(어떤 論者는 이것을 마지못해 「분단의 안정화」로 말피를 부렸지만)를 미국 혼자서 마다할 이유가 없다. <조선일보 94.9.11. 5면>

망극병

金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수석 비서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부정부패는 亡國病(망국병)이라는 생각에서 대통령의 모든 것을 걸고 지금까지 부정부패를 일소하겠다는 각오와 자세로 일해왔는데 仁川 사건이 터져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朱熾植 대변인이 전했다. <조선일보 94.9.17. 1면>

망라주의

그러나 이같은 긍정적인 개발 지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번 계획도 나열주의와 망라주의의 전시적 성격을 떨어버리는 데는 실패한 것 같다. <조선일보 94.9.7. 3면>

망서랍

그것보다는 칸으로 나뉜 서랍이나 망서랍이 물건을 찾기 쉽고 수납도 효율적이라 결과적으로 작업 시간을 줄인다. <여성중앙 94.8.29면>

맞고함

민자당 안에서조차 '지역이기주의'와 '정치적 의혹'으로 맞고함을 주고 받으며 극심한 진통을 겪었던 행정 구역 개편은 결국 국무부 안을 유지하는 선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방향이 잡혔다. <한겨레신문 94.9.6. 4면>

이에 梁昶植 위원장이 『질의를 빨리 안하면 중지시킬테니 떠들지 말아달라』고 중재했으나, 민주당 의원들은 책상을 치며 『떠들지 말라니 군사문화식 협박조가 아니냐』며 고함. 그러자 元 의원도 질의 뭉치를 던지며 『밤새워 자료를 만들었는데 언제 하느냐』고 맞고함. <조선일보 94.9.29. 5면>

맞교환

해외 여행이 붐을 이루면서 젊은 부부들 사이에 요즘 아기 돌볼 사람을 찾느라 비상이 걸렸다. -중략- 소형 아파트촌의 젊은 부부들은 비슷한 연배의 부부들과 함께 아이를 '맞교환'을 하는 방법도 애용한다. <스포츠조선 94.7.25. 19면>

맞대결

어디서 많이 본, 광고 문안 같은 알듯 모를 듯한 '커피, 카피, 코피'(김유민 감독, 거원영역 제작)의 두 남녀 주인공인 김병세와 진희경이 각자 성(性)의 자존심을 걸고 맞대결을 선언했다. <스포츠조선 94.8.2. 20면>

이날 최대의 하이라이트는 「한국 수영의 자존심」 지상준(한체대)이 출전하는 남자 배영 2백m. 한국과 일본의 간판 스타 지상준-이토이 하지메(絲井統)의 맞대결에서 지가 금메달을 따 준다면 중국-일본에 눌러 고전을 면치 못했던 한국 수영의 자존심을 되찾을 수 있다. <조선일보 94.10.5. 26면>

맞대응

한 사측 교섭위원은 『회사가 노조측 기동대의 폭력행위를 성토하고 나서자 노조측이 「이런 분위기에서 조업을 강행시켜 폭력을 유발시키려는 속셈을 모를 줄 아냐」며 맞대응을 하는 등 협상장은 침묵과 고성만 오갔을 뿐 대화는 없었다』고 전했다. <조선일보 94.8.23. 30면>

맞바람

한편 결혼을 철석같이 믿다가 케네디 2세

의 우유부단한 태도에 실망했던 대릴 하나도 LA에서 다른 남자와 밀애를 한 것으로 알려져 눈길. 하나는 한 파티에서 만난 미남 청년과 자신의 집에서 밤을 같이 보내 케네디 2세의 외도에 대한 맞바람(?)으로 맞섰다는 것. <스포츠조선 94.9.5. 11면>

♣ 의미가 다름

맞받아치다

그런데 지금은 말도 잘 나오고 상대방이 공격하면 맞받아칠 정도로 배짱도 생겼어요. <조선일보 94.9.5. 7면>

맞제소하다

12·12 사태와 관련, 당시 합수부측 인사들이 鄭昇和 씨 등을 잇따라 맞제소하고 있어 주목된다. <조선일보 94.8.17. 30면>

맞칼

그럼에도 대한항공측의 자세 또한 흔들림이 없어 보인다. 이날 오전 교통부의 구두 경고가 날아왔는데도 그룹 수뇌부가 참석한 회의에서는 교통부의 요구 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는 것이다. 오히려 교통부가 먼저 개정안 초안이 언론에 공개된 경위를 해명하라고 반격을 가했다. 대한항공도 맞칼을 뽑아 든 형세다. <조선일보 94.8.23. 29면>

매개질

주사과야말로 우리의 엄청난 『사회정신적 공해』이며 그 근원은 북한이지만 매개질은 우리 사회 내부에 깊숙이 뿌리박고 기생하면서 젊은 세대들을 병들게 하고 있는 것

이다. <조선일보 94.8.27. 5면>

매니지먼트

지난 8년간 한 번도 제대로 쉬어 보지 못했어요. 이번 기회에 머리로 좀 식히고 돌아와서 다시 일을 시작할 겁니다. 다시 시작할 땐 몇몇 스타의 매니저가 아닌 보다 큰 규모의 매니지먼트 사업을 벌일 계획입니다. <영레이디154 357면>

매립지

또 내년에는 2단계로 연산 1백만대의 공장 증설을 위해 가덕도에 1백70만평의 매립지를 조성해 전용 부두 등을 포함, 2백25만평에 1백50만대 생산 규모의 종합 자동차 공업 단지를 조성한다는 것. <동아일보 94.8.26. 10면>

매매춘

매춘이란 말은 옳지 않다. 구매자 없는 판매자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매매춘인 것이다. 그것이 사고 파는 관계인 만큼 그 유형과 종류는 자본주의 여느 상품만큼이나 다양하다. <영레이디154 560면>

매수세

주택은행은 8월중 전국적으로 주택 거래가 한산한 가운데 안정세를 보였지만, 서울과 수도권 소형 아파트를 중심으로 이사철에 대비한 매수세가 나타나 소폭 상승 추세를 보였다고 분석했다. <조선일보 94.9.15. 11면>

매칭되다

단체 미팅은 남녀 2백여명이 한 자리에 모여 '맞선'을 보는 대규모 이벤트, 레크리에

이선 강사의 지도 아래 좌석을 바꿔가며 대화와 게임을 즐기면서 마음에 드는 상대를 점찍어 두었다가 적어내면 서로 매칭되는 쌍을 찾아 만남을 주선한다. <여성중앙 300 543면>

맹비난하다

북한은 이날 <로동신문> 논평에서 김 대통령의 경축사에 대해 “극히 철면피하고 오만불손하고 악질적인 것”이라고 맹비난하면서 “온 겨레가 90년대 통일을 주장하고 있는 때에 점진이요, 단계요 하면서 통일을 늦잡는 것 자체가 겨레의 통일 지향에 대한 도전”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지난 15일 김 대통령의 경축사 이후 처음 나온 공식 반응이다. <한겨레신문 94.8.19. 2면>

머니벨트

돈은 머니벨트에 넣어 맨살에 닿게 두르고 그 위에 옷을 입는다. <영레이디 154 598면>

먹자골목

서울 종로구 인사동 4거리에서 안국동 로터리로 이어지는 1km 2차선 일방통행로 뒤편은 소문난 한식당 밀집촌이다. 화랑 고미술점 필방 지업사 표구사 화방으로 유명한 전통문화의 마을이 찾길 따라 형성돼 있고, 차도 안쪽은 제각각 먹자골목의 풍경을 띠고 있다. 이 거리 안국동쪽 끝 크라운베이커리 왼쪽 골목으로 들어서면 보이느니 한식집 간판뿐이다. <일간스포츠 94.8.4. 22면>

멀티미디어

또 컴퓨터 세대인 이들은 컴퓨터를 이용한 갖가지 체험을 한다. 정보 통신의 총아라고

일컬어지는 멀티미디어 이용이 증가하고 인간의 감성과 기계 장치가 결합된 사이버 어뮤즈먼트가 부상한다. 이로 인해 현재로서는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일들이 벌어진다. <일간스포츠 94.6.30. 31면>

멀티스크린

이번 콘서트에선 이미자의 노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멀티스크린과 특별 연출 기법이 선보인다. <조선일보 94.10.7. 19면>

멀티큐브

전시장 중앙에 마련된 멀티큐브와 25대의 개인용 컴퓨터에도 관람객들이 몰린다. 여기에서는 1백10년에 이르는 우리나라 우정 역사와 각종 우표 문화 정보를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다. <조선일보 94.8.21. 27면>

메달박스

역대 아시안게임서 총 56개의 금메달을 따내 한 대회 평균 5개를 상회, 부동의 「메달박스」 구실을 해 온 복싱은 <조선일보 94.9.9. 26면>

메달발

그 증거는 ▲일본의 메달발 불링-가라데-수영이 끝났고 ▲한국은 농구-남녀 핸드볼, 하키 등 구기에서 호조이며 ▲근대 5종 등 비인기 종목에서도 절대 유리하다는 3가지로 요약된다. <조선일보 94.10.11. 26면>

면죄부

이날 시민들의 전화 가운데에는 언론을 겨냥해 “또다시 언론이 박 총장 발언 두둔에 나선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비판

의 목소리도 많았다. 텔레비전을 통해 일문일답 과정을 지켜보면서 전화를 걸었다는 김아무개 씨는 “언론들이 박 총장 발언의 진위를 파악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그의 발언을 그대로 전파하는 데 급급하고 있다”고 분개했다. 회사원 최아무개(32) 씨도 “최근 발언 반복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박 총장에게 방송이 면죄부를 주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겨레신문 94.8.27. 14면>

♣ 의미가 다름

명교향악단

로블레스는 주변 메타, 쿠르트 마주르, 로스트로포비치가 이끄는 명교향악단과 협연하고 데카 등 굴지의 레이블로 20여종의 레코드를 낸 세계 하프계의 명인. <조선일보 94.9.23. 19면>

명분주의

그는 우리 사회가 창조적인 분위기로 나아가는데 장애 요인으로 속물주의와 과잉 명분주의를 들고 학력 금권을 앞세우거나 공허한 이념으로 흑백 논리를 강요하는 행위 등을 제어해야 한다고 밝혔다. <동아일보 94.8.30. 14면>

명연출자

속마음에서는 진한 애정을 가졌으면서도 겉으로는 ‘쓰레기같은 영화’라고 떠들고 다니는 감독 장선우는 올해 베를린 영화제에서 ‘화염경’으로 ‘알프레드 바워상’을 받아 세계적으로 연출력을 인정받은 명연출자 <스포츠조선 94.8.9. 32면>

명해석자

스테판스키는 작곡가 카를 시마노프스키의 명해석자로도 널리 알려진 연주자이다. <조선일보 94.9.9. 37면>

모니터링

『코덱스 규격의 수용 여부를 결정짓기 전에 선행해야 할 각종 식품에 대한 국민의 섭취량, 영양상태, 오염도에 대한 포괄적인 연구 및 모니터링이 아직 부족하다. <조선일보 94.8.29. 29면>

모던클래식

독일형 삼익 피아노는 세계적인 거장들이 만드는 피아노의 명품입니다. 독일의 「클라우스 뢰너」가 음향학적으로 완벽히 설계하고, 디자인 또한 세계적 거장인 미국의 「케니 벤슨」이 남다른 품격을 지닌 모던클래식 스타일로 완성합니다. <여성중앙300 149면 광고>

모델료

일부 인기 연예인의 광고 모델료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역대 모델료는 이제 더이상 화젯거리가 못될 정도로 최근 최고 액수의 모델료 경신이 잇따라 이루어지면서 모델료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의 소리가 높다. <한겨레신문 94.9.2. 12면>

모자씨우다

흑에게 모자씨움을 당하면 갑갑할 것이므로 그를 피해야 한다는 생각은 누구나 한다. 그러나 피하는 방법으로 공배와 같은 점을 택하기란 쉽지가 않다는 얘기다. 갑갑함도 피하면서 실리도 벌어들이는 점, 그런 능률적인 수를 모색하는 것이 보통이라

는 얘기다. <조선일보 94.9.9. 16면>

모자애

작년 12월 창업식을 가진 다솜 화장품을 위해 아내 하희라와 카탈로그 모델을 자칭했던 최수종이 이번의 TV CF까지 출연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 평소 '마마보이'로 불릴 정도로 모자애가 방송가에 자자하긴 했지만 어머니 회사를 위해 방송 CF까지 출연하는 것이 '모양새가 이상해' 선뜻 나서지 못했다는 것. <스포츠조선 94.8.27. 19면>

모집인

내년부터는 또 일반인들이 국-공채를 쉽게 살 수 있도록 기존 증권사뿐 아니라 은행과 보험사도 창구나 모집인을 통해 국-공채를 직접 팔 수 있게 된다. <조선일보 94.8.31. 10면>

모험기업

따라서 韓-日 양국은 다같이 피라미드형 산업 구조를 유지 또는 구축하기 위해 중소기업 및 중견 기업의 육성과 함께 독창적 연구 개발 능력을 갖춘 모험기업의 창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이 나왔다. <조선일보 94.10.5. 5면>

모험주의적

신부이자 대학 총장인 박홍 씨가 한달째 '뉴스'를 만들어내고 있다. 그의 한마디로 극단적인 보수 반공의 고기압대가 형성됐다. 민족 화해 분위기는 냉전 회귀 열기로 대체됐다. 그러나 이런 국면 변화가 단순히 모험주의적인 박 씨 개인의 언동으로 빚어졌다고 보는 것은 사태를 너무 가볍게 평

가하는 것이다. <한겨레신문 94.8.19. 4면>

목말라하다

美대표단이 먼저 평양을 방문키로 한 데는 관계 정상화를 목말라하는 金正日의 갈증을 풀어준 뒤 북한을 美-北 3단계 회담의 종착점으로 고분고분 끌어가겠다는 복선이 깔려 있다는 이야기이다. <조선일보 94.9.3. 2면>

물개성

이같은 색깔 경쟁에 대해, 미용 디자이너 이상일 씨(헤어뉴스 대표)는 『국내 화장품의 색상을 다양화하고 질을 높이는 발전적인 면이 있지만, 반대로 유행을 획일화, 물개성을 초래할 우려도 크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 94.8.23. 19면>

몰래카메라

양재 운전족들에겐 위반일부터 3일 이내에 어김없이 「몰래카메라」가 찍은 「부끄러운」 사진과 함께 벌칙금 스티커가 날아가기 때문이다. <조선일보 94.9.1. 31면>

몰취미

여가나 사교와는 담을 쌓고 오직 수술에만 매달리는 외과의사가 있었다. 그의 '몰취미' 생활을 걱정한 동료들이 하루는 강제로 그를 오페라에 데려갔다. <한겨레신문 94.9.13. 5면>

몸풀기

그러나 아직은 정치의 본격 복원이라기보다는 이를 위한 몸풀기의 수준이라고 보는 게 옳을 듯 하다. <동아일보 94.8.30. 4면>

못질

李 총무는 이어 경기도 분할론과 관련, 『경기도는 조선 開國 후 6백년을 하나의 道로 살아왔다』며 『다시는 이 문제로 왈가왈부하지 말아야 한다』고 거듭 못질.
<조선일보 94.9.3. 4면>

♣ 의미가 다름

묘수풀이

당연히 책임자인 문정수 사무총장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순리대로 될 것이니 조금만 지켜보라”고 비켜가고는 있지만 묘수풀이가 제대로 되지 않는 모습이 역력하다. 이에 대해 당내 일각에선 지역 공조직 등에 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졸속으로 의원들을 영입한 탓으로 고민을 떠안은 ‘자승자박’이라는 지적도 뒤따르고 있다. <한겨레신문 94.8.29. 4면>

무가지

40쪽 안팎 두께로 발행되는 이 책자들은 예외없이 비디오 대여점에서 무료로 구해볼수 있는 無價誌. <조선일보 94.10.5. 16면>

무가치관적

연쇄 납치 살인 사건은 우리 사회의 잘못된 교육과 사회 제도가 낳은 이른바 ‘무가치관적 신세대’들의 심각한 도덕 불감증과 한탕주의가 극에 달해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한겨레신문 94.9.2. 3면>

무공해차

배기가스·소음이 없고 폐차 후에는 부품이

전량 재 활용되는 무공해차를 만들자. 최우선적인 목표는 휘발유가 필요없는 차. <중앙일보 94.10.4. 8면>

무관세

정부소식통은 『영종도 국제도시는 홍콩을 모델삼아 여행객들이 노비자로 입국. 거의 무관세로 쇼핑을 즐길 수 있게 해 주는 등 한국식 법률 관행이나 행정 규제를 받지 않는 파격적인 개념의 자유도시를 건설한다는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조선일보 94.8.13. 1면>

무규범

누가 탈냉전 시대를 평화의 시대라 말하고 있는가. 평화는커녕 약육강식과 무규범과 혼돈의 시대가 오는 것만 같다. <조선일보 94.9.17. 5면>

무기강

집권 핵심 세력의 일원인 文正秀 사무총장은 「윗물」보다는 「아랫물」의 문제점을 집중 거론했다. 『주로 하위직 공직 사회에 나타나고 있는 무소신, 무기력, 무기강 현상은 국민의 대정부 불신으로까지 확대된다고 볼 때 과감한 특단의 조치를 통해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조선일보 94.10.5. 2면>

무기교

아무런 기교가 없다. 그러나 기교를 이기는 것은 결국 무기교 아닌가. <조선일보 94.9.9. 16면>

무기력감

「이웃감시조직」은 주민들이 자신의 지역에서 의심스러운 사람이나 행동을 발견하면 즉각 신고토록 상호 비상 연락 및 경계 체계를 조직화한 것이다. 주거 침입 범죄를 방지하고 범죄에 대한 시민들의 무기력감과 두려움을 줄이는 데 효과를 보고 있다. <조선일보 94.10.1. 29면>

무내용하다

『주체사상』에 관한 책자를 읽어보면 김 부자 이외의 다른 어떤 사상가도 인용되어 있지 않다. - 중략- 이토록 무내용하고 재미없는 책을 읽고도 동조자가 생긴다는 것이 이상하다. <동아일보 94.8.28. 5면>

무대접

7일 오후 강원 춘천시 삼천동공원 내 자유회관에서 열린 民主黨 지역 정책 개발 공청회에서는 이른바 강원도 무대접에 대한 성토가 주류. <동아일보 94.9.8. 4면>

鄭在哲 강원도 지부장은 『강원도 『무대접』이란 지역의 소리를 잠재울 만한 지역 개발』을, 金正秀 부산 지부장은 『삼성자동차 공장 부산 유치 ▲아시안게임 유치 등 「현안」 해결』을 주문하고 있다. <조선일보 94.8.25. 4면>

무대책

더구나 인근이 택지 개발로 지반이 마구 파헤쳐지고 있는 실정이어서 비상시 침수 우려가 높은 데도 아무런 사전 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아 철도청의 무대책 행정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동아일보 94.8.30. 29면>

무동기

한데 근간에 잇달고 있는 연쇄 살인 사건은 원인을 살 일이 있는 특정 대상도 아니요, 돈 욕심이나 치정 같은 동기가 뚜렷한 것도 아닌 불특정 무동기의 범죄라는 공통성을 지니고 있다. <조선일보 94.9.29. 5면>

무력화시키다

비살상무기는 일시적으로 적을 무력화시키는 기술에서부터 군사 장비를 못 쓰게 만드는 무기까지 다양하다. <조선일보 94.10.5. 23면>

무른모

뉴스 기업정보 등의 온라인 DB,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시스템(DBMS), 문자인식 무른모를 비롯한 DB 무른모 등이 골고루 출품됐다. <조선일보 94.9.13. 9면>

무마용

여태껏 수차에 걸쳐 정부가 발표한 공무원의 처우 개선은 일과성 발표 내지 공무원 불만에 대한 무마용으로 끝나버리고 만 듯한 느낌이다. <조선일보 94.9.27. 13면>

무배달

국내 첫 할인점이라 할 수 있는 창동점은 계산원과 진열대에 상품을 채우는 직원 외에 종업원을 두지 않는 소비자 셀프서비스, 무배달, 묶음판매 등의 독특한 관리·영업 방법을 통해 줄어드는 비용을 가격에 반영시켜 상품값을 정상가격보다 30% 가까이 싸게 했다는 게 E-마트쪽의 설명이다. <한겨레신문 94.9.8. 8면>

무벌점

경찰청은 2일 안전 운전에 대한 제도적 지원 대책의 하나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운전 면허 적성 검사 면제 범위 확대안을 마련했다. -중략- 확대안에 따르면 현재 5년으로 돼 있는 적성검사 유효 기간 중 무사고·무행정처분을 받은 모범운전자는 적성검사 면제 기간을 2년 더 연장, 7년으로 하고 이 기간 중에도 무사고·무벌점을 기록하게 되면 향후 7년 동안 적성검사를 면제하는 그런면허증을 교부받게 된다. <중앙일보 94.9.3. 22면>

무보험

무보험 차량이 급증하고 있는 현상은 매우 위험하며 정부가 서둘러 대책을 세워야 할 주요 현안의 하나이다. <조선일보 94.10.7. 3면>

무분규

해마다 노사 분류와 조업 중단이 악순환을 되풀이해 온 현대자동차가 올해 임금 협상을 최단기간 무분규 타결로 마무리한 것은 현 노조 집행부가 과거 투쟁 중심에서 벗어나 산업 평화와 생산성 향상을 중시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국일보 94.9.15. 11면>

무소신

金대통령은 이날 靑瓦臺에서 李榮德 국무총리 및 전국무위원들과 저녁식사를 같이 하며 이같이 말하고 『이와 함께 보신주의와 무소신을 말끔히 추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아일보 94.9.14. 1면>

집권 핵심 세력의 일원인 文正秀 사무총장은 「윗물」보다는 「아랫물」의 문제점을 집중 거론했다. 『주로 하위직 공직 사회에 나타나고 있는 무소신, 무기력, 무기장 현상

은 국민의 대정부 불신으로까지 확대된다고 볼 때 과감한 특단의 조치를 통해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조선일보 94.10.5. 2면>

무의탁

롯데그룹은 2일 『재단법인 롯데복지재단은 내외국민을 막론하고 재해 근로자를 지원하고, 양로원같은 사회복지시설과 무의탁 노인 장애인 등 불우이웃을 돕는 사업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히고 <조선일보 94.9.3. 2면>

무인감시카메라

서울경찰청이 이달부터 실시하는 「무인감시카메라」 교통 단속은 이미 보편화된 방식이지만 국내에서는 처음 도입되는 시스템. 가로등이나 전봇대, 건물 등등에 숨겨져 있는 첨단 카메라가 교통경찰관 역할을 대신하게 된다. <조선일보 94.9.1. 31면>

무자료거래

국세청은 1일 전국의 화장품 가전제품 건축자재 의류상 등을 대상으로 9월 한달간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거래하는 무자료거래 일제 조사를 벌인다고 발표했다. <동아일보 94.9.2. 11면>

세금을 떼어먹을 목적으로 세금 계산서 없이 상품을 거래하거나 가짜 세금 계산서를 주고받는 무자료거래는 그 규모가 현재 연간 15조~20조원 규모로 추산될 정도로 막대하다. <한겨레신문 94.8.7. 7면>

무쟁의

현대강관(사장 林平圭) 노조가 국제 경쟁력 향상을 위해 앞으로 무쟁의 전통을 이룩해 나가자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조선일보 94.9.1. 31면>

무행정처분

경찰청은 2일 안전 운전에 대한 제도적 지원 대책의 하나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운전 면허 적성 검사 면제 범위 확대안을 마련했다. -중략- 확대안에 따르면 현재 5년으로 돼 있는 적성검사 유효 기간 중 무사고·무행정처분을 받은 모범운전자는 적성검사 면제 기간을 2년 더 연장, 7년으로 하고 이 기간 중에도 무사고·무벌점을 기록하게 되면 향후 7년 동안 적성검사를 면제하는 그린면허증을 교부받게 된다. <중앙일보 94.9.3. 22면>

무허가업소

朴 씨는 지난 2월 단행된 택시 요금 인상 때도 무허가업소에서 미터기 요율을 변경하고 납세필증 등을 위조하는 방법으로 당국의 적발을 피해 왔다. <조선일보 94.9.27. 29면>

문란상

국방위의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에 대한 감사에서 鄭石謨(민자)-姜昌成 의원(민주) 등은 『현역 육군 장교의 무장 탈영은 군 기강 해이와 지휘 체계의 문란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중대한 사건』이라고 질타하며, 군 수뇌부의 각성과 군 기강 확립을 위한 강력한 대책을 촉구했다. <조선일보 94.9.29. 4면>

문민정부

- 대통령 최종 재가 과정에서 바뀐 부분은 없는가. = 김영삼 대통령은 지역 민방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내락설 등이 나돌아 의혹이 생길 경우 문민정부에 큰 오점을 남긴다며 공정하게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은 공보처의 결정을 전폭 수용했다. <한겨레신문 94.8.11. 3면>

문민화

▲孫豊三 씨(손풍삼·국제사회문화연구소장·예비역육군대령)=문민화 시대를 맞아 문민화에 걸맞는 게임 룰의 엄격한 적용이 필요하다. <조선일보 94.10.7. 3면>

문제거리

유럽이 변혁기를 맞고 있다. 복지 국가 이념에 대한 회의론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치적 혼돈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경제 성장의 정체와 마약의 확산도 문제거리다. <조선일보 94.10.11. 6면>

문책성

시즌 전 1위감이라는 평가에도 아랑곳없이 불화로 인해 7위까지 추락한 OB는 몽둥이를 든 사령탑과 숙소를 빠져나간 선수 모두에게 책임을 묻고 큰 규모의 문책성 트레이드를 단행할 예정이어서 「파행」의 추이가 주목된다. <조선일보 94.9.7. 27면>

물갈이

스테파노플로스 선임 보좌관, 린제이 보좌관, 기어런 공보국장, 마이어스 대변인 등 선거 때부터 클린턴을 보좌했던 측근

들이 거의 모두 인사 대상에 들어있어 대
대적인 물갈이를 예고하고 있다. <조선일보
94.9.17. 2면>

이문세와 이휘재가 MBC TV 「일요일 일
요일 밤에」를 떠난다. 이로써 「이문세-이
홍렬-이휘재」라는 트로이카 체제로 안정
가도를 달리던 「일요일…」이 17일 가을
개편과 함께 대폭 물갈이가 불가피하게
됐다. <조선일보 94.10.7. 19면>

♣ 의미가 다름

물값

행정 관청인 시가 생수 시판에 나설 경우
시가 오염 사고 때마다 가장 안전한 물이
라고 강조해 온 수돗물의 식수 사용 불가
사실을 결과적으로 공인하는 것이 돼 수돗
물에 대한 불신은 증폭될 것이고 결국은
시민 모두가 생수를 비상시가 아닌 일상의
식수로 쓰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것이
대부분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이는 막대한
비용을 들여 생산한 수돗물이 허드렛물 정
도로 전락하고 시민들은 상수도에 비해 훨
씬 높은 물값을 이중으로 부담하는 결과를
가져 오게 된다는 것이다. <한겨레신문 94.8.31.
17면>

물건너가다

노조측은 조업을 막기 위해 집단 폭력뿐
아니라 정문을 폐쇄해 조업을 막겠다고 공
언, 협상에 의한 타결 기대는 사실상 물건
너간 분위기였다. <조선일보 94.8.23. 30면>

물놀이객

빠어난 풍광을 자랑하는 울산 태화강 상류
의 '선바위'가 해마다 여름철이면 더위를

피해 이곳을 찾는 물놀이객의 목숨을 앗아
가는 '죽음의 바위'가 되고 있다. <한겨레신문
94.8.7. 15면>

물딱지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재개발
조합이 무자격 세입자에게 세입자용 입주
권(속칭 물딱지)을 대량 발급, 아파트 전체
가 준공검사를 못받거나 등기를 못하는 사
례가 많아 정식 조합원이나 일반 분양자들
이 재산상의 큰 피해를 입고 있다. <조선일
보 94.9.1. 28면>

물설다

톱텔런트 김희애와 인기 상승의 신인 차인
표 등 쟁쟁한 연기자와 스태프 45명이 물
설고 낚선 알마아타 땅에서 40여일째 악전
고투하고 있는 현장이다. <조선일보 94.8.13. 15
면>

물청소

남산 3호터널 내부의 물청소로 인해 27일
밤 10시부터 28일 오전 6시까지 쌍굴 터널
중 1개 터널의 차량 통행이 통제된다. <동
아일보 94.8.26. 27면>

물침대

그러다 보니 이들 여관의 경쟁도 치열해져
건물 외양에서 내부 시설까지 웬만한 호텔
을 뺄치는 곳이 많다. '비디오, 물침대, 회
전침대 시설 완비' 등의 간판이 붙어 있는
곳도 있다. <영레이디154 565면>

물회오리

구명동의를 착용한 상태에서 개별적으로

바다에 뛰어내릴 때는 뱃머리쪽의 양옆을 이용한다. 선미쪽은 스크루와 물회오리때문에 위험하다. 배가 침몰시 인근의 물을 빨아들이면서 잠기므로, 뛰어내린 다음엔 최대한 배에서 멀리 떨어진다. <조선일보 94.8.17. 19면>

미전

생태장 혹은 화장의 위기에 빠진 대만의 개들에게 구원의 손길이 닿았다. '대만 견공들 수난 - 집 잃은 개 20만 마리 도살 계획'이 보도돼(본지 5월 30일자 27면) 애견인들에게 충격을 준 직후 한국동물보호회 윤신근 회장(41·애견종합병원 원장)이 대만측과 접촉, 미견(迷犬)들을 한국으로 공수해 올 것을 결정한 것. <일간스포츠 94.6.5. 22면>

미국통

「미국통」인 韓 장관이 크리스토퍼 美 국무장관, 앤소니 레이크 백악관 보안 담당 보좌관 등을 만나 韓-美 공조 「異狀無」를 과시하고, 국내의 우려의 목소리를 향후 미국의 對北 정책에 최대한 반영해 보겠다는 뜻이다. <조선일보 94.9.3. 2면>

미끼통

1회용 미끼통 대신 나무로 만든 재사용 미끼통을 사용하고, 쓰레기 봉투와 도시락을 준비해 고질적인 쓰레기 오염을 막아야 한다. <조선일보 94.8.31. 1면>

미니디스크

(주)SKC는 차세대 정보 기록 매체인 미니디스크(MD)를 국내 최초로 개발했다고 28

일 발표했다. <조선일보 94.9.29. 10면>

미니멀리즘

미니멀리즘과 팝 아트-20세기 세계 미술사에서 1960년대를 화려하게 수놓았던 미술사조의 주인공들 작품전이 화단의 가을 시즌을 맞아 잇따라 열리고 있다. <조선일보 94.9.15. 15면>

미니밴

鄭夢九 회장은 현대강관을 통해 가덕도 일관제철소 계획을 밀어붙였고, 4륜 구동 지프를 생산해오던 현대정공쪽에서는 승용차-승합차 구분이 모호한 미니밴 생산계획을 공식화했다. <조선일보 94.8.27. 8면>

미래차

미래차 개발은 어느 수준에 와 있는가. 자동차 업계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세계 유수 업체들은 새 기술로 21세기 미래차를 만드는 데 여념이 없다. <한겨레신문 94.9.26. 11면>

미래형

서울 난지도 일대 1백68만평이 남북 교류 거점 지역으로, -중략- 용산역 주변 1백만평은 국제 정보 업무 중심의 미래형 도심 공간으로, 뚝섬 일대 20만평은 다목적 종합 위락단지로 각각 조성된다. <조선일보 94.9.9. 1면>

91년엔 시즈오카에 『먹고 보고 생각하는』 미래형 공장을 세워 감자깍질 깎기에서 믹싱까지 전과정을 손으로만 처리한다. <조선일보 94.8.29. 9면>

미발령

그러므로 정규군 입대 前에 공개 경쟁 채용 시험에 합격했으나 아직 미발령 상태에서 정규군 입대 및 군복무 만기 제대를 했다면, 병역 의무 기간도 경력으로 인정하도록 일반공무원법 및 각 농림수산부 산하 단체법과 국영 기업체법 조항에 추가 삽입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조선일보 94.9.27. 13면>

미시

미시들은 자기 만족을 위해 혹은 남편으로부터 경제적인 독립을 쫓기 위해 메이크업을 배우고 직업을 갖는 등 자기 계발에 힘쓴다. 그들은 금방 자고 일어난 듯한 부스스한 모습을 거부하고 세상 돌아가는 일에 민감하며 남편과 대등한 관계의 독립된 인격체로 대우받길 원한다. 이를 위해 미시들이 보여주는 자기 계발의 접근 방법은 각양각색이다. <경향신문 94.5.22. 10면>

최근 광고에서 쓰기 시작한 미시의 엄격한 정의는 가정주부와 직업인으로서의 자신의 일을 다하면서 적극적으로 자기 표현과 주장을 펼치는 여성. 이를 감안하면 신화는 아직 완전한 미시족이 되기엔 부족하다. 그리고 그것이 반드시 바람직한 여성상이라 단언할 수도 없다. <한국일보 94.6.16. 19면>

미시족

탤런트 박지영의 연기 변신이 인상적인 KBS 1TV 일일극 「당신이 그리워질 때」의 유신화는 마치 미시(MISSY)족의 대명사처럼 언급된다. 기혼여성이면서도 미혼같은

외모만 보고 내린 선부를 판단일 것이다. <한국일보 94.6.16. 19면>

미신고

현재 IAEA측은 북한이 5MW 원자로의 연료봉을 자의로 추출한 상태에서 과거 핵을 밝힐 수 있는 방법으로 寧邊의 2개 미신고 시설에 대한 사찰과 북한의 자진 신고 등을 고려하고 있다. <조선일보 94.8.23. 1면>

미어터지다

지방에서 적게는 5천명, 많으면 수만명이 몰려온다. 방마다 미어터지기 때문에 「칼잡」을 자지 않을 수 없다. <조선일보 94.9.7. 2면>

미타결되다

현대중공업 노사는 이날 오후 2시 20분부터 신관 회의실에서 직장 폐쇄 해제 뒤 이례적 협상을 갖고 미타결된 임금 및 단체협약, 해고자 복직 등 쟁점과 파업 기간중 임금 손실 보전, 노조 간부에 대한 고소 취하 및 민·형사상 책임 불문 등 현안 문제에 대한 막판 절충을 벌여 6시간여만인 오후 8시 30분께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다. <한겨레신문 94.8.24. 1면>

미팅족

이에 따라 미팅족들 사이엔 '윌리 게임'을 위한 해법까지 등장. 미팅 중개인 역만 벌써 두번째라는 조중현군(21·S대 1년)은 "인기있는 배트맨같은 가면보다는 조금은 혐오감을 유발하더라도 드라큘라 고릴라 해골 등의 가면을 착용, 빨리 눈에 띄는 것이 최고"라고 귀뜸. <스포츠조선 94.5.31. 18면>

미합의

韓-美 정부는, 북한도 과거 투명성 규명이 美-北 회담의 종착점이라는 데는 『未合意의 合意』를 본 상태라고 보고 있다. <조선일보 94.8.23. 2면>

미확보

검찰은 이와 함께 安씨 등이 입건된 지난 3일 이후 핵심 인물의 가택과 사무실에 대한 경찰의 압수 수색이 한번도 실시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물증 미확보를 이유로 경찰에 출두한 安씨를 귀가 조치하는 등 초동수사를 소홀히 한 경위도 조사 중이다. <동아일보 94.9.16. 31면>

미회수율

또 차량을 찾지 못한 미회수율도 올해 44.2%(1만3천1백33대)에 달해 90년 이후 평균치인 22.8%보다 크게 늘어났다. <조선일보 94.9.29. 30면>

믹스견

윤신근 씨가 살려줄 개들은 주로 중·대형견이다. 차우차우, 시추 등 고가의 소형 애완견들은 길거리에 버려질 리가 없기에 그래이트 데인, 복서, 도베르만 핀서, 포인터 등 몸집 큰 개들과 믹스견(잡종)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일간스포츠 94.6.5. 22면>

민간복

이 통신에 따르면 게릴라전을 수행하기 위해 아이티 병사들이 민간복으로 갈아입고 대중 속으로 「증발」하도록 명령받았다는 것. <조선일보 94.9.17. 5면>

민생침해사범

최근 범민족대회 등 각종 시국 치안에 경찰력이 묶이면서 강절도 등 주요 민생침해사범이 크게 늘고 있으나 범인 검거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아일보 94.8.22. 30면>

민영화

그러나 롯데측은 『정부 민영화 작업에서 분당 서현 역사가 삼성 그룹에 넘어갔듯이 대통령의 사돈 덕분에 롯데 그룹에 돌아오는 혜택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조선일보 94.9.27. 11면>

밀거래

최근 플루토늄 밀수 혐의로 뮌헨 공항에서 붙잡혀 현재 구속 상태인 독일 상인 예클레는 북한으로부터 전권을 위임받아 플루토늄 등의 무기 밀거래를 하는 사람으로 밝혀졌다고 독일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너 차이퉁지가 독일 보안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 29일 보도했다. <조선일보 94.8.27. 1면>

밀리언셀러

대중문화 상품은 본격적인 밀리언셀러 시대로 접어들었다. <희망사항>, <하여가>, <핑계> 등 무려 9개의 음반이 밀리언셀러로 기록되었고, 단행본에서도 밀리언셀러가 16개 나왔으며, 미시족·야타족·야따족·벌타족·난데족 등 신세대의 떠오름을 알리는 신조어들이 수를 헤아리기조차 힘들 정도로 양산되었다. <시사저널260 52면>

밀리터리룩

밀리터리룩은 직선적인 실루엣(윤곽)의 재킷과 몸에 꼭 끼는 스커트(타이트 스커트)의 상하 조합으로 대표되는 것으로 허리를 가늘게 조여 긴장감과 여성적인 감성을 표현한 형태인데 요즈음은 어깨의 견장이나 허리띠 군화 등까지를 액세서리로 활용하는 추세다. <동아일보 94.10.2. 9면>

이번 가을 정기 바젠세일에서 백화점들이 강조하는 여성 의류쪽 포인트는 「밀리터리룩」(Military Look), 군복같은 느낌을 풍기는 제복 스타일이다. <조선일보 94.10.7. 37면>

밀반입되다

문제는 밀반입된 총기류가 살인 사건에 이용되고 사회 불안과 민심 교란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조선일보 94.9.13. 13면>

밀반출

서울 지검 형사5부 尹錫正(윤석정) 부장검사는 14일 외화 밀반출 혐의로 고발돼 검찰의 조사를 받았던 盧太愚(노태우) 前 대통령의 장녀 素英 씨(소영·33)와 사위 崔泰源 씨(최태원·34·최종현 선경그룹 회장 장남) 부부를 무혐의 처리했다. <조선일보 94.9.15. 31면>

밀수입되다

금수 조치에도 불구하고 「인도주의」 차원에서 해외에서 공급되는 휘발유를 「휴마니테」, 도미니카 국경 사막지대를 타고 밀수입되는 휘발유를 「오디네」(보통)라고 부른다. <조선일보 94.9.25. 6면>

밀어붙이기

12일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을 둘러싸고 재야 법조계가 보이고 있는 초강경 분위기는 헌법 재판소의 정치도구화를 막아야 한다는 당위성과 김영삼 대통령 특유의 밀어붙이기 인사에 대한 현실적 우려라는 두 가지 차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한겨레신문 94.9.13. 3면>

밀집촌

서울 종로구 인사동 4거리에서 안국동 로터리로 이어지는 1km 2차선 일방통행로 뒤편은 소문난 한식당 밀집촌이다. 화랑 고미술점 필방 지업사 표구사 화방으로 유명한 전통문화의 마을이 찾길 따라 형성돼 있고, 차도 안쪽은 제각각 먹자골목의 풍경을 띠고 있다. 이 거리 안국동쪽 끝 크라운베이커리 왼쪽 골목으로 들어서면 보이느니 한식집 간판뿐이다. <일간스포츠 94.8.4. 22면>

밀등지

사람 속 밀등지에 박힌 옛 자취. 그것을 문화라 했던가. 그 자취를 따라 연결된 화랑은 아름답다. <조선일보 94.9.15. 15면>

밀밥망

미끼도 지렁이 등 동물성 미끼나 생분해성 인조 미끼를, 밀밥은 물속에서 서서히 풀리도록 고안된 철망 형태의 밀밥망을 사용해야 한다. <조선일보 94.8.31. 1면>

니

바그너광

스튜더는 자타가 공인하는 바그너 가수. 85년 바이로이트 무대에 엘리자베스(탄호이

저)로 출연하면서 이름을 얻은 그는 두 아이의 이름을 바그너 악극에 나오는 젠타와 엘자로 지을 만큼 바그너광이다. <조선일보 94.10.1. 17면>

바닥권

부동산뱅크 관계자는 「일부 지역에서 오름세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지난 3월말 이후 정채 상태인 집값이 바닥권에서 벗어나는 기미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동아일보 94.8.20. 11면>

그러나 두 사람의 반응은 확연히 다르다. 자타가 대표급 의원임을 인정하는 김 의원 쪽은 “하라면 하지만 내가 지금 지부장을 할 처지냐”고 멀떠름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반면 바닥권에서 맴돌았던 정 의원은 의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겨레신문 94.8.22. 4면>

바닥세

클린턴의 인기가 바닥세로 떨어진 것은 조직적인 홍보를 못한 것이 주원인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조선일보 94.8.27. 7면>

바닥재

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직접 만들어 집안을 꾸며 볼 수 있는 재활용 소가구를 비롯, 가을 분위기가 나는 인테리어 소품과 바닥재 등 건축 자재의 쇼핑 정보를 실었다. <동아일보 94.9.2. 17면>

바이오

물론 할머니들은 그 공연(?)의 값으로 바이오 목걸이니 무슨 보약이니 하는 것들을

샀다. 『어디 공짜가 있느냐』며 혹은 꼬깃꼬깃 모아 두었던 용돈도 털고 혹은 아들 며느리 줄라 놀이방 값을 치른 것이다. 이웃 할머니는 목걸이를 치켜 들며 『요즘은 바이오 시대여』하셔서 한참 웃기도 했다. <동아일보 94.9.22. 16면>

박탈감

“돈 많은 자를 저주하며 이들로부터 10억 원을 강취한다”는 이들의 행동 강령에는 부유층의 재산 축적에 대한 극단적인 증오와 함께 합법적인 방법으로는 도저히 가난을 벗어날 수 없다는 빈곤층의 박탈감이 짙게 배어 있기 때문이다. <한겨레신문 94.9.22. 3면>

반건달

사업 실패 후 그는 정치판으로 복귀했으나 「半건달」 상태로 야당관을 해맸으며 13대, 14대 때 각각 평민당 민주당 공천을 받아 출마했으나 당시 이 지역의 「反金大中 정서」 때문에 형편없는 득표로 거꾸 고배를 마셨다. <문화일보 94.8.3. 3면>

반국가성

이들은 또 “지난 4월 11일 소설 <태백산맥>의 반국가성을 사지 당국에 고소 고발하면서 탄생한 순수 애국 단체”라고 자신들을 소개하고 소설 <태백산맥>에 대해 “우익은 악의 대명사로, 좌익과 빨치산 인민군은 해방전사로 찬양, 김일성 부자 집단을 민족의 태양으로 묘사하고 그를 추종하는 집단을 만들어내는 중요한 매체”라고 비난했다. <한겨레신문 94.9.1. 23면>

반권위주의

더군다나 문민으로 오기까지의 反권위주의가 자칫 「권위 그 자체」에 대한 경멸로 잘못 인식된 점이 정말로 있었다면, 이젠 다시 참 권위와 꿀릴 것이 없는 「호랑이」를 살려놓아야만 한다. <조선일보 94.10.1. 5면>

반기계화

고베에 있는 (주)룩필드는 식품 대량 생산 시대에 反기계화를 외치는 뉴비즈니스 업체이다. <조선일보 94.8.29. 9면>

반덤핑

경쟁라운드와 관련해서는 反덤핑-反독점 금지 정책 등 기업 활동을 제한하는 각종 규제를 완화해 나가자고 보고서는 주장했다. <조선일보 94.9.1. 11면>

반도덕

문제는 반도덕이 가치로 부각되고 있는 X 시대에 왜 이같은 전시대적 가르침이 굶주리듯 수용되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조선일보 94.9.9. 5면>

반독점

경쟁라운드와 관련해서는 反덤핑-反독점 금지 정책 등 기업 활동을 제한하는 각종 규제를 완화해 나가자고 보고서는 주장했다. <조선일보 94.9.1. 11면>

반동지적

대부분 主流 계열인 이들은 이날 결의문을 통해 김 고문이 보선 후 신민당 지도부와 만나 민주당의 慶州 승리를 평가절하한 것

은 『반동지적 작태』라고 비난하고 金 고문과 야권 통합을 논의한 신민당측에 대해서도 『통합의 의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맹공. <조선일보 94.8.17. 4면>

반등세

을 들어 동반 하락하던 아시아 증시는 지난 7월부터 힘찬 반등세를 보여 홍콩 합정지수는 5월 연중 최저치 8천3백69에서 지난 9일 1만 1백50으로 급상승했고, 싱가포르 스트레이트 지수도 2천2백대의 저점을 넘어서 지난 9일 2천3백4까지 올랐다. <조선일보 94.9.23. 10면>

반박성

기획원의 반박성 분석 자료가 청와대의 지시로 작성됐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으나, 문민정부의 경쟁력 하락을 지적한 보고서에 당황한 정부의 심기를 반영하고 있다는 평가이다. <조선일보 94.9.11. 11면>

반소비

한국 정책 결정에서 광범하고 독단적인 反소비 무드는 미래 한국의 발전에 어울리지 않으며, 오히려 국제 경쟁력을 해친다. <조선일보 94.9.5. 15면>

반인륜적

사회 구조와는 아무 상관없는 反人倫的(반인륜적) 흉악범죄 행위까지도 언필칭 사회의 구조적 모순과 병리를 빙자하여 자기합리화하려는 범죄 심리는 단호히 배척돼야 할 것이다. <조선일보 94.9.23. 3면>

반정부성

공안 당국이 '이적성'을 강조하는 또다른 이유는 최근 들어 학생 시위의 대규모화 등 한총련의 '반정부성'이 두드러진다는 점도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겨레신문 94.5.20. 18면>

반주사파

참혹한 북한 사회에서 『주체』 이념의 쓰디쓴 열매를 오랫동안 맛보아 온 북한 사람들은 모두 무언의 반주사파로 되었고 민심도 등돌린 지 오래다. <조선일보 94.8.27. 5면>

반짝세일

채소, 과일 등은 백화점 문 닫을 무렵에 가면 「반짝세일」을 하므로 아주 싼 값에 살 수 있다. <조선일보 94.10.7. 36면>

반쪽발이

허술한 양복에 찌죄죄한 맥고모자를 쓴 이자는 진고개 일본상인 밑에서 일한 적이 있어 일본말도 할 줄 알고 일본사람 행세도 하는 반쪽발이었다. <조선일보 94.8.25. 5면>

반체제성

검찰은 이런 수사 배경에 대해 한총련과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범청학련)에 의해 제작·배포된 유인물 내용이 노골적인 친북·이적 성향을 띠는 등 최근 학생 운동의 '반체제성'이 위험 수위에 이르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한겨레신문 94.5.20. 18면>

반카톨릭

전체적으로 보아 <세계의 어머니>는 여성주의와 아일랜드 애국주의, 반카톨릭이라는

오코너 음악의 기존 세계의 연장이면서 동시에 그 자신의 고통에 대한 화해이자 치유로서의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보인다. <한겨레신문 94.9.26. 13면>

받아먹다

제일기획은 광고업계 1위 자리 유지에 결정적으로 기여해 온 삼성 계열사 광고를 가만히 앉은 채로 받아먹지는 않겠다며 가시발길을 자청한 셈. <조선일보 94.9.1. 10면>

발매기

사업단측은 발매소 9곳을 중심으로 대형 TV 모니터 1백67대를 곳곳에 설치, 판전 편리를 도모하고 있으며 미국(오토토社)으로부터 90대의 발매기도 수입했다. <조선일보 94.9.17. 27면>

발사기

10월 28일 오후 7시 30분 남대문에 설치된 레이저 발사기에서 나온 빛은 이날 행사의 주마당이 될 시청앞 분수대 옆 「하늘무대」에 도달하면서 동시에 「현재」에 이르게 된다. <조선일보 94.9.29. 28면>

발생량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의 시행이 불과 열흘 앞으로 다가왔으나 환경처는 이에 필요한 기본적인 준비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다. <동아일보 94.8.22. 30면>

발생률

“우리는 이 나라의 범죄 발생률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동시에 죄수 과다 수용에 따른 감방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도 있어야 한다. 민주적인 정부가 들어선 지금 우리가 더욱 많은 감옥을 지어야 하는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는 것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남아공은 세계 최대의 범죄 발생률을 기록하는 나라 가운데 하나라고 그는 말했다. <한겨레신문 94.8.25. 5면>

발언록

딱딱한 이들 책에 비해 『벽돌이 하나씩 쌓일 때』와 『글쎄, 어떨까요』는 서양 사학자로서의 蘊蓄을 바탕으로 車교수가 사회에 던졌던 **발언록**이다. <조선일보 94.8.27. 13면>

발잡이

올라주원이 휴스턴 로케츠를 NBA 결승까지 끌어올리고 뉴욕 닉스도 결승에 진출한다면 그는 좋은 대화 상대를 만날 수 있다. 닉스의 센터인 패트릭 유잉도 자메이카에서 미국으로 이주하기 전인 13세때까지는 축구선수로 뛰어난 자질을 보이며 ‘제2의 펠레’를 꿈꾸었던 ‘**발잡이**’였기 때문. <스포츠조선 94.5.30. 7면>

발탁인사제

능력주의 新인사 바람이 확산되면서 **발탁**인사제 폭이 넓어지고 있다. 발탁인사제는 업무 능력과 잠재력이 탁월한 간부 사원을 승진에 필요한 최소 연한보다 훨씬 앞서 승진시키는 제도다. <조선일보 94.8.31. 11면>

방류수

서울, 경기, 강원 등 한강 유역의 지방자치

단체들이 운영하고 있는 분뇨 처리장 가운데 절반 이상이 환경 기준을 넘어서는 **방류수**를 배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조선일보 94.9.29. 28면>

방송단

총 74명의 **방송단**을 파견한 KBS는 중계를 위해 1~2채널을 동시에 가동, 타방송사보다 여유를 보이고 있다. <조선일보 94.9.27. 16면>

방일감

올해도 아무도 말리지 않고 누구도 규제하지 않는다는 사회적 **방일감**이 그런 행동을 가능하게 하는 것 같다. <조선일보 94.8.19. 3면>

방주형

하늘을 찌를 듯한 초현대식 건물과 「그랑다르쉬」라는 **방주형** 대형 건물은 구시가지의 고색창연한 건물과 잘 어울린 파리의 명소. <조선일보 94.9.5. 25면>

방탄성

지난해 말 말레이시아에 64대가 수출된 한국형 장갑차는 말레이시아 유엔 평화 유지군의 주력 기동 장비로 보스니아 내전에 투입돼 **방탄성**과 기동성에서 우수성이 입증됐다. <한겨레신문 94.8.24. 2면>

배꼽걸이

문신에 이어 최근 새로 등장한 유행은 코걸이나 **배꼽걸이** 등 신체에 구멍을 뚫어 장신구를 거는 것. 패션에서의 인도풍 붐과 함께 콜티에 등 유명 디자이너들이 인도풍

의 요란한 장신구와 차림을 발표하면서 지난 봄부터 급속히 퍼져가고 있다. <일간스포츠 94.6.30. 27면>

배꼽티

폭염 속에 수은주가 떨어질 줄 모르는 요즘 여성들의 '관제리룩'은 '배꼽티'에 이어 또 한차례 '노출 논쟁'을 제공할 전망이다. <스포츠조선 94.7.30. 15면>

배팅하다

클린턴이 군사 개입을 노골적으로 선언한 것도 『크게 배팅하면 상대방이 겁을 먹고 물러설 것』이라는 도박 심리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조선일보 94.9.15. 7면>

배후자

민자당 金永光(김영광) 의원은 『이번 사건의 배후자 명단을 검찰이 가진 것으로 안다』며, 명단 공개와 전면 확대 수사를 촉구했다. <조선일보 94.10.5. 5면>

백색혁명

우리나라 농촌 지도 사업은 우량 신품종 보급으로 식량의 자급을 달성한 녹색혁명을 70년대에 이룩했고 비닐하우스 농법의 보급으로 한겨울에도 푸른채소의 공급을 가능하게 한 백색혁명을 농민들과 함께 해냈다. <동아일보 94.8.24. 19면>

백인백색

백인백색의 개성인들이 모여 있는 신촌에는 거리마다 집집마다 그들의 빛깔을 담고 있다. <조선일보 94.10.7. 40면>

백일주

4일 오전 2시30분쯤 경북 안동시 수상동 안동대교 밑 낙동강 반변천에서 안동 시내 A중학교 3학년 金모 양(15)이 고교입시 1백일을 앞두고 친구들과 함께 입시생들 사이에 합격주로 알려진 「백일주」를 마신 뒤 강물에 빠져 숨졌다. <조선일보 94.9.5. 31면>

백티

☞ 챔피언티

밴(VAN)

데이콤은 1일 국내 최초의 유통 VAN(부가가치통신망)을 개통한다. 백화점을 비롯한 유통업체와 제조업체들을 연결하는 유통 VAN은 표준화된 서류를 컴퓨터 통신으로 주고받는 전자문서교환(EDI)을 통해 상품의 수-발주와 대금 결제에 이르기까지 모든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해 준다. <조선일보 94.9.1. 23면>

번지점프

스카이다이버들은 낙하산이 퍼지는 순간 죽음의 위기를 벗어 났다는 묘한 쾌감을 느낀다고 한다. 번지점프라는 신종 스포츠는 생명줄이 달려있다는 것 이외에 투신 자살과 다를 바 없다. <조선일보 94.8.31. 15면>

벌칙성

일부 은행은 이달초 한은으로부터 고금리 벌칙성 자금을 빌려 지준을 넘긴 뒤 갖고 있던 주식을 팔고 민간 대출을 줄여 여유자금을 확보, 단기 자금 시장인 콜시장에서 운용하는 등 기업대출을 대폭 줄이는 양상

이 나타나고 있다. <동아일보 94.8.26. 10면>

벌크화물

총 21선좌에 연간 처리 능력 2천4백50만t 인 항만 시설을 개발, 양곡과 목재-철강 등 벌크화물과 중부권 지역 화물을 분담 처리. <조선일보 94.9.7. 5면>

범여성계

이번 「여성연대」의 출범은 그간 각자의 목소리로 「할당제」를 주장해 왔던 여성 단체와 관련 연구기관들을 하나로 묶어 각 정당에 보다 강력하게 범여성계의 의견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동아일보 94.8.30. 17면>

범죄관

지존파 및 溫保鉉 사건에서 보듯 최근 범죄꾼들이 자동차 등을 이용, 전국을 무대로 첨단범죄 행각을 벌이고 있어 지금과 같은 영성한 공조수사 체계로는 대형 강력범죄에 대처할 수 없다는 게 수사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동아일보 94.9.30. 30면>

범죄력

이들은 또 망원경이 달린 사냥용 공기총과 전자봉, 전차 충격기 등으로 중무장하는가 하면 심지어는 다이너마이트까지 마련했다. 이들은 특히 사냥용 공기총에 항상 실탄을 넣은 채 갖고 다녔으며, 수시로 사격 연습을 하기도 했다. 한마디로 이들은 지금까지의 우리나라 폭력 조직의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선진적인 '범죄력'을 갖춘 것이다. <한겨레신문 94.9.22. 3면>

범죄인식하다

그러나 공직 사회 일각에서는 「玉石(옥석)」을 구분하지 않고 전 공무원들을 범죄인시하는 발상을 토대로 한 대책은 자칫 수그러드는 「복지부동」을 다시 부채질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 <조선일보 94.9.17. 3면>

범주류

民主黨 총무 경선에서 비주류의 辛基夏 의원이 범주류의 金台植 총무를 누르고 당선되는 이변이 발생했다. <한국일보 94.5.28. 1면>

범외노조

南載熙 노동부장관은 『철도-지하철 파업, 전노대의 연대 파업, 현대중공업 장기파업 등 일련의 노사분규 악화로 노동법 쟁점 조항에 대한 우려가 많아 분위기가 안정되고 범외노조들이 성숙할 때까지 법개정 추진을 유보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조선일보 94.8.29. 2면>

범외단체

전기협이 범외단체이면서도 합법 노조인 철도 노조를 배제하고 자신들과의 직접 협상을 다른 여타 요구 조건에 앞선 기본 전제로 고집하고 있는 점도 정부는 같은 맥락으로 보고 있다. <한국일보 94.6.21. 30면>

법조타운

본격적인 휴가철로 접어들면서 서울시 서초동 법조타운이 '개점휴업' 상태를 맞아 눈길. 법조타운의 서울 민사, 형사지법 등 4개 법원의 판사 2백 38명 가운데 거의 절반에 이르는 1백40여명이 1일부터 휴가를 떠났기 때문. <스포츠조선 94.8.2. 19면>

베드타운

최근 울산 시계를 벗어난 울산군 농소, 범서면 등이 신흥 베드타운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것은 울산 시내의 부지 사정상 불가피한 선택이며 앞으로 울산군의 「베드타운화」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일반적이다.
<동아일보 94.10.4. 27면>

베드타운화

최근 울산시계를 벗어난 울산군 농소, 범서면 등이 신흥 베드타운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것은 울산 시내의 부지 사정상 불가피한 선택이며 앞으로 울산군의 베드타운화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일반적이다.
<동아일보 94.10.4. 27면>

베타테스트

마이크로소프트는 올초 전세계를 대상으로 2만개의 윈도우 4.0의 베타테스트를 실시해 앞서 달렸으나 최근 윈도우 4.0의 출하를 내년으로 연기하는 등 혼선을 빚고 있다. 이에 따라 IBM은 이번에 대대적인 베타테스트를 실시함으로써 일거에 반격을 가한다는 전략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 <전자신문 94.9.9. 22면>
♣ 의미가 다름

벨트색

여권, 항공권, 보험증 등은 출입국 때는 곧바로 쓸 수 있도록 벨트색에 넣어 두고 여행지에 도착하면 돈과 함께 머니벨트에 넣어 가지고 다닌다. <영레이디154 598면>

벼락스타

넷째는 연기력이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대사 처리가 안 돼도, 감정 소화가 부족해도 연출자가 음악이나 분위기로 커버해 주기 때문이다. 차인표가 벼락스타가 된 이유도 이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조선일보 94.8.23. 16면>

변주곡

군사 정권 시절 정권의 텃밭에서 김 정권 등장 이후 소외 지대로 변한 대구·경북 지역에서 묘한 관계의 두 사람이 어떤 변주곡을 빚어낼지 벌써부터 정가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겨레신문 94.8.22. 4면>

♣ 의미가 다름

보관처

또한, 가영치 인력과 예산은 시-군 단위로 공기충만의 보관처를 만들면 되고 수렵기에 가영치 해제를 하려면 포획 승인을 적법하게 얻어야 되나 50만정이라면 포획료만 7백억원이다. <조선일보 94.10.5. 13면>

보도집

나이 서른이 넘어가면 퇴물 소리를 듣는다. 호객일을 하는 펌프로 머물거나 사창가를 떠나 '여관발이'나 전화발이로 나서야 한다. 흔히 말하는 '보도집'이나 '밥집'에서 살면서 여관에서 부를 경우 몸을 파는 일을 하는 것이다. <영레이디154 563면>

보따리상권

인천과 위해를 잇는 속칭 황해 보따리상권이 처음 형성되기 시작한 것은 90년 9월 한-중간 첫 정기여객선 위동페리호의 취항이 계기가 되었다. <조선일보 94.8.21. 3면>

보물급

보물급으로 평가되는 백제 시대 금귀고리 2점, 고려 시대 금제 옷장식 1점을 비롯해 日帝 때 일본으로 유출됐던 우리 문화재 3백77점이 고국에 돌아왔다. <조선일보 94.9.23. 2면>

보신주의

金 대통령은 이날 靑瓦臺에서 李榮德 국무총리 및 전국무위원들과 저녁식사를 같이 하며 이같이 말하고 『이와 함께 보신주의와 무소신을 말끔히 추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아일보 94.9.14. 1면>

부패한 공무원들을 일벌백계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강도 높은 司正은 대다수의 선량한 공무원들마저 주눅 들게 하고 공직사회에 保身主義를 만연케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司正의 수위를 적절히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동아일보 94.9.22. 6면>

보장책

따라서 이번 2차 회의에서 뭔가 보장책을 쓰지 않으면, 미-북 회담이 다시금 수렁으로 빠져들지 모른다는 우려를 한-미 정부가 공유한 것으로 보인다. <조선일보 94.9.23. 5면>

보트피플

제일교포들은 국적이 없는 보트피플과도 같다. 한국에서도 권리를 행사할 수 없고 일본에서도 마찬가지다. <영레이디154 371면>

보행로

종로구는 이 탐방로의 보도와 차도를 확장

석, 컬러 아스팔트로 각각 시설하고 숫대형 가로등 15개, 썬지공원 4개소, 벤치 등을 설치해 쾌적한 보행로로 꾸미겠다고 28일 밝혔다. <조선일보 94.9.29. 28면>

보험증

여권, 항공권, 보험증 등은 출입국 때는 곧바로 쓸 수 있도록 벨트색에 넣어 두고 여행지에 도착하면 돈과 함께 머니벨트에 넣어 가지고 다닌다. <영레이디154 598면>

복제기

이 가운데 게임뱅크 대표 李명렬 씨는 자신의 업체에 복제기를 설치해놓고 불법복제-밀수입된 게임팩을 재복사 싼값에 팔아온 것으로 밝혀졌다. <조선일보 94.8.29. 31면>

복합공해

그러나 이같은 사정에도 불구하고 울산시는 복합공해라는 말만 되풀이할 뿐 구체적인 공해 저감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동아일보 94.10.4. 27면>

복합극장

영화인이자 한국예총 회장인 신영균 씨가 옛 명보극장을 헐고 최신 시설을 갖춘 복합극장 명보플라자를 오픈하자 영화인들은 물론 관객들은 『성춘향』 『깊고 푸른 밤』 등 과거 화려했던 한국 영화관 명성 회복을 기대했으나 결과는 전혀 판판이라 실망을 금치 못하고 있다. <조선일보 94.8.19. 16면>

복합장르

우리 영화도 최근 들어 장르의 구분이 허물어지는 탈장르 현상이 두드러져 주목된

다. 한마디로 장르를 꼭 집어서 말할 수 없는 이른바 **복합장르** 형식을 추구하는 영화가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는 것. <일간스포츠 94.6.30. 32면>

본격화되다

원화의 切上(절상) 시대가 본격화되고 있다. 원화는 올해초부터 서서히 절상을 거듭하다가 지난 7월부터 절상 폭을 넓혀왔고, 연말에는 對美 달러 환율이 7백90~7백95원까지 내려갈 것으로 일부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다. <조선일보 94.9.15. 11면>

불링장

불링장 대중음식점 전자오락실 회의실 등의 부대시설과 26평형 2백4실 48평형 4실 등을 갖추게 되는 이 콘도는 오는 95년 말 완공 예정이다. <동아일보 94.8.24. 27면>

부가가치란

최근 건강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크게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일반 계란보다 훨씬 다양한 성분을 강화시켰다는 소위 「부가가치란」(특수란)이 대거 등장하고 있다. 이른바 비타민 강화란·요드 강화란·오메가 강화란·인삼란·약초란 등이다. 그러나 이런 부가가치란에 대해 아직 국가 기관이나 전문기관에서 성분 분석을 한 일이 없어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는 이에 대한 공식적 성분 분석이 시급한 실정이다. <중앙일보 94.7.5. 31면>

부가가치 통신망

☞ 밴(VAN)

부실투성이

최근 개통된 분당선 전철이 '부실투성이'인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지난 6월 분당선 건설 사업에 대한 감사에서 불필요한 전동차 부품 구매에 따른 낭비, 송풍기와 냉각수 펌프의 불량 제품 사용, 터널 방수 공사 부실 등 부당 사실을 적발해 재시공과 함께 관련 공무원들을 인사조치하도록 철도청에 통보했다. <한겨레신문 94.9.8. 21면>

부양책

그렇기 때문에 국채 관리 업무마저도 중앙은행은 신임 문제에 관련되므로 삼가야 되고 매우 긴급한 경우 정부가 중앙은행을 오버라이드할 경우에도 일정 기간을 정하여 투명성있게 긴급 사태를 해명해야 하며 단기 부양책이나 선거를 앞둔 인플레이 정책은 장기적인 물가 안정을 저해할 위험이 있기에 그런 유혹을 피해야 하며, 일정한 인플레이 목표 달성에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조선일보 94.10.13. 5면>

부인네

“아빠, 아라베스크 호텔로 뷔페 먹으러 가요.” -중략-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가정 부인네들이 자기의 남편한테 하거나 남편을 가리켜 하는 말이다. ‘딸’에 대해서 깊은 생각을 하지 않는 보통의 여느 부인네들만이 아니라 이른바 최고학부를 나왔다는 ‘교양녀’들이 텔레비전에 나와서 하는 말이기도 하다. <한겨레신문 94.8.28. 9면>

부자가정

내년부터 생활 보호 대상은 아니나 생계가 어려운 부자(父子)가정에 대해서도 처음으로

로 정부 차원에서 양육비, 교육비 등이 지원된다. <조선일보 94.8.29. 30면>

부족인

교황은 공항에서 투주만 크로아티아 대통령과 프란요쿠하르치 추기경 등의 영접을 받았으나 지팡이나 부족인의 도움 없이 혼자서 걸음을 옮기는 데 어려움을 느끼는 듯했다. <조선일보 94.9.15. 7면>

부탁거리

그러나 방미를 앞둔 韓 장관의 표정은 그리 밝아 보이지 않는다. -중략- 부탁거리만 잔뜩 짊어지고 美 정부 관계자들을 만나야 하기 때문이다. <조선일보 94.9.3. 2면>

북한통

때로는 열흘, 보름씩 늦게 배급 식량이 도착하기도 하여, 하루 두 끼의 식사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도 자주 있었다는 것이 베이징에서 만난 한 북한통의 지적이었다. <한겨레신문 94.9.17. 2면>

분권화

4개 도시 지역 民放의 운영 주체가 최종 선정됨에 따라 기존의 汝矣島 중심 중앙집중 방송 체제는 본격적인 지역 방송 시대로의 전환을 맞게 됐다. 내년 자치단체장 선거 등 지방화 흐름에 맞춰 방송도 지방자치와 분권화의 시대에 돌입케 된 셈이다. <중앙일보 94.8.10. 4면>

분담액

방위비 분담 문제는 막판까지 난항을 겪었다. 양국은 지난 91년 한국측이 오는 95년

까지 주한미군 현지발생비용(WBC)의 3분의 1을 부담한다는 데 합의했으나 분담액 산정 기준이 되는 WBC의 규모를 한국측은 8억 4천만 달러로, 미국측은 9억 3천3백만 달러로 각각 평가해 그동안 이견을 보여 왔다. <조선일보 94.10.9. 25면>

분도

경기도의 분도를 촉구하는 시민결의대회가 13일 오전 의정부역 서부광장에서 시의회(의장 具仁會) 새마을지회 바르게 살기 운동 협의회 YMCA 일반시민 등 7개 단체 8백여 시민이 모인 가운데 개최됐다. <동아일보 94.9.14. 27면>

분리수거

대구시 서구 내당4동 광장1차타운은 주민과 관리사무소의 일치된 노력으로 쓰레기 분리수거를 통해 주위 환경을 깨끗이하고 쓰레기도 줄이고 있다. <조선일보 94.9.5. 27면>

분실자

어느날 아침에 깨보니 집 앞에 세워둔 자동차가 없어졌다. 이 경우 일반적으로는 분실자가 파출소에 신고하고 보험회사에 찾아가 사정을 말하면 일단 조치는 끝난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그때부터 본격적인 일이 시작된다. <한겨레신문 94.9.13. 6면>

불공정성

북한은 국제원자력기구의 불공정성에서 비롯된 특별 사찰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완강한 태도이나 과거 핵 의혹 문제에 대해서는 “북한과 미국, 국제원자력기구 사이에 신뢰가 형성되면 자연히 해소될 것”

이라며 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겨레신문 94.8.22. 3면>

불관용

쿠클릭스클랜(KKK)단을 옹호하다가 오히려 흑인들이 자신에게 보이는 것과 같은 이러한 무자비한 불관용이 전 인류사를 통해 반복되었으며 그래서 역사가 그 목적을 잃게 되었다는 자기방어적인 작품을 들고 나왔다. <한겨레신문 94.9.7. 15면>

불교통

불교통답게 조계사 폭력 사태가 일어나자 여권과 불교계의 화해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막후에서 나름대로 애를 쓰기도 했다. <동아일보 94.8.18. 4면>

불방망이

포스트 시즌 진출을 이끄는 칠백 마운드를 갖고도 윤덕규·김경기·김동기를 빼고는 믿을 만한 타자가 없어 끙끙 앓던 정동진 감독은 요즘 연신 싱글벙글. 2군 출신의 계기범이 연일 불방망이를 휘둘러대기 때문이다. <한겨레신문 94.8.27. 11면>

불법성

둘째는 불법성, 폭력성의 문제다. 물론 당국이 범추본을 명시적인 이적 단체로 규정하지는 않았다 해도 허가를 얻지 못한 집회를 폭력적으로 강행하는 것은 시대착오적 행위라는 국민적 지탄을 면키 어렵다. <동아일보 94.8.16. 3면>

불사용

북한은 미국이 북한에 대해 핵무기 불사용

과 불위협에 관한 보장을 한다면 비핵화 선언을 이행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히고 있다. <한겨레신문 94.8.22. 3면>

불수

뒤로 젖혀진 손목과 아직도 그 빛을 잃지 않은 손톱, 닿을 듯이 오무린 엄지와 중지가 감각적으로 표현된 이 佛手는 극치에 달했던 발해 불교 문화의 정수를 보여주고 있다. <조선일보 94.8.23. 1면>

불위협

북한은 미국이 북한에 대해 핵무기 불사용과 불위협에 관한 보장을 한다면 비핵화 선언을 이행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히고 있다. <한겨레신문 94.8.22. 3면>

불출석

이밖에 徐義玄 전 조계종 총무원장(상무대 국정 조사 불출석 관련), 金준기 한국자보 회장-대우그룹 관계자(이상 노조 문제 관련) 등도 증인으로 나와야 한다는 것이다. <조선일보 94.9.23. 4면>

불출석하다

그는 『일부러 재판 기일에 맞춰 귀국했다』는 설명과 함께 『굳이 재판일을 연기하거나, 불출석하지는 않겠다』며 담담한 표정이었다. <조선일보 94.8.17. 5면>

불래도

日 환경청은 최근 지나치게 현란한 조명으로 생기는 광해와 밀접한 고층빌딩 사이에서 발생하는 강풍공해의 실태를 국가차원에서 처음으로 조사해 이들 공해의 불래도

등을 나타내는 기준치의 설정을 검토키로 했다. <동아일보 94.8.18. 6면>

불투명성

이홍구 통일 부총리는 17일 기자 간담회에서 “남북대화 재개를 위해서는 북한이 체제 정비를 마치는 게 급선무”라고 밝혔고, 또 다른 관계자는 “현재 남북 관계가 제대로 풀리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핵 문제가 아니라 북한 체제의 불투명성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한겨레신문 94.8.22. 4면>

브랜드화시키다

제품을 크게 종류별로 분류해 특정 종목순으로 브랜드화시켜 한국 제품의 스타일이 어떤 것인지를 소비자에게 인식시킨다. <조선일보 94.9.5. 13면>

브레인풀

브레인풀이라는 것이 있다. 문자 그대로 풀자면 頭腦共同活用制라고나 할까. <동아일보 94.8.18. 1면>

브레인플레

해외 연구 기관에 근무하는 우수한 연구인력을 정부 예산 지원으로 국내 대학으로 유치, 후진을 양성토록 하기 위해 92년부터 정부가 실시해온 『우수교수 연구인력 초빙제(브레인플레제)』가 실시 2년만에 사실상 폐지됐다. <조선일보 94.8.29. 30면>

브이오디(VOD)

전화선을 이용해 영화나 게임 등을 즐기는 주문형비디오 (VOD Video On Demand)서비스가 오는 10월 국내에 첫선을 보인다.

<동아일보 94.8.22. 23면>

브이존

이런 의상의 특징은 재킷의 칼라와 깃(라펠)이 이루는 소위 V존(Zone)이 좁아 기왕의 재킷보다 셔츠 타이 등의 색상이나 형태의 어울림에 더 신경을 써야 한다는 점이다. <동아일보 94.9.4. 9면>

블루스맨

그는 신보에서 평소 존경해 오던 블루스맨들인 머디 워터스, 엘모어 제임스, 프레드 킹, 지미 로저스, 윌리 딕슨 등의 작품을 재해석해 연주하고 있다. <조선일보 94.9.29. 17면>

비경제성

『최근 공개된 세계 경쟁력 보고서는 관료주의 및 재원 조달의 비효율성 등 자유화-개방화 측면에서 한국 경제의 비경제성이 주원인이었다고 본다.』 <조선일보 94.9.15. 23면>

비계량적

각 국가별 점수를 매기는 데는 계량적 방법과 비계량적 방법을 병행했다. <조선일보 94.9.7. 3면>

비교의적

이런 관점에서 이번 근로소득세 개정안은 개악임에 틀림없으며 근본적 치유책을 더 더욱 멀리 밀어버리는 처사로서 정부는 비교의적 과오를 계속 더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바로 인식하여야 한다. <조선일보 94.8.29. 7면>

비과세하다

세금 우대 저축 중 하나인 농어가 목돈 마련 저축 제도는 현재처럼 일정 기간 비과세하고 가입 한도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조선일보 94.8.31. 10면>

비동문

텔런트 차인표 씨를 보기 위해 몰려 든 여중-고생 등 非동문도 상당수 보였다. <조선일보 94.9.11. 19면>

비디오가

비디오가엔 진한 이야기와 작품성을 지닌 드라마들이 일제히 출시되면서 여름을 강타했던 액션-스릴러 영화들과 팽팽한 접전을 벌인다. <조선일보 94.8.31. 19면>

비디오방

빠르면 오늘 9월부터 비디오방이 양성화돼 누구나 일정 시설을 갖춰 신고하면 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 문화체육부는 4일 비디오방 영업자가 이를 등록하고 일정한 운영기준을 준수하도록 하는 내용의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오는 9~10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향신문 94.7.5. 21면>

비디오시디

컴퓨터를 본격적인 멀티미디어 여가·오락 매체로 탈바꿈시켜 줄 비디오시디(CD)가 디지털 시대의 핵심 매체로 떠오르고 있다. 비디오시디는 영화 수준의 움직이는 영상을 세계 표준 디지털 압축 방식으로 압축

해 콤팩트디스크에 담고, 음악은 음악용 시디와 같은 형태로 디지털화해 저장한 콤팩트디스크이다. <한겨레신문 94.9.8. 11면>

비디오자키

평범한 여대생 최할리에게는 지난 13일 이후 우리나라 최초의 뉴미디어 스타이자 비디오자키(VJ)라는 타이틀이 붙어 있다. 스물세해를 사는 동안 연예계 경험이 전무한 그는 지난 13일 내년 3월 개국하는 음악 전문 종합유성방송인 '뮤직네트워크' 주최 'VJ 콘테스트'에서 5백여명의 지원자를 제치고 대상을 차지했다. <한겨레신문 94.9.13. 12면>

비밀과외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한국계 학원 등 동양계 학원들이 명문 고교의 입학 시험 문제를 입수해 학생들에게 비밀과외를 해온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한겨레신문 94.5.20. 5면>

비백인

문턱이 높기로 유명한 백인 중심의 미국 공화당에서 金 의원은 유일한 非백인 의원이다. <조선일보 94.9.5. 7면>

비법률적

『다른 교수들과 진보성에 큰 차이가 없다』는 논거도 제시됐는데, 물론 그럴 수는 있지만 이 점을 정치적 결정이 아닌 司法府의 法的 결정의 논거로 삼는다는 것은 너무나 非법률적이며 편의주의적이며 모호하다는 것이 우리의 견해다. <조선일보 94.9.1. 3면>

비 보도

위낙 친절한 성격 탓에 그동안 기자들의 질문을 그냥 물리치지 못하고 非보도를 조건으로 설명했다가 여러 차례 곤란을 당한 후부터는 말을 아끼는 모습이 역력하다 <조선일보 94.9.11. 4면>

비 보호국

보사부의 이런 방침은 국제 환경 단체들이 한국을 멸종 위기에 있는 코뿔소 뿔과 호랑이 뼈의 주요 소비국으로 지목해 야생동물 비보호국으로 비난해 온 데 따른 것으로, 정부가 지난해 7월 가입한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 거래에 관한 협약'의 확실한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한겨레신문 94.8.25. 18면>

비 살상 무기

비살상무기는 일시적으로 적을 무력화시키는 기술에서부터 군사 장비를 못 쓰게 만드는 무기까지 다양하다. <조선일보 94.10.5. 23면>

비 자본주의

반면 응답자의 49.5%가 「사회민주주의」(31.4%), 자본주의도 사회주의도 아닌 「제3의 체제」(13%), 「사회주의」(4.9%) 등 「비자본주의」를 지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조선일보 94.9.9. 30면>

비 적대적

그러면서도 북한이라는 적대적 상대는 여전히 있다. 이 적대적 관계를 非적대적 관계로 고쳐놓으면 딱 좋겠는데 그것이 아직

은 잘 안된다. <조선일보 94.9.17. 5면>

비 정부기구

최초의 비정부기구는 70년대에 개도국에서 출현해 효과적인 관개농법을 가르치는 등 특수 분야의 임무를 수행했다. 비정부기구들은 80년대 들어 제3세계의 다양한 요구들을 충족시키지 못한 정부와 사적 부문에 대응해 빠르게 세계적으로 확산됐다. <한겨레신문 94.9.16. 6면>

그는 요즘 쿠바의 카스트로와도 정기적 대화를 갖고 있다면서 美 국무부측이 자신이나 미국내 유수 대학들같은 非정부기구들이 위기 상황에서 외교적 돌파구를 찾을 수 있도록 중재 외교를 활성화시키라고 촉구했다. <조선일보 94.9.23. 7면>

비 정치적

이렇게 보면 이번 개각은 金 대통령의 정국 운영 구상과는 별 관계가 없이 단발적으로 이뤄진 非정치적 개각이며, 그동안 축적돼 왔던 여러 개각 요인들은 여전히 남아 있는 만큼, 「연말 대폭 개각」을 더욱 기정사실로 굳혀주는 셈이라 할 수 있다. <조선일보 94.10.5. 4면>

비 정치화

김영삼 정권 기간 중 만일 부산권에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 진다면, 다음 대통령 선거는 이제 단순한 정치적 경쟁이 아니라 후보 출신 지역간의 경제 전쟁으로까지 발전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그렇게 되면 그것은 경제의 비정치화라는 절대절명의 과제에 비추어 불행한 일이다. <조선일보 94.8.29. 1면>

비정형

절제된 색채, 그 위를 명쾌하게 가로지르는 직선과 원, 비정형 기하학적 모양의 화면 등으로 선-면-색이 어우러진 미니멀리즘 특유의 깔끔한 균형미를 보여준다는 평이다. <조선일보 94.9.15. 15면>

비주류

民主黨 총무 경선에서 비주류의 辛基夏 의원이 범주류의 金台植 총무를 누르고 당선되는 이변이 발생했다. <한국일보 94.5.28. 1면>

비직업성

31일 대우조선 노조에 따르면 지난 90년 회사 지정 병원인 대우 병원의 직업성 난청 여부 조사서에 모두 정상 또는 비직업성 질병으로 판정받은 80명이 당시 노조의 의뢰를 받아 별도로 건강 검진을 한 부산 동아대 병원의 진료 기록을 넘겨 받아 재분석한 결과 이 중 69명이 직업성 난청으로 분류됐어야 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는 것이다. <한겨레신문 94.9.1. 22면>

비집권층

35년전 「불평등한 사회로부터의 해방」을 내세웠던 쿠바 혁명인데 35년후 보트피플이 내세운 이유도 똑같은 불평등으로부터의 탈출이었다. 곧 집권층과 비집권층의 불평등이 살맛을 잃게 한 것이다. <조선일보 94.8.21. 5면>

비치백

노출 의상에는 노출 패션 소품이 제격. - 중략- 이른바 '비치백' 속이 비치 보이는

투명비닐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비치백(비치는 백)이라 불리는 것 같지만, 실은 바닷가에서나 어울릴 듯한 가방이라 해서 비치백(beach bag)이다. 노출 패션의 연장선상에서 탄생한 소품으로, 반라에 다름없는 몸엔 역시 속이 들여다 보이는 액세서리가 제격인 까닭. <일간스포츠 94.8.1. 31면>

비항공수익

관서국제공항주식회사 국제과 고바야시 마고토 씨(小林眞30)는 『호텔과 면세점 등 비항공수익을 확보하기 위해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선일보 94.9.9. 10면>

비핵화

中國 국가 주석 江澤民은 최근 北韓 핵 문제와 관련, 「당사자 간 대화 해결」을 촉구하면서 한반도의 비핵화 실현을 강조했다고 北京 방송이 1일 보도했다. <동아일보 94.9.2. 1면>

비화기

둘째 외교관들은 외국과의 회담때 일반적으로 휴대하고 가는 스크램블러(도청방지용의 주파수대변환기)를 이용하는 방법이다. 이것은 암호를 사용하는 비화기이므로 북한측의 해독이 불가능해 활용 가능성이 높다. <조선일보 94.9.11. 3면>

비확산

미국의 核 비확산 정책이 총체적인 난국을 맞고 있는 양상이다. <조선일보 94.8.31. 5면>

비회원

골프장의 부킹 담당자들은 “비회원의 경우,

원하는 날짜와 시간에 라운드를 하기로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잘라 말한다. 게다가 각 골프장들은 ‘부킹난 해소’를 빌미삼아 비회원들에 대한 그린피를 대폭 올릴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어 이래저래 비회원들은 필드 한번 나가기 정말 어렵게 됐다. <스포츠조선 94.5.31. 8면>

비회원국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韓國과 臺灣, 홍콩 등 아시아 및 中南美의 9개 非회원국 그룹과 오는 10월 東京에서 처음으로 고위급 회담을 가질 것이라고 東京의 OECD 사무소측이 26일 밝혔다. <조선일보 94.9.27. 7면>

비흡연자

파리의 정치 연구소는 7일 흡연자들이 「비흡연자들의 생활 수준을 높여 준다」고 주장하는 이색 보고서를 발표. <조선일보 94.10.9. 7면>

빅게임

문일-대신전은 결승에 버금가는 빅게임. 올 시즌 전국대회서 한번씩 우승한 양팀은 강호답게 초반부터 수준높은 경기를 이끌어 효창구장에 운집한 팬들을 매료시켰으나 승운은 문일쪽으로 기울고 말았다. <조선일보 94.9.29. 27면>

빅바이어

나이키 아디다스 등 해외 유명 빅바이어들이 최근 주문량을 늘리면서 국내 신발 산업이 다시 회생 기미를 보이고 있다. <동아일보 94.9.16. 10면>

빅시즌

연중 가장 빅시즌으로 꼽히는 여름 시즌인 7월말 미국 개봉 스케줄을 잡았다는 사실만으로 영화에 쏟아지는 기대치를 짐작케 한다. <스포츠조선 94.7.30. 22면>

빅히트하다

팝의 명곡으로 꼽히는 「끝없는 사랑」(Endless love)이 최근 다른 가수의 노래로 리메이크돼 또 한차례 빅히트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조선일보 94.9.15. 19면>

빌딩존

도심 속의 대표적 불량 주택 밀집 지역인 종로구 내수동 70일대 서울경찰청사 주변 1만1천여평 <그림>이 도심재개발 사업 계획 결정으로 빌딩존으로 탈바꿈한다. <조선일보 94.9.29. 28면>

빌트인시키다

싱크대에는 키가 맞지 않아 불편하던 식기 건조기를 빌트인시키고 슬라이딩장과 내부 칸막이를 설치, 수납 공간을 극대화했다. <여성중앙300 292면>

빠른우편

우편물 체계가 오는 10월부터 현재의 편지·엽서·정기간행물·책 등 4종류에서 ‘빠른우편’과 ‘보통우편’ 두 가지로 바뀐다. 빠른우편과 비슷한 속달 및 국내 항공 우편은 다음달 1일부터 없어진다. <한겨레신문 94.8.11. 18면>

딱딱이

서울 종로구 ㄷ고교 2년 김아무개(17) 군은 “지난 학기에는 삭발한 학생들이 거의 없었는데 최근 2학년 10개 반에서 20명 정도가 ‘빡빡이’”라며 “새로운 개성 표현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한겨레신문 94.9.6. 23면>

빨래방

월풀 빨래방, 메이텍 빨래방, 트리코워시 등 고객이 직접 동전을 사용해 물빨래 세탁기를 작동시키는 동전 자동 세탁점이 이미 대학가와 중소형 아파트가 밀집한 주택가를 중심으로 전국 6백여 곳에 생겨났다. <동아일보 94.9.26. 11면>

뺑끼통

또 교도소 안에서 벌어지는 온갖 범죄 이야기들을 다룬 「뺑끼통」 류의 소설들은 「여감방의 뺑끼통」(전2권)과 「전중이」가 있다. 이들 모두 범죄자들의 교도소 내 생활을 그리는 한편, 교도소에 들어오기까지의 범죄 과정을 묘사하고 있다. 소설 제목들은 교도소의 은어들로 뺑끼통은 감방 안의 변기통을 말하고 「전중이」는 교도소에 복역 중인 사람들을 뜻한다. <동아일보 94.9.24. 15면>

뺑뺑이

현재 알려진 춤방 성업 지역은 서울 봉천동, 미아리 등 달동네 주택가 일대. 이곳의 2~3평 규모의 작은 골방에서는 반주 음악에 맞춰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찍고, 터닝”이란 블루스 스텝을 밟으며 남녀가 한데 몸을 밀착한 채 ‘뺑뺑이’를 도는 장면이 심심찮게 연출되고 있는 것. <스포츠조선 94.6.17. 19면>

뽀빠이바지

흔히 뽀빠이바지라고 부르는 위아래가 붙은 뽀뽀 청바지를 입으면 편하기도 하며 젊어 보이기도 한다. 이 바지에 풍성한 체크 와이셔츠를 입고 스카프를 머리 위로 묶는다면 더없이 귀여우면서도 세련된 옷차림이 될 수 있다. <스포츠조선 94.9.5. 25면>

뽀뽀팅

이곳에서는 이 밖에 상대방을 만나기에 앞서 먼저 전화 통화를 할 수 있게 하는 ‘뽀뽀팅’을 하고 있는데, 같은 내용의 뽀뽀팅도 있다. <여성중앙300 543면>

人

사고기

관계당국은 초속 18.5m의 강풍 속에서 사고기가 무리한 착륙을 시도하다 착륙에 필요한 활주로 거리를 확보하지 못한 채 착지한 것이 사고의 직접 원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한겨레신문 94.8.11. 19면>

사고율

통계적으로 25세 미만 젊은이들의 사고율이 유별나게 높다면 정부는 사고율과 피해율을 엄밀하게 사정한 뒤 차별적 보험요율을 적용하거나 불량 물건의 업계 공동인수 등 사회적 대처 방안을 만들어 내야 할 것이다. <조선일보 94.10.7. 3면>

사고육비

한해 무려 10조원이 넘는다는 사고육비 지출은 서슴지 않으면서 공교육비 부담에는

인색한 잘못된 교육 현실부터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조선일보 94.9.7. 15면>

이러한 사학 정책의 전환은 공교육비보다도 더 많은 것으로 추정되는 사교육비를 공교육으로 끌어들이는 동시에 한계가 있는 교육 재정을 확충하게 됨으로써 교육의 질 향상을 촉진하게 될 것이다. <한겨레신문 94.9.13. 5면>

사별남

이경표와 사별했던 연규진이 노처녀 권재희한테 처녀 장가를 갔다. -중략- 동생 천규진이 몰던 경운기에 치인 악연으로 맺어지긴 했지만 '팬찮은 여자'란 판단에 그동안 연규진이 사별남이란 핸디캡을 던고 적극 구애 작전을 벌여 결국 웨딩마치에 골인, 만면에 희색이다. <스포츠조선 94.7.26. 26면>

사실감

이에 비해 MBC 「종합병원」은 초반 인턴들의 애환을 실감있게 그려내 메디컬 드라마의 성공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우선 작가가 딱딱한 의학 소재들을 생활과 연결시키고 등장 인물들의 캐릭터를 개성화함으로써 친근감과 신뢰감을 동시에 획득한 게 인기의 요인이었다. 여기에 실제 병원에서의 촬영으로 사실감을 높인 데다, 출연진들도 생소한 분야의 연기를 열의로 소화해내 호감을 더해 주었다. <조선일보 94.7.26. 16면>

사양색

일본 전역에서 연간 8백개씩 서점이 폐업한다는 통계처럼 일본에서도 서점은 영세

하고 사양색이 짙은 부문 <조선일보 94.8.29. 13면>

사업권

그는 2통을 두고 92년 벌인 첫 경합에서 선경에 졌지만, 선경의 사업권 반납으로 원점으로 돌아갔고, 두번째엔 코오롱과 경합하면서는 말도 많은 혼탁 양상 속에서 사업권을 따냈다. <조선일보 94.8.29. 10면>

사이버 어뮤즈먼트

또 컴퓨터 세대인 이들은 컴퓨터를 이용한 갖가지 체험을 한다. 정보 통신의 총아라고 일컬어지는 멀티미디어 이용이 증가하고 인간의 감성과 기계 장치가 결합된 사이버 어뮤즈먼트가 부상한다. 이로 인해 현재로서는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일들이 벌어진다. <일간스포츠 94.6.30. 31면>

사점

철인 3종경기 선수들은 사점이라는 말을 쓴다. 생리학 용어로는 무산소 역치(anaerobic threshold)이다. 육체적 고통의 정점인 사점을 넘기면 고통이 서서히 사라지면서 다시 뛸 수 있는 정신적·육체적 안정감이 찾아온다는 것이다. <시사저널 249 84면>

사차손실

생보사들의 당기 순이익 중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死 차이익」은 한해 예상되는 사망률을 기초로 보험료를 받은 다음 예상 사망률보다 실제 사망자가 적을 경우 발생하는 이익이다. 사차이익이 많이 발생한다는 것은 실제 사망률보다 예상 사망률을 지나치게 높게 잡아 보험료를 비싸게 받았

음을 뜻한다. 생보사들은 지난 10년간 예상보다 실제 사망률이 높아 사차손실을 본 적은 단 한번도 없으며 지난해 4백38억원, 91년 2백7억 7천만원 등 매년 수백억원씩 이익을 남기고 있다. <한국일보 94.5.24. 9면>

사차이익

생보사들의 당기 순이익 중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死差이익」은 한해 예상되는 사망률을 기초로 보험료를 받은 다음 예상 사망률보다 실제 사망자가 적을 경우 발생하는 이익이다. 사차이익이 많이 발생한다는 것은 실제 사망률보다 예상 사망률을 지나치게 높게 잡아 보험료를 비싸게 받았음을 뜻한다. 생보사들은 지난 10년간 예상보다 실제 사망률이 높아 사차손실을 본 적은 단 한번도 없으며 지난해 4백38억원, 91년 2백7억 7천만원 등 매년 수백억원씩 이익을 남기고 있다. <한국일보 94.5.24. 9면>

사치성

그는 사치성 제품으로 생각되지 않는 TV 냉장고 등 가전 제품과 과즙 음료가 포함된 것은 특소세 제정 취지에 맞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선일보 94.8.19. 3면>

사회문제화하다

이스라엘은 이미 지난 89년 이후 받아들인 60만명의 舊소련계 유대인과 2만여명의 에티오피아계 유대인들이 빈민층을 형성, 사회문제화하고 있는 등 예전과는 달리 유대인 증가를 반길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조선일보 99.8.25. 7면>

삭발식

이 자리에서 노조측은 『협상으로는 더이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투쟁을 독려하고 그 상징으로 金南石 수석부위원장 등 부위원장 7명의 삭발식을 갖기도. <조선일보 94.8.23. 30면>

산책객

시는 명동의 차량 통행 제한과 함께 가로등을 운치있는 모양으로 바꾸고 벤치 및 음수대 등도 곳곳에 설치해 보행자와 산책객이 편히 쉬어갈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 <조선일보 94.10.11. 29면>

살림보따리

앞으로 안기부가 자기네 살림보따리를 정보위에 숨겨야 할 이유도 없고 상당히 진솔한 분위기 속에 결산 심의가 이뤄졌다는 주장이었다. <조선일보 94.9.27. 4면>

살물선

한라중공업은 최근 홍콩 타이중창 스팀쉽사의 싱가포르 자회사인 제나스 내비게이션사로부터 16만8천t급 撤物船(살물선) 2척을 8천5백만 달러에 수주했다. <조선일보 94.10.13. 11면>

살이

아랍풍의 낡고 지저분한 건물들이 줄지어 선 거리와 살이의 신산스러움과 활기가 함께 어우러진 시장통을 지나면서 우리는 마치 카이로 외곽 도시로 되돌아간 듯한 느낌을 받았다. <조선일보 94.3.21. 9면>

삼디(3D)

3D 직종을 싫어하는 분위기는 조선족 사

회도 예외가 아니다. 쉽게 그리고 많이 벌어야 한다는 ‘자본주의’의 속성은 이미 중국 사회 깊숙이 자리를 잡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에 진출한 제조업체들은 조선족을 채용하려 해도 마땅한 조선족을 찾지 못하고 있다. <한겨레신문 94.8.16. 4면>

경찰 역시 마찬가지다. 수수비는 쥐꼬리만 한데 「인센티브」도 없다면 복지부동할 밖에 없다. 자연히 관할 구역 타령이나 하고 「호랑이」 役을 3D 업종이라 기피하게 마련이다. <조선일보 94.10.1. 5면>

삼류모델

물질과 쾌락의 유혹이 넘실대는 거대 도시 서울에서 휘청거리며 세상의 거친 물결에 휩쓸리다 스러져가는 한 젊은이의 비극적 초상을 그리게 될 청춘 영화 <젊음 남자>에서 이정재가 맡은 역은 일그러진 도시의 젊음을 대변하는 삼류모델 출신의 ‘이한’ 역 <일간스포츠 94.8.1. 18면>

삼박자

헨디캡을 지니고도 投打走 삼박자를 갖춘 이종범의 기염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팬들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조선일보 94.9.1. 27면>

이국적 마스크에 경쾌한 춤 동작, 시원스런 가창력과 연기력으로 뮤지컬 스타의 3박자를 모두 갖춘 신예 최정원(25). <조선일보 94.10.9. 15면>

♣ 의미가 다름

삼진법

경찰은 또 전과자들의 재범을 막기 위해

미국의 3진법(스리스트라이크아웃법·강력범죄를 3번 반복한 범죄자에게 종신형을 선고하는 법안)처럼 상습 흉악범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제도를 법무부와 협의해 입법 추진키로 했다. <한겨레신문 94.10.1. 14면>

상급자

노원 경찰서도 지난 7월 상급 간부가 『한번만 도와달라』고 간곡하게 부탁을 해서야 겨우 형사반장 2명을 충원할 수 있었다. 「콜롬보」까지는 아예 기대도 안할 테니, 제발 자리만이라도 채워줬으면 하는 것이 상급자들의 희망이다. <조선일보 94.9.15. 31면>

상당폭

이와 함께 경기가 호전되고 기업의 지불능력이 향상되면서 상당 수준의 임금 인상이 이루어져 이날 현재 평균 인상율이 7.1%인 것으로 집계돼 지난해의 5.2%보다 상당폭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동아일보 94.8.26. 30면>

상례화되다

그런 환경 속에서 월슨같은 위대한 대통령이 배출되었고, 대통령이 끝나면 거의가 대학 교수가 되는 것이 상례화되어 있다. <조선일보 94.9.3. 6면>

상실감

울산 삼정기계 사장 부부 납치 살해 등 ‘지존파’ 일당의 잔혹한 범행은 우리 사회의 여러 병리 현상 가운데 빈부 격차에 대한 일부 빗나간 젊은이들의 상실감이 위험 수위를 넘어선 게 아니냐는 우려로까지 받아

들어지고 있다. <한겨레신문 94.9.22. 3면>

상업성

신씨는 유학 도중 웨일스 지역 <BBC>를 찾았을 때 그들이 공영방송에 대해 갖고 있는 자부심이 대단함에 놀랐으며, “우리과 마찬가지로 오락성·상업성을 놓고 그들이 고민하는 모습을 보고 ‘동지애’ 같은 것을 느꼈다.”고 말했다. <한겨레신문 94.8.24. 14면>

상업주의화

연극협회(이사장 林英雄)는 『지나치게 선정적인 내용과 상업주의화는 바람직스럽지 못하니 이런 분위기를 자제해 달라』는 공문을 극단측에 보내기도 했다. <조선일보 94.8.27. 26면>

상용차

이것은 이 회사가 공작 기계-상용차 경기 회복과 노사 분규 완화로 매출이 39.8% 늘어나고 순이익은 작년 1백76억원 적자에서 올해 43억원 흑자로 돌아섰으며, 같은 통일 그룹 계열사인 일성종합건설의 금강산 개발설까지 겹쳤기 때문. <조선일보 94.8.17. 11면>

상품력

그러나 롯데가 가진 국내 최대의 유통업체란 이미지와 상품력·자금력이 장기적으로는 업계 판도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란 점에는 이의없이 받아들이고 있다. 오히려 롯데의 본격 가세가 최근 가맹점들과의 마찰로 위축돼 있던 편의점 업계의 분위기를 새롭게 바꾸는 계기가 돼 다른 유통업체와의 경쟁에서 편의점이 우위로 오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 긍정적인 기대감도 내비치고 있다. <중앙일보 94.8.10. 29면>

상품성

하기는 근대적인 언론은 누군가가 말했듯이, “개가 사람을 물면 보도 가치가 없고, 사람이 개를 물면 보도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선정성을 수반하지 않고는 출발할 수 없는 것이었는지 모른다. 그래서 본시 기사라는 존재는 불난 집의 불을 끄는 일보다는 그 불이 좀더 큰 불이 되기를 기다려서 자기 기사의 상품성이 높아지기를 꾀해야 하는 괴물인지 모른다. <한겨레신문 94.8.20. 1면>

상품정보우편

☞ 디엠

새내기

이처럼 축제를 대하는 마음도 가지가지. 2,3학년들은 그동안의 축적된 노하우(?)로, 그리고 4학년들은 아쉬운 추억 만들기로 축제에 대한 기대가 부풀어 오른다. 그 중 특히 새내기들은 처음 맞는 설레임에 의상부터 파트너까지 여간 신경을 쓴 눈치가 아니다. <영레이더154 486면>

그러나 LG는 유지현·김재현·서용빈·인현배 등 신인왕을 다투는 새내기 4인방과 트레이드로 보강한 노장 한대화 등을 효율적으로 연결시켜 페넨트레이스 우승과 함께 4년 만에 한국시리즈 우승까지 바라보게 됐다. <한겨레신문 94.8.24. 14면>

셀러리캠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와 아이스하키(NHL)가 노사 분류에 시달리고 있는 가운데 프로농구(NBA)까지 연봉상한제(샐러리캡)를 둘러싸고 파업 조짐을 보이고 있다. <조선일보 94.9.29. 27면>

생명운동

李 사장은 조인식을 마친 뒤 『그린스카우트는 다음 세대의 주역인 청소년들에게 환경의 중요성을 알려주고 자연을 되살리는 생명운동의 전위』라며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동아일보 94.9.10. 31면>

생물전

그러나 북한은 생물전 독소전에 대해서는 화학전보다 관심이 적다. 생물전 독소전을 수행하는 데는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북한은 흑사병 간장병 비브리오 콜레라 등 13종의 세균을 보유하고 있으며 실험소 2개 연구시설 4개를 갖고 있다. <동아일보 94.9.2. 4면>

생수병

수돗물 불신과 함께 생수의 수요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거리에는 청량음료 대신 생수병을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눈에 띈다. <조선일보 94.8.19. 13면>

생울음

목에 걸려 넘어가지 않는 생울음 같은 「길」은 작가 개인의 비극을 넘어 민족의 분단사이기도 하다. <조선일보 94.10.15. 11면>

생태음향학

또 기존의 악기나 음성을 이용해 음악을

만드는 것에서 탈피, 몸동작 눈짓 등의 동작 데이터를 컴퓨터로 조작해 전자악기를 연주하는 생태음향학도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다. <동아일보 94.10.4. 33면>

생활체육

그는 태권도가 뿌리내려 시드니 대회뿐 아니라 영구히 올림픽 무대에 서려면 팬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끌어야 하며 용품의 고급-다양화, 생활체육으로서의 타전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선일보 94.9.9. 27면>

생활체육인

함영구 강원도 생활체육협의회 회장도 “깨끗한 환경 지키기는 곧 생활체육인들이 해야 할 활동”이라며 “강원도 생활체육인들이 앞장서 그린스카우트 운동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동아일보 94.8.28. 27면>

생활하수

특히 오염원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한데 그간의 오염 사고 다발 지역과 생활하수 및 공장 폐수 배출구 등을 추가, 울산 전도(2만5천분의1)에 표기했다. <조선일보 94.8.19. 27면>

샤넬라인

극단적인 미니와 맥시가 공존해 온 최근 패션의 흐름에 미디 또는 샤넬라인이라 불리는 무릎 정도 길이가 해외 패션계에서 새로운 경향을 보이고 있다. <동아일보 94.8.20. 9면>

샤브샤브

김치전골을 할 때나 샤브샤브, 국 등을 끓

일 때도 다시마 국물을 쓴다. <여성중앙300 581면>

샤워기

샤워기로 행글 때도 물줄기를 세게 해서 마사지 효과를 내 주면 단단해진 근육이 풀리면서 슬리밍 효과를 더욱 높이게 된다. <영레이디154 439면>

삼트윈

신체의 일부가 붙어서 태어나는 삼트윈을 분리 수술해 주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 「삼트윈」이라는 용어를 만들어 냈던 「삼 쌍둥이」의 기이한 일생이 최근 소개돼 화제가 되고 있다. <동아일보 94.9.14. 17면>

샹그리아

정열의 나라 스페인에서 처음 만들어 마시기 시작한, 와인을 기본으로 하는 칵테일이다. 레드 와인에 과일을 듬뿍 넣고 설탕을 넣어 만든다. 와인 색을 일컬어, '피(샹그레)'의 색깔을 띤 음료라는 '샹그리아'로 불리게 된 듯하다. <영레이디154 448면>

서민주택

서울시 전체 주택 1백80만9천호 중 46%에 달하는 82만8천호가 단독주택이다. 그러나 철옹성같은 요새형 주택 그리고 숨이 막힐 정도로 다닥다닥 붙은 서민주택이 대부분이다. <동아일보 94.8.22. 29면>

서울대맨

30대 후반의 영화인들이 주축이 된 이들 서울대 출신 영화인들은 대부분 80년대 중반을 전후해 충무로에 발을 디디 나름대로

영화 연출과 제작에 대한 노하우를 축적해 온 데다 서울대 출신이라 인맥 그리고 뛰어난 감각과 남다른 열정에 힘입어 영화계에서 보이지 않는 서울대맨의 파워군을 형성해 가고 있다. <일간스포츠 94.6.30. 17면>

서킷

지난해 독일에서 피한에게 피습당한 뒤 16개월간 프로테니스 서킷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 모니카 셀레스가 조만간 코트에 복귀할 것을 시사했다. <조선일보 94.8.29. 27면>

석유환산톤

에너지 경제원의 분석에 따르면, -중략- 2010년에 남북이 동일한 에너지 수급 구조를 가지려면 북한에 연간 8천5백만 TOE(석유환산톤)의 에너지가 추가 공급돼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선일보 94.8.17. 3면>

선불카드

백화점 업계에 선불카드(PP카드)가 확산되고 있다. 선불카드는 종이 상품권이 1회 사용으로 끝나는 반면, 매번 사용할 때마다 액수가 줄어가는 방식의 상품권이다. <조선일보 94.9.5. 11면>

국내 7개 신용카드 회사와 31개 은행은 26일부터 전국의 본점 및 지점에서 「동전 대체 카드」라 불리는 선불카드(사진)을 일제히 발매한다. 선불카드란 공중전화 카드처럼 일정액의 현금을 미리 내고 구입한 뒤 카드의 액면 금액 내에서 결제하는 카드. <동아일보 94.9.24. 11면>

선석

삼성그룹은 2조 3천억원을 들여 부산 가덕도 인근 3백90만평 규모 해역을 매립, 5만t급 선박이 접안할 수 있는 23개 船席을 갖춘 동남아 최대 컨테이너 부두와 6개 선석 규모 철제 부두, 3개 선석의 잡화 부두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고 24일 해운항만청이 밝혔다. <조선일보 94.8.25. 10면>

선심성

70년대 들어 수도권 인구 집중으로 행정구역 개편의 필요성이 대두해 73년 경기 고양군 일부와 구과발 등이 서울시로 편입됐고 도봉, 관악구 등이 신설됐으며 안양, 성남, 부천시 시로 승격됐다. 5공화국 이후에는 - 중략 - 86년에는 광주가, 89년에는 대전이 각각 직할시가 됐고 오산 등 12곳이 시로 승격했는데 이때 일부, 여건이 미미한 지역까지 포함돼 선심성이었다는 지적을 낳았다. <동아일보 94.9.18. 5면>

선전용

북한 언론과의 회견에서 “남한 생활이 어려워 자진입북했다”고 주장하는 前수도여고 교사 고상문 씨. 일본 TV방송들은 북한이 선전용으로 제작하여 보내온 이 회견 장면을 17일 방영했다. <동아일보 94.8.18. 31면>

선정성

특히 최근 들어 영상 산업이 치열한 국제 무역 경쟁에서 이익을 거둘 수 있는 미래 유망 산업으로 인식되면서 경쟁력과 수익성을 보장받기 위해 폭력성과 선정성이 갈수록 심화되는 상황이어서 우리 청소년들이 그 해악에 노출되는 위험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한국일보 94.5.28. 30면>

하기는 근대적인 언론은 누군가가 말했듯이, “개가 사람을 물면 보도 가치가 없고, 사람이 개를 물면 보도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선정성을 수반하지 않고는 출발할 수 없는 것이었는지 모른다. <한겨레신문 94.8.20. 1면>

선지

이 설문에는 일반적인 지지도 조사에서 사용되는 「보통이다」 또는 「그저 그렇다」는 식의 중립적 選支(선지)는 제시되지 않았다. <조선일보 94.9.25. 2면>

선진화되다

한은은 -중략- 『그러나 보고서가 지적한 대로 각종 규제가 광범위하게 남아 있고 경제 하부 구조와 경제 제도가 선진화되지 못한 것도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조선일보 94.9.23. 11면>

선취매

반면 건설이나 시멘트, 금융쪽 주식은 아직 유화나 제지처럼 뚜렷한 실적 호전 징후는 없고 이 때문에 주가 오름세도 이처럼 폭발적이지는 않다. 하지만 앞으로 경기가 확산될수록 실적 호전이 나타날 것을 전망, 선취매가 일어나고 있다고 증권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조선일보 94.10.9. 11면>

선택족

이 패션을 즐기는 여성들의 경우 10만~20만원 이상을 들여 몸을 태우는 ‘선택족’들이 대부분이어서 ‘기초 투자 비용’이 만만

참다. <스포츠조선 94.7.30. 15면>

선투자하다

그러나 백△는 볼수록 그 당당함이 피부로 전해진다. 바둑의 큰 흐름을 읽으면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선투자하는 그런 수이다. <조선일보 94.9.9. 16면>

설치미술

특히 이날 콘서트에서는 그동안 환경 문제를 주제로 활발한 작품 활동을 벌여온 홍익대 미대의 환경 동아리 「그린하트」가 환경 보호를 상징하는 설치미술로 무대를 장식한다. <동아일보 94.8.24. 21면>

섬광탄

미군은 이번 아이티 침공에서 새로운 비살상용 무기를 다수 선별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돌 등으로 무장한 민간인들을 쫓기 위해 사용할 최루탄 및 겨자탄과 고출력 레이저 및 섬광탄, 적을 꼼짝 못하게 만드는 끈적거리는 연기 등이 새로 등장할 것이라고 <인터내셔널 디펜스 뉴스>가 전했다. <한겨레신문 94.9.17. 5면>

성과품

그러나 수준 이하의 기술사는 건축사가 양산되어 국가기술자격증에 대한 공신력이 크게 훼손되고 있으며, 이들이 설계한 성과품 역시 부실할 수밖에 없다. <조선일보 94.9.15. 13면>

성곽지기

누런 콧물 들이마시며 때를 지어 성문 문루에 기어올라 세상을 내려다보던 꼬마들

의 겹없던 모험, 성곽지기라도 먼 발치로 비치면 지레 질려 다리야 날 살려라 내뺀 일-중략- 등등이 누옥의 창호를 물들이듯 석양빛에 어른거린다. <조선일보 94.10.9. 9면>

성명전

두 대변인의 성명전도 본인들이 원했던 아니건 점차 金 이사장의 재등장을 기정사실화하는 효과를 내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조선일보 94.10.5. 3면>

성수품

정부는 추석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성수품과 개인서비스를 중심으로, 31개 품목을 선정, 3일부터 19일까지 가격 동향을 매일 점검하고 공급 물량을 평시의 2배 수준으로 늘려 수급과 가격 안정을 기하기로 했다. <조선일보 94.9.3. 10면>

성숙성

한 사회의 성숙성과 건강성은 갈등 구조의 정치적 사회 정책적 해소 능력에도 연관되지만, 그에 못지않게 사회적 규범과 공공질서의 권위에도 밀접히 연관되어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조선일보 94.9.23. 3면>

성애물

그러나 20년이란 지체 기간에 이 영화는 여러 편의 후편까지 포함해 비디오로 '개봉'됐고, 청소년들의 상당수까지 훨씬 더 '폐해가 심각한' 각종 성애물에 '피폭'한 상태에서 당국이 이 영화 상영 허용을 통해 노리는 결과를 얻어내는 미지수다. <한겨레신문 94.8.19. 8면>

성장성

외국인 투자자들은 현재 주가의 높낮이에 관계없이 철저히 기업의 수익성-성장성에 초점을 맞추는 새로운 투자 방식을 선보였고, 기관 투자자들도 이를 추종하기 시작했다. <조선일보 94.9.17. 11면>

성장세

높은 성장세를 지속하던 녹즙기 시장이 지난달 말 섯가루 검출 파동 이후 뚝 떨어졌다. <한겨레신문 94.8.24. 6면>

성좌

金 지명자는 신체 장애를 딛고 사상 처음 사법부의 星座인 대법관이 돼 장애인들에게 꿈과 희망을 준 「인간 승리」의 본보기로도 평가받아 왔다. <조선일보 94.9.9. 2면>

♣ 의미가 다름

성토장

4일 국회 행정경제위의 총무처에 대한 국감은 「공무원 聲討場(성토장)」이었다. -중략- 성토를 뒷받침할 통계도 뒤따랐다. <조선일보 94.10.5. 2면>

성폭력

일부에서는 성폭력이 일어나는 것에는 성폭력을 유발시키는 여성에게도 문제가 있다고 말한다. 즉 속옷이 보일 듯한 짧은 미니스커트나 앞가슴이 흰히 패인 옷을 입는 등 여성 입장에서 섹스어필을 한다는 것이다. <영레이디154 545면>

성희롱

前서울대 조교 우모 씨(26 여) 성희롱 사건 항소심에서 신모 교수의 무죄를 주장하는 증언이 제기돼 법정 공방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동아일보 94.8.24. 31면>

최근 샌디에이고에서 열린 성희롱 후유증 주제 회의에서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걸프전에 참전했던 美 여군 3만6천명 가운데 8%가 성폭행이나 성희롱의 대상이 되거나 실제 피해를 보았으며 반수 이상은 최소한 성희롱 농담에 시달린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아일보 94.10.2. 7면>

세대원

현행은 외국환은행장 인증사항으로 이주 정착비는 세대주 10만 달러 이내, 세대원 1명당 5만 달러 이내이고 투자 사업비는 30만 달러 이내이다. <조선일보 94.9.9. 5면>

세례

오후 2시 40분쯤 엔진사업부 소속 조합원들이 『파업철회 건의문』을 노조 집행부에 전달하려다 노조 집행부 및 강당 조합원으로부터 페인트 세례를 받는 일이 발생 <조선일보 94.8.17. 30면>

♣ 의미가 다름

세벌이

최근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미국 사회에서는 90년대 들어 맞벌이 부부들 중 아내나 남편 어느 한쪽이 야간에 또다른 일자를 구해 돈을 버는 이른바 「세벌이 가족」(3-Job Families)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 <동아일보 94.8.22. 17면>

세불리기

민자당이 11일 무소속 의원 5명을 받아들인 것은 세불리기보다도 민주당이나 신민당의 의석이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 <동아일보 94.8.12. 4면>

세탁지

경찰은 수프라 氏가 홍콩에서 위폐와 위조 여권을 구입해 입국, 환전한 사실을 밝혀냄에 따라 홍콩을 거점으로 한 위폐 전문 조직과 연계, 한국을 위조 달러 세탁지로 활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조선일보 94.9.11. 27면>

섹스어필

일부에서는 성폭력이 일어나는 것에는 성폭력을 유발시키는 여성에게도 문제가 있다고 말한다. 즉 속옷이 보일 듯한 짧은 미니스커트나 앞가슴이 흰히 패인 옷을 입는 등 여성 입장에서 섹스어필을 한다는 것이다. <영레이디154 545면>

센세이셔널리즘

언론이 과잉 반응과 센세이셔널리즘으로 실존하는 것보다 과장된 안보 위기로 몰아 민심 불안, 사회 불안을 가중시키는 상황이다. <월간조선172 106면>

본인은 이 영화에서 인간의 잔혹함과 야만성에 대한 비판과 반성, 그리고 매스미디어의 상업적인 센세이셔널리즘에 대한 비판을 읽어냈다. <조선일보 94.9.15. 13면>

센세이셔널하다

TV가 사회 감시 기능을 발휘하는 것은 바

람직하지만, 센세이셔널한 소재를 쫓다보니 폭력과 선정성이 노출되고 오히려 비밀스런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도 생긴다. <조선일보 94.9.27. 16면>

센터링성

10일 부산 구장서 벌어진 94 하이트배 프로축구 리그서 일화는 후반 27분 신태용의 센터링성 볼을 대우 최영희가 잘못 처리, 자책 결승골로 이어지며 1대 0으로 승리했다. <조선일보 94.9.11. 23면>

소각로

쓰레기는 따로 모아 단지 옆에 설치된 시간당 30kg 용량의 소각로를 이용해 태워 없애고, 재활용품은 재활용품 보관 창고에 모았다가 이를 팔아 노인 위안 잔치 등에 쓰고 있다. <조선일보 94.9.5. 27면>

소감문

朴 교사가 셋강 캠페인의 내용을 스크랩하고, 자세히 읽은 뒤 소감문과 실천 내용을 일기 형식으로 적도록 숙제를 내주고 있는 것이다. <조선일보 94.10.13. 28면>

소개팅

재필은 소개팅 자리에서 파트너 가슴께에 흘린 커피를 닦아 주다 뺨을 맞는다. 그로부터 2개월후 늦깎이 신입사원 재필은 소개팅에서 만난 명순이 직속 상관이라는 사실에 놀란다. <문화일보 94.9.14. 17면>

소나기

스타팅 멤버로 국가대표 전희철(10점 4리바운드) 서장훈(15점 9리바운드) 등을 내

세운 한국은 전반 8분경 26대 12까지 질주, 일찌감치 승기를 잡은 뒤 양희승(22점)을 비롯, 전 선수를 골고루 교체 투입해 소나기 중거리슛을 퍼부으며 전반을 53대 35로 끝냈다. <스포츠조선 94.5.24. 8면>

♣ 의미가 다름

소단위

냉장 식품을 상온에서 진열, 판매하거나 허가없이 식품을 소단위로 재포장해 팔아온 백화점, 유명 식품 대리점, 수입 식품점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조선일보 94.9.17. 29면>

소방수

LG 마운드가 풍성한 기록을 토해냈다. 2년생 이상훈은 16승째를 챙겨 다승 공동 1위로 발돋움, 다승왕 타이틀 도전 준비를 마쳤고, 고참 소방수 김용수는 2백 세이브 포인트 고지를 밟았다. <조선일보 94.9.3. 27면>

♣ 의미가 다름

소식지

국악의 해 조직 위원회에 일시 고용되어 旬刊으로 발간되는 국악의 해 소식지를 전달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선일보 94.9.5. 16면>

소영웅주의

애깃거리조차 될 수 없는 말이다. 그러나 생각하면 할수록 참 불쾌하다. 『빨리 죽고 싶다. 죽게 되면 내 장기를 기증하겠다.』 고한 지존과 무리 중 행동책 金모의 말이 그것이다. - 중략 - 불쾌감을 넘어서 분노를 느낀다. 또 한편 그 젊은 범인의 치기어린

소영웅주의에 환멸을 느끼게 된다. <동아일보 94.9.28. 5면>

소프트산업

오히려 영화같은 소프트산업은 왕성한 지적 호기심과 샘솟는 영감, 고도로 세련된 예술적 감수성 등이 더 중요한 관건을 쥐고 있을 것이므로 돈만 지원하면 다될 것처럼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도 문제다. <조선일보 94.8.21. 1면>

소프트재킷

가을철 여성 의류 인기 품목으로 소프트재킷이 급속히 떠오르고 있다. 이제까지 베스트(조끼) 스커트와 함께 스리피스 정장으로 주로 활용되어 온 재킷이 최근의 캐주얼화 바람을 타고 가벼운 소재와 안감으로 어깨선을 부드럽게 굴리고 흡사 블라우스나 셔츠와 같이 자연스럽게 몸을 감싸는 소프트재킷으로 형태가 바뀌고 있는 것이다. <동아일보 94.9.4. 9면>

소하천

앞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소하천(셋강)의 부속물을 이전하거나 손패해 공공 피해가 발생하거나 유수 소통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해당자는 물론 공사 시행자 소하천 점용자 등은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1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조선일보 94.9.15. 2면>

속멋

강사 하경숙 씨(서울시립무용단원)는 현란한 기교 위주의 북한 춤사위에 익숙해온 알마아타의 학생들에게 한국 춤의 속멋을

근본부터 차근차근 설명해 나갔다. <조선일보 94.8.17. 15면>

속물주의

그는 우리 사회가 창조적인 분위기로 나아가는 데 장애 요인으로 속물주의와 과잉 명분주의를 들고 학력 금권을 앞세우거나 공허한 이념으로 흑백 논리를 강요하는 행위 등을 제어해야 한다고 밝혔다. <동아일보 94.8.30. 14면>

속보성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사는 속보성 면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본다. 같은 내용의 기사가 이미 8일 전인 지난 3일자 다른 신문에 보도된 바 있었기 때문이다. <동아일보 94.8.20. 19면>

손목터널증후군

「손이 저리고 아프다.」 중년 여성들에게는 흔히 나타나는 이같은 증상에 대해 전문가들은 『먼저 손목터널증후군을 의심해 봐야 한다』고 지적한다. <조선일보 94.8.21. 17면>

손실액

정부는 또 한양이 건설업 면허, 도급 한도, 각종 공사 입찰 자격 등을 유지, 정상적인 영업 활동을 하도록 하기 위해 과거의 손실액은 묻지 않고 신규 공사의 결과만 참작토록 배려했다. <조선일보 94.9.17. 11면>

숨방망이

역대로 ‘숨방망이’로 지적받아 온 법사위의 분위기가 14대 후반에 접어들면서 달라지기 시작하고 있는 데 대해 상임위 주

변에는 민주당 조순형 의원을 ‘일등공신’으로 꼽는다. <한겨레신문 94.9.29. 4면>

♣ 의미가 다름

쇼룸

항상 방문객이 많은 (주) 코오롱 원단사업부는 입구에 손님 접견실을 설치하고 원단 샘플을 전시하는 쇼룸을 만들었다. <한국일보 94.9.15. 11면>

쇼핑가

미국에선 추수감사절, 크리스마스, 부활절 같은 굵직한 휴일을 비롯, 발렌타인데이, 어머니날, 할로윈데이, 노동절, 재향군인의 날, 투표의 날 등 온갖 기념일을 전후해 각종 가게들이 바겐세일을 시도한다. 여느날엔 이래도 장사가 될까 싶으리만큼 한산한 쇼핑가들이 모처럼 활기를 띠는 때다. <조선일보 94.10.7. 37면>

쇼핑객

유인 상품은 다만 수량이 한정되어 있어 바지런한 쇼핑객만이 헐값에 챙길 수 있다. <조선일보 94.10.7. 34면>

쇼핑물

무거운 쇼핑물을 승차 장소까지 들어다 주는 서비스는 짐이 많은 고객이나 여성 고객에게 무척 요긴하고 쇼핑의 즐거움을 배가시킨다. <조선일보 94.10.7. 34면>

쇼핑카

그레이스는 유아 휴게실에 침대와 소파를 설치해 유아와 함께 온 부모가 쉴 수 있도록 했으며, 뉴코아는 유모차를 1백대 늘리

는 한편 쇼핑카 1백대, 물품 보관대 50대를 추가했다. <조선일보 94.10.7. 34면>

쇼핑کم

이 사업가는 현재 조선족 여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직업은 여행 안내원으로 능력에 따라 5천~1만 위안을 한달에 벌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까지는 환전을 해주며 큰 부수입을 올렸으나 올초부터 단일환율제가 되면서 환전에 따른 이익은 없어졌고 대신 이른바 '쇼핑کم'이 이들 안내원의 주수입원이 되고 있다. 이 '쇼핑کم'은 한국에서 온 단체 관광 손님들이 거의 필수적으로 거치는 기념품 가게의 주인들로부터 받는 사례비(커미션)인데, 그림의 경우 판매가의 50%를 사례비로 받는다는 것이 한 여행사 사장의 말이다. <한겨레신문 94.8.16. 4면>

수거료

이 개정안은 또 특정업자만이 참여하고 있는 폐기물 처리 시설 설계 시공업에 경쟁제도를 도입키 위해 폐기물 처리 시설업 자격 제한을 폐지, 건설업법상의 일정한 자격만 갖추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게 했다. 개정안은 이밖에도 폐기물 재활용 처리업제도를 신설, 업자가 퇴비화된 음식물 쓰레기 등을 수거료를 받고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동아일보 94.9.4. 26면>

수렵비

또한 11월 1일 수렵비를 납부하여 포획 승인을 얻고 수렵에 임하는 소지자는 50만정 중 도대체 몇명이나 되나. <조선일보 94.10.5. 13면>

수룩자

경찰은 『명단 수룩자들의 주소가 서울, 인천 등 수도권에 산재돼 있고 거래 금액이 대부분 1백만원대』라고 밝혔다. <조선일보 94.9.23. 31면>

수비벽

오는 18일 상오 8시 35분(이하 한국 시간) 스페인과 첫 경기를 치를 한국 월드컵 축구 대표팀의 김호 감독은 스페인이 4명의 수비를 一字로 포진시켜 수비벽이 비교적 높다고 진단했다. <한국일보 94.6.16. 25면>

수사력

경찰은 또 이들이 사용한 흥기가 서중에서 쉽게 구하기 어려운 점 등으로 미뤄 특수 제작됐을 것으로 보고 이를 밝히는 데에도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한겨레신문 94.9.22. 22면>

수용자반응조사

☞ 에이아이조사

수작업

전철수가 수작업으로 속칭 포인트라고 하는 선로 개폐기를 당시 신호기의 방향에 따라 조작하지만 신호와 정반대로 개폐기를 조작하는 실수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철도청의 설명이다. <동아일보 94.8.12. 22면>

수준급

일화는 상승 무드에는 일단 재동이 걸리긴 했으나, 살리체프를 앞세운 단단한 수비력

과 이상윤 등 수준급 공격수들이 전채해 일단 2연패의 고지에 가장 근접해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조선일보 94.9.17. 26면>

수출고

국방부는 한국의 지난해 방산품 수출액은 3천만 달러에 불과했으나 동남아 지역의 방산품 수입 요구를 감안하면 내년부터 6천만 달러 이상의 수출고를 올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동아일보 94.8.12 2면>

수치화

최근 국내 TV 프로그램에도 선정성 못지 않게 폭력의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으나, 아직은 주먹구구식으로 대처하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각 방송사마다 자체 심의 기구가 있고, 방송위원회에서도 최근 시험적으로 폭력 정도의 수치화 작업을 시도하고 있다. <조선일보 94.9.27. 16면>

순참깨

특히 출원중인 혁신적인 침단 공법이 진한 참기름의 고소함의 비결입니다. 침단 공법은 별다른 여과 과정이 없는 재래식 참기름에 비해 메이커 참기름이 여러 정제 과정을 거치며 고소함이 감소되는 점에 착안, 이 과정 중 향이 날아가는 순간을 포착해 향의 유실을 막고 고소함을 극대화한 공법입니다. 따라서 균일하게 볶은 순참깨에서 짙은 고소함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여성중앙 300 560면 광고>

술목욕

그런가 하면 서점가에는 '술목욕 건강법' (명지출판) 등의 제목으로 청주 목욕법을

소개하는 책자까지 심심찮게 눈에 띄고 있어 젊은 여성들의 술목욕은 날이 갈수록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스포츠조선 94.8.4. 19면>

슈팅력

1m 73, 64kg의 별로 크지 않은 체격이지만 상대 수비를 교묘히 따돌리는 개인 돌파와 예측을 불허하는 다양한 슈팅력은 아시아에선 적수를 찾아보기 힘들다는 것이 핸드볼인들의 평가다. <조선일보 94.9.23. 25면>

슈퍼모델

신디 크로포트 등 세계적인 슈퍼모델들이 출연하는 건강 체조 비디오는 목 등 무릎에 해로운 운동을 담고 있어 오히려 건강에 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다고 뉴질랜드에서 발행되는 컨슈머誌 최신호가 보도. <동아일보 94.9.16. 6면>

스네이크보트

스포츠용품 전문제조업체인 화성실업(대표 하준호)은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 널리 보급되고 있는 스네이크보트의 기본 장비인 스윙보드의 완전 국산화에 성공, 전국의 스포츠용품점을 통해 기존의 외국산(국내시판가격 12만~18만원)보다 저렴한 값(4만8천~5만5천원)에 보급한다. <동아일보 94.8.18. 16면>

스리스트라이크아웃법

☞ 삼진법

스릴감

공개적이었던 그룹에 비해 비밀로 했던 그

름에서 게임의 파트너에 대해 호감과 매력을 느낀다고 한 경우가 월등히 많아 비밀스런 관계의 스릴감이 상대에 대한 친밀감과 매력을 더 높여준다는 속설을 입증했다. <일간스포츠 94.9.17. 27면>

스위퍼맥시

그동안 마이크로미니나 스위퍼맥시 (바닥을 쓸고 다닌다는 비유적 표현) 등 아주 짧거나 거추장스럽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긴 스커트 또는 원피스 말고는 구경하기 힘들 정도로 미니와 맥시의 공존 체제는 완강한 것으로 비쳐져 왔다. <동아일보 94.8.20. 9면>

스윙보드

스포츠용품 전문제조업체인 화성실업(대표 하준호)은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 널리 보급되고 있는 스네이크보트의 기본 장비인 스윙보드의 완전 국산화에 성공, 전국의 스포츠용품점을 통해 기존의 외국산(국내시판가격 12만~18만원)보다 저렴한 값(4만8천~5만5천원)에 보급한다. <동아일보 94.8.18. 16면>

스카이다이버

스카이다이버들은 낙하산이 펴지는 순간 죽음의 위기를 벗어 났다는 묘한 쾌감을 느낀다고 한다. 번지점프라는 신종 스포츠는 생명줄이 달려있다는 것 이외에 투신자살과 다를 바 없다. <조선일보 94.8.31. 15면>

스캐너

그러나 「스파이 샵」 등 시중 가게에서는 92년 이전에 나온 스캐너들을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전화번호만 알면 자동적으로 도청이 되는 현실이다. <조선일보 94.9.3. 7면>

스쿠터족

서울대에 대학생 '스쿠터족'이 등장했다. 울초부터 크게 늘기 시작해 이제는 교내에서 자전거보다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스쿠터의 숫자는 줄잡아 1백여대에 이른다. <한겨레신문 94.8.22. 19면>

스쿨걸룩

소녀같은 느낌의 스쿨걸룩도 그 근원은 40년대 교복 등의 「유니폼룩」에서 찾을 수 있다. 체크무늬의 A라인 스커트와 단정한 재킷, 다이아몬드 무늬(아가일 패턴) 스웨터 등으로 표현되는 이 유행은 유럽에서 이번 시즌부터 시작되고 있으며 국내 패션업체들도 이같은 이미지의 다양한 의상을 출시하고 있다. <동아일보 94.10.2. 9면>

스크램블러

둘째 외교관들은 외국과의 회담 때 일반적으로 휴대하고 가는 스크램블러(도청방지의 주파수대변환기)를 이용하는 방법이다. <조선일보 94.9.11. 3면>

스킨헤드

독일 통일 뒤의 사회상으로 외국의 언론에 가장 많이 오르내렸고 지금도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은 이른바 '스킨헤드'로 불리는 극우파들의 행패다. <한겨레신문 94.10.4. 6면>

스킨헤드족

극우적 행태는 스킨헤드족 등 일부 이질 집단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베를린 검찰

당국은 경찰과 신나치 조직의 연계에 혐의를 두고 10여건의 사안을 조사중이다. 함부르크에서는 외국인에 대한 경찰의 적대 행위로 주내무장관이 물러나기까지 했다. <한겨레신문 94.10.4. 6면>

스테디셀러

자연생태학적 분야를 인문학적 관심사로 엮어낸 한국 최초의 도서인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시리즈는 현재 꽃·나비·나무 등이 나와 있는데, 시리즈를 시작할 때의 출판계 우려를 깨고 지금은 버젓한 스테디셀러로 자리잡았다. <시사저널245 88면>

스토리텔링

첫째는 스토리텔링이나 대사 위주가 아니라 감각과 분위기로 승부한다. <조선일보 94.8.23. 16면>

스트라이프티

진은 입는 방법에 따라 다양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는 옷 중의 하나인데, 블랙 진 바지에 검정 벨트, 스트라이프T를 입고 짧은 가죽 점퍼를 입는다. 거기에 검정색 손수건을 목에 묶고, 웨스턴부츠를 신는다면 와일드하면서도 섹시한 멋을 낼 수 있다. <스포츠조선 94.9.5. 25면>

스틸캔

청량음료 용기인 스틸캔이나 페트병, 유리병은 환경 오염의 주범입니다. <조선일보 94.8.21. 6면>

스피더

기록상 이번 대회 최고 스피더는 이봉주.

황영조와 함께 출전했던 보스턴 대회서 2시간 9분 57초를 마크, 황영조 김재룡 김완기에 이어 한국 마라톤 사상 단 4명에 불과한 9분대 선수이다. <조선일보 94.9.17. 26면>

슬라이딩장

싱크대에는 키가 맞지 않아 불편하던 식기 건조기를 빌트인시키고 슬라이딩장과 내부 칸막이를 설치, 수납 공간을 극대화했다. <여성중앙300 292면>

슬림화되다

이 당시 지은 산비탈 아파트들은 이미 슬림화돼 60%가량이 헐렸고 나머지도 재건축을 기다리고 있다. <동아일보 94.8.16. 27면>

슬리밍

샤워기로 행굴 때도 물줄기를 세게 해서 마사지 효과를 내 주면 단단해진 근육이 풀리면서 슬리밍 효과를 더욱 높이게 된다. <영레이디154 439면>

슬리브리스

☞ 나시웃

슬림형

인테리어까지 감당한 슬림형의 산뜻한 디자인, 온도제어-가스 자동차단과 같은 다양한 자동조절 기능이 요즘 제품들의 특징이다. <조선일보 94.9.5. 21면>

슬픔조

OB 투수 김익제가 27일 잠실 롯데전에 앞서 덕아웃을 찾아온 한 팬으로부터 보약을 전달받고 감격. OB의 골수팬이라고 밝힌

정진성 씨(43)는 14게임에 나가 1패를 기록해 속칭 '슬픔조'의 일원이 된 김익재를 격려하기 위해 영지와 여러가지 약재를 섞은 보약 한달치를 싸들고 온 것. <스포츠조선 94.5.28. 4면>

승부처

반면 고졸 3년생으로 오랫동안 무명으로 지냈던 한화 이상목은 승부처였던 4회 1사 2,3루서 김인호의 평범한 투수 땅볼을 미끄러지며 내야안타로 만들어줘 경험 부족을 실감했다. <조선일보 94.10.11. 27면>

승차감

포르쉐 기술이 접목된 서스펜션이 최상의 승차감을 제공합니다. 최적의 서스펜션 튜닝으로 차의 진동을 최소한으로 줄여주며 경쾌한 코너링을 보장합니다. <동아일보 94.8.12. 24면 광고>

미국 승용차를 운전하다 보면 마치 배를 타듯이 기분 좋게 출렁이며 달린다. 광활한 대륙에 끝없이 뻗어나간 평탄한 도로 사정의 미국에서는 승차감이 중시되는 자동차가 만들어진다. <한국일보 94.9.19. 18면>

승환

아울러 승환 길이가 단축돼 지하철 같아타기가 한층 편리해지며 방송실 등 기능실의 통폐합으로 승객 이용 공간이 늘어난다. <조선일보 94.9.25. 25면>

시간급제

일본이 시간급제 스튜어디스 채용 문제로 시끄럽다. <조선일보 94.9.29. 4면>

시간때우기

백화점은 고성능 에어컨이 작동돼 쾌적하면서 눈치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어슬렁족의 본거지가 되고 있다. 특히 백화점 이곳저곳을 기웃거리다 보면 시간가는 줄 모르며 더위를 잊을 수 있어 시간때우기에 고민이 많은 주부나 노인들의 각광을 받고 있다. <스포츠조선 94.8.2. 19면>

시골스럽다

키 크겠다, 패션 감각 있겠다, (지금에 와서는 그녀도 인정하는 바이지만) 끼 넘치겠다, 모델로 나서는 게 훨씬 좋겠다라는 주위의 악착같은 권유. 친구들의 바람이 악착같이 느껴졌던 이유는 그때까지만 해도 연예인이나 패션 모델은 모두 별천지의 신선인 줄로만 알았던 시골스러움이 그녀에게 남아 있었던 탓이다. <영레이디154 334면>

시원

이미 民主黨에서는 黨權과 大權, 그리고 市權(서울시장후보) 경쟁이 동시 진행되고 있다. <동아일보 94.9.10. 5면>

시급성

그러나 2차 회담 등에서 다른 사항들에 합의를 이룰 경우 1차 회담에서 합의된 내용이 그 시급성으로 보아 우선적으로 실행될 것임은 물론이다. <동아일보 94.8.12 3면>

시급제

생산직 근로자에 대한 월급제가 조선업계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생산직 근로자의 임금 체계는 아직 일한 시간만큼 임금

을 받는 시급제가 일반적이다. <중앙일보 94.8.10. 27면>

시너지

삼성그룹 비서실 관계자는 『지난해 계열사 정리 이후 리엔지니어링(사업재구축) 필요성이 커졌고, 업종 내 시너지(synergy)를 극대화하며, 재벌에 대한 국민 정서와 정부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재편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조선일보 94.10.7. 11면>

시네티즘

△ 헝가리 부다페스트 : ‘오프 아트’와 ‘키네틱 아트’의 선구적 작가로, 관객이 이동함에 따라 작품이 시각적으로 움직이는 효과를 빚어내는 시네티즘의 다채로움을 전 세계에 선사한 빅토르 바라젤리의 미술관. <시사저널249 88면>

시니컬하다

산동네 놀이터에서, 밤이 으스스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골프 연습장 화장실에서 걸핏하면 그는 -중략- ‘한관승부’를 벌인다. 하지만 멋진 승리를 쟁취하기보다는 흠투성이가 되어 코피를 흘리고, 부러진 갈비뼈를 움켜잡고 기다시피 귀가하거나, 치과에 들러 부러진 이빨 대신 의치를 해 넣고는 입을 ‘짜악’ 벌려 치열을 확인할 때가 더 많다. 그리고도 시니컬하게 씨익 웃는 남자. <영레이디154 325면>

시대착오적

그래서 그러한 상품 생산을 위해서 늘 강자의 질서를 변호하고, 때로는 비판적인 대학 교수들의 강의를 ‘이적 행위’로 몰아붙

이거나, 또는 민족의 운명을 근원적으로 손상시켜 온 분단 구조의 핵심 논리인 대결의 논리를 시대착오적으로 확대하면서, 건전한 상식마저 저버린 채 ‘미-북 회담’이라는 표현을 완강하게 고집할 필요가 있는지도 모른다. <한겨레신문 94.8.20. 1면>

시디롬화

솔빛조선미디어 朴賢濟 상무는 「CD롬과 데이터베이스」란 주제 아래 『95년까지 국내에는 1백만대의 CD롬 드라이브가 보급되고 2백 개이상의 CD롬 타이틀이 제작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데이터베이스의 CD롬화가 급속히 진행될 것으로 예상했다. <조선일보 94.9.15. 2면>

시발주자

이들 4인의 始發走者들은 나름대로 초대민선 서울 시장으로서 「최적임자」임을 내세우고 있다. <조선일보 94.9.5. 4면>

시뵈거리

그런데 이른바 어른이라는 사람들이 그것도 자기의 남편을 가리켜 아빠라고 부르니, 세상에 이런 경우가 어디 있는가. -중략- 여기에 비하면 미국을 주체로 놓고 보는 표현인 ‘엘에어로 들어간다’는 말은 숫제 시뵈거리도 안 되는지 모른다. <한겨레신문 94.8.28. 9면>

시테크

공간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신포크」바람이 일고 있다. 최근 2~3년 사이 시간 경쟁력 제고를 위한 「時테크」가 많은 기업에 전파된 데 이어 공간의 기능성 패적

성 경제성을 통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려는空테크가 빠른 속도로 파급되고 있다.
<한국일보 94.9.15. 11면>

時테크는 시간의 전략적 활용과 시간 창조의 기술을 말한다. 이는 주어진 시간 가치를 높이며 자신의 시간뿐 아니라 상대방 시간까지 고려하여 성과를 높이는 것을 의미한다. <조선일보 94.8.21. 13면>

식견국

외무부, 주대만 한국대표부, 주한 대만대표부를 통해 현지 동물보호협회와 연락을 취한 윤 씨는 “식견국이라는 한국의 이미지 때문에 왕리리 씨 등 대만쪽 사람들을 설득하느라 무진 애썼다”고 털어 놓았다. 자신이 동물보호 모임의 대표이고 수의사라는 점을 밝혔음에도 혹시 보신탕감으로 데려가는 게 아니냐며 못내 미심쩍어 했다는 것. <일간스포츠 94.6.5. 22면>

식자재

단체 급식이란 산업체 병원 학교 공공단체 등 50인 이상 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식사를 제공하는 것. 농산품이나 공산품같은食資材(식자재)를 구입하는 데서부터 메뉴 공급, 조리, 배식, 위생까지 모두 대행한다. <조선일보 94.9.25. 11면>

식재료비

油公 울산컴플렉스는 울산 YMCA와 공동으로 최근 울산시 달동 종합사회복지관에 결식노인들에게 무료 점심을 제공하기 위한 식당을 열었다. 이번 사업은 유공이 식재료비 일체를 부담하고 울산 YMCA 자원 봉사자들이 조리 및 주방일을 담당하는 방

식으로 운영된다. <중앙일보 94.8.10. 28면>

신경제

서울대 교수에서 金泳三 대통령 후보에게 발탁돼 경제특보로 활약하며 新경제를 입안. <조선일보 94.10.5. 4면>

신공안

검찰의 이런 방침은 지난해 5,6공 수배자에 대한 선별 불구속 발표 등 이른바 ‘신공안’ 기조를 뒤집는 것으로, 현정권의 보수 회귀 분위기와 관련해 주목된다. <한겨레신문 94.5.20. 18면>

朴弘 서강대 총장의 잇단 주사파 관련 발언과 경상대 교양 교재 집필 교수들에 대한 수사 등 이른바 신공안 정국 문제를 놓고 정부와 야당 사이에 공방이 예상된다. <동아일보 94.9.28. 3면>

신공항

그러나 9월 4일 간사이 공항은 개항의牌坊를 올리는 반면 우리의 新공항은 아직도 개항까지는 너무도 많은 시간이 남아 있다. <조선일보 94.8.29. 4면>

신기능

베타테스트와 동시에 IBM은 퍼스널 OS/2의 주된 신기능을 공개했다. 새로운 기능은 종전의 기능을 개선한 것을 포함하여 5가지이다. <전자신문 94.9.9. 22면>

신기류

다양한 첨단, 신기능을 갖춘 고가품들은 외면당하고 기본 기능만 살린 단순 제품들이

소비자의 사랑을 듬뿍 받는 중이다. 이같은 최근의 신기류는 『단순한 게 아름답다』는 신조어를 만들어 내며 신세대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넓게 퍼져 나가고 있다. <동아일보 94.9.12.11면>

신기술

많아야 2~3개의 응용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우리에게 시카고는 어찌면 필요 없을, 그리고 주체하기에 결코 녹록하지도 않을 대단히 많은 신기술들을 강요할 것이다. 그리고 이토록 많은 기능과 기술을 수용하다 보니 「시카고」는 어찌면 그 옛날 결합투성이의 윈도우 3.0을 재현할지도 모른다. <전자신문 94.9.9. 22면>

최근 기업들을 상대로 신상품과 신기술에 서부터 경영 기법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업체들이 잇따라 등장해 관심을 끌고 있다. <한겨레신문 94.8.22. 8면>

신나치

극우적 행태는 스킨헤드족 등 일부 이질 집단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베를린 검찰당국은 경찰과 신나치 조직의 연계에 혐의를 두고 10여건의 사안을 조사중이다. 함부르크에서는 외국인에 대한 경찰의 적대 행위로 주내무장관이 물러나기까지 했다. <한겨레신문 94.10.4. 6면>

신나치주의

독일과 이탈리아는 24일 유럽국들이 극우 과격파를 퇴치하고 新나치주의 확산을 봉쇄하기 위한 공조 체제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데 합의했다. <조선일보 94.8.25. 7면>

신상품

최근 기업들을 상대로 신상품과 신기술에 서부터 경영 기법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업체들이 잇따라 등장해 관심을 끌고 있다. <한겨레신문 94.8.22. 8면>

신세대적

그 이후에 대한 질문에 대한 서태지 씨의 대답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2집 출판 때 우리 자신도 3집의 성격을 미리 알 수 없었다.” 둘째, “아직 성인 취향의 음악은 하고 싶지 않다. 진보적이고 새로운 음악을 하고 싶은데 가장 통할 수 있는 세대가 중·고등학생들이다. 그들은 우리의 신세대적 음악을 이해해 준다.” <한겨레신문 94.8.20. 9면>

신시가지

상계동의 대단지 아파트 건설에도 군사적인 새로운 판단에 의해 의정부~서울 회랑의 방어 강도를 고려했을 것이고, 일산 신시가지의 조성도 국방부의 방위 목적과 서울의 택지난 해소 문제가 맞아떨어진 결과였을 것이다. <조선일보 94.9.29. 5면>

신아이디어

신규 분야 개발실은 연구원들이 제안하는 모험 과제에 대해 연구 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연구 성과의 사업화까지 유도 지원하는 신기술 신아이디어의 인큐베이터 기능을 담당한다. <동아일보 94.9.22. 17면>

신앙인

이어 이병주는 여운형이 기독교에 입신한 뒤 집안의 신주를 불사르는 등 생활에서의 대혁신을 단행한 돈독한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었다면서 결코 그는 끝내 공산주의자가 될 수 없었던 인물이라고 평가한다. <한겨레신문 94.8.24. 10면>

신업태

세븐일레븐은 국내 영업권을 갖고 있는 (주)코리아세븐의 모기업인 동화산업이 유통업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어 新업태인 편의점을 제대로 꾸려나갈지 당초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중앙일보 94.8.10. 29면>

불황기를 맞아 가속화하고 있는 일본 유통업계의 이런 판도 변화는 호황기인 미국에서도 거의 다름없이 나타나고 있다. 백화점 슈퍼마켓 편의점 등 기존 소매업계는 시장 점유율이 하락하고 있고 대신 할인점 창고형 도소매점 회원제 도매 클럽 할인제 드럭스토어 지스토어 등 각종 신업태들이 시장을 빼앗아가고 있다. <한겨레신문 94.8.16. 9면>

신인사

능력주의 新인사 바람이 확산되면서 발탁 인사제 폭이 넓어지고 있다. <조선일보 94.8.31. 11면>

신전략

미국의 크리스찬 사이언스 모니터紙는 이 같은 경향에 대해 『美 지동차업체가 그동안 신제품 개발이나 세일즈 전략에서 여성 고객을 잡기 위한 노력이 부족했다고 보고 新전략 개발에 나서고 있다』고 최근 보도

했다. <조선일보 94.9.13. 10면>

신정부

파나마 新정부가 인도적 차원에서 쿠바 난민을 수용할 것이라고 新정부 소식통이 23일 밝혔다. <조선일보 94.8.25. 6면>

신정책

중국 정부는 오는 96년 이후 외국 투자기업에 대해 중국 기업과 합작으로 승용차를 생산하는 것을 허용한다는 新정책을 발표, 부품 국산화에 협력한 조건으로 3~4개 외국업체에 신규 시장 진출을 인정할 방침이다. <조선일보 94.10.13. 10면>

신조류

그중 상당수를 차지하는 것이 미혼 또는 직장여성을 겨냥한 잡지들인데, 『획기적』, 또는 『신조류에 대응한다』는 표어를 내걸고 기존의 잡지의 틀을 거부하는 잡지들이 많은 이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조선일보 94.8.23. 13면>

종교개혁이나 계몽사상 등 시대 변화의 조류를 수용하는 데서도 항상 차남 이후 출생자들이 두각을 드러낸 반면 장남들은 이런 신조류를 저지하는 데 앞장섰다고 한다. <조선일보 94.8.25. 7면>

신증산층

그런가 하면 당시 환경보호 反核 등 이른바 녹색定向 (Green Orientation)의 後물질주의적 가치가 급속히 부상하기 시작했는데 여러나라의 시민당들이 이들 가치를 선호하는 사회 집단들, 예컨대 신중산층과 고

학력자 및 전후세대들을 제대로 품에 안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있었다. <동아일보 94.10.6. 6면>

신청사

서울 22개 구 중 유일하게 자체 청사 없이 7년여 동안 「셋방살이」를 해온 중랑구가 신내 택지 개발 지구 내에 신청사 부지를 마련, 올해 안에 청사 신축 공사를 착공한다. <조선일보 94.9.27. 28면>

신토불이

「국산품을 애용하자」는 계몽적 구호보다 「우리 체질에 맞는 제품이 좋다」는 신토불이 캠페인이 요즘은 더 큰 호소력을 발휘하고 있다. <한국일보 94.9.19. 18면>

실무화시키다

이러한 관계를 보다 實務化(실무화)시키고 구체화시켜야 한다. <조선일보 94.9.11. 3면>

실버타운

우리보다 먼저 가족 해체 현상을 겪은 나라에서는 실버타운이라는 노인 전용 주거 시설을 볼 수 있는데 무료가 아니고 유료이다. <조선일보 94.8.23. 13면>

실세화하다

지방화 시대를 앞두고 시-도지부위원장을 재선급에서 3선급 이상의 중진으로 實勢化하는 민자당의 인선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조선일보 94.8.13. 4면>

실속파

일부 ‘실속파’ 학생들은 계절 학기 과목으로 수영을 신청해서 학점도 따고 수영도 제대로 배운다는 목표 아래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리고 있다. <스포츠조선 94.7.30. 21면>

실외기

에어컨의 알루미늄 증발기관의 먼지는 아래위로 흩듯이 칫솔로 닦아내린 후 물을 부어 씻는다. -중략- 밖에 설치된 실외기는 비나 눈을 맞지 않도록 방수 커버를 씌워놓아야 녹이 슬지 않는다. <조선일보 94.8.25. 19면>

심각성

환경 보전 운동은 생활 속의 실천 운동이 되어야 하는 만큼 학생들에게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인식시키는 환경 교육을 강화해 물건을 아끼고 쓰레기를 줄이고 치우는 일 등이 몸에 밸 수 있도록 하겠다. <동아일보 94.8.12. 5면>

십자포화

자칫 법 개정 문제를 잘못 건드려 ‘한표’와 직결되어 있는 노동계를 들쭉서서 좋을 일이 없는 데다 표를 의식해 노동계에 선심을 쓰게 되면 가장 위력적인 여론 형성 집단인 재계와 경제 관련 단체 및 부처, 보수 언론 등으로부터 십자포화를 맞게 될 것이 분명하다. <한겨레신문 94.8.29. 2면>

♣ 의미가 다름

싱글재킷

이런 의상의 특징은 재킷의 칼라와 깃(라

펠)이 이루는 소위 V존(Zone)이 좁아 기왕의 재킷보다 셔츠 타이 등의 색상이나 형태의 어울림에 더 신경을 써야 한다는 점이다. 기왕의 싱글재킷(단추 2개짜리)의 경우에도 화사하고 대담한 V존의 연출이 요즘 유행이다. <동아일보 94.9.4. 9면>

쌀시장

한편 그는 일본의 주식품 통제법 철폐 및 쌀시장 개방 계획과 관련, UR협정의 기대에 부응하는 조치라며 환영했다. <조선일보 94.9.11. 6면>

쌍글

남산 3호터널 내부의 물청소로 인해 27일 밤 10시부터 28일 오전 6시까지 쌍글 터널 중 1개 터널의 차량 통행이 통제된다. <동아일보 94.8.26. 27면>

쌍방향

화상과 음성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고 필요한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쌍방향 네트워크 소프트웨어와 검색 소프트웨어를 사용한다. <조선일보 94.9.11. 7면>

써먹히다

바깥 세계가 탈냉전이라 해서 한반도 내부의 엄연한 냉전 상황까지 심불리 탈냉전의 논리로 대처하거나, 한반도 내부에서의 불가피한 냉전적 대처 방식이 바깥 세계에서 써먹힐 수 있는 것처럼 전제해선 안되리란 이야기다. <조선일보 94.9.17. 5면>

쓰레기봉투

쓰레기봉투를 준비해 가 각자가 버린 쓰레

기를 모두 수거해 와야 한다. <조선일보 94.8.31. 28면>

썩썩하다

인천 북구청 사건은 백성이 내는 나랏돈을 썩썩하는 말단 관리의 상습적이고 구조적인 보편성의 극히 작은 한 사례에 불과한 것이다. <조선일보 94.9.17. 5면>

♣ 의미가 다름

0

아랫물

신문의 만화에서처럼 정치 9단이 되기보다 9급 공무원이 돼서 한탕해 보겠다는 풍자도 있었지만 언론의 시각조차 이제 윗물이 어느만큼 맑아지는 것 같더니 도리어 아랫물이 흐려지고 있다는 논조인데, 이는 사안의 핵심을 짚지 못한 편협한 생각이라고 본다 <조선일보 94.9.17. 19면>

♣ 의미가 다름

아랫장식

특히 백제 귀고리의 경우, 국내에 11점밖에 없는데다 아랫장식(垂下飾·수하식)이 국내에서 처음 보는 펜촉 형태여서 눈길을 끌었다. <조선일보 94.9.23. 2면>

아이디어료

곧바로 예산 편성에 들어갈 모양입니다. 무슨 애깁니까? 나 없는 동안 무슨 일이 벌어졌나요? 저도 좀 끼워 주세요. 호호, 아이디어맨에게 아이디어료를 공식적으로 지급해 달라는 아이디어가 채택됐다는 말씀. <스포츠조선 94.5.24. 11면>

아이디어맨

곧바로 예산 편성에 들어갈 모양입니다. 무슨 애갑니까? 나 없는 동안 무슨 일이 벌어졌나요? 저도 좀 끼워 주세요. 호호, 아이디어맨에게 아이디어료를 공식적으로 지급해 달라는 아이디어가 채택됐다는 말씀.
<스포츠조선 94.5.24. 11면>

아이디어원

틈만 나면 가방 하나 둘러메고 외국으로 나서기를 1년이면 2개월 이상, 아무리 바빠도 하루 한편씩 비디오 영화를 보고, 백화점에 가면 하릴없는 사람처럼 『아이쇼핑』만 한다. 한국 광고업계에서 몇 안되는 여성 PD 조은경 씨의 아이디어源이다. <조선일보 94.8.29. 9면>

아이알(IR)

주가 관리를 위해 최근 국내 기업들이 잇따라 도입하기 시작한 것이 IR(인베스터 릴레이션즈)이다. IR은 자기 회사의 주주 및 투자자들에게 경영 지표와 사업 계획, 투자 계획, 업계에서의 위치 등 회사 정보를 솔직히 알려 안정 주주를 확보하고 주가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미국에서는 이미 60년대부터 활성화되기 시작했다. <한겨레신문 94.9.26. 8면>

아이피

흔히 아이피로 불리는 컴퓨터 통신정보 제공자(Information Provider)들은 천리안이나 하이텔 등 컴퓨터 통신망에 정보를 제공하고 일정액의 수수료를 받는다. <동아일보 94.10.10. 17면>

아치스포터

평발인 사람은 신발에 말랑말랑한 고무로 된 아치스포터를 신발 바닥에 부착하는 것이 좋다. <조선일보 94.9.25. 17면>

아카데미하다

더구나 혁명동지들 간에 격렬한 권력투쟁을 체험하면서 권력무상이랄까, 복잡다기한 세상에 관심을 끄고 아카데미한 분위기에 젖고 싶은 것이 솔직한 심정이었다. <월간조선 172 596면>

아트페어

국내 최초의 국제 규모 아트페어가 될 행사를 기획한 사람은 갤러리 야미 金永石 대표로 최근 아미커뮤니케이션이라는 회사를 설립, 본격적인 준비작업에 나섰다. <동아일보 94.10.4. 14면>

악선례

그때도 청와대는 『서면 조사 이상은 곤란하며, 더구나 이런 것이 정치적 惡先例로 남아서는 안되겠다』는 입장이었다. <조선일보 94.8.13. 5면>

안드로로지

6개월에서 1년 정도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만 낫는다고 생각돼 온 임포텐스를 서너번의 약물 치료로 간단히 치료하게 된 것도 안드로로지의 커다란 성과다. 안드로로지는 남성을 뜻하는 헬라어 안드로(Andro)와 학문을 뜻하는 로지를 붙여서 만든 신조어. 음경, 전립선, 고환 등 남성만의 신체 부위에 발생하는 병을 대상으로 치료하는 의학

의 한 분야로 지난 80년에 세계 학회가 결성된 이래 유럽, 미국, 브라질 등에서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 <스포츠조선 94.5.23. 17면>

안전도

한국형은 또 북한이 애초 희망했던 러시아형보다도 안전도에서 훨씬 앞선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겨레신문 94.9.13. 4면>

안전병

서울시는 무단횡단 사고가 많은 도봉구 도봉로 삼성전자 앞 등 28개 지점에 가드펜스 안전병 미끄럼 방지 포장 등 안전 시설을 올 연말까지 설치키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조선일보 94.9.15. 29면>

안전판

북한은 여전히 우리의 온갖 평화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남 폭력 혁명 노선을 결코 포기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대한민국을 전복하려는 국내의 공산 세력의 위협이 존재하는 한 체제 수호의 안전판으로서의 국보법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현시점에서 보안법 폐지론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 <조선일보 94.8.17. 13면>

❁ 의미가 다름

안줏거리

사실과 허구를 뒤섞는 소설 기법이 유행이다. 역사에서 소재를 따 쓴 소설들이 상업적 성공을 거두기 때문이다. 필자도 출판사도 돈벌이만 된다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다. 문학이 삶의 본질에 대한 천착이요, 소망이라는 본래의 맛과는 거리가 멀다. 대량소비사회엔 문학도 소비와 오락의 읽을 거리요,

역사인물도 안줏거리일 뿐이란 말인가. <동아일보 94.9.4. 1면>

안테나숍

동양맥주는 6일부터 15일까지 OB1번지와 OB플라자 등 자사의 전국 체인점에서 '소비자가 좋아하는 맥주맛 찾기' 행사를 벌인다. -중략- 이처럼 제조업체들이 자사 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평가를 파악하거나 타사 제품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기 위해 운영하는 유통망을 흔히 안테나숍이라고 부른다. 즉 판매가 최우선의 목표인 일반 유통망과는 달리 제품 기획과 생산에 필요한 정보 입수가 우선 과제인 것이다. 마치 공중의 전파를 잡아내는 안테나와 같은 기능을 하고 있다는 데서 이름이 붙여졌다. <한겨레신문 94.9.5. 10면>

알권리

물론 국민의 알권리를 충분히 충족시키기 주기 위해서 사안의 객관적 진실을 보도하는 것이 언론 매체의 역할인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나 무절제한 보도로 인해서 알권리의 충족보다 국민 정서에 악영향을 끼치고 모방 범죄 심리를 충동질한 우려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정이 필요하리라 본다. <조선일보 94.9.29. 13면>

암행감찰

감사원은 이번주부터 감사 요원 40여명을 관공서 주변에 투입해 인허가와 업무 편의 제공을 둘러싼 공무원들의 금품 수수 행위에 대해 암행감찰을 실시키로 했다. <동아일보 94.8.28. 2면>

앞거래

박종규 바른경제동인회 대표간사 (한국특수전 사장)은 “실명제가 실시돼 기업의 비자금이 거의 없어졌으므로 기업 접대비 중 신용카드 등 금융기관을 통한 지급액에 대해서는 손비인정한도를 철폐해야 한다”며 “뒷거래를 없애려면 앞거래만이라도 자유롭게 터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아일보 94.8.24. 11면>

애견인

개값은 무료로 한다는 데 합의했으나 항공운임 전액은 윤 씨가 개인 돈으로 부담한다. “보신탕을 즐기는 인구 외에 애견인 숫자가 2천만명이고 애완견도 2백만 마리 이상 된다는 사실을 국제 사회에 널리 알린다는 홍보 효과를 감안하면 그리 큰 액수가 아닐 겁니다.” <일간스포츠 94.6.5. 22면>

애송가

지난해까지 도내 유일한 문학제였던 지용제는 지난 5월 13, 14일 이틀간 시인의 고향인 옥천벌에서 열렸다. 지용제는 지난 88년 7백여명의 지용시 애송가들이 모인 지용회에 의해 시작됐으나 89년 시비 제막식을 가지면서 옥천 문화원이 주최하는 5월 축제로 자리잡았다. <한겨레신문 94.8.28. 12면>

액정롬

대우전자는 -중략- 순간 난방 및 온수 등 작동 상태를 액정롬 리모콘의 화면으로 점검하는 편리성을 강조한다. <조선일보 94.9.5. 21면>

액체비누

저희는 비누로 시작을 해서 지금은 액체비누 샴푸 세제 등 각종 생활 용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94.8.19. 15면>

야당가

가뜩이나 야당가에는 新黨說(신당설)이 나돌고 있는 판이다. 누가 누구에게 무슨무슨 제의를 했다더라는 비교적 구체성을 띤 루머도 난무하는 실정이다. <조선일보 94.9.17. 3면>

야영료

고전적 의미의 자동차야영이 가능한 곳으로 제일 먼저 꼽을 수 있는 곳은 주문진 해수욕장에 있는 기아 캠프촌. 주차료, 입장료, 야영료 등 모든 시설 이용료가 무료다. 다른 야영장에 없는 전기 사용도 공짜이다. 지난 22일 개장해 다음달 13일까지만 문을 여는데 올해부터는 기아 자동차뿐 아니라 다른 회사의 자동차도 받고 있다. <한국일보 94.7.29. 13면>

야채상

야오한은 1930년 야채상으로 창업, 현재 일본 홍콩 중국 미국 등 16개국에 백화점 4백개 이외에 슈퍼마켓 디스카운트스토어 전문점 레스토랑 국제도매유통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매출이 작년보다 25%정도 늘어난 4천2백억원으로 예상되고 있다. <조선일보 94.10.7. 11면>

야라족

범인들은 모두 불우한 가정 출신으로 정상적인 교육을 제대로 못 받아 고교 중퇴 이하의 학력이 고작이어서 검거된 뒤에도

『야타족을 죽이지 못한 것이 한이 된다』
고 말할 정도로 부유층과 사회에 대한 극도의 적대감을 나타냈다. <동아일보 94.9.22. 31면>

야타족 행세를 하고 싶어 승용차를 훔쳐 타고 절도 행각을 벌인 젊은이에 관한 기사를 읽고 대중 매체들의 무분별한 보도가 일반인들에게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다. <조선일보 94.10.1. 19면>

약보합세

한편 이달초 관계기관 합동으로 아산만과 부산 광역권 등 전국 50개 시군에서 부동산 거래 조사를 벌인 결과 이들 지역의 토지 거래 면적은 작년에 비해 5.0% 늘었으나 거래 건수는 6.9% 줄었고 땅값은 하락 내지 약보합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동아일보 94.9.22. 11면>

약효

그러나 최근 중국 국경 지방에서는 북한의 상황이 金日成의 사망 이후 급변할 가능성이 엿보이고 있다. 앞서 지적된 북한 체제 유지 요인들은 사실상 모두 金의 상징적 이미지가 북한 주민들의 머리 속에 형성돼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들이었다. 따라서 金日成의 사망과 함께 이러한 정책들 자체의 약효가 급격히 떨어지리라 는 것이 현지인들의 전망이다. <한국일보 94.7.29. 5면>

♣ 의미가 다름

양궁인

양궁은 신체 조건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것

이 한국 양궁이 세계 무적을 자랑하는 또 다른 이유다. 오히려 외형적인 체격보다 정신력이 경기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는 것이 양궁인들의 분석이다. <한국일보 94.6.16. 25면>

양방향성

무엇보다 VOD의 가장 큰 특징은 양방향성이다. 이 때문에 VOD는 VCR 제조 및 비디오 유통업 종합유선방송 등과 필연적으로 경쟁적인 위치에 서 있다. <동아일보 94.8.22. 23면>

양심선언

다른 하나는 조용필이 뮤지컬 연기를 발표 하던 날 경찰에 제보됐던 첩보성(?) 루머. 「폭력배에게 시달리던 조용필이 양심선언을 하기로 해 폭력배들이 테러를 할 것」이란 내용이다. <조선일보 94.9.1. 16면>

양심선언자

미국의 예와 같이 양심선언자 보호법을 제정하거나 민원인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 실시 등의 대책이 거론되고 있다. <조선일보 94.9.23. 3면>

양판점

자스코 등 量販店의 등장으로 아키하바라 전자업체들의 도산이 잇달고, 도시바 마쓰시타와 같은 제조업체들은 대량 구매를 무기로 내세운 양판점의 가격 인하 요구에 고민중이다. <조선일보 94.9.9. 11면>

어깨백

자잘한 물건들을 넣어 가지고 다니는 운반 수단이라는 점에서 비치백과 여느 손가방

의 용도는 같다. 그래서 비치백 형태도 핸드백 어깨백 배낭 책가방 벨트백 조끼 모양 등 7가지나 된다. <일간스포츠 94.8.1. 31면>

어린이집

맞벌이 부부 35가족의 공동 출자로 설립된 이 어린이집에서는 생후 4개월을 넘긴 갓난아이부터 여섯살까지 40명의 아이들이 아침 8시부터 저녁 7시까지 뛰놀게 된다. <동아일보 94.8.20. 16면>

어린이화

한희작의 성인만화 「서울 손자병법」은 -중략- 만화영화 「알라딘」에 몰린 성인관객들은 사회의 팬시화와 어린이화를 반영하는 현상이 아닐까. <조선일보 94.9.3. 13면>

어슬렁족

점통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어슬렁족'이 늘고나고 있다. 어슬렁족이란 시원한 곳을 찾아 시간을 보내며 더위를 피하는 일종의 암채족으로 '민폐'까지 끼치고 있어 원성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스포츠조선 94.8.2. 19면>

어필하다

『국회 결의는 양쪽의 의미를 일본 국민과 국제 사회에 어필하는 단어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선일보 94.8.13. 2면>

억압성

일면 脫비탄적이고 脫규범적인 이같은 연구 경향과 군부 체제의 억압성 등으로 인해 한국 정치학은 자유민주주의의 보호라는 임무에는 소홀했던 것이 사실이다. <조선일보 94.9.3. 6면>

언밸런스하다

굉장히 많은 여성들이 쌍꺼풀수술과 코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코가 납작하면 영화적인 조명을 받을 때 불리한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높은 코는 웬지 그 사람의 얼굴 윤곽과 언밸런스하기 마련입니다. 또 저같은 전문가에게는 가짜코라는 것이 금방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오히려 자신만의 독특한 이미지를 갖는 데는 손해를 보기도 합니다. <영레이디154 315면>

언어폭력

음란·협박 전화를 건 사람의 전화번호를 알려주는 발신자 추적 서비스가 시행되면서 전화에 의한 언어폭력이 크게 줄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무선호출기(삐삐)의 음성 사서함 기능을 악용해 음담패설·욕설·거짓 약속 등을 늘어놓는 신종 전화폭력이 성행하고 있다. <한겨레신문 94.8.6. 15면>

엄벌주의

『때문에 비리 척결을 위해 장단기 대책을 세워 대처해야 한다고 봅니다. 우선 단기적으로는 엄벌주의를 통해 비리가 적발되는 공무원들을 단호히 조치할 것입니다. 장기적인 대책으로는 부패를 유발하는 「부패 환경」을 해결해야 합니다.』 <동아일보 94.9.4. 8면>

그는 13일 저녁 국무위원들과의 만찬에서도 『공직자 부정부패는 最高刑(최고형)으로 嚴罰(엄벌)主義를 채택하여 뿌리뽑겠다』고 극단적 표현들을 썼다. <조선일보 94.9.15. 4면>

엄포성

“내년 6월 민선 시장에 출마하실 생각이십니까. 먼저 ‘십시티 2000’을 통과하십시오.” 1일 컴퓨터 게임 ‘십시티 2000’의 한글판을 내놓는 (주) SKC의 업포성 광고 문구다. <한겨레신문 94.9.1. 12면>

에스유엔디에스(SUNDS)

현대 의학으로도 아직 정확한 원인을 규명할 수 없는 이른바 「잠자다 죽는 병」이 태국 젊은 남성들 사이에 자주 발생, 태국 정부가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의학자들에 의해 SUNDS(원인불명夜眠돌발사망증후군 Sudden Unexplained Nocturnal Death Syndrome)라 불리는 이 해괴한 병은 지난 90년 처음 공식 보고된 이후 4년간 태국에서 발생한 희생자만도 무려 1천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조선일보 94.9.5. 30면>

에이아이(AI)조사

최근 방송위원회가 기관지 「방송과 시청자」 9월호를 통해 『MBC뉴스데스크가 신뢰성 공정성 등 8개 항목에서 「KBS뉴스9」보다 앞서 있다』고 밝힌 「방송3사 종합뉴스 수용자반응(AI)조사」 결과는 방송 프로의 질을 평가하는 AI조사가 아니라 단순한 이미지 조사에 따른 것으로 밝혀졌다. <동아일보 94.9.14. 21면>

엑스세대

KBS 1TV 「뉴스9」의 새 여자 진행자로 뽑힌 황현정 아나운서(24)는 방송사 내에서 메인 뉴스에 입성한 첫 X세대 앵커로 꼽히고 있다. <동아일보 94.9.22. 21면>

최근 마케팅 분야에서 제일의 타겟으로 부상한 X세대. 그러나 이 X세대론이 만들어

진 미국에서도 아직까지 기업들이 X세대의 실제 파악에 전전긍긍하고 있다. 이 때문에 마케팅 분야에서 X세대론 자체가 상품으로 포장되어 팔리고 있다고 미국의 <포브스>지는 전하고 있다. <한겨레신문 94.8.22. 10면>

엔터테이너

노래만 잘해서야 무슨 라이브형 가수인가. 음악을 들으러 온 사람들을 즐겁게 해 주어야 한다. 앨범으로는 도저히 느낄 수 없는 현장감, 구석구석의 스트레스를 씻어줄 수 있어야 한다. 말 그대로 엔터테이너가 되어야 한다. 춤도 잘 추고 말도 때론 잘 하고. <영레이디154 345면>

엘리트주의

이를 놓고 분석가들은 젊고 야심만만한 ‘클린턴의 사람들’이 워싱턴의 완고한 정치 문화와 기득권 장벽에 부딪쳐 밀려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또 측근 세력의 엘리트주의와 대중 인기주의가 단명의 요인이라는 지적도 있다. <한겨레신문 94.8.19. 5면>

엠자금

엠자금이란 전후 연합군사령부가 舊일본군으로부터 압수한 보석 등을 바탕으로 비자금화, 日 정부가 줄곧 관리해 오고 있다고 소문난 가공의 돈. <동아일보 94.8.28. 6면>

여관발이

나이 서른이 넘어가면 퇴물 소리를 듣는다. 호객 일을 하는 펌프로 머물거나 사창가를 떠나 여관발이나 ‘전화발이’로 나서야 한다. 흔히 말하는 ‘보도집’이나 ‘밥집’에서 살면서 여관에서 부를 경우 몸을 파는 일

을 하는 것이다. <영레이더154 563면>

여론전

21세기 진보학생연합의 한 관계자는 “현정권의 공안 통치 등 민주 사회를 가로막는 모든 형태의 탄압에 명백히 반대하고 맞설 것이지만 그에 대한 물리적 대응을 자제하고 대화와 설득 등 대국민 여론전을 통해 학생운동 방식의 질적 도약을 시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겨레신문 94.9.6. 20면>

여백지

이 학교 2학년생 4백98명의 스크랩북에는 지난 7월부터 시작된 朝鮮日報社 섯강 캠페인의 기사와 도표·사진들이 차곡차곡 모아져 있다. 또 여백지는 새로 깨닫게 된 사항에 대한 놀라움과 자신의 환경 의식 및 실천에 관한 반성, 앞으로의 다짐 등이 뽀뽀하게 적혀 있다. <조선일보 94.10.13. 28면>

여보안관

그러던 중 피어스를 거의 다 따라잡은 순간 시골 마을 여보안관 조베스의 방해로 피어스를 놓치고 만다. 게다가 램버트는 은행강도범으로 오인받아 감방에서 하룻밤을 보낸다. <문화일보 94.9.14. 17면>

여사원

그런데 최근에는 법정 드라마에서 가장 중시해야 할 객관성 형평성에서 중심을 잃어가는 느낌이다. 24일에 방영한 「10년만의 휴가」는 고령 여사원의 일방적 퇴사라는 공감 가는 주제를 다뤘는데, 지나치게 피해자 쪽에 비중을 두다 보니 거꾸로 남성 시청자들에게는 거슬리는 대사나 장

면이 적지 않았다. <조선일보 94.7.26. 16면>

한국감정원은 지난 7월 1일 여사원 제도(‘여사원’을 ‘사원’과 별도 직군으로 분리해 차별 대우를 했던 제도) 폐지와 함께 전 사원을 종합직과 일반직으로 분리하는 이른바 ‘신인사 제도’를 채택했다. <한겨레신문 94.8.11. 10면>

여성주의

전체적으로 보아 <세계의 어머니>는 여성주의와 아일랜드 애국주의, 반카톨릭이라는 오코너 음악의 기존 세계의 연장이면서 동시에 그 자신의 고통에 대한 화해이자 치유로서의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보인다. <한겨레신문 94.9.26. 13면>

여성학자

여성학자이기도 한 金孝鮮 씨는 『자유롭고 자의식이 강하던 여성들이 결혼 후 무디어지고 「욕먹는」 존재로 만드는 우리 현실을 파헤치고 싶었다』고 말한다. <조선일보 94.9.13. 21면>

여성화되다

부권이 실추되고 다수의 여성 선생님 아래서 교육된 남자들이 점점 여성화돼 가는 실정이다. <영레이더154 327면>

여윳돈

이 게임은 주식을 사고 팔면서 재산을 늘려가는 것인데, 한두 시간만에 끝나는 게임이 아니라 사용자가 매일매일의 실제 주가 자료를 직접 입력해서 진짜로 주식 거래를 하는 것처럼 즐기는 것이다. 주식 투자할

여웃돈이 없는 사람이 컴퓨터로 하면서 '대리 만족'을 얻는 셈이다. <한겨레신문 94.9.22. 13면>

여해병

40여년 동안 세인의 기억에서 사라졌던 제주의 여(女)해병(본지 6월 25일자 게재)들이 10월 1일 국군의 날을 맞아 해군 제 9506부대의 초청으로 제주시 동문로터리에 세워진 해병혼탑과 충혼묘지 참배 행사에 참석한다. <동아일보 94.9.30. 27면>

여향

'작별'을 통해 여향(女香) 짙게 풍기며 사랑을 찾아 나선 가을의 유호정과 데이트하는 행운을 어느 남자가 안을까. <스포츠조선 94.9.9. 21면>

역공세

이런 판에 『운동권』도 아닌 야당 인사들까지 그들의 逆공세를 거들어 주며 『新공안정국』云云하는 것은 국민으로 하여금 『民主黨이 왜 저러나』하는 의문을 갖게 만들기 십상이다. <조선일보 94.8.13. 3면>

역발상

성공 비결은 한국 시내 한복판의 대형 서점처럼 시내 중심지나 역 근처 등 땅값이 비싼 곳에는 점포를 열지 않는다는 『逆발상』에 있다. <조선일보 94.8.29. 13면>

역작용

그러나 이러한 강경 노선은 북한이 남북 대화를 계속 거부하면서 미국과의 관계 개선만을 추구하고, 미국도 남북한 관계의 경직

국면이 장기화될 경우 한국과의 공조 체제 유지보다는 자국 이익 우선 차원에서 북한과의 전면 수교를 결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등 역작용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겨레신문 94.8.28. 3면>

역추적하다

검찰은 이를 위해 구속된 안영휘(53·전 북구청 세무계장), 양인숙(29·여·북구청 세무과 9급)씨 등 예금 계좌 등을 역추적해 횡령액 규모를 밝히기로 했다. <한겨레신문 94.9.24. 15면>

연고성

공보처는 애초 △ 지역 사회에 대한 기여도나 연고성, 출자자의 적합성과 성격 등을 고려해 판단하는 '주주 및 임원의 적격성' 항목에 4백50점 △ 재정 능력이나 재산 축적 과정의 건전성, 사업 운영 건전성 등에 3백점 등 자의적 판단이 가능한 항목에 높은 점수를 배정하고 방송 운영 능력과 직결된 조직·인력 운영 계획, 프로그램 편성 및 확보 계획 등에는 2백50점만 할애해 제도적으로 방송 운영 능력 외적인 요인이 개입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그동안 받아 왔다. <한겨레신문 94.8.11. 3면>

연동화

경찰은 이 개선 작업이 끝나면 이들 24개 주요 도로망을 대상으로 신호 변경의 연동화로 차량 흐름을 원활히 하고, 신호 체계를 단순화해 교통량을 분산하는 동시에 교차로 부근 이면로를 최대한 활용, 『P턴』과 『U턴』을 허용할 방침이다. <조선일보 94.8.25. 28면>

연봉상한제

☞ 셀러리캡

연소화

이번 회의에서는 또 정신 문명 건설, 농촌 기층 조직, 간부의 연소화 등이 논의되며 특히 농민 당원의 이탈로 거의 마비 상태에 이르고 있는 농촌 기층 조직의 강화가 중점적으로 논의될 것이라고 明報는 전했다. <동아일보 94.9.24. 7면>

연주력

80년대초 대학가요제 무대였던 것으로 기억한다. 주로 포크 스타일의 곡들만 출전하던 무대에 갑자기 뛰어난 연주력의 프로그램에 그룹이 등장했던 것. 「안개」라는 제목의 이 곡이 당시 필자에게도 가히 충격적인 것이었다. <전자신문 94.9.2. 30면>

제각기 원숙한 연주력으로 객석을 사로잡은 협연자들 가운데 제니퍼 高의 好演은 특기할 만하다. <조선일보 94.9.5. 17면>

연출력

속마음에서는 진한 애정을 가졌으면서도 겉으로는 '쓰레기같은 영화'라고 떠들고 다니는 감독 장선우는 올해 베를린 영화제에서 '화염경'으로 '알프레드 바워상'을 받아 세계적으로 연출력을 인정받은 명연출자 <스포츠조선 94.8.9. 32면>

특히 재방송 시간 횟수 등을 정하는 편성의 순발력, 중계 또는 녹화된 경기 내용을 하이라이트로 재편집하는 연출력, 그리고

선수나 경기와 관련된 프로그램 제작 등에서 무성의한 측면을 드러내고 있다. <조선일보 94.10.11. 16면>

연푸르다

유호정의 대표색은 뭘까. 분명 빨강은 아니고 그렇다고 핑크도 아니다. 작가 이금림 씨가 "저만치 있는 나리꽃같은 은은한 이미지"라고 표현했듯이 다가서기 어려운 수줍음이 가득 찼다. 연푸르름. <스포츠조선 94.9.9. 21면>

연하늘색

위조지폐는 대개 ▲지질이 탄력이 없고 ▲바탕이 연하늘색이 아닌 흰색 또는 누런색이거나 ▲인쇄의 선명도가 떨어져 글자가 번지거나 ▲마그네틱 성분에 의한 까칠까칠한 촉감이 없는 것이 보통이다. <조선일보 94.9.7. 31면>

연회색

박경리씨의 「토지」, 이문열씨의 「금시조」 등 프랑스에 소개된 한국 소설의 예를 들어 『한국적인 아름다움은 인위적이고 현란한 것이 아니라 자연과 닮아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영희씨가 바로 『송복의 연회색, 푸른빛이 도는 초록 등을 명주, 모시 등 자연 옷감에 물들여 전통과 자연의 아름다움을 극치로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선일보 94.10.13. 21면>

열기구

지난 6월 한국~중국간 서해 횡단에 성공한 「열기구 대평양횡단 추진위원회」(위원장 白俊欽 <백준흠>·36) 소속 열기구 조

종사들이 25일 오전 7시 일본 열기구팀과 함께 한-일해협 횡단에 나섰다. <조선일보 94.9.25. 26면>

열받다

산에 올라갔다 나뭇가지에 걸린 쓰레기 봉지를 보고 열받는다. 신호를 무시한 채 마구 달려가는 자동차를 보고 다시 한번 열받는다. <조선일보 94.9.15. 15면>

열쇠

또 美-北 양측은 북한 핵 과거 규명의 열쇠인 특별 사찰 문제는 대사급 수교로 외교 관계가 마무리되면 그때 가서 본격적인 협상을 벌일 것이라는 관측마저 나오고 있다. 그만큼 美-北 관계 개선은 물밑에서 급템포로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조선일보 94.9.5. 3면>

♣ 의미가 다름

열혈남

이한우는 이 딸부잣집에서 가장 착한 여자인 하유미의 파트너인 행운아. '딸부잣집'에 하숙으로 들어와 서툰 한국말에 온몸으로 순애보를 전달, 하유미와 결혼까지 골인하는 열혈남으로 나온다. <스포츠조선 94.8.11. 26면>

염장품

수산청은 건제품-염장품-조미가공품 등 18개 품목을 수산물 외부 검사 대상에서 다음달부터 제외시킨다고 22일 밝혔다. <조선일보 94.9.23. 11면>

염기성

특히 대다수의 사람들은 만화에서나 있을 법한 이들 범죄 수법의 잔인성과 열기성·조직성에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한겨레신문 94.9.22. 3면>

영상미

청순하면서도 도발적인 나타샤 킨스키의 모습과 영국 농촌의 목가적인 정경, 그중에서도 특히 들판에서 펼쳐지는 흰옷 입은 여자들의 춤과 발레를 연상시키는 가을결이 장면의 영상미는 시적인 흥취를 맛보게 해 준다. <조선일보 94.10.9. 14면>

영순위

지난 미국 월드컵 축구 지역예선과 본선 등 비중 큰 국제 경기에 부진해 '국내용'이라는 꼬리표를 달았으나, 일본전에서의 극적인 활약으로 깨끗이 잘라냈다. 현재 11득점으로 히로시마 아시안 게임 축구 득점왕 0순위이다. <한겨레신문 94.10.12. 19면>

영업력

具天晝 의원(민자)은 『지역 여건에 맞고 교육에 적합한 교과서가 채택돼야 하나 일부 지역에서는 출판사의 영업력에 따라 결정되는 등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 <조선일보 94.9.29. 5면>

영업망

보해는 취약한 수도권 영업망을 강화하기 위해 경기도 용인에 물류 센터를 연말까지 완공, 수도권에 거점을 확보할 예정이다. <조선일보 94.9.29. 11면>

영창살이

전방에 배치된 아들을 면회 온 가족들을 모아놓고 『얼마전 우리 부대에서는 병졸을 발로 찬 중위가 강등되어 영창살이를 했습니다. 그러니 자식들을 우리에게 안심하고 맡기십시오』라고 자랑하는 사단장에게 가족들이 오히려 한심한 생각을 가질 정도였다니 그런 軍은 도대체 무엇하러 있는 것일까? <조선일보 94.10.9. 5면>

예술혼

득음을 위한 3년 간의 험간 생활, 이루지 못한 여인과의 사랑, 사양길에 접어든 판소리를 고수하려는 고집스런 예술혼, 거지때 옛장수들과의 교감을 통한 서민적인 성품, 일제 치하에서 독립운동을 돕는 우국지성, 국악사상 전무후무한 전국 국악인장의 끝없는 장례 행렬 등 실화에 바탕을 둔 사건들이 3막짜리 창극에 무르녹아 있다. <조선일보 94.9.29. 15면>

오디오맨

녹화 도중 오디오맨이 사고로 사망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동시녹음 기사인 박성용 씨(24)는 SBS TV 오락 프로그램인 '콘테스트, 내가 본 세상'의 야외 촬영 도중 고압선 감전 사고로 입원 가료 중이던 한 강성심병원에서 26일 오후 5시경 사망했다. <스포츠조선 94.7.29. 15면>

오렌지족

운영위측은 또 이 일대에 유흥가들이 밀집해 있는데다 오렌지족 거리로도 널리 알려져 있어 이같은 부정적인 이미지를 개선하는 데 문화행사가 적지 않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동아일보 94.8.30. 15면>

오름폭

이날 증시에서 종합주가지수는 개장초 3.96포인트 오른 9백76.64로 시작했으나, 오름폭이 갑자기 커져 순식간에 9백80선을 넘어섰으며, 후장 들어서는 9백90선마저 가볍게 돌파했다. <조선일보 94.9.9. 11면>

오버라이드하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 관리 업무마저도 중앙은행은 신임 문제에 관련되므로 삼가야 되고 매우 긴급한 경우 정부가 중앙은행을 오버라이드할 경우에도 일정 기간을 정하여 투명성있게 긴급 사태를 해명해야 하며 단기 부양책이나 선거를 앞둔 인플레이 정책은 장기적인 물가 안정을 저해할 위험이 있기에 그런 유혹을 피해야 하며, 일정한 인플레이 목표 달성에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조선일보 94.10.13. 5면>

오빠부대

언제부터인가 우리 사회에는 '오빠 열풍'이 불고 있다. 대중가수의 콘서트 현장은 물론 유명 탤런트 등 스타들이 가는 곳이면 으레 '오빠부대'가 판을 친다. 요즈음 최고의 인기를 구가하고 있는 차인표의 집 주위는 교통 혼잡을 이룰 지경이고 장동건 역시 마찬가지다. 경기장도 예외일 수는 없다. 어디서든지 오빠다. <스포츠조선 94.7.26. 18면>

안드레 애거시(세계 20위·미국)가 오빠부대를 포함한 홈 관중들의 일방적인 성원에 힘입어 13번 시드의 오스트리아 특급 토마스 무스터를 제치고 4강에 진출했다. <조선일보 94.9.9. 27면>

오염원

국판 28쪽 분량의 이 책자는 朝鮮日報社가 제정한 10개 항의 「이것만은 지킵시다」가 정생활 수칙을 비롯, 수질 오염의 주범, 오염원 및 수질 구분, 재생비누 제작 방법, 퇴비 만드는 방법, 음식물 찌꺼기 줄이기, 대용 세제 및 용도, 시판 세제 사용량 표시 등을 자세히 수록했다. <조선일보 94.9.11. 25면>

오이엠(OEM)

국내 의류업체들이 중국과 동남아로부터 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 수입을 늘리고 있다. <조선일보 94.9.3. 11면>

오조준

바둑은 담소가 아니고 죽고 죽이는 전쟁이여! 내가 먼저 쏘지 않으면 상대가 나를 찔러 죽이는 살인 게임여. 바둑을 조화라고 일빠진 비유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 먹고 살만 해서 하는 헛소리! 바둑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략과 죽임의 예술이여. 바둑들의 진퇴, 미동 하나까지도 죽임과 연관되지 않으면 바둑의 본질에 대한 배신 행위여. 전장에서 포병의 오조준이 있듯이 바둑에도 자객의 실수가 있지만, 그렇다고 살의를 중단해선 안돼. <일간스포츠 94.8.30. 25면>

오토리스

수입차들의 오토리스 방식 판매가 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완성차 업체도 일부 오토리스제를 도입, 오토리스가 자동차 판매의 새로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오토리스제란 지난해 11월에 처음 도입된 것으로 자동차 구입에 필요한 모든 경비를 리스 회

사가 자동차 회사에 납부한 뒤 고객은 리스 회사에 매달 일정액의 리스료를 내고 차를 이용하는 제도. <스포츠조선 94.8.11. 30면>

오피스가

국내 굴지의 의류업체인 이랜드 그룹은 최근 몇달간 서울 명동 제일백화점을 비롯한 판매장에서 「라파밀리아」란 브랜드의 청바지 기획상품을 불과 9천9백원에 판매하고 있다. 자동차로 오피스街 골목을 오가며 이른바 덤핑 처리 싸구려 청바지를 1만3천원에 파는 노점상보다도 훨씬 싼 가격이다. <중앙일보 94.10.4. 31면>

오피스빌딩

포철은 긴자 5丁目에 있는 8층짜리 오피스빌딩을 1억엔가량에 사들였으며, 일본 철강-전기메이커 기술자들을 스카우트하고 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조선일보 94.9.9. 10면>

시내에는 현대식 고층 호텔과 오피스빌딩 건축을 위한 대형 타워 크레인들이 스카이라인을 이루고, 경제합작區 내에는 구획 정리가 끝나 곳곳에서 도로 건설 작업이 한창이다. <조선일보 94.8.29. 7면>

온난화

올 4월부터 지속된 일련의 기상 재해는 지구 온난화 현상에 의한 기상 변화를 보여주는 가장 최근의 사례라고 환경 단체 그린피스가 22일 경고했다. <동아일보 94.8.24. 7면>

온산병

이 지역 주민들은 허리 마비 증세를 보이는 등 일본의 「미나마타병」과 비슷한 **온산병**에 시달려야 했고 악취가 날 정도로 심각해진 대기오염으로 대기성 질환자가 다른 지역 주민의 3~4배나 된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동아일보 94.8.16. 2면>

온정주의적

징계 처분 등 **온정주의적** 처리 관행을 타파, 원칙적으로 형사 고발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이것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해 특별 감사를 실시키로 했다. <조선일보 94.9.17. 3면>

온천공

먼저 **온천공**을 뚫은 (주)여원사의 서초온천 헬스클럽과 70m 떨어진 곳에서 1년 늦게 온천공을 뚫은 삼성래포츠센터가 땅 속의 온천물이 서로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며 다투고 있다. <조선일보 94.8.21. 25면>

올드팬

그나저나 **올드팬**들의 향수를 불러 일으키던 대한뉴스가 사라진다니 못내 서운하다. <조선일보 94.8.21. 1면>

올빼미파

이런 강경 자세만이 7월 17일 이후 재개할 예정인 제네바회담에서 뭔가 실마리를 푸는 계기가 될 것으로 미국 언론들은 몰아붙이고 있다. 그러나 회담 재개를 통해 북한측의 성의있는 자세가 감지된다 해도 이를 계속 지켜볼 줄 아는 **올빼미파**의 시각이 필요하다는 것이 미국 정가의 진단이다. <시사저널247 22면>

옮겨 불다

불을 처음 본 김진열 씨(30)는 『인근 가게로 의류를 옮기기 위해 4층에 올라가니 복도 천장의 전선에서 불뚝이 튀어 복도 바닥의 의류조각에 **옮겨 불**으면서 불길에 치솟았다』고 말했다. <조선일보 94.8.25. 30면>

옵션투어

옵션투어란 여행사가 제시한 기본 관광 코스 외에 관광객들에 일정표상의 자유 시간 동안 추가적인 관광을 선택하도록 하는 것. <동아일보 94.8.22. 31면>

와이세대

X세대를 구세대라고 반발하고 나선 Y세대의 기수인 이정재와 신은경은 배창호 프로덕션 창립 작품인 '젊은 남자'에서 만나 초특급 신세대의 모든 것을 다 쏟아놓을 계획이다. <스포츠조선 94.8.16. 27면>

와인색

이 회사는 『재즈 와인』을 금방이라도 유희당할 듯한 와인 색깔에 붉은빛이 가미되어 세련미와 차분함을 주는 **와인색**이라고 표현했다. <조선일보 94.8.23. 19면>

완성도

여성의 극적인 삶의 모습을 **완성도** 높은 영상으로 담아낸 영화 2편이 나란히 국내에 소개된다. <조선일보 94.8.19. 16면>

외교가

외교가에서는 클린턴의 첫 공식 訪中이 올 연말쯤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조선일보 94.9.3. 7면>

외식점

양사가 공동으로 식품을 개발하되, 생산은 아지노모토가 하고, 판매는 다이에 계열 1만여 산매점과 외식점을 통해 하는 방식이다. <조선일보 94.9.5. 11면>

외유길

지난 2월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외유길에 올랐던 金承淵 한화그룹 회장이 지난 7일 오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귀국, 다시 경영 일선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일보 94.9.9. 11면>

외화벌이

일제 때의 공창, 70년대까지의 기지촌과 기생 관광이라는 외화벌이에서 80년대 이후 폭발적으로 증가한 매매춘은 이제 확실한 '산업'이 되어 생활 구석구석을 파고 들고 있다. <영레이디154 560면>

북한은 최근 나진·선봉에 대한 외국 자본 유치에 부진해지자 외화벌이를 담당하던 고려민족산업발전협회와 중국에 있는 한인 기업 등을 에이전트(중개인)로 내세워 중국에 진출한 국내의 대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적극적인 교섭에 나서고 있다. <한겨레신문 94.10.2. 3면>

요트맨

이곳에는 한국요트협회에서 운영하는 요트장(636-8260)이 있어 요트맨들이 애용한다. <여성중앙300 821면>

용병

31일 부산구장서 벌어진 94하이트배 프로 축구리그서 현대는 전반 37분 브라질 용병 호나우도와 마우리시오의 합작으로 얻은 골을 끝까지 지키며 대우에 1대 0으로 승리했다. <조선일보 94.9.1. 27면>

♣ 의미가 다름

용병술

그러나 고려는 류종범 박성민 등 신입생을 앞세운 용병술로 열세 만회를 노리고 있어 지켜보아야 할 듯. <조선일보 94.9.29. 26면>

♣ 의미가 다름

용이성

한미 양국이 긴밀히 협력한다면 한국형 경수로가 채택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 상태다. -중략- 때문에 미국이 안정성과 경제성 및 비용 확보의 용이성 등을 이유로 북한을 설득할 경우 북한도 결국 한국형 경수로를 수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동아일보 94.8.16. 3면>

우승권

승점 33인 LG의 경우도 아직 우승권에서 완전히 떨어진 팀으로 분류할 수 없는 현실이라 LG가 막판에 어느 팀을 물고 늘어지는가가 우승 판도에 결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조선일보 94.9.17. 26면>

우편올림픽

한편 우편올림픽으로 불리는 만국우편연합(UPU) 제21차 총회의 이날 개막식에는 전 세계 1백67개 회원국과 16개 국제기구 대

표 등 1천6백여명이 참가했다. <조선일보 94.8.23. 2면>

운용액

기업들은 이렇게 조달한 38조원의 외부 차입금 중 23조원은 투자 등에 쓰고, 나머지 15조원은 금융 자산으로 운용했는데, 투자 사용액과 금융자산 운용액 역시 작년 상반기에 비해 30%와 47%씩 늘어났다. <조선일보 94.9.17. 10면>

운전족

얇게 운전족들에겐 위반일부터 3일 이내에 어김없이 「몰래카메라」가 찍은 「부끄러운」 사진과 함께 벌칙금 스티커가 날아가기 때문이다. <조선일보 94.9.1. 31면>

웃음꾼

심각한 표정을 바꿔 금방 능청스럽게 웃음을 만들어내는 그를 보면 과연 타고난 웃음꾼이라는 느낌이 든다. 살짝만 웃어도 감은듯 보일락말락하는 초승달눈과 작달만한 키. <스포츠조선 94.10.13. 21면>

워킹우먼

1m68의 늘씬한 키에 동양적 미모를 자랑하는 이금희는 숙명여대 정치외교학과를 나와 89년 KBS 16기로 방송 생활을 시작한 아나운서 중고참. 적지않은 스물여덟 나이에 아직 미혼이지만 “현재는 남자보다 일이 더 좋다”는 워킹우먼이다. <스포츠조선 94.8.19. 23면>

원고

원貨 가치의 切上(절상)이 이어지면서 우리

경제에 원高 시대의 개막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진다. <조선일보 94.9.15. 3면>

원룸

TV 아침드라마 「성냥갑 속의 여자」에서 정애리는 방 하나짜리 원룸 아파트에서 혼자 사는 이혼녀로 나온다. 최근 끝난 신세대 드라마 「느낌」의 외환 중개인 김민종이나 「사랑을 그대 품 안에」의 백화점 이사 차인표도 원룸 아파트에서 혼자 사는 독신자다. <동아일보 94.9.26. 11면>

원스톱쇼핑

전문 혼수 상담 코너를 갖춘 백화점이 내세우는 장점은 고객이 매장 내에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어 원스톱쇼핑이 가능하다는 점과 하자가 생겼을 경우 환불 반품 등 사후 서비스가 철저하다는 것 등이다. <동아일보 94.8.30. 39면>

원저

그동안 우리 수출이 원低 현상에 힘입은 바가 큰 것이 사실이었고 또 경쟁력 약화의 상당 부분을 환율 인상으로 커버해 온 것이 관행이다시피 했던 업계 현실에 비추어 원高 현상의 장기화가 주는 충격은 클 수밖에 없다. <조선일보 94.9.15. 3면>

원주

주식은 原株(원주)를 그대로 상장시키지 않고, 원주를 대신하는 주식 예탁 증서를 상장시킬 예정이다. <조선일보 94.9.17. 10면>

월드스타

국내적으로는 음악적 전통의 단절과 함께

英美 팝의 세력권에 편입되어 있으면서도, 세계 시장에서 상품으로 팔아먹을 만한 월 드스타는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조선일보 94.9.9. 39면>

웨스턴부츠

진은 입을 방법에 따라 다양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는 옷 중의 하나인데, 블랙 진 바지에 검정 벨트, 스트라이프T를 입고 짧은 가죽 점퍼를 입는다. 거기에 검정색 손수건을 목에 묶고, 웨스턴부츠를 신는다면 와일드하면서도 섹시한 멋을 낼 수 있다. <스포츠조선 94.9.5. 25면>

웨이터장

북아프리카 튀니지의 수도 튀니스시 변화가에 있는 한 중급 식당의 웨이터장으로 일하는 부카테르(42)는 버르고 버르다 지난 7월에 실행한 파리 여행의 감격이 아직도 새롭다. <동아일보 94.9.8. 33면>

위락장

清朝(청조)말 西太后가 사용했던 개인 위락장이 「북경 로열 인터내셔널 클럽」으로 모습을 바꿔 16일부터 개업할 예정이어서 돈 많은 사업가들은 그녀가 사용했던 침대에서 휴식을 취할 수도 있게 됐다고. <조선일보 94.9.15. 7면>

위안거리

시즌 막판에 장종훈, 이강돈, 강정길 등 주포들이 회복세를 보인 게 위안거리. <조선일보 94.9.29. 26면>

유가연동제

대한석유협회는 유가연동제에 따라 15일 0시부터 휘발유와 등유 경유 병커C유 등의 소비자 가격을 평균 3.86% 인상했다. <동아일보 94.8.16. 11면>

유가지

새로 창간된 잡지 1백93종은 유가지가 1백 12종, 무가지는 81종이다. <동아일보 94.8.20. 14면>

유객꾼

서부 아프리카의 감비아는 최근 휴가차 입국하는 유럽 여성 관광객들의 성욕 억제를 위한 도덕 운동을 시작했다고. -중략- 감비아의 해변 호텔들에는 해마다 약 13만명에 달하는 유럽인들이 몰려오고 있으며 개중에는 푸른 바다와 찬란한 태양을 만끽하면서 유객꾼들이 소개해 주는 섹스 상대자들과 재미도 보며 위락 관광을 즐기는 부류들도 적지 않다고. <스포츠조선 94.9.2 11면>

유니섹스하다

레몬, 라임, 오렌지 등 감귤계의 향료가 원료로 유니섹스한 이미지를 풍긴다. <영레이디154 430면>

유료화되다

연세대 교내 주차장이 10월 1일부터 유료화된다. <조선일보 94.9.3. 29면>

유리온실

오는 10월부터 농사를 짓는 사람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거주하지 않아도 그린벨트 내에 버섯 재배 건물과 유리온실은 설치할 수 있다. <조선일보 94.9.1. 29면>

유산율

영국의 과학 전문지 <뉴사이언티스트> 최근호는 일본 도카이대 오사카 후미오 박사가 고층 아파트에 사는 일본의 젊은 임신부 4백61명의 유산율을 조사한 결과를 보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이들 임신부 가운데 5층 이상에 사는 부인의 유산율은 20%나 됐던 반면 1층과 2층에 사는 부인의 유산율은 6%, 3~5층에 사는 부인의 유산율은 8.8%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한겨레신문 94.8.24. 8면>

유세차

거의 모든 후보가 트럭을 개조한 유세차에 마이크 시설과 연단을 싣고 다니면서 무차별적으로 표발을 누빈다. <시사저널249 15면>

유인판매

☞ 캐치세일즈

유통단지

원자재 수급과 주민의 생활 편의를 위해 3개의 유통단지를 만드는 게 추가됐다. <조선일보 94.9.7. 5면>

유통업태

그러나 롯데가 가진 국내 최대의 유통업체란 이미지와 상품력·자금력이 장기적으로는 업계 판도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점에는 이의없이 받아들이고 있다. 오히려 롯데의 본격 가세가 최근 가맹점들과의 마찰로 위축돼 있던 편의점 업계의 분위기를 새롭게 바꾸는 계기가 돼 다른 유통업태와의 경쟁에서 편의점이 우위로 오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 긍정적인 기대감도 내비치고 있다. <중앙일보 94.8.10. 29면>

유통체인

내년에 유통 시장의 전면 개방을 앞두고 있는 한국에도 외국 대형 유통체인들의 등장으로 이같은 가격혁명의 바람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조선일보 94.9.9. 11면>

유학길

그러다 그녀는 낡은 인연을 떨쳐내고 인간으로서 자유혼을 펼치려 뉴욕으로 유학길에 오른다. <동아일보 94.8.22. 21면>

육아휴직

맞벌이 부부의 경우 남편이 부인을 대신해 빠르면 내년부터 1년 이내의 육아휴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노동부는 13일 육아휴직을 남자 근로자가 대신 할 수 있도록 하고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월 1일의 태아 검진 휴일을 인정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남녀 고용평등법 개정안의 추진계획을 국회여성특위에 보고했다. <동아일보 94.9.14. 30면>

은퇴자

우리는 통일 문제와 관련된 근자의 金 이사장의 행동과 발언, 특히 地自體(지자체) 관련 연설이 정계 은퇴자로서의 온당한 것인가에 대해 아직은 유권적으로 판단할 단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조선일보 94.10.5. 3면>

은행 털이

한 번도 살인한 적이 없다는 1890년대의

낭만적 은행털이 부치 캐시디와 선댄스 키드의 실화를 영화로 옮겨 당시 최고의 흥행 성적과 함께 아카데미 영화상 4개 부문에 노미네이트되기도 했던 서부 영화의 고전이다. <조선일보 94.8.17. 16면>

은회색

부녀자 연쇄 납치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 용산경찰서는 30일 범인 溫保鉉(37)이 마지막 범행 후 은신해 왔던 서울 강동구 천호동 C여관 앞에서 변호관이 모두 떨어져 나간 「승전상운」 명의의 은회색 쏘나타 택시를 발견, 溫이 이 차량을 범행에 사용했는지의 여부와 또 다른 범행을 저질었는지를 수사하고 있다. <조선일보 94.10.1. 31면>

음란물

관악구는 구청 문화 공보실과 각 동사무소에서 「음란물 고발 센터」를 운영한다. <조선일보 94.10.5. 29면>

음란성

한국여성단체협의회가 가정주부 1천명을 대상으로 한 대중 매체에 대한 인식 조사에서도 비디오 TV 영화 등 영상 매체가 청소년에게 가장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폭력성 음란성 퇴폐성을 주요인으로 꼽았다. <한국일보 94.5.28. 30면>

음수대

내년초부터 중구 명동거리와 종로구 관철동 지역이 「차 없는 거리」로 지정돼 벤치, 음수대 등이 갖춰진 「거리 공원」으로 조성된다. <조선일보 94.10.11. 29면>

음식거리

그 통에 등산로 입구의 상점들이 취사 도구를 빌려주고 아울러 음식거리까지 버젓이 팔고 있어도 아무런 규제가 없고 등산객이 취사 도구를 가지고 가도 그만이게 되었다. <조선일보 94.8.19. 3면>

음악감독

정부는 프랑스 국립 바스티유 오페라 음악감독 鄭明勳 씨의 해임 문제와 관련, 현지 분위기를 파악하고 정부 차원의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문화체육부 李雄晷 예술진흥국장을 5일 파리에 파견했다. <동아일보 94.9.6. 30면>

음해성

증권 회사들이 투자 정보 수집 활동이라는 업무의 하나로 투자 정보 수집 외에 버젓이 개인의 사생활이나 음해성 루머를 수집해 활자화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로 <조선일보 94.8.13. 7면>

응원객

우선 경기장 배치가 한국의 메달발인 레슬링 사격은 아예 시외로 내몰아 응원객 동원이 쉽지 않다고 민단측은 털어놓는다. <조선일보 94.10.5. 27면>

응원전

이 예술단은 앞으로 아시안게임과 올림픽 한국 선수단에 대한 위문 공연과 현지 응원전을 펼치게 되며 <조선일보 94.9.7. 23면>

이념서클

교수들은 강의실에서 강의와 토론을 통해 학생들의 지적 편견을 바로 잡아줘야 한다. 오늘의 주사파가 그 맹목적인 환상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赤軍派의 말로」를 향해 치달는 것은 그들에게 비판적 사고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그들은 대학 저학년 때 지하 讀書클럽이나 이념서클을 통해 주체사상을 일방적으로 주입받아 실천하고 있다. <동아일보 94.9.4. 3면>

이동전화

이동전화 가입자가 올해 들어 폭발적으로 늘어나, 지난달 70만명을 넘어섰다. <한겨레신문 94.8.6. 8면>

이디아이(EDI)

구체적으로는 사설 우편배달업체에 대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 UPU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전자자료교환(EDI) 시스템이다. <조선일보 94.8.23. 5면>

데이콤은 1일 국내 최초의 유통 VAN(부가가치통신망)을 개통한다. 백화점을 비롯한 유통업체와 제조업체들을 연결하는 유통 VAN은 표준화된 서류를 컴퓨터 통신으로 주고받는 전자문서교환(EDI)을 통해 상품의 수-발주와 대금 결제에 이르기까지 모든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해 준다. <조선일보 94.9.1. 23면>

이름값

삼성도 5위로 처져 「명문」 구단 이름값을 못했다. <조선일보 94.9.13. 27면>

이미지메이킹

정치홍보 전문가인 김미현 씨(33.한국홍보전략연구소 소장)도 내년 선거를 생각하면 발걸음이 빨라지는 사람이다. 다른 사람들이 휴가를 위해 서울을 떠나던 7월 김 소장은 「이미지가 먼저냐 명함이 먼저냐」(도서출판 한라)는 제목의 이미지메이킹 대중서를 내고 보궐선거가 치뤄지는 4개 도시를 돌아다녔다. <동아일보 94.8.22. 17면>

이벤트화

이 콘서트는 최근 프로그램의 이벤트화를 표방하며 매주 일정한 주제 아래 진행되는 「청소년 열린 음악회」가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청소년들에게 알리기 위해 마련한 것. <동아일보 94.8.24. 21면>

이부동생

미국 대통령의 이부(異父)동생이라는 이유로 데뷔 20여년만에 시선을 모으고 있는 가수 로저 클린턴이 11월 5~6일 오후 5시 올림픽 체조 경기장에서 「장애인 돕기 한미 친선 콘서트」를 벌인다. <중앙일보 94.10.12. 45면>

이쁨

나는 어린 시절을 반듯반듯한 오빠들 틈에 섞여 주근깨처럼 지냈다. 예쁘지도 않았고, 공부도 못했고, 말썽도 안 피워서 아버지께서 나라는 존재가 있는지도 없는지도 몰랐을 거라고 생각될 만큼 아버지께 이쁨을 받은 기억이 없다. <동아일보 94.9.16. 16면>

이상기류

북한 내부의 이상기류를 점치는 것으로 외부에서 가장 그럴듯하게 포장되어 흘러

다니는 말들이 김정일의 건강 이상설과 김일성의 비정상 사망설이다. <동아일보 94.8.20. 2면>

♣ 의미가 다름

이상비대

「서울공화국」이라고 불릴 만큼 모든 것이 집중된 서울은 異常비대에서 오는 기능 마비 증상이 날로 심화되고 있는데 이는 마땅히 지방에 분산되어야 할 권력과 부, 그리고 문화의 힘이 분산되지 못함으로써 초래된 것이다. <동아일보 94.10.6. 4면>

이상비대화

더구나 과소비는 언제나 실물 부문보다는 서비스 향락 산업을 비롯한 서비스 부문의 이상비대화를 초래하는 속성을 지니고 있어 실물 부문의 뒷받침이 없는 거품 경제 현상을 초래한다는 것은 이미 경험한 바 있다. <조선일보 94.9.1. 13면>

이상주의적

어떤 평가든 분단 상황에서 통일을 현실적으로 다루게 될 때 여운형의 우유부단이나 한계성은 도리어 참신한 교훈으로 재생된다는 점에서 그는 역시 이상주의적 요소를 지니고 있으며 이 점은 앞으로 우리의 역사 문학이 그를 보다 더 정확히 그려야 할 과제로 남는다. <한겨레신문 94.8.24. 10면>

이식자

『장기 이식자가 전국적으로 5천여명에 이르지만 일부는 이식 수술 받은 일을 알리기 꺼리거나 정상인같은 운동을 앓는 등 위축된 실정』이라며 『이들의 심리적 긴장

을 풀어주기 위해 체육대회를 기획했다』고 밝혔다. <조선일보 94.8.21. 19면>

이어플러그

뉴욕의 지하철도 매점에서 이어플러그라는 소음 방지 이어폰을 팔고 있는 것을 보았다. <조선일보 94.8.23. 5면>

이적성

검찰이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산하 기구인 '조국통일위원회'와 '정책위원회'의 이적성에 대해 전격 수사에 들어가는 한편, 한총련 의장 등 간부들에 대해 사전 영장을 청구하기로 함에 따라 앞으로 학생운동권과 날카로운 대립이 예상된다. <한겨레신문 94.5.20. 18면>

한편 교양과목 교재의 이적성 여부를 수사 중인 창원 지검은 이날 蔣尙煥(43·경제학과), 金俊亨(41·사회교육학과), 崔太龍(39·사회학과) 교수 등 3명을 불러 수사를 벌였으며 <조선일보 94.9.13. 31면>

인공코

어떤 냄새 속에 극미량의 다른 냄새가 섞여 있어도 이를 구별해 내 알려주는 '인공코'가 영국의 뉴트로닉스라는 업체에 의해 개발됐다. 영국 상공부와 양조업계 후원으로 개발된 이 냄새 감지 장비의 상품명은 인간의 코 구조를 단순화시켰다는 뜻에서 '노우즈' 즉, '코'로 지어졌다. <한겨레신문 94.8.28. 6면>

인기몰이

3년여 공백기를 가진 뒤 영화계로 돌아온

배창호 감독은 신세대 감독의 만형으로서 자존심을 지키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배 감독은 신세대 스타인 이정재 신은경 콤비의 '젊은 남자'를 기획, 젊은층을 겨냥한 인기몰이를 하겠다는 전략을 세웠다. <스포츠조선 94.8.20. 22면>

국내 록계의 간판스타 김종서가 세번째 독집 앨범 발표와 동시에 대형 콘서트를 준비하며 인기몰이에 시동을 걸고 있다. <조선일보 94.8.25. 16면>

인민차

과거 버스 같은 대중교통 수단 위주의 자동차 생산을 개인 승용차 위주로 전환, 한국의 「국민차」와 같은 「인민차」(韓貨 가격 4백만원대 미만)를 대량 보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조선일보 94.10.5. 6면>

인베스터 릴레이션즈

아이알

인사권

그런데도 교통부가 대한항공에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그 결과까지 통보하라고 '지시'한 것은 자신들의 감정을 거르지 않은 채 행정권을 남용해 기업의 인사권에까지 간섭하려 하는 것으로 아직도 관료들이 구시대적인 나쁜 권위주의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비난을 사기에 충분한 일이다. <한겨레신문 94.8.24. 4면>

인사장

李 전 총리는 10일 각계에 인사장을 발송, 서울 종로구 교육보험 빌딩 17층에서 23일

부터 변호사를 개업할 예정임을 알렸다. <조선일보 94.9.11. 19면>

인터넷

NTT(일본전신전화)의 협력으로, 와세다대, 東京大, 오사카대 등 16개 대학의 연구자들은 세계적인 연구 정보 네트워크인 인터넷을 이용, 내년 봄부터 데이터베이스화한 강의와 연구 정보를 상호 이용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조선일보 94.9.11. 7면>

인턴사원

국내에서는 대우그룹이 지난해부터 채용박람회를 열면서 인턴사원을 뽑고 있는데, (주)리크루트도 오는 10월 4일부터 5일까지 한국종합전시장에서 수십개 기업들이 참가하는 대형 채용박람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조선일보 94.8.23. 11면>

인텔리전트베이

수영비행장 부지에는 세계무역센터, 국제상설전시관, 국제회의장 등을 갖춘 정보-업무복합단지(인텔리전트베이)가 들어서게 된다. <조선일보 94.9.9. 1면>

인프라

선진국의 경우 GIS야말로 전형적인 인프라로서 초기 구축에는 막대한 투자와 시간을 요하지만 한번 완성해 놓으면 국민 모두가 혜택을 보게 되는 등 파급 효과가 막대하다는 인식이 확산되어 있다. <중앙일보 94.8.10. 32면>

일과성

이들은 대부분의 민간단체의 환경운동이

일과성에 그치는 예가 많아 이번 동아일보사가 펼치는 그린스카우트운동 동참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아일보 94.8.18. 5면>

♣ 의미가 다름

일본통

그러나 이 회장은 여전히 직접 노출을 피해 일정 부분 배일에 가려 있는 상태이다. 국제 감각의 경우 둘째 가라면 서러워할 일본통이면서 다소 일본에 편중됐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한겨레신문 94.9.26. 7면>

일상화되다

특히 밤 1시부터 3시 사이는 생물학적으로 인간이 잠들어 있어야 할 시간으로, 수면 부족이 장기화-일상화되면 만성 피로와 두통, 집중력 부족 현상을 보이게 된다고 신경정신과 전문의朴誠勳 박사(수면의학)는 말한다. <조선일보 94.8.29. 21면>

일용직원

기술관리2부 鄭仁燮 부장은 『崔 씨가 회사 밖에서 일용직원으로 다쳐 산재 보상 등에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며 『관리자들을 중심으로 가족 돕기 모금에 나섰다』고 말했다. <조선일보 94.8.19. 31면>

입김

감독은 토브 후퍼이지만 실제로는 각본과 제작에 참여한 스피버그의 기발한 아이디어와 입김이 결정적인 작용을 하고 있다. <조선일보 94.8.13. 14면>

♣ 의미가 다름

입단속

한 증권 관계자는 『최근 주가가 가파르게 오르자 재무부가 증안 기금에 전화를 걸어 보유 블루칩을 매도할 것을 권고했으며 증권감독원은 증권사 법인영업부장을 불러 기관투자가의 매매 경향을 社外로 일절 유포하지 말라고 입단속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하기도. <동아일보 94.9.10. 11면>

입대자

국방의 의무를 규정한 헌법 제 39조 2항은 「누구든지 병역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로 되어 있으므로 정규군 입대자를 마땅히 보호하고 형평에 어긋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일반공무원법 및 농림수산부 산하 단체법 또는 각 기업체의 경력 산출법 조항에 마땅히 추가 삽입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조선일보 94.9.27. 13면>

입점시키다

경방필의 분석에 따르면 영등포에 백화점이 두 개나 있으면서도 고급스러운 인상을 주지 못해 이 지역의 고소득 소비자들을 도심과 강남 상권으로 빼앗기고 있다는 것이다. 경방필은 이들 소비자를 겨냥해 국내외 유명 상표 제품을 대거 입점시켰으며, 7층에는 3백50평 규모의 문화 센터를 만들었다. <한겨레신문 94.8.27. 6면>

丿

자괴심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과 세계

경제포럼이 발표한 국가 경쟁력 보고서를 읽고 싱가포르에서 한국을 대표해 활동하고 있는 외교관으로서 실로 안타까운 마음과 일말의 자괴심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조선일보 94.9.15. 5면>

자금력

개인 투자자는 기관 투자자에 비해 자금력이나 정보력도 뒤처지고 결국에는 투자 수익률도 떨어집니다. <조선일보 94.9.25. 5면>

그러나 롯데가 가진 국내 최대의 유통업체란 이미지와 상품력·자금력이 장기적으로는 업계 판도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란 점에는 이의없이 받아들이고 있다. <중앙일보 94.8.10. 29면>

자기 방어적

쿠클릭스클랜(KKK)단을 옹호하다가 오히려 흑인들이 자신에게 보이는 것과 같은 이러한 무자비한 불관용이 전 인류사를 통해 반복되었으며 그래서 역사가 그 목적을 잃게 되었다는 자기방어적인 작품을 들고 나왔다. <한겨레신문 94.9.7. 15면>

자기 주장

부권이 실추되고 다수의 여성 선생님 아래서 교육된 남자들이 점점 여성화돼 가는 실정이다. 그런 상황을 더 부채질하듯 TV나 영화에서 걸핏하면 눈물을 흘리는 남자, 성인이 되어서도 자기주장이 없는 이른바 마마보이들을 쉽게 발견하게 되는 현실에서 이런 강한 캐릭터들은 상실해 가는 남성스러움을 재발견하게 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영레이디154 327면>

자동감지장치

루프코일

자동차야영

고전적 의미의 자동차야영이 가능한 곳으로 제일 먼저 꼽을 수 있는 곳은 주문진 해수욕장에 있는 기아 캠프촌. 주차료, 입장료, 야영료 등 모든 시설 이용료가 무료다. 다른 야영장에 없는 전기 사용도 공짜이다. 지난 22일 개장해 다음달 13일까지만 문을 여는데 올해부터는 기아 자동차뿐 아니라 다른 회사의 자동차도 받고 있다. <한국일보 94.7.29. 13면>

자리매김하다

무엇보다 예술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데 보람과 책임을 느낍니다. <조선일보 94.10.9. 8면>

자립도

현재 예술의전당의 자립도는 구미의 운영이 잘된다는 공연장 수준인 50% 내외입니다만, 제 임기 중 이를 60% 수준으로 끌어올리려고 합니다. <조선일보 94.10.9. 8면>

자본력

만화 영화는 제작비면에서 엄청난 투자를 해야 하기에 현재의 제작 능력을 감안하면 1개 채널도 제대로 소화하기가 무리라는 견해가 있는 반면, 그간 해외를 겨냥한 임가공 형태로 만화 영화 제작 노하우를 쌓아왔기에 여기에 자본력만 더해진다면 2개를 허가해도 좋을 것이라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조선일보 94.9.27. 17면>

자살극

「태양의 사원」 신도들이 5일 집단 자살극을 벌인 스위스 남부 그랑주 쉬르 살방의 산장 모습. <조선일보 94.10.7. 7면>

자살조

말레이시아 정부 및 親정부紙들은 그동안 『알 아르캄』이 태국 내에 약 3백명의 자살조를 훈련시켰고, 군부 내 쿠데타를 기도했다고 주장해 왔다. <조선일보 94.8.17. 7면>

자유직

올 가을용으로 이같은 옷을 여러 종 내놓은 기성복 업체 에스콰이어 「소르젠페」 수석 디자이너 李定恩 씨는 『자유직-전문직 남성이 갖 없는 옷의 주요 고객』이라고 말한다. <조선일보 94.9.9. 35면>

자유혼

여성주의자로 분명한 주관을 갖고 있는 그녀는 유망한 회사원과 사귀고 있지만 전통적 신사도에 충실한 그에게 매력을 느끼고 있지 않다. 그러다 그녀는 낯은 인연을 펼쳐내고 인간으로서 자유혼을 펼치려 뉴욕으로 유학길에 오른다. <동아일보 94.8.22. 21면>

자전거전용도로

경기 동두천시 내행동 한전 동두천 지점에서 송내동 간 1km 구간의 국도 3호선변에 자전거전용도로가 오는 12월 설치된다. <동아일보 94.9.24. 27면>

자책골

미국과의 경기에서 자책골을 넣은 뒤 고국에 돌아와 피살된 콜롬비아 국가 대표 축구 선수 안드레스 에스코바르(27)의 죽음은 콜롬비아 뿐 아니라 전세계의 축구팬들을 경악시키고 있다. <경향신문 94.7.5. 23면>

자천타천

서울 시장 후보로 현재 자천타천 거명되는 인물은 與野에서만도 10여명에 이르고 있다. <조선일보 94.9.1. 4면>

작품성

가을의 문턱을 넘어선 9월, 작품성 높은 영화들이 비디오 대여점을 찾는 영화팬들에게 유혹의 손길을 내밀고 있다. <한겨레신문 94.9.2. 13면>

“이 영화는 철저하게 코믹하고 폭발적인 웃음을 터뜨리기 위해서 기획된 작품입니다. 어쨌든 작품성 운운한 것은 아니에요. 그저 스트레스 받는 사람이 있으면 누구나 와서 1시간 50분 동안 실컷 웃으면 된다는 생각입니다.” <스포츠조선 94.9.3. 17면>

잠자다

지난 5월 열린 종별대회에서도 1분 45초 41을 마크, 18년 동안 잠자던 아시아 기록을 갈아치운 데 이어 한달만에 다시 1초 27을 단축, 한국 육상의 탈아시아를 선언한 당사자이다. <조선일보 94.9.3. 26면>

♣ 의미가 다름

잠수익

금융 기관 고객이 최근 5년간 한번도 입출금을 하지 않아 금융기관이 잠수익으로 처

리한 휴면계좌 금액이 해마다 늘고 있다.
<동아일보 94.9.28. 11면>

잡종지

경기 화성 경찰서는 무허가 건축물이 지어져 있는 농지를 잡종지로 지목 변경받기 위해 지적 공사와 면사무소 직원에게 압력을 행사한 화성군 의회 의원 金應燮씨(53 우정면)를 권리 행사 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동아일보 94.9.30. 29면>

장급여관

요 몇 년 사이 속칭 러브호텔로 불리는 강남, 신림동, 신촌 근처의 여관 밀집 지대나 북한강변, 경춘가도 등에는 장급여관의 신축이 붐을 이루고 있다. 이곳이 아베크족들의 새로운 데이트코스로 인기를 모으면서 잠시 들러 사랑을 즐기려는 사람들의 수요가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영레이더154 565면>

장악력

아무튼 이들의 한국 상륙 성과는 일본 대중음악의 한국 시장 유입이라는 민감한 문제와 관련해 관심 깊게 지켜볼 부분이다. 서양의 '팝'을 일본화한 그들의 새로운 대중음악, 이른바 '저패니스팝'이 재즈 못지않은 위세를 세계 시장에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재즈는 일본 대중음악의 한국 청중 장악력을 재는 일종의 시약과 같은 장르인 셈이다. <한겨레신문 94.8.28. 9면>

장타자

이로써 장타자 송채은은 10월 열리는 히로시마 아시안게임 개인 금메달이 유력시되

고 있다. <조선일보 94.9.5. 25면>

재가동하다

김기태가 24일만에 홈런포를 재가동한 최하위 쌍방울이 4위권 진입에 목이 타는 삼성을 잡았다. <조선일보 94.8.29. 27면>

재가입하다

합리적 노선을 걷는 집행부가 들어설 때까지 노조에 절대 재가입하지 않겠다. <조선일보 94.9.7. 2면>

지난 71년 中國에 밀려 유엔 의석을 상실한 臺灣은 투표권이 없는 「옵서버 자격으로」라도 유엔에 재가입할 것을 희망하고 그동안 이를 위해 강력한 외교적 노력을 벌여왔으며 내년에도 그같은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조선일보 94.9.23. 6면>

재강조하다

미국도 「과거 사찰이 실시돼야 연락 사무소 및 경수로 지원이 실행 단계에 접어들 것이며, 廢(폐)연료봉의 제3국 인도가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재강조했다고 소식통들은 말했다. <조선일보 94.9.25. 3면>

재개최

정부도 이영덕 국무총리가 “남북한 정상회담의 합의는 유효하다”고 정상회담 재개최에 대한 원칙론을 천명한 것을 제외하고는 남북 대화 재개에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한 것이 사실이다. <한겨레신문 94.8.17. 2면>

재건축

건설부는 최근의 전세값 오름세가 전반적인 집값 불안으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서울 등 수도권외 주택 공급을 크게 늘리고 재개발·재건축 사업과 주상복합건물 건설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한겨레신문 94.8.24. 7면>

재건축되다

고층으로 재건축될 것을 기대, 최근 값이 평당 1천만원 이상까지 치솟고 있는 서울 잠실 주공 저층 노후 아파트에 신규 투자할 경우 수익성은 고사하고 도리어 손해볼 소지도 많다는 분석이 제기돼 주목을 끌고 있다. <중앙일보 94.8.10 30면>

재검진

회사 지정 병원에서 정상 또는 개인적인 질병으로 판정받은 이들이 노조가 의뢰한 제3의 의료 기관의 진료 기록 분석 및 재검진에서 무더기로 직업병 판정을 받아 회사 지정 병원의 직업병 판정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한겨레신문 94.9.1. 22면>

재격돌

94 칸 영화제에서 막판까지 격돌했던 두 작품인 '펄프픽션'과 '레드'가 다시 한국에서 재격돌, 영화팬들에게 풍성한 화제를 뿌리고 있다. <스포츠조선 94.9.5. 30면>

한국은 예선 리그에서 '만리장성' 중국을 103-73으로 대파하고도 일본에 일부러 80-84로 져 일본·중국과 함께 나란히 예선 전적 4승 1패를 기록했으나 골득실차에서 중국을 밀쳐내고 1위로 올라, 2위의 일본과 결승에서의 재격돌을 예약해 둔 상태다. <한겨레신문 94.10.12. 18면>

재계약

서울대는 최근 교수 34명을 채용하면서 전임강사·조교수 등 30명을 각각 2년·4년의 기간을 거친 뒤 재심사를 거쳐 재계약 여부를 결정한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받고 채용했다고 1일 밝혔다. <한겨레신문 94.9.8. 22면>

65승 3무 49패로 개막전 『66승을 거두겠다』고 한 목표를 정확히 지킨 정종진 감독은 재계약이 확실시되는 데다, 해태-한화전 승자만 이기면 LG와의 7번 승부에 돌입한다. <조선일보 94.9.13. 27면>

재공천

5共 들어 전국구 의원을 연임한李 의장은 이번에도 전국구 재공천을 희망하고 있었다. 그러나 5共 정치 스승의 공천은 불확실했다. <중앙일보 94.9.3. 8면>

재구축하다

이후 서부극을 중심으로 한 수많은 장르 영화들이 이 신화를 재구축해 나갔고, 할리우드가 영화를 만든 것이 아니라 바로 영화가 미국을 만들어 나갔다는 역설은 그리피스로부터 시작되었던 것이다. <한겨레신문 94.9.7. 15면>

연출자인 송창의 PD는 『2인의 후임자를 물색, 개그맨 이홍렬을 포함한 3인방 체제를 재구축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조선일보 94.10.7. 19면>

재규합하다

“그러나 우리나라 민속 장기가 어떤 것입

니까. 2천년 동안 옛 조상들의 체취가 물씬
우러나는 ‘우리 것’ 아닙니까. 중국 2백만
교포 사이에선 뒤늦게서야 중국식 장기와
전혀 다른 한국 장기의 전통을 잇는다고
오히려 발버둥인데...” 86년 법인 추진위원
장이었던 김 이사장 등은 법인 설립에 다
시 매달렸다. 문체부 허가가 떨어진 것은
지난 16일. “우선 낙향한 순수 아마 동호인
부터 재규합해야죠.” <스포츠조선 94.5.25. 19면>

재 급유

중국 해군은 東海 함대를 비롯한 4대 함대
에서 1만명 이상의 해군 병력을 동원중이
며, 核 추진 잠수함-미사일 탑재 구축함-
호위함 등 50대의 대형 함정과 전투기와
폭격기 등을 현지 투입, 해상 봉쇄와 對잠
수함戰, 해상 재급유 등을 포함한 해상 작
전 연습을 진행중이라고 이 신문은 전했다.
<조선일보 94.9.17. 6면>

재 기용하다

말썽을 빚은 17명에 대해 그룹의 전원 중
징계 지시에도 불구하고, 차별적 처벌을 결
정한 경창호 사장은 자신이 책임을 지겠다
며 퇴진을 결심했는데, 구단은 이를 즉각
수용, 후임 사장에 前任 사장이었던 박용민
춘천CC 사장을 재기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일보 94.9.15. 27면>

재 단장하다

최근 매장을 재단장한 롯데백화점 본점은
중-장년 여성을 위한 브랜드 의류들을 함
께 모아 「마담」 코너를 새로 열었다. <조선
일보 94.10.5. 19면>

재 등정하다

재현은 올해 신입생들이 맹활약, 내년도 고
교 축구 판도에 중요 변수로 등장했다. 91
년도 패자인 풍생도 이천실고를 초반부터
몰아세우며 5대 2로 낙승, 3년만에 정상에
재등정할 발판을 마련했다. <조선일보 94.9.27.
25면>

재 래시 장

서울시는 최근 행락지와 번두리 재래시장
의 식품판매업소 1백66곳을 대상으로 시민
단체와 합동 단속을 실시, -중략- 식품제
조업소 20곳과 판매업소 50곳을 적발했다.
<동아일보 94.8.24. 27면>

재 무장시키다

따라서 국방당국은 -중략- 모든 장교들이
투철한 책임 의식과 명예 의식을 지니도록
재무장시키는 산 교재로 삼았으면 한다.
<조선일보 94.9.29. 3면>

재 밋거리

각듯한 모범생이자 원칙주의자인 류시원과
공사 도서관 사서역의 이본이 엮는 풋풋한
사랑도 빼놓을 수 없는 재밋거리다. <조선일
보 94.8.27. 16면>

재 방문

金 이사장은 아틀랜타의 카터센터에서 약
1시간 동안 진행된 면담에서 카터가 조속
한 시일 내 북한을 재방문, 남북 관계의 정
상화를 위한 정상회담의 재추진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일보 94.9.23. 2면>

재 방북

金이사장은 17일 美國을 방문한다. 지미 카터 前 美國 대통령의 訪北을 주장, 적중시켰던 그는 再訪北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카터와 면담한다. <중앙일보 94.9.3. 5면>

재보급

주한미군에 정통한 한 소식통은 『1개 항모 전단이 제주도 근해를 비롯, 남-동해상에서 韓-美연합 또는 독자적인 훈련을 2개월째 계속하고 있다』며 『현재 동해상에 있는 이 기동 부대는 재보급 등을 위해 이달말쯤 한반도 근해를 벗어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조선일보 94.9.23. 2면>

재복귀

따라서 이들 청소년들이나 전과자들을 위한 사회 재복귀 프로그램이 법적·제도적으로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한겨레신문 94.9.22. 3면>

재복사

이 가운데 게임뱅크 대표 이명렬 씨는 자신의 업체에 복제기를 설치해놓고 불법복제-밀수입된 게임팩을 재복사 싼값에 팔아온 것으로 밝혀졌다. <조선일보 94.8.29. 31면>

재분석하다

31일 대우조선 노조에 따르면 지난 90년 회사 지정 병원인 대우 병원의 직업성 난청 여부 조사서에 모두 정상 또는 비직업성 질병으로 판정받은 80명이 당시 노조의 의뢰를 받아 별도로 건강 검진을 한 부산 동아대 병원의 진료 기록을 넘겨 받아 재분석한 결과 이 중 69명이 직업성 난청으로 분류됐어야 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는

것이다. <한겨레신문 94.9.1. 22면>

재사용

서울 한남동 새서울남시플라자의 鄭美勇 총무부장은 1회용 대신 나무로 만든 재사용 미끼통을 권한다. <조선일보 94.8.31. 28면>

환경처는 내년초 생수 시판 전면 허용에 따라 발생량이 크게 늘 것으로 보이는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수병은 반드시 재사용이 가능한 용기만을 쓰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한겨레신문 94.9.26. 2면>

재사용하다

이 관리 규칙은 의료 기관이 세탁물을 오염 세탁물과 기타 세탁물로 분류, 환자나 의료인들이 사용한 침구류, 의류 등은 반드시 위생 처리한 뒤 재사용토록 하고, 이들 세탁물의 교환 주기를 병실에 비치토록 했다. <조선일보 94.9.23. 29면>

재상륙하다

그동안 외국 기업이 투자 업종을 전환하려면 주식을 매각, 철수한 후 재상륙하는 절차를 밟아야 했다 <조선일보 94.8.23. 11면>

재상승하다

줄리아 로버츠 주연의 「펠리칸 브리프」가 여전히 정상의 인기를 누리는 가운데 브루스 윌리스의 액션 「스트라이킹 디스턴스」가 2위로 재상승했다. <조선일보 94.9.7. 16면>

재생비누

신세계백화점(대표 柳漢燮)은 2일부터 7일까지를 「샹강 살리기 보호 기금 마련 바자 주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동안 서울시내 6개 점포에서 폐식용유, 회수 용기와 재생비누를 고객들에게 배포하고 있다. <조선일보 94.9.3. 30면>

이 학교는 매월 한차례 특별활동 시간에 학부모와 함께 폐식용유로 재생비누를 만든다. <조선일보 94.9.5. 27면>

재생용지

또 우유팩을 모아 재생화장지를 나눠주고 있으며, 올 1월부터는 재생용지만을 사용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조선일보 94.9.5. 27면>

재생화장지

또 우유팩을 모아 재생화장지를 나눠주고 있으며, 올 1월부터는 재생용지만을 사용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조선일보 94.9.5. 27면>

재선임하다

학교법인 홍익학원(이사장 鄭圭斌)은 지난 9일 이사회를 열어 오는 29일로 임기가 만료되는 現 李勉榮 총장을 제 11대 총장으로 재선임했다. <조선일보 94.9.13. 29면>

재설계하다

이 역을 신길 5동쪽으로 40m정도 당겨 재설계해줄 것을 서울시에 요구했다. <조선일보 94.8.25. 29면>

재설치

감사원은 롯데건설이 공당~영동간 도로 확장 및 포장 공사에서 철강 재설치 공사 면허가 없는 (주)남이엔지니어링 등 3개 업체에 불법 하도급했으며 이에 따라 강교 제작 및 설치 공사가 부실하게 이뤄졌다고 말했다. <조선일보 94.9.23. 3면>

재소집

이 때문에 지난달 26~30일 열린 집행위원회가 이 문제를 다루어 보지도 않은 채 끝나자 '패색'이 짙은 것으로 비쳤다. 집행위원회의 재소집은 이런 분위기의 반전인 셈이다. <한겨레신문 94.9.5. 2면>

재소환

이날 석방된 교수 2명이 재소환에 불응할 것이 분명한 상황이어서 법원으로부터 또 구인장을 발부받는 등 수사를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될 입장이라는 것. <조선일보 94.9.1. 30면>

재수사

창원 지검은 6일 진주 경상대 교양과목 교재인 「한국 사회의 이해」 이적성 여부와 관련, 전면 재수사에 착수했다. <조선일보 94.9.7. 31면>

재시동

삼성그룹이 승용차 사업 진출 작업에 재시동을 걸고 나섰다. <조선일보 94.9.15. 10면>

재역전

그러나 이제 두 사람의 관계는 재역전, 아리스티드가 다시 권좌에 오를 확률이 높아지고 있다. 비록 미국의 힘에 의해서

지만... <조선일보 94.9.17. 5면>

후반전에 역전·재역전 골을 넣어낸 황선홍 (26·포항제철)의 별명은 황새. 183cm의 훤히 한 키에 다리가 유난히 길다. <한겨레신문 94. 10.12. 19면>

재역전타

태평양은 0-2로 뒤지던 5회말 윤덕규의 적 시타에 이은 김동기의 2타점 좌전안타로 경기를 뒤집었으나, 6회 한화 이강돈에게 동점 솔로홈런을 얻어맞고 옆친데 덮친격으로 황대연에게 재역전타를 내줬다. <조선일보 94.8.17. 25면>

재이륙하다

착지 지점이 짧자 관제탑에서 다시 이륙하라는 지시를 했으나 시간이 너무 늦어 재이륙하는 순간 꼬리 부분이 활주로에 부딪혔을 가능성이 높다고 관계당국은 추정했다. <한겨레신문 94.8.11. 19면>

재입국하다

박 씨는 추방된 뒤 92년 9월 러시아로 탈출, 그곳에서 탈출 벌목공을 만나 은신처를 제공해 주다가 이번에 벌목공으로 신분을 위장, 재입국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안기부는 밝혔다. <조선일보 94.8.19. 31면>

재입력하다

자판기나 전화 등 소액 지출 때 현금 대신 이용하고 은행 잔고를 재입력할 수 있는 전자카드. <조선일보 94.9.27. 10면>

재장전

과연 한국형 경수로를 북한이 받아들일지, 폐(폐)연료봉의 재처리와 5MW 원자로의 재장전을 포기할지, 또 미국의 희망대로 연내에 핵확산금지조약(NPT)에 완전 복귀할지는 회담의 뚜껑을 열어봐야 윤곽이 잡힐 것이다. <조선일보 94.9.23. 5면>

재점검

민자당은 이와 관련, 「가진 자」에 대한 무조건적인 혐오 의식을 비롯 돈 때문에 부모를 살해한 유학생 朴漢相 군 사건 등에서 드러난 교훈 등을 포함, ▲학교 교육 ▲결혼 가정 자녀 대책 ▲우범자 교정 교육 등에 대한 총체적인 재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조선일보 94.9.23. 2면>

재점검하다

이같은 방침은 정부가 「당사자 해결 원칙」에 따라 남북 관계 전반을 재점검하는 과정에서 평화협정 문제가 향후 北·美 회담의 의제로 채택될 것이 확실시된다는 판단에 따라 나온 것으로 보인다. <문화일보 94.9.14. 1면>

재정리

식사 후 金 대통령은 최근 일련의 강력 사건, 공직자 부정, 軍(군) 기강 문제 등을 염두에 둔 듯, 다소 무거운 어조로 『인간적인 면에서의 평소 생각』이라며 자신이 취임 후 1년 7개월 동안 펼쳐 온 각종 개혁 정책 등을 길게 재정리. <조선일보 94.10.9. 4면>

재정리하다

김영삼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제시한 통일 방안은 김일성 주석 사망 이후 정부

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재정리한 것으로 향후 통일 정책의 바탕이 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한겨레신문 94.8.16. 3면>

재정립하다

그래서 금융과 통화, 재정과 환율을 건설하게 운영하겠다는 정부 의지와 자세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조선일보 94.9.7. 5면>

재조립하다

검찰은 한술 더 떠 박 씨의 홍보 책임자로 행동하고 나섰다. 묵은 자료를 총동원해 기름을 끼얹었다. 법적 처리가 이미 끝난 사안도 재조립하니 큰 '뉴스'가 되었다. 군밤에 싹이 돋는 격이었다. <한겨레신문 94.8.19. 4면>

재주선

金 이사장은 아틀랜타의 카터센터에서 약 1시간 동안 진행된 면담에서 카터가 조속한 시일내 북한을 재방문, 남북 관계의 정상화를 위한 정상회담의 재주선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일보 94.9.23. 2면>

재주선하다

『편지 내용의 핵심은 그가 다시 방북해 남북정상회담을 재주선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일보 94.9.19. 1면>

재즈인

일본 대중음악에 대한 문호가 개방되지 않은 시점이지만 일본 재즈의 한국 무대 방문은 비교적 자유로운 편이었다. 미8군 무대에서 성장한 한국 재즈인들은 국내의 좁

은 시장을 벗어나 세계적 재즈 강국으로 부상한 일본에서 무대를 찾기도 했고, 그들의 '일본 친구'들을 서울 연주에 초청해 '외로운 음악 활동'을 위로해 주는 동반자로 삼기도 했다. <한겨레신문 94.8.28. 9면>

재지정

原電(원전) 건설 총 뇌물 액수 1천억 이상 추정, 농안기금 외국 농수산물 수입에 치중, 금융통화위 회의시간 평균 13분18초, 공항 청사내 수익 시설 임대 특혜, 飛虎(비호) 산업의 무리한 추진, 한양 합리화 재지정의 문제점... <조선일보 94.9.29. 2면>

재지휘

경찰은 최 씨와 황 씨에 대해서는 검찰에 구속을 품신했으나 서울지검 형사3부 황인정 검사는 연극 관계자와 관객들의 진술을 첨부해 음란 여부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확보한 뒤 재지휘를 받도록 지시했다. <한겨레신문 94.8.27. 15면>

재진입

- 미국 프로야구 마이너리그에서 뛰고 있는 박찬호 선수의 등정과 향후 메이저리그 재진입 여부가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중앙일보 94.9.3. 39면>

재집권

21일 치러진 멕시코 선거는 지난 65년간 멕시코를 지배해 온 제도혁명당(PRI)의 재집권으로 끝났지만 새 대통령 에르네스토 세디요(42)는 그 어느때보다 많은 도전과 힘겹게 싸워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겨레신문 94.8.24. 5면>

재착수

북한은 -중략- 동결중인 25메가와트 원자로 건설에 재착수, 플루토늄의 추가 생산에 나서기로 결정할지도 모른다고 워싱턴포스트지가 16일 미 관리들의 말을 인용, 보도했다. <조선일보 94.8.17. 2면>

재창작

TV 코미디에 영화-드라마-연극 등을 변형한 패러디가 붐을 이루고 있다. MBC 「일요일 일요일밤에」의 인기 코너 「이홍렬의 한다면 한다」, SBS 「좋은 친구들」의 뮤직비디오 패러디, SBS 「기쁜 우리 토요일」의 「한국영화 70년」 등이 대표적. 아이디어도 용인가, 재창작인가. 의견도 분분한 「패러디 코미디」의 장단점을 진단하다. <조선일보 94.9.13. 16면>

재창출하다

金 대통령의 집권 후반기를 무난히 마무리하고 정권을 재창출하려면 뭐니뭐니해도 당선 가능성을 최우선시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서 권력의 早期 漏水 현상과 같은 혼선을 막으려면 충정심 있는 인물을 고를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조선일보 94.8.27. 4면>

재청구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민교협)는 31일 경상대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법원 결정을 환영하면서도 여전히 영장 재청구나 불구속 기소 가능성이 남아 있어 사태 추이에 따라 대응책을 세워나가기로 일단 결론을 내렸다. <한겨레신문 94.9.1. 22면>

재추진

『따라서 金 대통령은 카터 전 대통령의 남북정상회담 재추진 의사를 지지하며 그같은 뜻을 20일께 韓昇洙 주미대사를 통해 카터 전 대통령에게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일보 94.9.19. 1면>

재출마

실제 92년 제14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도 재출마를 심히 망설여야 했다. <조선일보 94.9.3. 6면>

재취업하다

8개월 된 딸아이를 둔 李春美 대리(28·광고엽·경기 안양시)는 『남편의 월급봉투만 바라보고 아이에게만 매달린 채 나의 존재를 잃어가는 생활을 참을 수 없어 아이를 친정엄마에게 맡기고 결혼 후 1년만에 재취업했다』며 『남편 눈치 보지 않고 내 임의대로 쓸 수 있는 경제적인 여유가 생겨 좋고, 나의 잠재된 능력을 확인할 수 있어 만족스럽다』고 말한다. <경향신문 94.5.22. 10면>

재침공하다

이라크 정부는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재침공하려 하고 있다는 주장은 이라크에 대한 국제 제재의 장기화를 정당화시키려는 음모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재침공 기도설을 부인했다. <조선일보 94.10.9. 7면>

재탄생

제록스는 새 로고와 함께 「다큐먼트 회사」로 재탄생을 선언했다. 서류나 차트·그래프·사진 등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모두 「다큐먼트」로 정의한다. <중앙일보 94.10.4. 26면>

재택근무

이 아파트는 -중략- 무인 경비시스템 등을 갖추며, 재택(在宅)근무를 위해 세대마다 각종 정보통신 기기의 배선 및 단말을 설치한다. <조선일보 94.9.9. 21면>

재테크

따라서 앞으로 신축하는 주택들에 이들이 필요로 하는 주거 공간을 마련하는 신경을 쓴다면 부동산을 이용한 재테크로 손색이 없을 것이다. <조선일보 94.8.29. 15면>

재파업

서울지하철노조(위원장 직무대행 석치순)는 6일 오후 2시 서울 성동구 용답동 군자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는 13일부터 제한부 재파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한겨레신문 94.9.7. 23면>

재편집

영화를 미리 본 공론 심의위원들간에 의견이 엇갈린다는 사실이 전해지자 제작사인 기획시대측은 『작품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일부 장면을 순화해 23일까지 심의를 신청하겠다』며 재편집중이다. <조선일보 94.9.23. 16면>

재편집하다

특히 재방송 시간 횟수 등을 정하는 편성의 순발력, 중계 또는 녹화된 경기 내용을 하이라이트로 재편집하는 연출력, 그리고 선수나 경기와 관련된 프로그램 제작 등에서 무성의한 측면을 드러내고 있다. <조선일보 94.10.11. 16면>

재포장

최근 건설부가 발표한 7개 권역별 개발 계획과 관련, 광주 목포권 지역민들은 계획 자체가 이미 여러 차례 발표된 기존의 공약을 재포장한 것에 불과하다며 대표적인 낙후지역으로 개발의 가속성이 요구되고 있는 지역 실정을 감안할 때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동아일보 94.9.10. 5면>

재포장하다

냉장 식품을 상온에서 진열, 판매하거나 허가없이 식품을 소단위로 재포장해 팔아온 백화점, 유명 식품 대리점, 수입 식품점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조선일보 94.9.17. 29면>

재해석하다

대규모 「앤디 워홀전」을 공동 주최하고 있는 中央日報社와 湖巖 미술관은 2일 오후 2시 서울 시내 초·중·고교 교장 선생님 1백여명을 초청, 대중 소비 사회의 이미지를 워트와 재치로 재해석한 팝아트의 대표 작가 앤디 워홀의 작품 세계를 소개하는 설명회를 가졌다. <중앙일보 94.9.3. 22면>

그는 신보에서 평소 존경해 오던 블루스맨 들인 머디 워터스, 엘모어 제임스, 프레드 킹, 지미 로저스, 윌리 디슨 등의 작품을 재해석해 연주하고 있다. <조선일보 94.9.29. 17면>

재협상

文 총장은 특히 민주당의 UR 재협상 요구에 대해 『재협상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은 상식있는 국민이면 다 알고 있다』면서, 『민주당 내에서도 UR 비준 처리 후 실질적 후속 대책을 논의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야당 내 UR 양론을 겨냥.
<조선일보 94.9.29. 4면>

재협의

그러나 교육부는 『의료 인력의 안정적 수급을 위해 98년도 증원분까지 함께 책정이 돼야 하므로 보사부와 재협의를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조선일보 94.8.27. 26면>

재활용

행정기관에서는 쓰레기가 얼마나 줄어들었는지, 재활용 쓰레기는 모두 재생공장에 반입되었는지, 그리고 시범 지역의 쓰레기 징수액이 월 평균 얼마나 늘어났는지를 확실히 밝혀야 한다. <동아일보 94.8.16. 19면>

재활용품

전주시 완산구 효자3동 장미연립 108호 張佳子 씨(54.여) 집 입구 지하실 통로엔 신문지 헌책자 종이 상자 캔류 등 재활용품이 가득 쌓여 있다. <조선일보 94.8.29. 25면>

쟁점화하다

민자당은 박 총장의 잇따른 발언이 오히려 그에 대한 신뢰도를 약화시키는 부작용을 낳자 검찰의 박 총장 면담 결과 발표를 계기로 더이상 쟁점화하지 않기를 바라는 눈치다. <한겨레신문 94.8.20. 3면>

저가형

삼성전자(대표 金光浩)는 성능과 화질을 개선했으며 종래 31개에 달하던 버튼 수를

이중 버튼 방식을 이용해 14개로 줄인 저가형 8mm 비디오 카메라 「마이캠」을 개발, 29일부터 시판. 소비자 가격은 59만 9천원. <동아일보 94.9.30. 10면>

저공해

광주시 동구 새마을부녀회(회장 林貴禮)는 수질 오염 주범인 폐식용유를 수거해 저공해 비누를 생산하는 공장을 직접 가동하고 있다. <조선일보 94.9.5. 27면>

저궤도

한반도 상공에서 「별들의 전쟁」이 벌어질 조짐이다. 다수의 통신위성을 통해 전세계에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저궤도 위성 사업에 한국 기업을 파트너로 끌어들이기 위한 세계 굴지 통신 사업자들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조선일보 94.10.11. 23면>

저급품

金 회장은 -중략- 『중국과 동남아에서도 설비를 확장하고 있어 한국은 철강 고급화를 통해 이들 국가로부터의 저급품 유입에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선일보 94.10.5. 11면>

저수율

지난 20일 이후 이 지역의 다목적댐은 농업용수 공급을 일체 중단, 발전에 필요한 최소한 수량만을 방류하고 있으며, 저수율이 낮은 영천댐 지역은 단계적인 제한 급수에 돌입했다. <조선일보 94.9.25. 11면>

저점

서비스 종사자가 전체 취업자에서 차지하

는 비중은 지난 76년 29.2%를 저점으로 77년부터 높아져 작년에 52.3%를 기록, 우리나라 취업자의 절반 이상이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다. <동아일보 94.9.16.11면>

저질성

키취란 본래 독일어로 싸구려 복제품을 뜻하는 말인데, 나중에는 전위의 반대 개념 또는 순수나 고급 예술의 관점에서 하급 예술을 가리키는 등 시대 조류에 따라서 여러 의미를 갖는 말로 점점 그 성격이 바뀌어 왔다. 쉽게 설명하면 그 말은 작품의 저질성을 욕되게 표현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영레이디154 477면>

저질화되다

첫째, 단기간에 많은 기술 자격을 발급함으로써 건축사나 기술사들의 자질이 현저히 저질화되었다. <조선일보 94.9.15. 13면>

저패니스팝

아무튼 이들의 한국 상륙 성과는 일본 대중음악의 한국 시장 유입이라는 민감한 문제와 관련해 관심 깊게 지켜볼 부분이다. 서양의 '팝'을 일본화한 그들의 새로운 대중음악, 이른바 '저패니스팝'이 재즈 못지않은 위세를 세계 시장에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재즈는 일본 대중음악의 한국 청중 장악력을 제는 일종의 시약과 같은 장르인 셈이다. <한겨레신문 94.8.28. 9면>

저평가되다

그는 또 세계 주가를 비교하면 한국 은행주가 외국 은행주보다 저평가됐다는 점을 강조한다. <조선일보 94.9.5. 15면>

적당주의

저는 부실공사 문제가 적당주의의 산물이며 「한국 사회 비리의 척도」라고 단정합니다. 감사원이 이 문제만 해결된다 해도 제2의 한국을 건설하는 초석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자부합니다. <동아일보 94.9.4. 8면>

적발권

주차 위반 과태료가 현행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오르고, 시설 공단 산하 주차 안내원에게 주차 위반에 대한 적발권이 부여되는 등 앞으로 주차 단속이 크게 강화된다. <조선일보 94.8.31. 29면>

적성국

특히 연락 사무소 개설 문제를 다룰 평양 회의를 미 정부 관리가 북한 정권 수립 이후 처음으로 「적성국」을 공식 방문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미국의 「사전 준비」도 관심사가 되고 있다. <조선일보 94.9.11. 3면>

적합성

공보처는 애초 △ 지역 사회에 대한 기여도나 연고성, 출자자의 적합성과 성격 등을 고려해 판단하는 '주주 및 임원의 적격성' 항목에 4백50점 △ 재정 능력이나 재산 축적 과정의 건전성, 사업 운영 건전성 등에 3백점 등 자의적 판단이 가능한 항목에 높은 점수를 배정하고 방송 운영 능력과 직결된 조직·인력 운영 계획, 프로그램 편성 및 확보 계획 등에는 2백50점만 할애해 제도적으로 방송 운영 능력 외적인 요인이 개입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그동안 받아 왔다. <한겨레신문 94.8.11. 3면>

전격성

김영삼(金泳三) 대통령이 4일 정재석(丁濟錫) 부총리겸 경제기획원 장관을 경질하는 등 부분 개각을 단행한 것을 놓고 관가와 정치권에서는 전격성에 긴장하면서 배경 분석에 분주하다. <중앙일보 94.10.4. 5면>

전매특허

해태 李鍾範이 「전매특허」인 1회 선두 타자 홈런을 또 터뜨렸다. 이는 21일 롯데와의 광주 경기 1회말 시즌 5번째의 선두 타자 홈런을 기록, 통산 8개로 李順喆(해태·13개), 李政勳(한화·11개)에 이어 3위. 5개 중 3개는 1회말, 2개는 1회초에 나온 것으로 시즌 10호를 날린 이종범은 1주일 이상 홈런 침묵을 지키고 있는 김성래와 함께 이 부문 공동 선두를 마크. <경향신문 94.5.22. 19면>

♣ 의미가 다름

전문직

올 가을용으로 이같은 옷을 여러 종 내놓은 기성복 업체 에스콰이어 「소르젠떼」 수석 디자이너 李定恩 씨는 『자유직-전문직 남성이 갖 없는 옷의 주요 고객』이라고 말한다. <조선일보 94.9.9. 35면>

전산화하다

裴宗奎 징세심사국장은 『가장 기본적인 세정 업무인 수납 업무는 완전 전산화하고 내부적으로 상호 점검하고 있어 세금 착복 같은 비리 발생 가능성은 전혀 없다』며 『납부된 국세는 1백% 국고에 들어간다』고 강조했다. <조선일보 94.9.23. 11면>

전세가

전세 가격 초강세 현상이 8~9월 성수기를 맞으며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같은 전세가 강세 현상은 부동산 투기가 극심했던 지난 89년 이후 5년만의 일로, 자칫 전세 파동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조선일보 94.9.3. 28면>

전업농

농어민 후계자 지원금은 1인당 2천만원으로, 올해보다 5백만원 늘어났고, 전업농 육성 규모도 1만2천명으로 8백명이 증가했다. <조선일보 94.9.27. 6면>

전업주부

집안일이란 전업주부가 있어도 할 일이 많지만, 맞벌이 가정의 경우 어려운 일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한겨레신문 94.9.6. 13면>

전용관

알려지기로는 극장을 종합문화공간이나 전용관 개념으로 바꾸어 시설 개선 투자의 세금 감면과 저리 융자까지 주선한다니 다행이다. <조선일보 94.8.21. 1면>

전용차선제

교통부는 9일 운전자의 자발적 참여가 필수불가결한 전용차선제는 상습적인 위반이나 차량 고장 및 사고 발생시 그 효과가 반감되기 때문에 사전 캠페인과 단속 및 고장 차량의 신속한 견인 등에 총력을 쏟기로 했다. <동아일보 94.9.10. 30면>

전자게시판

『풀뿌리 컴퓨터 통신』 『재야 정보통신』 등으로 불리는 사실 전자게시판(BBS)들의 전국 통합망 구축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조선일보 94.8.25. 23면>

전자문서교환

☞ 이디아이(EDI)

전자자료교환

☞ 이디아이(EDI)

전작제

한국방송개발원은 14일 오후 2시부터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 소회의실에서 「TV드라마 전작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갖는다. <동아일보 94.9.14. 21면>

전통가요

요즘의 우리 가요계가 시대의 변화를 잘 따라 가고는 있지만 감동이 부족하다는 평가와 함께 수십년간 국민의 정서를 어루만졌던 전통가요가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홀대를 받고 있는 상황이 가슴아픈 것이다. <한국일보 94.9.19. 21면>

전통김치

시는 지역마다 담그는 방법이나 사용하는 것갈에 따라 독특한 맛이 나는 배추김치, 총각김치, 열무김치, 동치미, 갓김치, 깍두기, 겉절이, 백김치, 파김치, 오이소박이, 보쌈김치 등 전통김치를 담가 삼삼하거나 매콤하거나 개운한 갖가지 맛을 선보이는 맛 축제를 연다는 계획이다. <한겨레신문 94.10.7. 20면>

전통술

경기 호전에 힘입어 유통업체와 선물 상품 제조업체들은 추석 특수를 누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술은 수입품을 비롯해 양주 종류가 불티나게 팔렸다. 그러나 아쉽게도 고유 명절에 우리 전통술들은 고전을 면치 못했다. <한겨레신문 94.9.26. 7면>

전통찻집

문을 열고 들어서면 잣나무 향과 한방초 내음이 속세의 먼지를 씻겨 준다. 서울 돈암동 성신여대 부근에 위치한 전통찻집 ‘참마당’이 그곳. 첨단 유행을 추구하는 대학가에서 이곳은 우리의 옛 문화를 지키는 이방 지대. <스포츠조선 94.5.21. 12면>

전통화

수직적 정권 교체는 지금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예컨대 전두환 씨에서 노태우 씨로, 노태우 씨에서 김영삼 씨로요. 이것은 수직적인 것입니다. 또 수직적 정권 교체는 전통화가 되었어요. 이제는 정권을 연장한다든가 하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자기 임기가 끝나면 수직적으로 정권을 이양하게 되지요. <신동아 422 167면>

전화발이

나이 서른이 넘어가면 퇴물 소리를 듣는다. 호객일을 하는 펌프로 머물거나 사창가를 떠나 ‘여관발이’나 전화발이로 나서야 한다. 흔히 말하는 ‘보도집’이나 ‘밥집’에서 살면서 여관에서 부를 경우 몸을 파는 일을 하는 것이다. <영레이디 154 563면>

전화폭력

음란·협박 전화를 건 사람의 전화번호를 알려주는 발신자 추적 서비스가 시행되면서 전화에 의한 언어폭력이 크게 줄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무선호출기(삐삐)의 음성 사서함 기능을 악용해 음담패설·욕설·거짓 약속 등을 늘어놓는 신종 전화폭력이 성행하고 있다. <한겨레신문 94.8.6. 15면>

전환기적

고려인들은 러시아의 전환기적 혼돈을 오히려 기회 삼아 러시아인에 비해 빠른 속도로 기반을 잡고 있다. 집단촌과 재생기금 같은 고려인 공동체가 이들의 기반 잡기에 한몫을 할 것임은 분명하다. 이들은 실력을 쌓은 뒤 다시 자치주를 추진할 수도 있다. <한겨레신문 94.8.22. 4면>

李洪九 통일 부총리는 13일 통일 안보 정책 조정회의를 마친 뒤 이례적으로 기자회견을 자청, 『金日成 주석 사망 이후 지난 두달간의 남북 정세 국면은 전환기적 상황이었으며 앞으로 모든 차원에서 남북 대화를 재개하겠다는』는 의지를 밝혔다. <문화일보 94.9.14. 3면>

절박성

한국 외교는 이번 韓 장관의 訪美를 통해 남북 대화에 대한 한국 정부의 절박성만큼은 분명히 인지시킨 것 같다. <조선일보 94.9. 9. 3면>

절세

다만 미국에서는 탈세를 꾀하는 사람은 없다. 盜稅는 물론 없다. 그저 지극히 합법적인 節稅를 꾀할 뿐이다. <조선일보 94.9.29. 1면>

절체절명

울산직할시 승격은 金泳三 대통령의 선거 공약 사항이며 국토의 균형 발전을 위해 절체절명의 과제임에도 울산 지역과 무관한 일부 정치인의 반대로 무산 위기에 처해 있다. <동아일보 94.9.4. 26면>

절충점

특히 경수로 모델과 흑연 감속로 건설 비용 보상 요구는 북한 내 강경 세력의 주장에 따른 것으로 알려져 北-美 양측이 절충점을 찾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동아일보 94.9.22. 7면>

점수화

- 청문 결과의 점수화는 애초 예정돼 있지 않았는데, = 서류 심사도 중요했지만 청문 결과도 매우 중요했다. 실제로 청문 위원들의 날카로운 질문으로 사업 계획의 허구가 드러난 사례도 있었다. <한겨레신문 94.8.11. 3면>

점유율

진로쿠어스맥주의 카스 맥주가 시판 3개월 만에 동양맥주의 아이스 맥주를 제치고 비열처리 맥주 시장에서 점유율 2위로 떠올랐다. <한겨레신문 94.9.2. 8면>

점자화하다

『생활이 너무나 어려운 맹인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사전을 보다 많이 보급할 수 있을까, 보통 책보다 훨씬 많이 드는 제작비는 또 어떻게 감당해 나가야 하나...』 6백쪽 분량의 사전을 점자화하다 보니 1만1천짜

리 초대형이 돼버렸고, 따라서 55권 한 질의 원가도 40만원씩이나 됐기 때문이다.
<조선일보 94.9.27. 31면>

점프력

이임생은 청소년 대표와 94 바르셀로나 올림픽 대표를 거치면서 1m 83.79kg의 육중한 몸집에서 나오는 힘과 고강도의 점프력을 갖춘 수비로 명성을 떨쳤으며, 그와 멋진 콤비를 이뤘던 강철은 빠른 스피드와 지칠 줄 모르는 체력으로 부동의 오른쪽 풀백으로 자리를 굳혔다. <한겨레신문 94.8.11. 15면>

정원적

힘있는 세력들이 '뉴스'를 만들어내 사회 분위기를 극단적인 보수주의로 끌어가고 있다. 이 공세의 목적은 김일성 주석 사후 전개될 수 있는 유화 정책에 쐈기를 막아 자신들의 입지를 넓히려는 데 있다는 사실이 점차 분명해지고 있다. 정권적 차원의 필요도 가세하고 있음은 물론이다. <한겨레신문 94.8.19. 4면>

정례화하다

자신의 이번 방북 취재가 앞으로 남·북 언론인들의 상호 방문 취재를 정례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겨레신문 94.9.7. 1면>

정보고속도로

21세기 핵심 사회간접자본인 정보고속도로를 건설하기 위한 범정부적 실무 조직인 초고속정보통신망구축기획단(단장 박성득 체신부 통신정책실장)이 17일 오후 광화문

우체국 청사 4층에서 현판식을 갖고 정식 출범했다. <동아일보 94.8.18 25면>

정보단말기

삼성전관(대표 윤중룡)은 최근 키보드 없이 손가락이나 펜을 사용해 각종 정보를 입력하거나 검색할 수 있는 개인용 정보단말기(PDA) 핵심 부품인 「패치터널」을 일본에 이어 세계 두번째로 개발했다고 17일 발표했다. <동아일보 94.8.18. 10면>

정보력

개인 투자자는 기관 투자자에 비해 자금력이나 정보력도 뒤처지고 결국에는 투자 수익률도 떨어집니다. <조선일보 94.9.25. 5면>

정보전

또 <요미우리 신문>은 5일 유엔의 서방쪽 외교 소식통이 전단과 관련해 북한의 내부 교란을 노린 정보전의 가능성을 내비쳤다고 밝혔다. <한겨레신문 94.9.6. 3면>

정실인사

사무관 승진 시험 제도는 그대로 존속되어야 하며 그것도 더욱더 활성화하여 전면 공개 경쟁 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 첫째 이유로 우리나라의 경우 전래적으로 답습되어 온 정실인사의 배제를 위해서다. <동아일보 94.8.26. 19면>

정예화

물론 이런 일들은 미리 계획된 일의 진행일 뿐이다. 당무 위원의 정예화와 시·도지부 위원장의 권한 강화만 해도 지난 1월말 김 대통령에게 보고한 당 운영 계획에 다

들어 있는 것이다. 사고 지구당 및 부실 지구당 정비는 6월말까지 단행할 계획이었는데 보궐 선거 준비 등의 이유로 차일피일 미뤄진 것이다. <한겨레신문 94.8.11. 4면>

정착금

한편 노씨 부부는 24일 검찰 조사에서 “미국 은행에 분산 예치했던 19만2천여 달러는 친척들로부터 결혼 축의금으로 받은 13만6천 달러와 실리콘밸리 메트라전자에 입사했을 때 이주 정착금으로 받은 2만달러 등”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일보 94.8.26. 31면>

정체기

지난해 인도네시아 대통령배 대회에서 경기 도중 어깨가 빠지는 바람에 한동안 훈련을 하지 못하는 정체기도 있었지만 채성배는 수술 뒤 더욱 열심히 모래주머니를 두드리며 금메달 담금질에 몰두했다. <한겨레신문 94.9.29. 18면>

정치감각

反이민 무드가 어느 때보다 확산되고 있는 시점에 정치감각이 뛰어난 클린턴은 대다수 유권자들이 달가워하지 않을 정책을 고수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웠다. <조선일보 94.8.21. 2면>

정치권

국가 경쟁력 제고와 국민 便益(편익) 증진을 위해 재정에서 해야 할 일이 많은데, 흑자 예산이 무슨 말이나는 정치권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총세입의 일부를 국가채무 상환에 쓰기로 한 것은 안정 기조 정

착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말해주고 있다. <조선일보 94.9.27. 3면>

정치꾼

그렇다면 이런 전망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한마디로 우리도 이전 본격적으로 「국제 정치꾼」이 되어 할 때이다. <조선일보 94.9.17. 5면>

정치놀이

비효율적이고 방만한 정부 조직을 개편한답시고 국·과를 한두 개쯤 형식적으로 없애는 것으로 문제 해결을 일버무렸고 행정구역을 붙이고 쪼개고 하면서 쓸데없는 정치놀음을 하고 있을 뿐이다. <조선일보 94.9.7. 5면>

정치도구화

12일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을 둘러싸고 재야 법조계가 보이고 있는 초강경 분위기는 헌법 재판소의 정치도구화를 막아야 한다는 당위성과 김영삼 대통령 특유의 밀어붙이기 인사에 대한 현실적 우려라는 두가지 차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한겨레신문 94.9.13. 3면>

정치생명

클린턴은 결국 영성한 뗏목에 생명을 맡긴 난민들을 『포기』하고 자신의 정치생명을 지켜 줄 유권자들을 『선택』했다. <조선일보 94.8.21. 2면>

정치세력화

또 이 잡지는 지난 6월호 편집국장 이름의 시론에서 『18세 선거권 쟁취』를 주장, 고교

생의 정치세력화를 지향하고 있음을 명백히 했다. <조선일보 94.8.23. 29면>

정치장교

또 정치장교를 추방한다고 임기가 끝나지 않은 육군참모총장을 전격적으로 전역시켜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한 뒤 바로 그 사람에게 훈장을 수여하기도 했다. <조선일보 94.10.1. 7면>

정치쟁점화하다

박홍 총장이 20일 민주당 항의단과의 면담을 거부한 채 오는 25일 독자적으로 해명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가운데 민주당이 발언 배경 등에 대한 진상 규명 요구와 함께 검찰에 대한 책임 추궁 입장을 밝혀 박 총장의 주사와 발언 파문이 정치쟁점화할 것으로 보인다. <한겨레신문 94.8.21. 1면>

정치판

주요 등장 인물들의 모델이 된 정치인들의 어록을 비튼 말들을 구사하면서 전개되는 이 소설은 한국 정치판이 무협지의 싸움판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는 냉소적 역사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조선일보 94.8.13. 11면>

정치판사

안 전 대법관은 서울형사지방법원의 고위직에 있으면서 정치 권력에 영합하여 법관으로서의 숭고한 재판을 조정 통제하거나 납득할 수 없는 재판을 하였다는 의혹을 사, 이른바 정치판사로 지목된 인사이므로 임명 대상에서 반드시 배제해야 한다 <한겨레신문 94.9.8. 23면>

제공자

합의 성명에서 輕水爐(경수로)의 爐型(노형)에 대한 언급 없이 미국으로부터 제공을 약속받았으면 그와 다른 세부 사항은 제공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이 상식이다. <조선일보 94.9.29. 3면>

제삼섹터

사업은 공영 개발을 원칙으로 제3섹터(민간이 자금, 기술, 경영을 맡고 관에서 계획 및 관리를 지원하는 민관 합동 개발 방식), 또는 민간 컨소시엄으로 추진된다. <조선일보 94.9.9. 28면>

제휴선

제휴선인 일본 닛산자동차가 아시아 9개국에 생산 기지를 확보해 2000년까지 1백만대 판매 체제를 구축한다는 아시아 전략이 한국에서 핑크날 우려가 높아 삼성을 채근하고 나선 것도 마음을 급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조선일보 94.9.15. 10면>

조강지부

혼외정사라 함은 조강지처나 조강지부를 제외한 타인과 정사를 벌이는 것을 말한다. <스포츠조선 94.8.9. 31면>

조기경보

조기경보 조치란 보험감독원이 경영악화가 우려되는 보험사에 경영상태가 더 나빠지기 전에 미리 대처해 두라고 사전경고하는 것으로, 이 경보를 받은 회사는 경영개선 노력을 해야 하지만 별도 대외조치를 취할

의무는 없다. <조선일보 94.8.23. 11면>

조망권

미술관측은 아파트 건립 공사로 인한 먼지, 소음, 폭파 진동이 미술관 시설을 파손할 뿐만 아니라 바다와 마산시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조망권, 문화적 환경권이 심각하게 훼손당한다는 이유를 들어 마산시에 사업 재고를 강력히 요청해 왔다. <스포츠조선 94.8.11. 10면>

조세통

그러나 民主黨의 세제 개혁 전략은 일단 「더욱 과감한 세율 인하」로 모아질 전망이다. 국세청 차장 출신으로 民主黨 내 조세통인 張在植의원이 『경쟁력 재고의 핵심인 기업 의욕과 근로 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배려가 충분하지 못하다』고 비판하는 것도 그런 맥락이다. <동아일보 94.9.8. 4면>

조율하다

그래서 그는 민주당 원내 대책 회의에는 빠짐없이 참석해 의회와 백악관의 입장을 조율하고 있다. <조선일보 94.8.27. 7면>

♣ 의미가 다름

조직성

특히 대다수의 사람들은 만화에서나 있을 법한 이들 범죄 수법의 잔인성과 엽기성·조직성에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한겨레신문 94.9.22. 3면>

조형력

이튿날 브람스의 교향곡 1번에서도 오케스트라의 역부족은 여신했다. 세부를 다듬어

악곡에 표정을 불어넣는 조형력은 제쳐두고, 현과 관이 음량을 제대로 쏟아내지 못하고 음상의 윤곽도 제대로 그려내지 못했다. <조선일보 94.9.17. 17면>

족집게과외

본고사를 치르는 대학이 늘어난 데 편승해 단기기간에 수십만~수백만원을 요구하는 이른바 「족집게과외」까지 성행하는 상황이다. <조선일보 94.9.23. 15면>

족집게선생

강남구 대치동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金모 씨(여)는 「9월 들어서부터 고3인 둘째 아들의 영어 수학 과외에 과목별 2백50만 원을 주고 족집게선생을 붙였다」면서 「웬만한 학원강사는 동이 난 상태」라고 말했다. <동아일보 94.9.4. 27면>

줄속성

대부분의 의원들이 지난달 서울시가 발표한 「5개 지역 전략거점 개발 계획」의 줄속성을 집중 추궁했으며 가수 출신 李仙姬 의원(민주 마포3)은 자치구별 지역 불균형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 눈길을 끌었다. <동아일보 94.10.10. 29면>

줄음운전

석광렬은 24일 밤 늦게까지 KBS의 녹화장에서 새로 시작된 일일 드라마 「한쪽 눈을 감아요」의 촬영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줄음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스포츠조선 94.7.26. 18면>

종군위안부

일본 정부는 내년의 전후 50년을 앞두고
舊일본군 중군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해 민간 모금을 통해 기금을 조성, 한국,
필리핀 등의 前중군위안부들에게 위로금
명목의 일시금을 지급할 것을 검토하고 있
다고 아사히 신문이 19일 보도했다. <동아일
보 94.8.20. 2면>

종량제

금년 4월부터 시작해 온 쓰레기 종량제 시
범 실시에 관한 중간평가 결과 행정기관에
서는 약간의 문제점이 있지만, 보완하여 내
년부터는 전국적으로 강행하겠다는 계획이
다. <동아일보 94.8.16. 19면>

종합레저타운

우리나라의 골프장이나 종합레저타운 건설
이 국토면적과 생태계의 특성을 무시한 채
「대규모」 일변도로 진행되기 때문이다. <동
아일보 94.8.28. 2면>

종합문화공간

알려지기로는 극장을 종합문화공간이나 전
용관 개념으로 바꾸어 시설 개선 투자의
세금 감면과 저리 융자까지 주선한다니 다
행이다. <조선일보 94.8.21. 1면>

종합유선방송

내년 3월부터 시작될 종합유선방송(CATV)
이 17일 오후 수원 시민들에게 첫 선을 보
였다. <조선일보 94.8.19. 17면>

좌파적

냉전의 붕괴와 북한의 고립으로 종래 한반
도 문제를 진보적·좌파적 시각에서 분석해

온 일부 평론가들의 신뢰도가 떨어진 한편
서울에 유학을 했거나, 상대적으로 보수적
시각을 가진 연구자들의 견해만 언론에 부
각되는 점도 분석의 결과만을 놓고 보면
서울과 도쿄의 시각에 거의 차이가 없는
상황을 조장하고 있다. <한겨레신문 94.8.26. 5
면>

좌편향

- 한총련 혁신론이 제기되고 있는데. = 지
난달에 상반기를 자체 평가하면서 한총련
의 정책과 노선이 너무 정치 투쟁과 좌편
향이었다는 얘기가 내부에서도 많이 나왔
다. 우선 전국 80만 유권자 대학생들이 참
여하는 '의견 개진 운동'을 통해 수렴된 의
견에 따라 조직을 과감히 혁신해 나가겠다.
또 조통위 등 특별 기구의 정책 기능을 정
책위로 통합하는 등 비대한 중앙 조직을
대폭 줄여나가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한겨레신문 94.8.31. 18면>

주계약자

이 과정에서 -중략- 영광 3, 4호기부터는
한전이 총괄 사업 관리 책임을 맡아 국내
업체를 주계약자로, 외국 업체를 핵심 분야
의 기술 지원을 위한 하도급 업체로 참여
시키는 방식으로 기술 자립을 추진해 왔다.
<조선일보 94.9.11. 5면>

주공급원

중국은 사형선고를 받아 처형된 죄수들을
장기 이식 수술에 필요한 장기의 주공급원
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죄수가 살아있는 상
태에서 장기를 떼어내기 위해 고의로 사형
을 서투르게 집행하고 있다고 미국의 『인

권감시(Human Watch)』아시아 지부가 28일 주장했다. <조선일보 94.8.29. 31면>

주관객

무섭게 더웠던 8월의 토요일, 꼭 현장을 보고 싶다는 욕심에 역시 주위의 웃음을 뒤로 하고 '서태지들'의 제3집 앨범 '발해를 꿈꾸며' 공연장에 갔다. 문앞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앰블런스가 대기하고 있었고 20대의 '늙은' 정리 요원들이 수시로 주관객인 10대들의 '넋'이 돌아오도록 억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 <한겨레신문 94.8.24. 4면>

주득점원

최근의 9경기서 7무 2패로 1승도 추가하지 못하며 일화에 1위 자리를 내준 현대는 주득점원인 김종건과 호나우도가 최근 감각이 살아나는 것을 계기로 8월 중에 1위를 탈환, 첫 우승을 노리겠다는 각오이다. <조선일보 94.8.13. 19면>

주마당

10월 28일 오후 7시 30분 남대문에 설치된 레이저 발사기에서 나온 빛은 이날 행사의 주마당이 될 시청앞 분수대 옆 「하늘무대」에 도달하면서 동시에 「현재」에 이르게 된다. <조선일보 94.9.29. 28면>

주메뉴

우리 가게 주메뉴는 우렁이를 볶아 각종 야채로 찜을 먹는 『우렁각시』와 우렁이 된장찌개라 할 『우렁신랑』이다. <조선일보 94.8.29. 15면>

주목거리

이희진은 이 곡을 타이틀로 한 첫 독집 「또다른 기쁨」을 발표했는데, 과연 「서울의 달」에서 장철웅의 드라마 음악관에 이은 또 하나의 히트 앨범이 나올지 주목거리 <조선일보 94.9.15. 19면>

주목도

93년 5월 신설돼 그동안 김지하씨 오적 필화 사건, 박종철씨 고문 치사 사건 등 역사적 사건을 재조명해 주목도가 높았던 이 프로는 지난 봄 고소를 당하는 등 '외압'으로 내용이 변질돼 시청자들로부터 외면당한 데다 소재가 떨어져 중영을 맞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겨레신문 94.9.26. 20면>

주무관청

행쇄위는 또 공익 및 비영리법인 관련 제도 개선안을 의결, 중앙 부처에 집중돼 있는 허가권 등을 시·도 등 하부 기관에 대폭 위임하고 주무관청의 정기 감사를 폐지, 필요시 수시 감사로 대체하는 한편 기금관리법인은 공인회계사 등 외부기관의 감사를 받도록 했다. <조선일보 94.8.23. 2면>

주문자상표부착생산

☞ 오이엘

주문판매

농협에선 이들 상품에 대한 주문판매를 하고 있다. 가까운 농협에 가서 직접 신청하거나 전화 주문 약정을 한 뒤 원하는 시기에 전화 신청을 하면 산지 농협에서 지정 장소로 배달해 준다. <조선일보 94.9.1. 19면>

주문형비디오

주사파

이런 야당 의원들의 공세에 대해 민자당의 남평우 의원은 “‘김일성주의 청년동맹’ 사건을 통해서도 대학 운동권내의 주사파들이 얼마나 조직적·체계적으로 북한의 대남 통일 전략을 추종해 왔는지 잘 나타났다”며 “최근의 주사파 논란이나 경상대 교수 논문의 이적성에 대한 수사를 놓고 일각에서 ‘교육 공안 드라이브’나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는 처사라느니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진정한 학문의 자유를 위협하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맞섰다. <한겨레신문 94.8.6. 3면>

주상복합건물

건설부는 최근의 전세값 오름세가 전반적인 집값 불안으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서울 등 수도권외 주택 공급을 크게 늘리고 재개발·재건축 사업과 주상복합건물 건설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한겨레신문 94.8.24. 7면>

주수입원

이 사업가는 현재 조선족 여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직업은 여행 안내원으로 능력에 따라 5천~1만 위안을 한달에 벌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까지는 환전을 해주며 큰 부수입을 올렸으나 올초부터 단일환율제가 되면서 환전에 따른 이익은 없어졌고 대신 이른바 ‘쇼핑컴’이 이들 안내원의 주수입원이 되고 있다. <한겨레신문 94.8.16. 4면>

주요인

한국여성단체협의회가 가정주부 1천명을

대상으로 한 대중 매체에 대한 인식 조사에서도 비디오 TV 영화 등 영상 매체가 청소년에게 가장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폭력성 음란성 퇴폐성을 주요인으로 꼽았다. <한국일보 94.5.28. 30면>

주적

북한이 과거 50여년간 제1의 적대국가로 삼았던 「主賊」의 대열에 미국 대신 남한을 올리려는 의도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조선일보 94.9.3. 5면>

주진행자

주진행자인 이문세가 사퇴를 결심한 것은 본업인 가수 활동에 전념하기 위해. <조선일보 94.10.7. 19면>

주차료

고전적 의미의 자동차야영이 가능한 곳으로 제일 먼저 꼽을 수 있는 곳은 주문진 해수욕장에 있는 기아 캠프촌. 주차료, 입장료, 야영료 등 모든 시설 이용료가 무료다. 다른 야영장에 없는 전기 사용도 공짜이다. 지난 22일 개장해 다음달 13일까지만 문을 여는데 올해부터는 기아 자동차뿐 아니라 다른 회사의 자동차도 받고 있다. <한국일보 94.7.29. 13면>

준정부기관

이와 관련, 상공자원부 관계자는 『정부 또는 준정부기관이 미국 자동차를 구입하려고 요구한 것은 중앙 정부가 지방 정부에 대해서조차 하기 어려운 주문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조선일보 94.8.19. 11면>

준조세

공동 축적 기금이나 사회 문화 기금, 원호 기금은 준조세 성격이다. <조선일보 94.9.23. 2면>

준주거지역

이와 함께 이 일대의 주거 용도를 일반 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기로 했다. <조선일보 94.9.29. 28면>

중간톤

『올가을 유행이 예상되는, 회색이 가미된 중간톤의 바이올렛, 베이지, 겨자색 의상과 자기 피부색을 살린 투명한 얼굴 화장에는 자연스런 분위기를 살리는 보라빛 퍼플이 딱 들어맞는다』고 이 회사 김현주 씨(미용 과학연구실)는 설명한다. <조선일보 94.8.23. 19면>

중계술

캐스터들의 흥분된 목소리도 가라앉았고, 해설자들도 한결 여유를 보이고 있다. 이같은 분위기는 일본 방송진의 다양한 화면 제작과 선진화된 중계술도 큰 몫을 하고 있다고 본다. <조선일보 94.10.11. 16면>

중고참

1m68의 늘씬한 키에 동양적 미모를 자랑하는 이금희는 숙명여대 정치외교학과를 나와 89년 KBS 16기로 방송 생활을 시작한 아나운서 중고참. 적지않은 스물여덟 나이에 아직 미혼이지만 “현재는 남자보다 일이 더 좋다”는 워킹우먼이다. <스포츠조선 94.8.19. 23면>

중국병

선양(심양)에서 최근 한-중 합작 공장을 설립해 한국 책임자로 근무하는 장아무개 씨는 한국의 대기업에서 이사까지 했으나 자신의 말대로 ‘중국병’에 걸려 단신으로 중국에 왔다고 말했다. ‘중국병’이란 중국에 집착해 고생을 마다않고 갖가지 사업을 하는 한국 기업인들이 농담조로 말하는 자신들의 정신적 상태이다. <한겨레신문 94.8.19. 4면>

중도좌파

보수 진영인 국민행동당의 디에고 페르난데스 데 세바요스 후보는 30.8%를, 중도좌파인 민주혁명당의 콰우테목 카르데나스 후보는 15.67%의 득표율을 보였다. <조선일보 94.8.23. 7면>

중벌주의

홍악법에 대한 중벌주의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잔인무도한 살인 행위가 그치지 않고 있는 사회 병리 현상이 하루속히 근본적으로 치유되어야겠다. <동아일보 94.9.22. 19면>

중복투자

현대정공은 “앞으로 차량 사업 부분을 다 목적 자동차 전문업체로 특화, 육성할 계획이며 이번에 생산하기로 한 미니밴 승합차는 중복투자가 아니라 이른바 틈새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밝혔다. <동아일보 94.8.24. 10면>

중불제

정부는 또 고속도로 통행료 후불제가 정채

의 원인이 되는 문제점이 많다고 판단, 휴게소 등에서 통행료를 내는 「중(中)불제」를 도입키로 하고 구체적인 실시 방안을 마련 중이다. <조선일보 94.9.7. 30면>

중심국

이날 행사에는 관계-국회-재계-학계 인사와 주한 외교 사절 등이 대거 참석해 최근 독일이 통일의 후유증을 극복하고 유럽 경제의 **중심국**으로 위치를 굳히고 있는 데 대해 깊은 관심을 표했다. <조선일보 94.10.5. 21면>

중저가

이랜드는 본래 **중저가**(中低價)를 찾는 고객층을 타킷으로 제품을 만들어 왔으나 최근 들어서는 각종 기획상품과 세일 행사로 제품 가격대를 더욱 낮추고 있다. <중앙일보 94.10.4. 31면>

증가세

이와 함께 그동안 침체였던 다국적기업의 해외 투자는 지난해 3년만에 **증가세**로 돌아서면서 전년보다 2백10억 달러 증가한 1천9백50억 달러를 기록했다. <조선일보 94.9.11. 11면>

특히 지난 92년부터 **증가세**를 보였던 담배 수출이 올해엔 다시 감소세로 돌아설 게 확실시된다. <문화일보 94.9.14. 9면>

증구

시-군 통합으로 선거구가 줄어드는 반면 신도시 건설 등 인구 증가로 선거구 **증구**가 불가피한 곳도 있다. <조선일보 94.8.27. 4

면>

지구마을화

그러나 첨단 통신 수단의 발달로 인한 세계의 **지구마을화**는 상품은 물론 문화 양식의 전세계적 동시 유통을 가능케 함으로써 전통적 보수주의의 저항에도 아랑곳없이 차츰 국가 또는 민족 단위의 윤리와 풍속 영역을 위협하는 수준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최근 일련의 ‘섹스 소동’은 경고하고 있다. <한겨레신문 94.8.19. 8면>

지구적

그러나 세계 경제의 흐름과 임금 격차, 환율 변동 추이, 기반 기술 축적도 등으로 미루어 自國 국경안에서 피라미드형의 튼튼한 산업 기반을 다지는 일이 난관에 부딪치고 있기 때문에 아시아의 시각 또는 **지구적**(글로벌) 시야에서 생산 立地를 분산 배치하는 문제가 점점 더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조선일보 94.10.5. 5면>

지능화되다

범죄는 점차 **지능화**되어 가고 흉폭해지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조선일보 94.9.23. 13면>

지니계수

통계청은 최근 도시 근로자 가계를 대상으로 한 소득 분배구조 조사에서 『68개 도시 근로자 가구의 **지니계수**(소득 분배가 얼마나 잘 됐는지 가늠하는 데 사용되는 대표적 지수로 0.4를 넘을 때는 분배 구조의 불균형이 심하다는 지적을 받는다.)는 85년

0.31을 고비로 낮아지기 시작해 지난해는 0.28을 기록, 고른 소득 분포쪽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발표했다. <동아일보 94.9.28. 1면>

지단백질

올해 노벨 의학상 수상자인 알프레드 길먼(53·텍사스대 약리학 교수)과 마틴 로드벨(68·노스캐롤라이나 美 국립환경의학연구소)의 업적은 60-70년대 「G단백질」을 발견, 이론화한 것이다. -중략- 서울대 의대 金甬成교수(생화학)는 『G단백질은 한마디로 세포 외부의 신호를 세포 내부의 신호로 바꾸는 신호 변환기』라고 설명했다. <조선일보 94.10.11. 7면>

지도자적

이론가나 학자보다는 활동가적 자질을 보였던 그는 학생 운동에 뛰어들어 의대 학생회장 등에 선출돼 지도자적 자질을 드러냈다. <한겨레신문 94.8.25. 9면>

지리정보시스템

지도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지리정보시스템(GIS)이 최근 그 다양한 용도로 인해 각광받고 있다. GIS는 지도에 표시된 도로·상수도·하수도 등 거미줄처럼 얽힌 각종 시설물의 현황을 소상히 입력, 이들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컴퓨터 프로그램이다. <중앙일보 94.8.10. 32면>

지방당

한편 집권 핵심 세력인 민주계의 일원인 박 의원은 토론 문화의 활성화를 비롯한 당내 민주화를 강조하면서 중앙당의 지방당에 대한 권한 이양, 상향식 공천 연구,

교차 투표 제도 도입, 여당 의원들의 활발한 의정 활동도 주문. <조선일보 94.9.7. 4면>

지방자치화

최근 농촌 지도직 공무원의 지방직 전환이 관련부처간에 거론되고 있다. 이것은 지방자치화 시대를 맞아 그럴듯한 착상처럼 들릴지 모르나 우려되는 바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 <동아일보 94.8.24. 19면>

지방화

4개 도시 지역 民放의 운영 주체가 최종 선정됨에 따라 기존의 汝矣島 중심 중앙집중 방송 체제는 본격적인 지역 방송 시대로의 전환을 맞게 됐다. 내년 자치단체장 선거 등 지방화 흐름에 맞춰 방송도 지방자치와 분권화의 시대에 돌입케 된 셈이다. <중앙일보 94.8.10. 4면>

지방화시대

이어 서울대 뒀연천 교수는 『지방화시대를 맞아 도와 시의 관계를 새로 정립하는데서 그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조선일보 94.9.9. 4면>

金의원은 시도지부장 인선 배경을 『지방화시대를 맞아 좀더 정당 정치와 정치의 효율성을 기하자는 측면을 고려한 것 같다』고 나름대로 풀이하고는 변하는 정치 환경속에서 서울 지역 지구당의 선도적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 <조선일보 94.8.21. 4면>

지역신문

현재 발행 부수 1만5천부(유가 부수 7천부)인 부천시민신문은 대표적인 지역신문으로

자리잡았으며 올초부터는 중동 신도시를 대상으로 격주간 「중동신문」을 발행하고 있다. <조선일보 94.9.9. 34면>

지역이기주의

민자당 안에서조차 ‘지역이기주의’와 ‘정치적 의혹’으로 맞고함을 주고 받으며 극심한 진통을 겪었던 행정 구역 개편은 결국 내무부 안을 유지하는 선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방향이 잡혔다. <한겨레신문 94.9.6. 4면>

지역인

지역정보화 사업은 해당 지역의 규모와 지리적 환경에 따라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다. 지역인의 정보 공유를 위한 지역정보화와, 자기 지역의 정보를 외부에 알려 부가적인 이익을 창출키 위한 지역정보화이다. <조선일보 94.8.19. 15면>

또 인근 쌍룡부대에선 오픈카 8대를 지원하는 등 이곳을 마라톤의 메카로 만들려는 지역인들의 노력이 역력. <조선일보 94.9.25. 23면>

지역정보화

지역정보화 사업은 해당 지역의 규모와 지리적 환경에 따라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다. 지역인의 정보 공유를 위한 지역정보화와, 자기 지역의 정보를 외부에 알려 부가적인 이익을 창출키 위한 지역정보화이다. <조선일보 94.8.19. 15면>

지역화하다

『좋은 디자인은 시차 없이 각국에 퍼질 정도로 디자인계는 점점 더 세계화하고 있습

니다. 그러나 자신만의 독특한 개성을 갖지 않고서는 승부할 수 없다는 면에서는 더 지역화하고 있다고 말할 수도 있지요.』 <조선일보 94.10.7. 23면>

지열정

지열은 석유나 천연가스를 개발하는 것에 비해 비용이 훨씬 적게 들어 필리핀 연안 해역에서 油井 하나를 뚫는 데는 2천 5백만 달러가 들지만 지열정 하나를 뚫는 데는 1백10만 달러면 족하다. <동아일보 94.9.17면>

지하서클

고교생들을 선동하는 친북 잡지가 적발된 데 이어, -중략- 각종 시위 현장에 고교생들을 동원한 지하서클이 적발됐다. <조선일보 94.9.9. 31면>

지하화하다

전용 면적 18형 이상도 주차 대수 중 30% 이상은 지하화하도록 강화했다. <조선일보 94.9.29. 10면>

직간접적

상공부는 그러나 자동차는 물론 항공, 철강, 반도체 등 대규모 장치 산업은 투자 위험이 높고 자금·고용·입지 등에서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왔다. 이 때문에 개입할 법적 근거가 희박한 데도 행정력을 동원해 사실상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 <한겨레신문 94.8.27. 6면>

직거래장

22일 서대문구 홍제4동 사무소 앞에서 열린 농산물 직거래장. 저렴한 가격에 반입된 농산물을 사려는 주부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아 개장 수시간만에 물건이 동이 났다. <조선일보 94.8.23. 28면>

직업성

연세대 산업보건연구소는 25일 오후 1시반 연세대 동문회관에서 직업성 호흡기 질환에 대한 국제 심포지움을 개최한다. <동아일보 94.8.24. 17면>

직업외교관

바르가스 고메스 회장은 59년 쿠바 공산혁명에 일어나기 前까지 직업외교관이었다. <조선일보 94.8.23. 2면>

직접투입우편물

☞ 디엠

직판장

경기도 연천군과 연천군 청산 농협은 지역 농수축산물을 싼 값으로 도시에 보급하고 농민들의 소득을 올려주기 위한 방안으로 직판장을 통해 전화 한 통이면 농산품을 가정에 즉시 배달해 주는 택배(宅配) 제도를 도입, 운영키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조선일보 94.8.31. 29면>

진금률

그는 연대장 시절부터 함께 근무했던 소장교의 명단과 진금률을 조사해 제시했다. <조선일보 94.10.9. 4면>

진보성

崔 판사는 또 이들이 결국 자진해서 구인에 응하거나 출석 진술해,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불구속 처리키로 한 타 교수와 비교해 진보성의 정도가 두드러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조선일보 94.9.1. 30면>

진지화

국방부는 27일 일산 신도시가 진지화 개념에 따라 건설됐다는金玉川 의원(民主) 주장과 관련, 『계획 단계에서는 군사적 방어 측면을 고려한 것이 사실이지만 공사가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주민 편의를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운하 건설, 대공포 진지 구축 등 군사시설 건설 계획을 대부분 백지화했다』고 밝혔다. <동아일보 94.9.28. 2면>

진출권

준플레이오프 2차전서 선발 이상목의 호투 속에 해태 내야진의 실책을 파고 든 이정훈 김상국의 맹타로 해태에 5대 3으로 재역전승, 2승으로 플레이오프 진출권을 따냈다. <조선일보 94.10.5. 27면>

진폐

상당한 위조 기술이지만, 진폐가 질기고 탄력성이 있는 반면, 이 위폐들은 모조지라서 투박하고 잘 찢어졌다. <조선일보 94.9.7. 31면>

진흙사태

필리핀 피나투보 火山 능선에서 쏟아져 내린 진흙사태로 25일 현재 23명이 사망하고 1천4백동의 가옥이 매몰됐으며 필리핀 당국은 軍 헬기를 투입해 나무 지붕 위에 대

피해 있는 주민들의 구조를 계속하고 있다.
<동아일보 94.9.26. 4면>

질책성

仁川 북구청 사건으로 드러난 공직자 부정 부패 및 「지존파」 사건과 관련, 내각에 대해서는 좀더 잘하라는 질책성 독려를 했고, 국민들에게는 미안하다는 사과와 함께 좀더 잘하겠다는 다짐이었다. <조선일보 94.9.23. 3면>

집념파

남자팬들 가운데는 일년 동안 기다려온 '집념파'도 적지 않다. 3일 잠실구장에서 교환권을 받은 김상훈 씨(27·서울산업대 산업안전 4년)는 “지난해에는 생일날 홈경기가 없어 그냥 넘어갔는데 올해는 홈경기가 있어 걱정하고 왔다”면서 “친구들과 같이 와서 선물을 받으니 더욱 기분이 좋다”고 환하게 웃었다. <스포츠조선 94.8.9. 19면>

집단촌

파르티잔스크는 1870년대에 처음 이주한 한인들이 산 좋고 물 맑은 고향땅을 연상시킨다 해서 '수청(水淸)'이라고 이름붙였다. 그러다 1937년 강제 이주 때 쫓겨난 땅에 이제는 한국 공단의 진출 등을 계기로 다시 집단촌을 형성하려는 것이다. <한겨레신문 94.8.22. 4면>

집중화

그는 『결론적으로 대형화 컬러화 집중화가 신문 광고 호황을 낳았다』고 분석하고, 『이같은 호황의 이익을 다매체 시대의 환경변화에 대비한 연구 투자의 기회로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조선일보 94.10.11. 17면>

집합목

불박이장은 대개 集合物(집합목·MDF)으로 만든 미닫이문과 역시 집합목과 철재로 만든 내부 칸막이로 구성되어 있으며 장롱과 달리 방바닥부터 천장까지를 커버, 방안을 한결 깨끗해 보이게 한다. <조선일보 94.10.13. 21면>

징수액

경기 회복세를 반영, 올해 국세 징수액이 당초 예상보다 9천5백14억원 가량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된다. <조선일보 94.9.27. 10면>

쫓쫓거리다

일행이 『그만뒤요. 그만뒤. 세상이 가르치는 걸 개들만 나무란다고 될 일이오』하며 체념투로 만류했다. 행인들 역시 쫓쫓거리며 한마디씩 했고, 아이들은 뒤를 힐끔거리며 사라져 「사건」이 일단락됐다. <조선일보 94.9.29. 15면>

쫓통더위

쫓통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어슬렁족'이 늘고나고 있다. 어슬렁족이란 시원한 곳을 찾아 시간을 보내며 더위를 피하는 일종의 암채족으로 '민폐'까지 끼치고 있어 원성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스포츠조선 94.8.2. 19면>

天

차별화

지하 4층 지상 10층에 매장 면적이 약 5천평인 경방필은 각각 84년과 91년에 문을

연 신세계와 롯데에 비해 뒤늦게 뛰어든 불리함을 차별화 전략으로 극복하겠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즉 소비자들에게 다른 백화점들보다 고급이라는 이미지를 심어줌으로써 이 지역의 고소득 소비자들을 끌어들이겠다는 전략이다. <한겨레신문 94.8.27. 6면>

차세대

그 배경을 놓고서도 '집중 포화를 예방하고 장래를 위해 비축해 놓는 보호용 퇴각이다', '차세대를 겨냥한 듯한 행보와 대통령 차남 현철 씨와의 불화로 인한 패섬죄 적용이다'는 등 관측이 엇갈렸다. <시사저널 249 21면>

차차선택

次次善策으로는 울산시와 울산군을 통합하는 都農 통합으로 직할시 승격을 대체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조선일보 94.9.9. 4면>

참정치

공산주의 몰락 후 동구권 국가들 사이에는 갑자기 찾아온 자유로 인해 인간의 모든 사악함이 분출되는 예기치 못한 상황들이 연출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 중략 - 그는 주위의 정치인들이 너무 쉽게 사회적 대세론이나 관습에 압도돼 참정치를 포기하고 만다고 안타까움을 나타내기도 했다. <동아일보 94.9.24. 14면>

참치잡이

소설가 千金成 씨(53)가 참치잡이 원앙어선 어부로 「취업」했다. <조선일보 94.10.5. 21면>

창구역

姜 씨는 불어에 능통, 대우의 아프리카 진출 창구역을 맡았다. <조선일보 94.10.13. 1면>

채용박람회

미국에선 『Job Fair』로 잘 알려진 채용박람회는 국내외의 한 장소에서 일정 기간 여러 기업들이 부스를 설치, 각종 홍보물로 회사 소개를 하고 지원서를 배부하며 직접 면접까지 하는 동시에 합동으로 회사 설명회를 갖기도 한다. <조선일보 94.8.23. 11면>

채택료

李協 의원(민주)는 -중략- 『부교재 채택료는 정가의 20~30%로, 이를 근절할 경우 부교재 값을 25% 인하해 학부모 부담을 2천억원 절감할 수 있다』고 주장. <조선일보 94.9.29. 5면>

챔피언티

독일계 이민 2세인 레니 하이켄(22). 최근 미국 일리노이주 메타모라서 벌어진 일리노이 오픈 남자 대회에서 그녀는 남자와 똑같이 챔피언티(백타)를 사용한 채 예선 2라운드 합계 9오버파 1백53타(79-74)를 마크, 본선에 진입해 미국 매스컴들로부터 「여걸」 대우를 받고 있다. <조선일보 94.9.17. 26면>

처녀우승

한국 대표로 출전한 서울시 선발팀은 미국 인디애나주 라파예트서 끝난 94 콜트리그 월드컵 결승서 미국의 마운틴 플레전트 미시간팀을 4대3으로 꺾고 이 대회 처

녀우승을 차지했다고 선수단이 18일 알려졌다. <조선일보 94.8.19. 25면>

첨단범죄

지존파 및 溫保鉉 사건에서 보듯 최근 범죄꾼들이 자동차 등을 이용, 전국을 무대로 첨단범죄 행각을 벌이고 있어 지금과 같은 영성한 공조수사 체계로는 대형 강력범죄에 대처할 수 없다는 게 수사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동아일보 94.9.30. 30면>

첩보성

다른 하나는 조용필이 뮤지컬 연기를 발표하던 날 경찰에 제보됐던 첩보성(?) 루머. 「폭력배에게 시달리던 조용필이 양심선언을 하기로 해 폭력배들이 테러를 할 것」이란 내용이다. <조선일보 94.9.1. 16면>

청렴도

의정감시센터는 국회 상임위원회별로 전문위원단을 구성, 여야를 구별하지 않고 국회의원들의 의정 활동에 초점을 맞추어 발언 법안 제출 청렴도 등을 기준으로 평가 작업을 진행하게 된다. <동아일보 94.8.16. 31면>

청렴성

공직자는 법을 집행하고 맡은바 행정 업무를 양심적으로 수행하는 국민의 대리인이며 公僕이다. 공직자의 양심은 正直性和 清廉性이다. <동아일보 94.10.2. 3면>

청색경찰

이 중에서 청색 셔츠를 입었다고 해서 ‘청색경찰’이라고 불리는 4백여명은 자치에 대비해 퇴역 계릴라나 현지 자원자 중에서

새로 뽑은 사람들이다. 나머지 2천여명은 해외에서 활동하던 팔레스타인 해방군들이다. 녹색 베레모를 쓴 이들을 ‘녹색경찰’이라고 부른다. <한겨레신문 94.5.20. 1면>

청춘스타

CF 모델 출신의 연기자로 훗날한 키와 도전적인 눈빛이 인상적인 이정재는 지난해 SBS TV 드라마 <공룡선생>으로 연기 무대에 입문, 현재 KBS 2TV 드라마 <남자는 외로워> <느낌>에 출연하며 주가를 높이고 있는 차세대 청춘스타 <일간스포츠 94.8.1. 18면>

청탁성

그의 매니저 장영수 씨는 “열성적인 팬들에게서 양담배 콘서트에는 출연하지 말아달라는 청탁성 전화가 적잖이 걸려온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겨레신문 94.8.25. 11면>

청티셔츠

혈령한 청바지와 청티셔츠 그리고 발목까지 올라오는 하얀 운동화 차림으로 소탈하게 자신을 드러내 보인 그의 표정에선 마치 무거운 짐을 벗어놓은 듯한 홀가분함과 반환점에 다달아 완주의 의지를 다지는 마라톤 주자의 결연함이 배어 있는 듯했다. <한겨레신문 94.9.2. 12면>

체감지수

그는 『일부 블루칩 위주로 주가가 올랐을 뿐 일반 투자자들이 느끼는 체감지수는 5백선』이라며 『일반 투자자들이 가세하지 않은 채 종합주가지수 1천 포인트 돌파는 힘들다』고 말했다. <조선일보 94.9.7. 11면>

채불임금

올 추석도 예외없이 우울하다. 추석을 열흘 앞둔 10일 현재 채불임금이 5백17억원이라는 노동부 집계다. 8월말보다는 다소 줄었으나 지난해보다는 10% 늘어난 액수로 채불 사업장이 2백39곳, 해당 근로자가 2만5천여명이다. <동아일보 94.9.16. 3면>

체인점

정치인과 정치 깡패의 함수 관계, 정치 공작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던 지난 87년 4월 통일민주당 창당 방해 사건의 주역 金龍南씨(44)가 햄버거 체인점 대표이사로 취임한다. <동아일보 94.9.2. 29면>

체인화

이 같은 사주의 과학화는 『체인화』뿐 아니라 『표준화』도 가능케 했다. 전국 어느 지점에서 사주를 보더라도 같은 결과를 얻기 때문이다. <조선일보 94.8.27. 27면>

초강경

김화남 경찰청장이 지난 30일 민자당사에서 열린 경찰청 소관 예산안 심의 자리에서 “폭력 시위를 근본적으로 척결하는 방법은 총을 쏘는 수밖에 없다”는 초강경 발언을 해 물의를 빚고 있다. <한겨레신문 94.9.1. 23면>

초강대국

중국을 상대로 한 인권 외교에서는 고개를 숙이는 모습을 보였다. 분쟁의 늪에 빠지지 않으려고만 애쓴 나머지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이란 位相(위상)은 지금 실감이 나

지 않는 상태다. <조선일보 94.9.17. 3면>

초고속

지금까지 맞고소 대열에 참여한 사람들은 5·6공 시절 군부나 정계, 재계 등에서 초고속 승진과 출세가도를 달렸다는 공통점이 있다. <한겨레신문 94.9.1. 22면>

오리지널과 마찬가지로 두 사람의 하모니가 일품이 이 곡은 빌보드 싱글 차트 30위권으로부터 데뷔해 2주만에 6위에 랭크되는 초고속 상승세를 보이면서 정상을 넘보고 있다. <조선일보 94.9.15. 19면>

초고속정보통신망

전세계 규모의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 등을 논의할 제14차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전권 위원회가 전세계 1백84개 회원국 1천3백여명의 통신 전문가들이 참가한 가운데 지난 19일 일본 교토에서 시작돼 다음달 14일까지 계속된다. <한겨레신문 94.9.22. 12면>

초극세

(주)코오롱은 기존 초극세 섬유에 단점을 보완한 새로운 나일론-폴리에스테르계 초극세 섬유인 「텔리시아」를 개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조선일보 94.10.1. 11면>

초긴장상태

서울의 한 민을 만난 고위 외교 소식통은 23일 “지난 19일 밤부터 20일 새벽 사이에 외국 공관이 밀집돼 있는 지역에 「김정일을 타도하자」는 제목의 전단이 뿌려져 평양 당국이 초긴장상태”라고 전했다. <동아일보 94.8.24. 3면>

초년생

이러한 혼선은 결국 우리가 국제 정치 초년생이다 못해 무학자나 다름없는 상태에서 받는 「문화적 충격」인 것이다. <조선일보 94.9.17. 5면>

♣ 의미가 다름

초대작

근육질의 대형 액션 스타 돌프 룬드그랜이 '지옥의 혈투'를 시작한다. 스포츠 액션 드라마로 전세계의 화제를 모으는 펜타트론(원제 Pentathlon). 자유를 꿈꾸는 동독 출신의 올림픽 스타가 미국으로 망명, 그를 추적하는 테러 집단과의 목숨 건 대혈투가 통쾌하게 펼쳐지는 액션 초대작. <일간스포츠 94.6.5. 13면>

초대형작

'마스크'는 뉴라인 시네마가 5천만 달러의 막대한 제작비를 투입, 메이저급 흥행 영화사로 급부상하기 위해 기획된 초대형작으로 미국 2천여 극장에서의 개봉과 동시에 박스 오피스 상위 순위에 랭크된 화제작이다. <스포츠조선 94.8.20. 23면>

초동수사

검찰은 이와 함께 安 씨 등이 입건된 지난 3일 이후 핵심 인물의 가택과 사무실에 대한 경찰의 압수 수색이 한번도 실시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물증 미확보를 이유로 경찰에 출두한 安씨를 귀가 조치하는 등 초동수사를 소홀히 한 경위도 조사 중이다. <동아일보 94.9.16. 31면>

초범성

29일 통일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與野 의원들은 李洪九 부총리 주재 통일안보정책 조정회의의 超法性 문제를 추궁. <동아일보 94.9.30. 4면>

초베스트셀러

초베스트셀러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를 영화화(우진 필름 제작)하는 정진우 감독이 국립묘지측의 촬영 거부로 촬영 스케줄에 차질을 빚고 있다. <스포츠조선 94.7.28. 27면>

초슬림형

경동보일러 역시 예약 난방이 가능한 두께 14.8cm의 초슬림형 강제급배기식 신상품 「새턴」을 내놓았으며 <조선일보 94.9.5. 21면>

초승달눈

심각한 표정을 바꿔 금방 능청스럽게 웃음을 만들어내는 그를 보면 과연 타고난 웃음꾼이라는 느낌이 든다. 살짝만 웃어도 감은듯 보일락말락하는 초승달눈과 작달만한 키. <스포츠조선 94.10.13. 21면>

초일류

세계 초일류라고 자부해 온 일본 기업들이 오늘날 직면하는 국내외적인 경쟁 상황은 냉엄해져 위기감마저 팽배하다. <조선일보 94.9.5. 5면>

우선 살인, 강도, 조직 폭력, 마약, 유괴, 납치, 인신매매, 자연 훼손, 유해 식품, 방화... 등 강력 범죄에는 미국의 FBI같은 고도의 전국적 수사 체제로 대응했으면 한다. 그러려면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초1류」로 만들어야 하는데 그 돈은 국민부담을 늘려서라도 마련해야 한다. <조선일보 94.1

0.1. 5면>

초저주파

비살상무기는 일시적으로 적을 무력화시키는 기술에서부터 군사 장비를 못 쓰게 만드는 무기까지 다양하다. 초저주파 빔을 발사하는 「인프라사운드」 스피커는 건물 속에 숨어있는 테러리스트를 제압하는 데 위력적이다. <조선일보 94.10.5. 23면>

초진공

아폴로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부분에서 신기술의 개발이 필요했다. 엄청난 추진력을 가진 새 엔진이 개발되어야 했으며 정확한 궤도 진입을 위한 제어 기술, 내구성, 내열성이 뛰어난 신소재 개발이 이루어져야 했고 무중력 초진공 상태에서 인간활동을 가능케 하는 기술들이 고안되어야 했다. <동아일보 94.9.8. 6면>

촌방

70년 전북 도립 전주병원 외과과장으로 일하게 된 그는 병원 뜰에 지푸라기로 촌방을 꾸며 국악인들을 초빙해 국악을 배우고, 간호원들에게도 무조건 배우게 했다고 한다. <조선일보 94.8.29. 16면>

총발휘하다

회사측은 또 이들에게 월급제가 아닌 「성과급 연봉제」라는 인센티브를 제공, 이들이 자신의 실력을 총발휘하도록 배려한다. <문화일보 94.9.14. 9면>

총체극

朝鮮日報사는 예술의 전당, 서울방송과 공

동으로 「국악의 해」를 맞아 국악 창작 총체극 「영고(迎敵)」를 10월 20일부터 26일까지 7회에 걸쳐 예술의 전당 오페라 극장 무대에 올립니다. <조선일보 94.10.9. 1면>

최강경파

알제리의 반정부 이슬람 원리주의 세력 중 최강경파인 『무장이슬람그룹』이 26일 대테정부 수립을 선포했다. <조선일보 94.8.27. 7면>

최고위층

밀라노에서 사정 작업을 지휘해 온 보렐리 검사는 이날 한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베를루스코니 총리 소유의 언론 재벌 피닌베스트가 10%의 지분을 갖고 있는 텔레피우 유료 TV 채널에 대한 수사가 정계와 재계의 최고위층 수준까지 확대될 수 있다고 밝혀 베를루스코니 총리에 대한 수사 가능성을 시사했다. <조선일보 94.10.7. 7면>

최단기간

해마다 노사 분규와 조업 중단이 악순환을 되풀이해 온 현대자동차가 올해 임금 협상을 최단기간 무분규 타결로 마무리한 것은 현 노조 집행부가 과거 투쟁 중심에서 벗어나 산업 평화와 생산성 향상을 중시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국일보 94.9.15. 11면>

최루액

대회를 불법으로 규정, 강제 해산에 나선 경찰은 이날 오후 1시 20분경 병력을 교내에 투입하지 않는 대신 헬기 5대를 동원, 1시간여 동안 잔디 광장 등 교내 곳곳에 최루액 4천l를 살포했으며 대회 참가자들은 소방 호스를 끌어내 공중으로 물을 쏘아댔

다. <동아일보 94.8.16. 31면>

최빈곤층

거택 보호자의 경우 1인당 지원액이 월 6만5천원에서 7만3천원으로 겨우 8천원 올랐다. 정부 추정 최저 생계비에도 크게 못미친다. 이래가지고야 건강하고 문화적인 국민적 최저생활을 보장한다는 생활보호법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우리 사회도 이제는 최빈곤층에 대한 최저생활을 심도있게 생각해야 할 때가 됐다. <동아일보 94.9.12. 3면>

최상위권

중국은 모든 개발도상국을 뛰어넘어 주요 국제적 기업들의 최상위권 투자 대상국으로 부상했으며 오직 미국에만 뒤지고 있을 뿐이라고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가 31일 보고했다. <조선일보 94.9.1. 10면>

최신예

전선위의 참새, 스테이크 아웃 등으로 유명한 존 바담이 조스 시리즈에서 열연한 로이 사이더를 주연으로 캐스팅해 만든 작품으로 F16 전투기도 격추시키는 최신예 헬리콥터의 위력을 과시하는 경찰 액션 영화. <한겨레신문 94.5.20. 20면>

최악질

그가 자수했음에도 스웨덴 언론과 일반 대중은 그를 '최악질의 배반자'라고 비난하고 있다. 일부 언론에서는 그의 귀국이 "레바논 생활보다는 스웨덴 감옥의 생활 조건이 훨씬 낫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라고 비아냥거리고 있다. <한겨레신문 94.8.16. 12면>

최약체

여자 양궁은 70년대 후반 세계 무대를 휩쓸 때부터 김진호-서향순-김수녕-조윤정 등 독기 서린 에이스가 버팀목으로 뒤를 지켰으나, 현재 1진 이은경과 임정아, 한희정, 강경옥은 테크닉-승부근성에서 최약체로 평가받았다. <조선일보 94.10.11. 26면>

최우선시하다

또 다른 재단 관계자는 『金 이사장은 우리 정부가 北核 해결에 자국의 이해를 최우선시하는 美-日 등의 계산을 간과함으로써 외교적 고립과 실패를 자초하는 점 등에 대해서도 자신의 입장을 밝히게 될 것』이라고 말해 <조선일보 94.9.3. 4면>

최우선적

배기가스·소음이 없고 폐차 후에는 부품이 전량 재활용되는 무공해차를 만들자. 최우선적인 목표는 휘발유가 필요없는 차. <중앙일보 94.10.4. 8면>

최적적

그럼에도 일본 기업들이 한국에 관심을 갖는 것은 한국이 숙련된 노동력과 사회기반시설, 기술력 등에서 동남아나 중국보다 한 단계 위이기 때문이다. 정해진 기간에 고품질을 갖춘 제품을 납품할 수 있는 곳으로는 한국이 최적적이다. <한겨레신문 94.9.1. 8면>

최적임자

이들 4인의 始發走者들은 나름대로 초대민선 서울 시장으로서 「최적임자」임을 내

세우고 있다. <조선일보 94.9.5. 4면>

최적지

IOC(국제 올림픽 위원회)가 지난 3월 「푸른 지구를 지키는 데 스포츠도 동참한다」는 기치로 환경 스포츠를 선언한 이후 처음 열리는 아시안 게임 장소로서 最適地(최적지)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히로시마. <조선일보 94.10.7. 27면>

최하위

태평양은 팀 타율 0.246으로 8개 구단 중 최하위지만, 4년 연속 3할대에 도전하는 노장 윤덕규와 장거리포 김경기·김동기를 축으로 한 타선의 득점력이 돋보였다. <한겨레신문 94.9.17. 11면>

최하위권

반면 최하위권인 라오스와 푸에토리코계의 자영업자 비율은 4%로, 아프리카계나 中美 흑인 여자들은 2%에 불과했다. <조선일보 94.9.27. 1면>

최후방

유상철은 올해 프로 무대에 데뷔한 새내기지만 비쇼베츠의 과감한 용병술에 의해 수비 핵심 스위퍼로 기용돼 안정감 있는 플레이와 최후방을 든든하게 지켰다. <한겨레신문 94.9.26. 15면>

추가점

선발 송진우는 4안타로 완투, 8승채를 챙겼고 한화는 1회 더블스틸로 선제점을 얻은 뒤 4회 김상국의 적시타로 추가점을 뽑았다. <조선일보 94.9.1. 27면>

추계치

지난 2분기(4~6월) 중 GNP 추계치를 통해 국내 경기를 정리하면 세 가지 특징으로 요약된다. <조선일보 94.8.25. 3면>

추대증

대한교육보험과 교보문고 창업자 愼鏞虎(78·신용호)씨가 美 엘라배마大로부터 「최고명예교수」(Distinguished Honorary Professor)로 추대돼 12일 서울 본사에서 추대증을 받았다. <조선일보 94.10.13. 23면>

추상령

94년 7월말에 이르러 그동안 13~14%선에서 보험세를 유지해 오던 콜금리가 갑자기 20%로 경총 뛰어넘는가 싶더니 8월 초에 25%라는 최고치를 기록하고는 드디어 모든 금융기관이 「기업 어음 할인 중단 조치」라는 추상령을 내리고 말았다. <동아일보 94.8.30. 19면>

추진론자

물론 김윤환 의원을 비롯해 경남·북 출신 의원들의 반발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지만 추진론자들은 별로 개의치 않는 분위기다. “대세는 기울었다”는 것이다. <한겨레신문 94.9.6. 3면>

출장자

삼성은 이미 봄베이 지사에 페스트 치료약과 백신을 공수한 데 이어, 뉴델리 지사에도 공수를 추진하고 있으나 본사 출장자들이 출장 계획을 모두 취소해 버려 마땅한 수송편이 없어 고민하고 있다. <조선일보 94.

9.29. 6면>

출전장

만수르의 최근 기록은 지난 6월 4일 열린 레이스에서 올해 아시아 최고 기록인 10초 17을 마크, 자신의 최고 기록에 불과 0.03초 뒤지는 기염을 토했다. 만수르는 이번 대회서는 1백m 외에 2백m에도 출전장을 내놓고 있다. <조선일보 94.10.5. 26면>

춤방

흔히 '춤방'이라고 불리는 이들 무허가 댄스 교습소는 1인당 2천~3천원의 입장료를 받고 춤을 배우러 온 손님들에게 술을 팔거나 불륜을 조장하기도 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스포츠조선 94.6.17. 19면>

취역시키다

지구상에서 가장 높이 가장 빨리 날았던 미국의 전락 정찰기 SR 71(일명 블랙버드·검은 새)이 퇴역 4년여 만에 다시 등장하게 됐다. 미국이 만만치 않은 비용을 감수하면서 블랙버드를 다시 취역시키기로 한 것은 동북아 지역의 군사 정세가 냉전의 종식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에 놓여 있어 더욱 정밀한 정보 수집 필요가 대두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겨레신문 94.8.28. 2면>

취재물

눈길을 끄는 것은 경기 중계 중간중간에 독자적인 기획 취재물을 삽입한다는 전략. 여기에는 「일본의 스포츠팀」 「위대한 한국인 노정윤」 「원폭박물관」 「히로시마 평화

공원」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조선일보 94.9.27. 16면>

치실

따라서 칫솔질과 치실 사용을 더 조심스럽게 해야 하며 잇몸이 부으면 즉시 치과 치료를 받아야 한다. <조선일보 94.9.11. 17면>

치안력

시민들은 富의 고른 분배나 인성 교육 같은 장기 처방도 좋지만 당장 길이라도 마음놓고 걸을 수 있는 최소한 치안력만이라도 갖춰달라고 아우성치고 있다. <조선일보 94.9.29. 29면>

친북성

검찰은 한총련의 친북성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로 △ 지난 2월 한총련 1차 정기중앙회에서 있었던 '주체의 위업을 확고히 견지하면서 사회주의 단계로의 진입 주장' △ 3월 통일 일꾼 전진대회에서의 '북한과 남북한 특사 교환과 최고위급 회담 지지 표명' △ 4월 한총련 대의원 대회의 '북한의 자주적 평화통일 방안 지지 주장' 등을 제시하고 있다. <한겨레신문 94.5.20. 18면>

친환경적

이들은 선언에서 『대학이 감내해야 할 자기 혁신 가운데 가장 시급한 것이 친환경적 삶의 연습』이라고 전제, 『관념적 구호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생활 습관의 변화를 포괄하는 환경 회복 운동에 연세인 모두가 적극 동참할 것』을 제안할 계획이다. <조선일보 94.9.11. 27면>

침묵파

국방위에서는 -중략- 崔炯佑 李漢東 黃明秀 金宗鎬 의원(이상 민자) 등 4명은 전혀 발언하지 않은 「침묵파」로 나타났다. <조선일보 94.9.7. 4면>

침술사

『가능하면 이제 깜짝쇼 같은 것은 사양하겠다』는 그는 요즘의 무분별한 외래 기공에 대해서도 뼈아픈 한파디를 잊지 않았다. 『기합 한번 주면 만병통치라는 중국 침술사들이 범람하고 있습니다. 기공은 절제된 생활과 적당한 운동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조선일보 94.9.17. 27면>

ㄱ

카드깡

유령 카드 가맹점을 차려 놓고 실제로 물건을 판 것처럼 매출 전표를 작성한 뒤 13~16%의 선이자를 떼고 카드 가입자에게 돈을 빌려준 속칭 카드깡 업자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동아일보 94.9.6. 31면>

카드화하다

정부가 최소한으로 추산하는 대체 에너지 공급 비용은 약 3천만달러 정도이다. 그러나 북측이 이 요구를 카드화할 경우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 <조선일보 94.8.17. 3면>

카레이싱

테니스와 카레이싱이 취미인 몽혁 씨는 재계에서는 보기 드문 연애결혼 예찬자인 큰 아버지의 '권유'에 따라 평범한 집안의 규

수로 동갑내기인 이문희씨와 결혼했다. <영레이디154 398면>

카보캐타이온

☞ 탄소양이온

카센터

시는 특히 카센터 예식장 대형 음식점 주변과 청계천로, 을지로, 용산 전자상가, 문래동 공구상가 등을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조선일보 94.8.31. 29면>

카우보이룩

요즘은 남녀노소 구분없이 청바지를 즐겨 입는다. 유행 패턴도 댄디룩, 카이보이룩, 탈색 진, 가죽 진 등 실로 다양하다. <스포츠조선 94.9.5. 25면>

카토키

자동차용 간이식탁, 자동차끼리 통화할 수 있는 카토키, 운전석 팔걸이 등 저마다 편한 여행을 내건 이들 용품들은 대부분 중소기업의 특허품들이다. <조선일보 94.9.15. 21면>

카폰

그러나 이동통신 관계자들은 이러한 시설 증설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유선 전화와 달리 무선을 이용한 이동전화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실제 휴대폰과 카폰을 이용하는 가입자들의 올바른 이동전화 사용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조선일보 94.9.15. 14면>

칼잡

지방에서 적게는 5천명, 많은면 수만명이

몰려온다, 방마다 미어터지기 때문에 「칼
잠」을 자지 않을 수 없다. <조선일보 94.9.7. 2
면>

캐리어우먼

광고회사에 근무하는 유능한 캐리어우먼인
데, 때로는 냉정하게 때로는 열정적으로 일
과 사랑을 펼쳐 나가는 역할이에요. <영레이
디154 335면>

캐이터링

한국에선 아직 생소하지만 이른바 캐이터
링(CATERING), 또는 단체 급식 사업이
연간 2조원 규모로 커지면서 신종 유망 업
종으로 각광받고 있다. <조선일보 94.9.25. 11
면>

캐치세일즈

최근 들어 유인판매(캐치세일즈)로 인한 소
비자 피해가 크게 늘어 대책 마련이 시급
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중략- 캐치세
일즈란 역 주변이나 번화가에서 주로 여성
이나 미성년자, 노인에게 다가가서 설문 조
사, 사은품 제공 등을 빙자해 인근 차량이
나 사무실로 끌어들인 뒤 회유나 속임수,
강압적인 방법으로 상품을 파는 방식이다.
<한겨레신문 94.8.25. 10면>

캠페인성

MBC의 한 간부는 6일 이같이 밝히고, 『그
러나 초상권 침해나 폭력적인 장면 등 그
동안 지적됐던 문제점들은 대폭 수정할
것』이라며 『특히 「경찰청 사람들」은 범죄
예방을 위한 캠페인성 내용으로 방향을 선
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조선일보 94.10.7. 1

9면>

커리어여성

현재 중앙대 신방대학원에서 공부중. 서울
농협 청계 지점장으로 계신 아빠 밑에 1남
2녀의 막내로 결혼 후에라도 MC를 계속하
고 싶은 커리어여성이다. <스포츠조선 94.10.4.
21면>

커버링하다

깡통 종류를 이용하여 꽃병을 만들 때는
커팅시트로 커버링하거나 지점토 공예를
할 때 사용하는 점토를 사다 찰흙으로 만
들기를 하듯이 깡통 표면에 붙여나가면 된
다. 색을 입히고 싶다면 염료를 사용한다.
<여성중앙300 278면>

커버스토리

지난 5월은 에이즈가 알려지기 시작한 86
년 이래 가장 많은 14명의 감염자가 발견
된 달이었다. 치료제도 예방약도 없는 에이
즈에 대한 시민의 두려움은 매우 크다. 이
러한 때에 감염자가 직접 증언하는 에이즈
관련 커버스토리는 시의 적절한 기사였다
고 생각한다. <시사저널245 4면>

커팅

이날 모임은 姜 총재의 연임 축하 케이크
커팅과 주체자인 朴承復 대한적십자사 서
울 지사 회장의 제의에 따른 건배, 오찬의
순으로 1시간 30분간 이어졌다. <조선일보 9
4.8.13. 17면>

커팅시트

깡통 종류를 이용하여 꽃병을 만들 때는

커팅시트로 커버링하거나 지점토 공예를 할 때 사용하는 점토를 사다 찰흙으로 만들기를 하듯이 강통 표면에 붙여나가면 된다. 색을 입히고 싶다면 염료를 사용한다. <여성중앙300 278면>

컨테이너화하다

마산항 제4부두는 컨테이너화하고 시멘트나 철재를 취급할 일반 부두 확충. <조선일보 94.9.9. 28면>

컨트리풍

이선 씨 댁을 소박한 컨트리풍 실내로 이끄는 주역은 다름아닌 나무 고유의 결과색상을 그대로 살린 벤치형 원목 의자다. <여성중앙300 259면>

컬러링

우중충한 가을 날씨를 환하게 해 줄 것 같은 밝고 따뜻한 불론디 컬러링. 요즈음의 컬러링은 개인의 피부색에 어울리는 자연주의 경향의 색을 사용하는 것이 유행이다. <여성중앙300 669면>

컬러풀하다

컬러풀한 공들, 쉽게 배울 수 있는 레저 스포츠. 포켓볼이 남녀 대학생들 사이에 '신종 인기 종목'으로 크게 각광받고 있다. <스포츠조선 94.8.20. 21면>

컬러화

그는 『결론적으로 대형화 컬러화 집중화가 신문 광고 호황을 낳았다』고 분석하고, 『이같은 호황의 이익을 다매체 시대의 환경 변화에 대비한 연구 투자의 기회로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조선일보 94.10.11. 17면>

컴맹

세계가 한지붕인 정보화 시대에 살면서 외국 기업인들은 비행기든 대기실이든 시간만 있으면 노트북컴퓨터를 사용하며 잠시라도 업무 수행에 여념이 없는 모습을 볼 때 우리 기업인들도 그들과 당당히 맞서 국제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컴퓨터와 친숙한, 즉 컴맹에서 벗어나야 하겠다. <동아일보 94.8.22. 12면>

컴백시키다

민자당의 민주계 출신 한 당직자는 『金대통령은 丁부총리를 작년 10월 교통장관으로 컴백시키고, 두 달 뒤 부총리로 임명하면서 신경제를 이끌어 갈 인물로 주변에 얘기했다』면서 『그러나 들어오자마자 공공요금 인상 문제로 金대통령과 호흡이 맞지 않더니 결국 페이스를 조절하지 못한 것 같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중앙일보 94.10.4. 5면>

컴포넌트소프트웨어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기능을 선택하는 '조립형 소프트웨어'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 소프트웨어를 사는 사람이 조각 그림 맞추기를 하듯 원하는 기능들을 합쳐, 자신의 용도에 가장 적합한 소프트웨어를 직접 만드는 '컴포넌트소프트웨어'가 새롭게 각광받고 있는 것이다. <한겨레신문 94.9.29. 11면>

컴퓨터장이

도서관 전산화를 전문으로 하던 컴퓨터장이에서 출발해 고압 액체 크로마토그래피

(HPLC)라는 화학 분석 시스템을 상품화해 화제가 된 사람. 오롬테크의 백태현(39·사진) 사장이 그 주인공이다. <한겨레신문 94.9.29. 11면>

컴퓨터화

삼성전자의 경우는 일본 도시바와 제휴로 세탁기 생산의 컴퓨터화를 추진하고 있다. <조선일보 94.10.5. 10면>

코디네이션

코디네이션개념이 확산됨에 따라 메이커들은 세트로 만들어지는 옷도 다른 단품 의상과 바꿔 입을 수 있도록 신경을 썼다. <동아일보 94.8.20. 9면>

코디네이터

코디네이터 曹恩旌씨는 『환경 보존을 기본 생각으로 하면서 「홈 스위트 홈」 분위기를 듬뿍 풍기는 자연풍의 미국식 컨트리 스타일이 세계적으로 인기』라며 조화-미니어처 정원이 인기 품목이라고 전한다. <조선일보 94.9.9. 35면>

코디하다

예를 들어 의류는 값비싼 디자이너 브랜드 보다는 값이 싸면서도 자신이 직접 코디해 개성을 나타낼 수 있는 제품이 선호되고 음료수 하나를 선택해도 식물성 섬유 음료나 생수 미네랄워터 같은 과학수를 마신다. <일간스포츠 94.6.30. 31면>

코마케팅

두 개 이상의 회사가 공동으로 판매·판촉 활동을 전개하는 코마케팅(Co-Marketing)

이 폭넓게 확산되고 있다. 코마케팅은 동종 업종 및 異業種간에 상호 제휴를 통해 서로의 강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역할을 분담, 판매 실적을 높이는 새로운 영업 기법이다. <중앙일보 94.8.10. 29면>

코믹송

MBC TV 코미디 프로그램 「웃으면 복이 와요」에서 「블랙 커피」란 이름의 듀엣으로 코믹송 개그를 선사하고 있는 개그맨 전영준(33)과 김정희(31) 커플이 인기의 여세를 몰아 음반까지 냈다. <조선일보 94.9.25. 15면>

코믹터치

또 로빈 윌리엄스의 능청맞은 여장(女裝) 연기가 화제를 모은 「미세스 다웃파이어」는 아내로부터 별거당하자 아이들을 보기 위해 파출부로 들어가는 아빠의 눈물겨운 부정(父情)을 코믹터치로 그린 흥행작이다. <조선일보 94.8.31. 19면>

콜금리

추석을 앞두고 단기 자금 시장인 콜시장에서 기관 예금이 대거 빠져 나간 투금사들이 금리를 불문하고 자금 차입에 나섬에 따라 하루짜리 콜금리가 장중 한때 연 24%까지 오르기도 했으며 <조선일보 94.9.17. 10면>

콜레터

건설회사는 온갖 정보망을 동원해 특정 공사의 발주를 알아내면 즉각 입찰 자격을 가진 업체에 ‘콜레터’로 불리는 담합 권유문을 보낸다. 콜레터는 “공사 대상 지역 인근에 이미 공사한 실적이 있다”거나 “그룹

회장의 개인 소유지가 공사 대상 터 옆에 있다”는 등 자기 회사가 그 공사를 반드시 따내야 하는 이유를 열거하는 내용으로 돼 있다. <한겨레신문 94.10.10. 18면>

콩가루

고참병과 하사관, 장교가 졸병을 심하게 때도 문제가 되지만, 졸병이 장교를 때고 학생이 교수를 때린다면 그것은 체제 자체가 아예 콩가루가 돼 버리는 일이다. <조선일보 94.10.1. 5면>

♣ 의미가 다름

콩가루가정

시골 마을에서 식품점 배달원으로 일하는 길버트 그레이프(자니 뎀)의 콩가루가정이 소개된다. 아버지가 목을 매 자살했고 어머니는 2백kg이 넘는 절신증 환자다. 누나는 노처녀로 늙어가고 있고 철부지 여동생은 멋부리기에 바쁘다. 정박아인 남동생은 틈만 나면 높은 곳에 기어 오르는 말쑥꾸러기다. <문화일보 94.6.16. 16면>

크로스오버코디네이션

위, 아래 안과 밖을 서로 감각이 다른 품목의 옷을 입어 특이한 느낌을 기대하는 크로스오버코디네이션이 일반화되면서 스커트와 다리 구두 등의 하체 부분 연출에도 관심이 커지고 있다. <동아일보 94.10.2. 9면>

큰물

최근 한대화를 비롯, 최훈재-김영직의 출장 기회를 늘리고 소망수 김용수의 컨디션 점검하는 것도 「큰물에서 놀아 본 선수가 제 뒤통을 한다」는 야구계의 진리

확인에 다름 아니다. <조선일보 94.8.31. 25면>

♣ 의미가 다름

클래식하다

또 「너를 보내며」는 흑인 음악 리듬앤블루스를 가미한 발라드, 「나만의 이별」(이폴잎 작사, 김형석 작곡)은 팝 발라드, 「슬픈 사랑」(〃)은 클래식한 연주의 애조편 단조 발라드, 그리고 「오랜 이별 뒤에는」(김창환 작사, 신승훈 작곡)은 통기타와 현악기를 살린 포크 발라드다. <조선일보 94.9.15. 19면>

클렌징

얼굴 세안과 똑같이 클렌징을 하는 것이 좋다. 클렌징을 한 후에는 토닉이나 스킨, 로션으로 정돈한다. <여성중앙300 653면>

클로즈업되다

요는 이러한 것들을 뒤집은 것이 맞선에서 성공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최근에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여성이 새롭게 클로즈업되고 있다. 생존 경쟁이 심해졌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고, 남성들이 자신에게 예상하지 않았던 불행한 일이 생겼을 때, 이에 대처하기 위한 준비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영레이디154 383면>

키취

키취란 본래 독일어로 싸구려 복제품을 뜻하는 말인데, 나중에는 전위의 반대 개념 또는 순수나 고급 예술의 관점에서 하급 예술을 가리키는 등 시대 조류에 따라서 여러 의미를 갖는 말로 점점 그 성격이 바뀌어 왔다. 쉽게 설명하면 그 말은 작품의 저질성을 욕되게 표현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영레이디154 477면>

키친타월

우리 재향군인회 부녀부원들은 가정에서 기름찌꺼기를 키친타월 등으로 닦아 버리는 등 수질 오염 방지를 위한 조그만 실천 활동을 계속해 오고 있다. <조선일보 94.8.19. 28면>

키커

승부차기에는 양팀 각각 13명의 키커가 등장, 울들어 가장 치열한 승부차기 장면을 연출했다. <조선일보 94.8.27. 23면>

E

타건

힘있는 타건과 열정적인 연주 스타일로 국제 무대에서 활발한 활동을 펴고 있는 김씨는 앞으로 로린 마젤 지휘의 피츠버그 심포니오케스트라와의 협연을 비롯, 워싱턴 케네디센터 및 LA 뮤직센터 독주회 등 연주 일정이 짜여져 있다. <조선일보 94.8.17. 15면>

타구감

『라켓이 뽀개져라 하고 힘껏 후려치다 보면 네 스스로 타구감을 터득할 것이다.』 <조선일보 94.9.13. 27면>

탄소양이온

올해 노벨 화학상을 수상한 조지 올라 박사(67미국 남가주주립대 록커탄화수소연구소)는 현대 유기화학의 기초 물질인 탄소양이온(카보케타이온)을 발견하고 실험 방

법을 정립한 업적을 인정받았다. <조선일보 94.10.13. 6면>

탈가치

탈윤리 탈가치를 부르짖는 난해한 영화 속의 히로인으로 전격 캐스팅돼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정선경은 영화가 완성돼 개봉되기도 전 스타 탄생 바람을 예고하고 있는 주인공. <일간스포츠 94.6.30. 32면>

탈감정화

결론부터 말해 앞으로 韓-美 통상 관계는 그 기본적인 과제를 관계의 「脫感情化(탈감정화)」에 두어야 한다고 본다. <조선일보 94.9.11. 3면>

탈국가화되다

『세계 일류 기업들의 영업 행위는 사업 영역, 금융, 자원 조달면에서 어느 한 국가에 의존하지 않는 脫국가화되고 있다. 정부와 기업간 존재하는 시각차를 줄이기 위해 P BEC은 APEC의 동반자로서 아-태 지역 정책 수립 과정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 <조선일보 94.9.15. 23면>

탈규범적

일면 脫비판적이고 脫규범적인 이같은 연구 경향과 군부 체제의 억압성 등으로 인해 한국 정치학은 자유민주주의의 보호라는 임무에는 소홀했던 것이 사실이다. <조선일보 94.9.3. 6면>

탈규제

그 중에는 경쟁력만이 살 길이라던 문민정부의 성적표가 고작 이러하냐는 야유도 있

고, 이런 기회에 아주 정부의 코를 눌러서 탈규제의 '건지'를 챙기려는 재계의 속셈을 대변한 듯한 주장도 눈에 띄었다. <한겨레신문 94.9.13. 5면>

탈냉전

이런 탈냉전의 격랑 속에서도 우리 정부는 거꾸로 배를 저어가고 있다. 애초 북한과 미국의 줄다리기로 시작한 북한 핵 문제가 양쪽의 양보로 타결을 보고 있는 이 순간에도 정부는 북핵-경협 연계 고리를 풀지 않고 단계 해제론의 운을 떼고 있는 것이다. <한겨레신문 94.8.19. 3면>

韓 총장은 『한반도는 세계 최후의 냉전적 불관용 지점이므로 남북 정상만이 진정한 탈냉전을 선언할 자격이 있다』고 강조했다. 91년 몰타 미소 정상회담에서 발표된 탈냉전 선언은 한반도와 같은 냉전지대가 남아 있는 한 너무 이른 것이었다는 주장이다. <동아일보 94.9.28. 14면>

탈루액

鄭均桓 張永達의원(이상 민주) 등은 『감사원 감사 결과 적발된 지방세 탈루액만도 50억원이 넘는다면, 드러나지 않은 탈루액은 최소한 수백억원에 이를 것이라며 세무 비리의 근절 대책을 추궁. <조선일보 94.10.11. 4면>

탈모기

면도기 대신 나선형의 코일이 털을 제거해주는 전기 탈모기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영레이더154 441면>

탈문자

현대 사회와 미디어의 관계를 문화-사회-경제 등 다방면에서 진단한 토니 슈와르츠 著 『미디어 제2의 신』(리을 刊)을 심길중 서울예전 방송연예과 교수가 번역-출간했다. 탈문자 사회의 흐름을 전망한 이 책은 뉴스-캠페인-광고 등의 실무적 사례 연구와 2천년대의 커뮤니케이션 상황을 예리하게 분석했다. <조선일보 94.9.13. 17면>

탈북인

중국 등지를 유랑하면서 다른 탈북인들을 만난 적이 있다. 『중국을 떠돌 당시 북한서 나온 지 7~8년된 사람들도 많이 봤습니다. -하략- <조선일보 94.9.11. 26면>

탈비판적

일면 脫비판적이고 脫규범적인 이같은 연구 경향과 군부 체제의 억압성 등으로 인해 한국 정치학은 자유민주주의의 보호라는 입무에는 소홀했던 것이 사실이다. <조선일보 94.9.3. 6면>

탈역사화

스페인의 거장 카를로스 사우라 감독이 <안나 이야기>에서 그려내고 있는 것은 이제 유럽 영화에서 사라져 가고 있는 네오 리얼리즘의 정신이다. 이 영화가 서커스라는 팬터지의 공간에서 시작하는 것은 의미심장하다. 이것은 80년대 이후 탈정치화와 탈역사화를 내세운 유럽 영화들의 출발점이다. 사우라는 같은 공간에서 시작하지만, 그는 그곳에도 일상생활의 현실과 삶이 있음을 가르쳐 주기 위해 주인공 마르코를 신문기자라는 직업으로 배치해 희생자 안나를 바라보게 만든다. <한겨레신문 94.8.26. 11

면>

탈윤리

탈윤리 탈가치를 부르짖는 난해한 영화 속의 히로인으로 전격 캐스팅돼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정선경은 영화가 완성돼 개봉되기도 전 스타 탄생 바람을 예고하고 있는 주인공. <일간스포츠 94.6.30. 32면>

탈일상적

문화 영역에서도 脫일상적 예술을 지향하는 고급 문화보다는 매스미디어 문명의 대중 문화를 기호학적 방법으로 풀이하는 문화 비평이 각광받고 있다. <조선일보 94.9.3. 13면>

탈장르

우리 영화도 최근 들어 장르의 구분이 허물어지는 탈장르 현상이 두드러져 주목된다. 한마다리로 장르를 꼭 집어서 말할 수 없는 이른바 복합장르 형식을 추구하는 영화가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는 것. <일간스포츠 94.6.30. 32면>

탈정치화

스페인의 거장 카를로스 사우라 감독이 <안나 이야기>에서 그려내고 있는 것은 이제 유럽 영화에서 사라져 가고 있는 네오 리얼리즘의 정신이다. 이 영화가 서커스라는 팬터지의 공간에서 시작하는 것은 의미심장하다. 이것은 80년대 이후 탈정치화와 탈역사화를 내세운 유럽 영화들의 출발점이다. 사우라는 같은 공간에서 시작하지만, 그는 그곳에도 일상생활의 현실과 삶이 있음을 가르쳐 주기 위해 주인공 마르코를

신문기자라는 직업으로 배치해 희생자 안나를 바라보게 만든다. <한겨레신문 94.8.26. 11면>

탐미주의자

지난해 화제작 「복어대가리」를 썼던 이강백 씨가 쓴 극본을 「탐미주의자」 채윤일 씨가 연출하는 이 작품은 문민정부 출범 이후 계속해서 터져나오는 대형 사건들과 이데올로기의 혼돈 등 전반적 세태를 냉소적 시각에서 접근하고 있어 오늘의 상황이 어떻게 무대 위에 형상화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조선일보 94.9.23. 15면>

탐방로

종로구는 이 탐방로의 보도와 차도를 확장석, 컬러 아스팔트로 각각 시설하고 숫대형 가로등 15개, 썬지공원 4개소, 벤치 등을 설치해 쾌적한 보행로로 꾸미겠다고 28일 밝혔다. <조선일보 94.9.29. 28면>

탐재기

탐재기로는 F14 톰캣, F/A18호넷 각 20대씩, A-6E 인투루더 14대, E2C 호크아이 4대 등이 있고 씨 킹이나 씨 호크 같은 헬기도 함께 탐재하고 있다. <조선일보 94.9.15. 7면>

태권도계

태권도계를 '천하통일'한 세계태권도연맹(WTF)도 지금 전세계에 몇 개의 도장이 있으며, 몇 명의 한국인 사범이 해외에서 활동하는지 정확한 실태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다. <한겨레신문 94.9.6. 19면>

태권도인

여기에 공산권을 비롯한 여러 나라의 권력 기관에서 일하는 엘리트들의 고급 스포츠로서 자리잡으면서 태권도 인맥을 형성해 준외교수단으로도 활용된 전력도 간과할 수 없다. 스페인의 카를로스 국왕, 토머스 폴리 하원의장 등 50여명의 미국 상·하원 의원, 빌 클린턴 등이 태권도인들이 개척한 인맥으로 꼽힌다. <한겨레신문 94.9.6. 19면>

태양빛

「사이판의 태양빛에 한번 파묻혀 보고 싶다」는 꿈을 무참히 짓밟는 충성이 울린 뒤 쓰러진 용대의 눈에서 피눈물이 나오는 라스트신은 연민마저 일으킨다. <조선일보 94.9.23. 17면>

태양족

이 가운데 올 들어 해변의 최고 화제는 '태양족'의 등장.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의 파라다이스 비치 호텔과 하얏트 호텔 앞 쪽 백사장에서는 사람이 들끓는다는 등의 이유로 물에는 관심이 없고 선베드나 모래밭에 누워 피서를 즐기는 '태양족'들로 크게 붐비고 있다. <스포츠서울 94.7.23. 23면>

택견꾼

이야기 속의 인물들이 흔히 그러하듯이 택견꾼 김정운의 이야기 중엔 과장되어진 부분이 많았다. 날아 오는 충알을 가볍게 피해 내더라는 등... 지붕과 지붕을 마치 널뛰듯이 옮겨 밟아 뛰더라는 등... 그 높이 뛰는 모습이 마치 한 마리 날짐승 같더라는 등... <스포츠조선 94.6.11. 30면>

택지난

상계동의 대단지 아파트 건설에도 군사적인 새로운 판단에 의해 의정부~서울 회랑의 방어 강도를 고려했을 것이고, 일산 신시가지의 조성도 국방부의 방위 목적과 서울의 택지난 해소 문제가 맞아떨어진 결과였을 것이다. <조선일보 94.9.29. 5면>

터닝포인트

고교시절 싸움패로 분류돼 낙제 경험도 지닌 민 전 장관은 일본 교토 체대 시절 조선일보 장학금 대상자로 어렵사리 선발된 후 인생의 일대 터닝포인트를 맞아 학업에 정진했던 과거를 못잊어 장학사업도 펴고 있는데 인생에서 가장 의미있는 사업은 사람 키우는 일이라고 강조한다. <조선일보 94.8.13. 19면>

턱걸이하다

한편 성균관대는 호남대와 후반에 1골씩 주고받으며 1대 1로 무승부를 이룬 후 승부차기서 10대 9로 신승, 힘겹게 8강에 턱걸이했다. <조선일보 94.8.27. 23면>

♣ 의미가 다름

테마파크

그런 일본에서 요즘 노는 땅을 활용하는 뉴비즈니스로 각광받는 것이 「테마파크」라 불리는 대중 비즈니스이다. 별다른 용도도 없을 땅에 아이디어 하나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 먹고 즐길 공간을 만들어 파는 장사다. <조선일보 94.9.5. 13면>

현대에는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다양한 레저 욕구가 존재하며 이런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탄생된 레저 공간이 바로 테마파크라고 저자는 설명한다. 이 책은 한국의 민속촌과 서울랜드 엑스포 과학공원, 미국의 디즈니랜드, 덴마크의 티볼리 공원 등 세계 곳곳의 테마파크를 방문하고 느낀 저자의 소감과 테마파크를 활성화할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동아일보 94.10.8. 14면>

테크노마트

첨단 산업 기지로 육성되는 강서구 마곡-방화-공항-발산동 일대 1백30만평에는 김포공항과 영종도 신공항에 인접해 있는 특성을 살린 신소재, 바이오, 소프트웨어 등 첨단 산업체가 들어서며 전시, 상담, 유통 판매 기능을 갖춘 테크노마트가 조성된다. <조선일보 94.9.9. 28면>

孫鶴圭 의원은 『5개 거점별 시설과 기능을 보면 국제 업무 기능과 국제 비즈니스, 첨단 업무와 테크노마트 등 서로간의 구분이 모호하다』면서 『특히 현재도 포화 상태인 여의도 광장 지하에 대규모 상업-위락 시설을 건설하는 것이 과연 타당하다고 보느냐』고 추궁했다. <조선일보 94.10.13. 4면>

텔레비디오

日 JVC社가 5일 공개한 多機能 「텔레비디오 무비카메라」. 내달 1일부터 본격 출시되는 이 제품은 7.5cm 크기의 액정 화면과 비디오 카메라 및 정규 TV방송을 시청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 <조선일보 94.9.7. 7면>

텔리포트

또 이 지역에 텔리포트, 정보 교류 센터, 정보 산업 전시장을 비롯해 국제 오피스

단지, 무역 전시관 등 국제 업무 및 첨단 정보 산업 단지를 유치하며 <조선일보 94.9.9. 28면>

토막광고

%TV 토막광고의 길이가 내달 1일부터 조정돼 현행 30초 단위와 함께 20초 단위 광고도 선보이게 된다. -중략- 토막광고란 프로그램에 붙는 일반 광고와 별도로 프로그램들 방송 사이에 나가는 광고를 말한다. <조선일보 94.9.27. 17면>

톱시드

한편 여자 단식 2회전에서는 2일 톱시드의 슈테피 그라프(독일)가 산드라 카킥(미국)에 2대 0(6-0 6-2) 완승, 32장이 겨루는 3회전에 진출했다. <조선일보 94.9.3. 27면>

퇴비화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시설 설치의 무화 제도」의 시행이 불과 열흘 앞으로 다가왔으나 환경처는 이에 필요한 기본적인 준비조치 갖추지 못하고 있다. <동아일보 94.8.22. 30면>

퇴폐성

한국여성단체협의회가 가정주부 1천명을 대상으로 한 대중 매체에 대한 인식 조사에서도 비디오 TV 영화 등 영상 매체가 청소년에게 가장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폭력성 음란성 퇴폐성을 주요인으로 꼽았다. <한국일보 94.5.28. 30면>

투명비닐

노출 의상에는 노출 패션 소품이 제격. - 중략- 이른바 '비치백' 속이 비쳐 보이는 투명비닐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비치백(비치는 백)이라 불리는 것 같지만, 실은 바닷가에서나 어울릴 듯한 가방이라 해서 비치백(beach bag)이다. 노출 패션의 연장선상에서 탄생한 소품으로, 반라에 다름없는 몸엔 역시 속이 들여다 보이는 액세서리가 제격인 까닭. <일간스포츠 94.8.1. 31면>

투수력

태평양의 「방패」나 한화의 「창」이나, 9일 인천 구장서 시작되는 94 프로야구 플레이오프는 태평양의 두터운 투수력과 한화의 날카로운 공격력의 싸움이 될 전망이다. <조선일보 94.10.9. 23면>

투수진

정감독은 지난해 최하위의 수모를 당하면서도 부상당한 투수진의 무리한 기용을 포기, 결국은 정명원, 정민태, 최창호, 박정현 등으로 이어지는 막강 투수진이 올해 최상의 상태에서 경기에 나설 수 있도록 했다. <조선일보 94.10.13. 27면>

투심볼

정명원의 특징은 1m 89의 장신에서 쏘아 넣는 볼같은 스피드(시속 1백 45km)와 미국 교육리그에서 배워온 투심볼. 워낙 빠른 데다 타자 앞에서 푹 떨어져 헛스윙을 유도하기 일쑤다. <조선일보 94.9.3. 27면>

투자국

초기에는 동남아 지역에 투자 대상을 찾던 화교 자금들이 최근 뉴욕을 중심으로 한

미국쪽으로 투자국을 옮기고 있다는 해석이다. <조선일보 94.8.31. 11면>

투자라운드

우루과이라운드·그린라운드(환경)·블루라운드(노동) 등에 이어 국가간 투자를 사실상 자유화하기 위한 투자라운드(IR)에 대한 논의가 선진국들 사이에 본격화하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한겨레신문 94.10.4. 9면>

투자처

그러나 상황이 달라졌다. 영국계 슈로더투자자문 한국사무소 쏜吉洙 소장은 『아시아에서 빠져나간 미국 등 국제 자금이 마땅한 투자처를 못 찾아 다시 아시아로 몰려들 기미가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조선일보 94.9.23. 10면>

트리블메이커

감성적이고 이성적인 형들에 비해 다분히 야성적인 준은 X세대의 표본을 대변한다. 어딜 가나 트리블메이커로서의 역할을 자임한다. <영레이디154 331면>

트리트먼트하다

유난히 당기고 예전같지 않은 피부 - 땀과 피지 분비가 줄어들어 수분과 유분의 균형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피부에 촉촉한 손길이 필요한 계절, 트레아 에센스로 트리트먼트해 주세요. <여성중앙 300 9면 광고>

특원적

영재 교육을 목표로 한 과학고나 외국어고와 같은 특수 목적 고교가 원래 설립 취지에 반하여 엘리트 계층의 자제들이 독점하

는 특권적 학교로 되어가고 있는 현 시점에서 입시 부활로 인한 이류 고교의 출현을 공공연히 용인한다는 것은 사회윤리적 차원에서도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한겨레신문 94.9.13. 5면>

특수란

☞ 부가가치란

특수통

검찰국장으로 발탁된 崔恒 대검 공안부장(6회)은 그동안의 공안 업무 추진력을 인정 받았고, 李源性 대검 형사부장(5회)은 「특수통」이라는 평가로 일찌감치 낙점을 받았다는 것. <조선일보 94.9.15. 5면>

특효약

그런데 MBC는 우리 농촌을 살리는 최대의 특효약은 그들에게 「신명」을 불어 넣어주는 것이라는 주제를 내세우는 한편, 우리 농산물이 좋다는 걸 백번 외치는 것보다 도시민에게 시장 농산물이나 상품권을 직접 구입케 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접근 방법을 택해 캠페인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었다. <조선일보 94.9.13. 16면>

♣ 의미가 다름

틈새시장

현대정공은 “앞으로 차량사업 부분을 다목적 자동차 전문업체로 특화, 육성할 계획이며 이번에 생산하기로 한 미니밴승합차는 중복투자가 아니라 이른바 틈새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밝혔다. <동아일보 94.8.24. 10면>

팀가

영준의 노래가 이어지고 모두들 뒤에서 어깨를 걸고 다리를 치켜들면서 무용을 했다. 우리는 다같이 팀가를 부르고 삼성 박수와 계단 박수도 선보였다. <영레이디154 392면>

팀원

팀원의 자발성과 창의력을 존중해 원하는 일만 맡긴다. 강요성 지시는 거의 없다. 신규 사업을 시작할 때는 손실 범위를 책정해 실패에 대한 책임 추궁을 하지 않는다. 반면 사업 결과가 좋으면 포상을 한다. <한겨레신문 94.9.5. 8면>

팀제

유연성을 강조하는 현대 기업에서 이같은 법적 조항은 새로운 조직 형태인 팀제의 자율 경영 기조를 해치기 쉽다는 지적이다. <조선일보 94.8.19. 11면>

표

파편화되다

뽀터러 특정 분야의 전문 지식, 그것도 ○○학이라는 이름으로 가공 처리되었다가 다시 5지선다식 시험으로 파편화되어버리는 지식이란 집단적 삶에 관계되는 복잡한 현실 문제를 시간에 쫓기면서 다루어야 하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창의력과 균형 감각을 다같이 저해하는 족쇄가 될 수도 있다. <조선일보 94.9.23. 5면>

판맛

누구보다도 열심히 바둑을 두고 누구에게

나 잘 이기지만 「4인방」에게는 별로 판맛을 못 보고 있다. <조선일보 94.9.7. 16면>

패러글라이딩

패러글라이딩은 낙하산과 행글라이더를 혼합한 패러글라이더를 타고 활공하는 것으로 항공 스포츠 가운데서도 단연 인기를 끌고 있는 신종 스포츠. <조선일보 94.8.23. 26면>

패륜성

대체로 가진 자, 특히 아주 많이 가진 자의 자숙과 나눔 정신을 강조하기보다는 인륜적·도덕적 측면에서 패륜성을 부각해 정신이상자들의 개인 문제로 끌어내리려 하고 있다. <시사저널260 86면>

패브릭

로맨틱하고 차분한 실내 분위기를 연출하기 위해 가구는 연한 갈색조를 선택했고, 자칫 밋밋한 공간 이미지를 전할 것이 우려되어 패브릭은 조금쯤 패턴이 대담한 것으로 거실 창가를 장식했다. <여성중앙300 256면>

패션가

신촌 사람들은 그렇게 변화의 맨앞에 서서 각기 나름대로의 개성 공간을 갖고 고유한 신촌 문화를 만들어 간다. 그들이 거니는 거리가 바로 패션가가 되고 그들이 다니는 카페가 바로 패션 공간이 된다. <조선일보 94.10.7. 40면>

패션계

극단적인 미니와 맥시가 공존해 온 최근

패션의 흐름에 미니 또는 샤넬라인이라 불리는 무릎 정도 길이가 해외 패션계에서 새로운 경향을 보이고 있다. <동아일보 94.8.20. 9면>

패션성

한편 업계에서는 이런 캐주얼 추세 속에 조끼, 패션성이 가미된 모자나 벨트색, 해변가나 외출시에도 간편하게 신을 수 있는 슬리퍼형 조리, 통기성있는 구두도 잘 나간다고 말한다. <스포츠조선 94.7.30 26면>

패션점

인터뷰를 끝내고 펠르티에 변호사 사무실을 나서자 샤넬, 웅가로, 기라로슈, 발렌티노, 크리스탄 디오르 등 한국인에게도 친숙한 세계적 일류 패션점들이 물려 있는 몽테뉴쉴에 하나둘씩 불이 들어오고 있었다. <조선일보 94.8.31. 2면>

패소율

감사원이 지난 91년부터 93년까지 3년 동안 국세청의 조세 관련 불복 사항에 대한 처리 실태를 감사한 결과 조세 반환 청구 행정 소송의 정부 패소율이 37.7%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서울 지방 국세청의 경우 지난 93년 97건의 이의 신청 가운데 1건만 받아들이는 등 직권시정률이 매우 낮았고, 심사 청구와 심판 청구 구제율은 각각 7.6%, 24.7%로 초기 불복 단계보다 상급심에 가서야 구제되는 사례가 훨씬 많았다. <한겨레신문 94.8.24. 2면>

패킷통신

프레임릴레이 서비스는 패킷 통신과 전용

회선의 장점을 모은 것으로, 광대역 초고속 정보통신망(B-ISDN)이 본격화하기까지 가장 뛰어난 고속 데이터통신 수단으로 평가받고 있다. 패킷통신은 여러 명의 발신자가 보낸 데이터를 교환기에서 모은 뒤 일정한 길이로 나누어 받는 쪽의 주소를 붙여 보내는 것이다. 이를 받는 쪽 교환기에서 다시 조합해 실제로 받을 사람에게 보내준다. 이런 방식 때문에 동시에 여러 명이 쓸 수 있어 효율이 높다. <한겨레신문 94.9.29. 12면>

패트병

유료 봉지에 담기 어려운 깨진 유리, 다 쓴 형광등, 스티로폼, 패트병 등 재활용하기 어려운 쓰레기의 보관 처리 방법이 애매하다. <동아일보 94.8.14. 19면>

팩스온디맨드

팩스온디맨드(Fax On Demand)란 고객이 전화를 걸고 자신의 팩시밀리 번호를 전화기 버튼으로 입력한 뒤 원하는 정보의 고유번호를 누르면 컴퓨터가 자동으로 해당 정보를 찾아 고객의 팩시밀리로 보내주는 무인 자동화 시스템을 말한다. <동아일보 94.8.30. 34면>

팬시화

만화영화 「알라딘」에 몰린 성인 관객들은 사회의 팬시화와 어린이화를 반영하는 현상이 아닐까. <조선일보 94.9.3. 13면>

펀드매니저

검찰에 고발된 李相林 씨는 바클레이즈증권 과장으로 있으면서 지난 5월 『삼부토건 및 계열사 부동산이 1조 7천억원에 이르며,

대주주들이 지분 경쟁을 벌여 기업 매수-합병 가능성이 높다』는 허위사실을 문서로 만들어 기관 투자가 펀드매니저들에게 팩시밀리로 배포, 증권거래법을 위반했다고 증권감독원은 밝혔다. <조선일보 94.9.17. 11면>

펑크적

재즈, 리듬 앤 블루스, 랩 등 다양한 장르를 섭렵하고 뛰어난 프로듀싱 능력을 가진 작곡가겸 프로듀서 위노를 만나면서 쿨리오는 다시 재기를 시도하게 되고 최근 각고의 노력 끝에 내놓은 것이 앨범 <It Takes A Thief>이며 그 첫 싱글이 <Fantastic Voyage>이다. 이 앨범의 수록곡들은 강한 펑크적 분위기 속에 험한 인생을 속속들이 경험한 인물의 독특한 주관의 잘 드러나고 있다. <일간스포츠 94.8.30 32면>

펑크족

문화권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문신은 부족이나 종교에 대한 충성과 약속을 맹세하고 단결력을 과시하는 풍습으로 유래가 깊다. -중략- 요즘같이 패션으로 관심을 끌게 된 것은 펑크족의 요란한 차림을 본떠 록 밴드나 랩 뮤지션 등의 대중음악 스타들 사이에 붐이 일면서부터. <일간스포츠 94.6.30. 27면>

펜컴퓨터

포스데이터의 「펜컴퓨터」도 바로 安 사장 작품이다. 키보드 대신 손으로 글씨를 쓰면 컴퓨터가 스스로 인식해 그래픽, 도표, 사진까지 종합 문서 처리를 자유자재로 한다. <조선일보 94.9.5. 9면>

펜티엄

펜티엄 PC는 인텔사의 펜티엄 칩을 장착해 기능을 향상시킨 586PC인데 외부데이터는 64bit로, 내부데이터는 32bit로 처리함에도 대우통신의 「윈프로 펜티엄」, 현대전자의 「솔로몬 그랜드서브」, 토피아의 「옵티마 펜티엄」 등 3개 제품은 데이터 전부를 64bit로 처리하는 것인양 광고하고 있다.

<동아일보 94.8.16. 16면>

편곡권

흥겨운 리듬에 독특한 코러스로 앨범만 30만장 이상 팔린 혼성 그룹 마로니에의 히트 가요 「각테일 사랑」 중 코러스 부분의 편곡권을 주장하는 이색 소송이 제기돼 귀추가 주목된다. <조선일보 94.8.31. 30면>

편식성

최근 범우사라는 출판사가 '주머니 속의 친구들'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문고판을 부활시키겠다고 나섰다. '아직은 모험'이라는 게 출판계 내부의 진단이지만, 外華內貧, 편식성 등 독서 풍조의 고질적 병폐에 대한 도전이라는 측면에서 그 귀추가 주목된다. <동아일보 94.8.12. 1면>

편식증

음악 애호가들 가운데는 「고전 편식증」에 빠진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조선일보 94.10.5. 15면>

편향성

북한의 사회-문화에 대해서도 1차 시안에 있던 남녀 평등, 사회 복지 정책, 사회 보

장책 등의 용어는 각각 가족, 사회 정책 등으로 바뀌어 「편향성」 시비를 극복했다.

<조선일보 94.9.1. 5면>

평생직장

파스퇴르는 8일 직원들에게 평생직장이란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안정된 노후를 보장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여기고 앞으로 정년 퇴직하는 사원에게 매달 1백만원씩 연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스포츠조선 94.8.9. 18면>

평지돌풍

그러나 엉뚱하게도 잘 나가던 음악 감독 정 씨를 돌연 해고함으로써 파리에선 지금 평지돌풍이 일고 있다. <조선일보 94.9.3. 1면>

폐건전지

환경 보호 홍보용 재활용 공책을 만들어 폐건전지 수거에 앞장서고 있는 경남 충무시 약사회장 고문중(49·보경약국장·사진)씨는 청정해역으로 이름난 충무를 지키기 위해서는 시민 모두가 환경보호 운동을 생활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겨레신문 94.9.13. 12면>

폐드럼통

UDT 대원들은 금강 바닥에서 폐타이어 플라스틱 그릇 폐드럼통 등 갖가지 오염물질 수거, 금강이 얼마나 더럽혀졌는지를 탐사대 어린이들에게 생생하게 보여주기도 했다. <동아일보 94.8.20. 29면>

폐비닐

논밭에 흩어진 폐비닐과 막걸리통을 모아

학부모 朴美玉 씨(30)의 지도로 꽃꽂이 실습을 갖는다. <조선일보 94.9.5. 27면>

폐식용유

신세계백화점(대표 柳漢燮)은 2일부터 7일까지를 「새강 살리기 보호 기금 마련 바자주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 동안 서울 시내 6개 점포에서 폐식용유 회수 용기와 재생 비누를 고객들에게 배포하고 있다. <조선일보 94.9.3. 30면>

폐악기

요란한 액세서리를 단 종업원, 여기저기 걸려 있는 풍선, 폐악기 보트 폐자전거 스포츠 용구 등 특이한 장식품들.... <조선일보 94.9.5. 9면>

폐연료봉

북한과 미국은 10일 제네바 미대표부에서 열린 3단계 고위급 세번째 회담에서 수조에 보관중인 북한의 폐연료봉을 건조, 보관하는데 원칙적으로 합의했으며 경수로의 경우, 북한은 한국형을 수용할 태세를 보였다고 한 외교 소식통이 11일 밝혔다. <동아일보 94.8.12. 1면>

폐자원

또 조합 차원에서 앞으로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폐자원을 수집해 해당 기업에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한겨레신문 94.9.6. 22면>

폐자전거

요란한 액세서리를 단 종업원, 여기저기 걸려있는 풍선, 폐악기 보트 폐자전거 스포츠

용구 등 특이한 장식품들.... <조선일보 94.9.5. 9면>

폐차업

정부와 民自黨은 11일 자동차 이용 편의를 위해 자동차 매매업 자동차 정비업 및 폐차업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꾸기로 했다. <동아일보 94.9.12.2면>

폐타이어

도봉구는 19일 오전 10시~오후 5시 창동 청소 차량 임시 차고지의 도로변과 주택가 골목 야산 공터 하천변 등에 방치된 폐타이어를 일제 수거한다. <조선일보 94.8.17. 28면>

폐휴지

교내에서 발생하는 폐휴지와 빈병 등 재활용이 가능한 물건은 하나도 빠짐없이 모으고 있다고 학교 관계자는 설명했다. <조선일보 94.8.29. 25면>

포르노그라피

한편 '화엄경'으로 베를린 영화제에서 은곰상격인 특별상을 수상했던 장선우 감독은 문성근을 통해 "성의 모습을 주변에서 맴돌지 않고 가장 깊숙한 곳을 파고 드는 본격 포르노그라피를 선보이겠다"는 야심만만한 출사표를 던졌다. <스포츠조선 94.5.21. 24면>

포르노성

나체의 일부분을 영상 기술로 흐리게 하긴 했지만 포르노성이 짙은 선정적인 장면만을 연속으로 방송하였다. <조선일보 94.8.31. 13

면>

포인트

전철수가 수작업으로 속칭 포인트라고 하는 선로 개폐기를 당시 신호기의 방향에 따라 조작하지만 신호와 정반대로 개폐기를 조작하는 실수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철도청의 설명이다. <동아일보 94.8.12. 22면>

포장디자인

또 두원공전은 컴퓨터 응용 기술의 발달에 따라 방송 편집, 각종 산업기계 및 포장디자인 등의 첨단 기술 분야에서 일할 컴퓨터 그래픽과를 설치했으며 <조선일보 94.9.5. 30면>

포착력

뛰어난 기획력과 통통 튀는 신세대 감각의 포착력에 있어 남다른 능력을 보이는 강우석 감독에게 거는 영화관의 기대는 남다르다. <스포츠조선 94.8.20. 22면>

포켓

포켓볼은 힘이 별로 들지 않고 배우기가 쉬운데다 공들이 예쁘며 공이 포켓에 들어갈 때 쾌감을 느낄 수 있다는 이유에서 여대생들 사이에 특히 인기가 높다. <스포츠조선 94.8.20. 21면>

♣ 의미가 다름

포켓볼

포켓볼은 힘이 별로 들지 않고 배우기가 쉬운데다 공들이 예쁘며 공이 포켓에 들어갈 때 쾌감을 느낄 수 있다는 이유에서 여

대생들 사이에 특히 인기가 높다. <스포츠조선 94.8.20. 21면>

포터맨

롯데는 5개 점포에 아르바이트생 1백20명을 배치, 가까운 지하철 역이나 버스 택시 정류장으로 짐을 들어다 주며, 미도파는 현장 포터맨 80명이 무료 노역을 제공한다. <조선일보 94.10.7. 34면>

폭등세

에어컨과 선풍기를 구하기가 매우 어렵게 되면서 일부 대리점과 전자 상가 등에서 제품값이 폭등세를 보이고 있다. -중략- 특히 썬통더위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자 용산 전자 상가와 세운 상가 일부 판매점들은 그동안 팔지 않고 보유해 놓은 제품에 대해 최고 50%까지 웃돈을 얹어 판매하고 있으며 일부 전속 대리점들도 소비자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판매 행위를 일삼고 있다는 것이다. <전자신문 94.7.28. 15면>

폭력성

특히 최근 들어 영상 산업이 치열한 국제 무역 경쟁에서 이익을 거둘 수 있는 미래 유망 산업으로 인식되면서 경쟁력과 수익성을 보장받기 위해 폭력성과 선정성이 갈수록 심화되는 상황이어서 우리 청소년들이 그 해악에 노출되는 위험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한국일보 94.5.28. 30면>

폭력지수

이제는 TV 프로그램의 폭력지수(暴力指數)를 계측해야 한다. 「지존과 사건」 발생 이후 TV 비디오 등 영상 매체 전반의 문

제점이 부각되면서, 차제에 폭력을 계량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조선일보 94.9.27. 16면>

폭소탄

요즘 SBS TV 코미디 「열려라 웃음천국」과 「기쁜 우리 토요일」에서 무대가 좁을새라 1백80cm의 긴 몸매를 휘저으며 고단위 폭소탄을 터뜨리고 있는 홍록기는 5인조 개그 그룹 「틴틴 파이프」 출신. <조선일보 94.9.25. 15면>

폭주족

한강 고수부지 등 시민들의 여름철 휴식 공간에서 떼지어 오토바이를 몰고 다니며 굉음을 내거나 난폭한 운전으로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준 '폭주족' 19명과 오토바이를 불법 개조해 준 오토바이상 5명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스포츠조선 94.7.30. 15면>

폭탄주

‘단칼’이란 별명이나 폭탄주 애호가란 말을 달갑지 않게 여기시는 것 같은데, 어떤 모습으로 비치기를 원하십니까? <시사저널 260 31면>

폰뱅킹

보람은행은 누구든지 전화 한 통화로 사무실이나 안방에서 예금·대출 상담 등 은행 업무를 종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보람 폰뱅킹」 서비스를 국내 은행에서는 처음으로 실시하고 있다. 폰뱅킹 서비스에서는 전화 상담만으로 대출 여부를 즉시 결정해 줌은 물론 매주 정기적으로 각계 전문가를

초빙해 법률 세무 건강에 대한 전화 상담 서비스도 제공한다. <한국일보 94.8.8. 12면>

폰팅

이곳에서는 이밖에 상대방을 만나기에 앞서 먼저 전화 통화를 할 수 있게 하는 폰팅을 하고 있는데, 같은 내용의 “뽀뽀팅”도 있다. <여성중앙 300 543면>

표발

무엇보다 새 선거법이 입후보자들을 표발으로 내몰고 있다. 즉 새 선거법 특징 가운데 하나가 입후보자들의 개인 연설회를 무제한 보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현재 선거 분위기가 한창인 3개 지역에서는 과거에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선거 풍속이 등장하고 있다. 거의 모든 후보가 트럭을 개조한 유세차에 마이크 시설과 연단을 싣고 다니면서 무차별적으로 표발을 누빈다. <시사저널 249 15면>

표발같이

올해 초부터 틈나는 대로 서울 시내 지구당을 돌며 대의원들을 상대로 표발같이 하는 등 서울 시장에 강한 집념을 보여준 조 최고위원으로서는 정 고문의 내외연 가입이라는 의외의 변수에 상당히 당황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한겨레신문 94.8.25. 4면>

표적수사

특히 표적수사 시비를 불러 일으켰던 박 전 의원만 지금까지 수감돼 있어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다」는 박 전 의원측의 주장이 점점 설득력을 얻고 있다는 점이 법조계 주변의 분석이다. <동아일보 94.9.10. 30면>

표지어음

표지어음이란 금융 기관이 기업자로부터 받은 무역어음이나 상업어음을 분할하거나 통합, 은행을 지급인으로 새로 만들어 일반인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판매하는 어음. <동아일보 94.8.22. 14면>

푼수끼

양념같은 푼수끼를 언뜻언뜻 내비치며 기가막힌 창솜씨까지 자랑한 난타역의 손봉숙이 빚어내는 앙상블은 <조선일보 94.9.3. 17면>

플가동하다

L백화점의 한 관계자는 “하루 3만~4만 명의 내점객 가운데 50% 이상이 더위를 피하러 오는 어슬렁족들로 분석되고 있다”면서 “에어컨을 플가동하고 있지만 워낙 사람들이 많아 적정 실내 온도로 맞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혀를 찼다. <스포츠조선 94.8.2. 19면>

기아자동차도 서유럽과 미국에서 세피아 주문이 급증하고 있고, 스포티지와 아벨라도 2개월분 이상 밀려 있어 공장을 플가동하고 있다. <조선일보 94.9.5. 10면>

프라이비트뱅크

프라이비트뱅크이란 선진국에서는 이미 보편화된 소매금융의 하나로 고소득 전문직 회사 중역 개인 사업자 등 여유돈을 많이가진 계층을 상대로 한 고객 차별화 영업 방식. <동아일보 94.8.14. 9면>

프랑글레

반면 프랑스에도 영국이 대해군국으로 성장하고 세계 무역을 독점하면서부터 적지 않은 수의 영어가 밀려들어 불어와 섞이기 시작했고, 특히 1~2차 대전 후로는 무수한 영-미어들이 상륙했기 때문에 현재 프랑스에선 불-영 합성어인 프랑글레(Franglais)가 널리 통용되고 있으며 그 숫자도 3천여 개가 넘는다고 한다. <조선일보 94.8.19. 13면>

프레임릴레이

한국통신은 29일부터 기존 통신망보다 최고 30배 빠른 속도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프레임릴레이 서비스’를 국내와 미국 등 해외 24개국을 대상으로 시험 서비스한다. <한겨레신문 94.9.29. 12면>

프로슈머

제품 개발시 소비자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프로슈머(Prosumer) 마케팅이 폭넓게 확산되고 있다. 프로슈머는 생산자(Producer)와 소비자(Consumer)의 합성어로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가 자신의 저서 『제3의 물결』에서 「대량 생산·대량 소비를 강요당한 소비자가 앞으로는 신제품 개발에 직·간접으로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예견하면서 도입된 개념이다. <중앙일보 94.9.3. 31면>

프로페셔널화되다

국가의 경영을 책임진 정치인과 공무원도 전문화, 세분화된 지식이 요구된다. 따라서 공무원도 자연히 프로페셔널화되지 않으면 도저히 업무에 대처하기 힘들다. <월간조선 172 600면>

플로피디스크

우리가 흔히 쓰는 플로피디스크는 정보를 담은 자성체에다 흑연 분말을 섞어서 만든다. <시사저널 245 74면>

피고발인

검찰의 12·12 고소·고발 사건 수사가 막바지에 이르고 있는 가운데 피고발인들이 정승화 전 육군 참모총장, 장태완 전 수경 사령관, 김진기 전 육본 헌병감 등 고발인들을 내란 및 반란, 또는 무고 혐의로 잇따라 고소하는 ‘맞불 작전’을 펼치고 있다. <한겨레신문 94.9.1. 22면>

피고용인

- 왜 그렇게 악착같다고 생각하는가. = 파리 오페라 사상 음악 감독이 경영진의 해고 결정에 불복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이다. 법원이 피고용인의 편을 들어준 것도 처음이고. <한겨레신문 94.8.31. 2면>

피난계단

9평 이상의 무단 증축 소방 및 피난계단 훼손 주용도의 무단 변경의 경우 즉시 건축법 위반 행위로 고발된다. <조선일보 94.9.1. 28면>

피로도

그러나 취임 후에는 『일단 나왔으면 뭐가 남기고 갈 것』이라는 각오를 수차례 피력했고, 이것이 곧 과로로 연결됐다는 얘기다. 특히 내년 예산안을 마무리하면서 연일 밤늦게까지 집무. 육체적인 疲勞度(피로도)가 상승했다는 얘기다. <조선일보 94.10.5. 11면>

피식하다

왜 해벌어진 입에서 피식한 웃음이 나온단 말이고. <조선일보 94.9.11. 13면>

피아니즘

서울예고-연세대 음대를 나와 미국 뉴잉글랜드 음악원 석사 과정을 졸업한 安 씨는 12세 때 인천 시향과 협연하고 아스펜 축제, 뉴잉글랜드 음악원 주최 프랑스 음악 축제 등에 참가해 섬세한 감각의 피아니즘을 펼쳐온 연주자. <조선일보 94.10.7. 18면>

피징용자

종전 직후 한국인 피징용자들을 태우고 한국으로 돌아가는 도중 교토부의 마나즈루항에서 의문의 폭발을 일으켜 5백명 이상이 사망한 이른바 ‘우키시마호 사건’의 추도회가 22일 도쿄의 사찰 유텐지에서 열린다. <한겨레신문 94.8.22. 2면>

피크타임

‘피서지에서 이벤트를.’ 여름 휴가 피크타임을 맞아 유명 콘도와 호텔들이 물놀이와 햇볕에 지친 심신을 달래줄 피서지 행사를 마련해 즐거움을 더해 준다. <일간스포츠 94.8.1. 11면>

피턴(P턴)

경찰은 이 개선 작업이 끝나면 이들 24개 주요 도로망을 대상으로 신호변경의 연동화로 차량 흐름을 원활히 하고, 신호 체계를 단순화해 교통량을 분산하는 동시에 교차로 부근 이면로를 최대한 활용, 『P턴』과 『U턴』을 허용할 방침이다. <조선일보 94.8.25.

28번>

피피카드(PP카드)

☞ 선불카드

ㅎ

하우스에이전시

배경은 다르지만 (주)빙그레가 삼희기획이 아닌 다른 회사에 광고를 맡기겠다고 한 점도, 이른바 그룹 내 광고를 독식해 오다 시피한 계열 광고회사, 이른바 「하우스에이전시」의 와해를 가속화한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고 있다. <조선일보 94.9.5. 11면>

하위직

인천 북구청 稅務(세무) 공무원 非理(비리) 사건은 그동안 정부가 강력히 추진해 온 개혁이 일선 공무원 사회에까지 확산되지는 못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下位職(하위직) 공무원들 사이에서 행해져 온 구조적 不條理(부조리)에 관한 한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었던 것이다. <조선일보 94.9.5. 3면>

하해

대학교수 월급이 2백 80원인데 택시기사가 한 달에 1천원의 돈을 버는 상황에서 농촌 사람들이 돈 벌 기회가 많은 도시로 몰려 들고 공직자들이 기업으로 일자리를 옮기는 「下海(싸하이)」 현상이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다. <조선일보 94.9.17. 13면>

하향세

하반기 경기가 상반기보다 특별히 나은 게

없고 설비 투자 증가율 제조업 가동률 등 실물 지표들은 오히려 하향세에 있다. <한국일보 94.9.19. 7면>

학벌주의

우리 사회에 만연한 학벌주의를 아예 무시한다거나 현실적으로 서울대 출신들이 담당하고 있는 사회적 역할을 가벼이 본다거나 할 필요까지는 없겠지만 학벌주의가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동아일보 94.9.10. 19면>

한건주의

民自黨 서울 구로乙 지구당 조직책으로 임명된 李佑宰 씨는 29일 民主黨이 자신을 유신 체제를 지지했다고 비난한 데 대해 『民主黨이 주장하는 근거 자료에 나와 있는 이름은 한자부터 나와 다르다』며 『이같은 음해 성명 발표는 무책임한 한건주의 정치 행태』라고 비난했다. <동아일보 94.9.30. 4면>

북한 핵 문제를 둘러싸고 부처 이기주의와 자존심 싸움, 한건주의 등이 뒤엉켜서 대북 정책의 기초가 흔들리고 정책의 일관성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朴燦鐘 의원·신민)는 것이었다. <조선일보 94.8.31. 4면>

한계성

그것은 기본적으로 한반도 문제에 관해서는 한국의 입장을 무시하고는 추진할 수 없는 한계성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생각되기도 한다. <조선일보 94.9.9. 3면>

어떤 평가든 분단 상황에서 통일을 현실적

으로 다루게 될 때 여운형의 우유부단이나 한계성은 도리어 참신한 교훈으로 재생된다는 점에서 그는 역시 이상주의적 요소를 지니고 있으며 이 점은 앞으로 우리의 역사 문학이 그를 보다 더 정확히 그려야 할 과제로 남는다. <한겨레신문 94.8.24. 10면>

한국병

金 대통령이 한국병을 고쳐 「新韓國」을 만들겠다고 공약을 했는데 벌써 과거에 없던 일들이 이렇게 계속 일어나는 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가. <동아일보 94.10.4. 5면>

할인점

국내 첫 할인점이라 할 수 있는 창동점은 계산원과 진열대에 상품을 채우는 직원 외에 종업원을 두지 않는 소비자 셀프서비스, 무배달, 묶음판매 등의 독특한 관리·영업 방법을 통해 줄어드는 비용을 가격에 반영시켜 상품값을 정사가격보다 30% 가까이 싸게 했다는 게 E-마트쪽의 설명이다. <한겨레신문 94.9.8. 8면>

합격주

4일 오전 2시 30분쯤 경북 안동시 수상동 안동대교 밑 낙동강 반변천에서 안동 시내 A중학교 3학년 金모 양(15)이 고교 입시 1백일을 앞두고 친구들과 함께 입시생들 사이에 합격주로 알려진 「백일주」를 마신 뒤 강물에 빠져 숨졌다. <조선일보 94.9.5. 31면>

항우울제

최근에 항(抗)우울제가 많이 개발되어 있어서 3~4주 치료하면 사람이 아주 달라집니다. <조선일보 94.8.29. 21면>

항의단

그 박 총장에게 민주당은 16일 오전 최고위원과 국회 외무통일-국방위 소속 위원 연속 회의에서 항의단을 파견키로 했다. 박 총장이 지난 주말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일부 야당에는 主思派가 7백50명 정도 암약하고 있으며 지자체 선거에서 주도 세력으로 부상하려 하고 있다』고 발언한 것으로 보도됐기 때문이다. <조선일보 94.8.17. 5면>

항의성

예수회 신부들의 숙소인 사제관에는 “어떻게 사제가 고백성사 내용을 외부에 발설할 수 있느냐”는 신자들의 항의성 전화가 여러 차례 걸려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겨레신문 94.8.22. 2면>

항해

다만 많은 분야에서는 아직도 양측 사이의 거리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데다, 합의를 본 분야도 구체적인 조건들을 하나씩 절충하는 단계로 들어가면 많은 논란이 예상되기 때문에 북한핵 타결이라는 목표까지는 험난한 항해가 예고되고 있다. <조선일보 94.8.13. 3면>

♣ 의미가 다름

해상전

이 통신은 오는 19일부터 동해상에서 일본 자위대와 美 해군이 참여하는 이번 해상 군사 훈련은 전자전 및 해상전, 해상 防空, 對潛 전략 등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전했다. <조선일보 94.9.15. 7면>

해지와이셔츠

또 블루진 바지에 흰색 와이셔츠, 검정 가죽 조끼를 덧입고 배레모를 쓴다든지 해지 와이셔츠 안에 폴라 스웨터를 입고 재킷을 걸친다면 활발하면서도 고전풍의 멋을 연출할 수 있다. <스포츠조선 94.9.5. 25면>

핸드볼인

1m 73, 64kg의 별로 크지 않은 체격이지만 상대 수비를 교묘히 따돌리는 개인 돌파와 예측을 불허하는 다양한 슈팅력은 아시아에선 적수를 찾아보기 힘들다는 것이 핸드볼인들의 평가다. <조선일보 94.9.23. 25면>

행정력

이제 태권도는 한국의 전유물이 아니다. 스페인 등 라틴세가 벌써부터 경기력-행정력에서 도전하고 있으며 여자의 경우 신장-체력이 월등한 유럽-미국세에 종주국의 자존심을 구긴 지 오래다. <조선일보 94.9.5. 25면>

헛방망이질

그러나 그는 단 한번 찾아온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지난해 시즌 최하위가 거의 결정된 뒤 경험 삼아 풀어 놓은 경기에서 '사건'을 저지른 것이었다. 지난해 9월 25일 인천 LG전에서 정삼흙의 구위에 말려 내로라하는 선배들이 속수무책으로 헛방망이질을 하고 있을 때, 홈런 한방과 안타 1개를 터뜨려 강한 인상을 남겼다. <한겨레신문 94.8.27. 11면>

헛소동

김정일의 이복 동생인 김평일駐핀란드 북한 대사가 최근 오스트리아로 망명했다고

국내 일부 언론이 24일 저녁 보도했으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돼 헛소동으로 끝났다. <조선일보 94.8.25. 1면>

헛스윙

정명원의 특징은 1m 89의 장신에서 꽂아 넣는 불같은 스피드(시속 1백 45km)와 미국 교육리그에서 배워온 투심볼. 워낙 빠른 데다 타자 앞에서 뚝 떨어져 헛스윙을 유도하기 일쑤다. <조선일보 94.9.3. 27면>

헛스윙하다

롯데 전준호가 27일 잠실 OB전에서 어이 없는 주루 플레이를 연출. 2회초 2루수 실책으로 나간 전준호는 7번 박지환의 바가지성 우전 안타 때 2사후인데도 1루로 돌아오려고 멈칫하다 뒤늦게 2루로 뛴 것. 이는 도루를 위해 스타트를 끊었던 전준호가 박지환이 헛스윙하는 줄로 착각해 발생한 해프닝. <스포츠조선 94.5.28. 4면>

헛장사

가전업체는 금년 상반기 중 실시 예정인 하자 상품 구입가의 현금 환불 제도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반품 규모가 제품을 팔고난 뒤 남는 이익을 상회당함으로써 헛장사를 하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화일보 94.6.16. 9면>

헛젓가락질

아버지가 밥을 젓가락으로 집어 먹다가 흘렸다. 당구맨 왈『아버지, 뽕살이네요』『이놈아, 큐걸이가 안 좋은 걸 어떡하냐.』 아버지가 밥을 먹고 김치를 잡으려고 젓가락질을 하다가 헛젓가락질을 하고 말았다.

『아버지, 웬 히로.』 아버지가 김치를 왕창
집어 먹었다. 『아버지, 왕시네루.』 <전자신문
94.5.20. 31면>

헤게모니화하다

거기에다 그리피스는 할리우드가 전세계
영화 시장을 헤게모니화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감독이다. <한겨레신문 94.9.7. 15면>

헤드레이블

鄭 전 부의장은 축배 직후 헤드테이블 주
위를 돌며 하객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하는
등 정정한 모습이였다. <조선일보 94.8.27. 21
면>

헤드헌터

미국 증권·보험사들은 이 정보를 빼내기
위해 한국인 회사들의 고급 두뇌를 거액에
스카우트하는 전략을 구사한다. 이런 추세
를 반영하듯 요즘 서울에는 증권·보험회
사에 근무하는 고급 두뇌만을 전문으로 스
카우트하는 이른바 헤드헌터까지 등장했다
고 한다. <시사저널247 43면>

헤어스타일리스트

예를 들어 바브라 스트라이샌드도 ‘바지’
처럼 자신의 헤어스타일리스트나 코디네이
터 등을 애인으로 삼았죠. <영레이디154 349
면>

헛징

미국계 선물 거래 회사인 제럴드社 李元榮
부장은 『국제 원자재 가격은 시장 내 갑작
스런 돌출 변수나 투기적 요인에 의해 급
변할 수 있으나 국내 업계에서는 이에 대

한 대비책이 미비하다』며 『가격 변동에 대
비한 헛징(위험 회피) 수단으로 선물 거래
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조선일보 94.10.1
1. 11면>

헹굼

『소비자 편리성 우선』이라는 상품 평가 연
구팀의 원칙은 종종 기술팀 등 다른 제작
부서와 논쟁을 만들어 내기도 한다. 세탁기
의 헹굼 기능에 관한 것이 그 한 예. <동아
일보 94.9.26. 17면>

현금베이스

동경에서 3시간 거리인 마쓰모토에 2층짜
리 디스카운트 점포를 운영하고 있는 겐이
치로 니시무라는 『제조업자와 현금베이스
의 직거래, 재고품을 반환하지 않는 조건
등으로 공급 가격을 최대한 내려받고 있
다』고 말했다. <조선일보 94.9.9. 11면>

현대맨

현대백화점 임직원 2천7백여명은 지난 주
말 「새각오 다짐 결의대회」라는 것을 열었
다. 이 자리에서 현대맨들은 『모든 일을 고
객 입장에서 하자』고 다짐했다. <조선일보 9
4.10.7. 35면>

현장감

노래만 잘해서야 무슨 라이브형 가수인가.
음악을 들으려 온 사람들을 즐겁게 해 주
어야 한다. 앨범으로는 도저히 느낄수 없는
현장감, 구석구석의 스트레스를 씻어줄 수
있어야 한다. 말 그대로 엔터테이너가 되어
야 한다. 춤도 잘 추고 말도 때론 잘 하고.
<영레이디154 345면>

현장체험

막내도 영업사원으로 슈퍼마켓을 다니면서 비누를 파는 등 현장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94.8.19. 15면>

현지화

그런데 특히 일본 자본의 경우 진출 연수가 꽤 되었는데도 현지화를 유달리 꺼려, 이제 현지인들 사이에 눈총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다. <한겨레신문 94.9.7. 6면>

『수교 이후 2년만에 한중간 교역량은 연간 90억달러대로 수직 상승했고, 중국 현지 투자만도 11억달러에 이를 만큼 외형은 급속히 확대되고 있지만 그 이면엔 현지화 전략의 기본인 말도 못하는 상태에서 12억 시장에 무작정 뛰어들었다가 큰 손해를 입은 실패 사례도 많습니다. <조선일보 94.8.25. 5면>

한편, 「미래 경영 글로벌 경영」(럭키금성경제연구소 刊)은 국제 경쟁력의 원천을 세계 시장에서 토착화하는 현지화 전략과 기업 내 국제 분업 체제를 범세계적으로 조직하는 「세계화」 전략에서 찾고 이에 대한 국제적 대기업들의 전략을 소개하고 있어 관심을 모은다. <동아일보 94.9.26. 21면>

혐오제

혐오제를 넣어 청소년들이 역겨운 냄새 때문에 흡입할 수 없도록 만든 부탄가스가 개발됐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도핑컨트롤센터 박鍾世 박사팀은 문화체육부의 용역을 받아 최근 황 함유 물질인 TBM DMS THT를 50대 30대 20의 비율로 혼합한 부탄가스 혐오제를 만들었다. <동아일보 94.9.26.

23면>

협력체

하지만 그 실질적인 내용은 조약 성격의 경제 블록에 가까운 강력한 협력체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대외경제정책연구원李載星 연구원은 분석했다. <조선일보 94.9.1. 11면>

협상력

북한 외교부 대변인의 『조건부 특별 사찰 절대 불가』 발언은 협상 상대 진영을 교란시키기 위한 다목적용 술수로 풀이된다. 우선 협상력 제고를 위한 의도가 깔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조선일보 94.8.21. 2면>

협상장

본회담의 북한 대표인 姜錫柱 외교부 副(부)부장과 같은 차관급인 金을 내세운 것은 전문가 회의를 단순한 실무 회의가 아닌 협상장으로 이용할 의도였다는 것이다. <조선일보 94.9.17. 4면>

협상에 대한 전망도 협상장을 드나드는 노사 교섭 위원들의 표정에 따라 낙관과 비관으로 엇갈리다가 결국 잠정 합의안이 나오게 되자 협상장 주위에 있던 취재진과 노사 관계자들은 일제히 환호성을 터뜨렸다. <한겨레신문 94.8.24. 18면>

형평성

그런데 최근에는 법정 드라마에서 가장 중시해야 할 객관성 형평성에서 중심을 잃어가는 느낌이다. 24일에 방영한 「10년만의 휴가」는 고령 여사원의 일방적 퇴사라는 공감 가는 주제를 다뤘는데, 지나치

게 피해자 쪽에 비중을 두다 보니 거꾸로 남성 시청자들에게는 거슬리는 대사나 장면이 적지 않았다. <조선일보 94.7.26. 16면>

법인세에 대한 각종 감면이 작년에 상당폭 정리되었지만 아직도 번잡한 감면 제도가 많아 조세의 형평성을 저해하고 있다. <동아일보 94.8.24. 11면>

호구

강우석 감독이 영화를 기획하면서 구상한 것은 최진실을 여화사 기획실장인 '독종'으로 그려내고 박중훈을 '호구(虎口)' 같은 공처가 영화사 사장으로 만들며 엄정화를 섹시한 여배우이자 박중훈을 꼬시는 요부로 등장시키는 것. <스포츠조선 94.9.3. 17면>

♣ 의미가 다름

호기록

이날 시-도민들은 이봉주가 대회신이라는 호기록을 작성하며 우승하자 조선일보마라톤대회는 앞으로 몇 년 안에 한국 신기록을 탄생시킬 것이라며 크게 기대. <조선일보 94.9.25. 23면>

호배추

주로 감자와 양파, 양배추를 재배하던 한인들은 작년부터 수익성이 높은 호배추(중국배추)와 무, 수박 등으로 농작물을 바꾸었다. <조선일보 94.10.11. 6면>

호성적

물론 선수들의 하고자 하는 의욕이 호성적의 발판이기는 하지만 사장까지 갈아가며

내부 개혁을 도모한 구단의 배려와 정동진 감독을 위시한 코칭 스태프의 장래를 내다본 선수 기용 등이 어우러져 나온 합작품이다. <조선일보 94.10.13. 27면>

호재성

주요 증권사들은 최근 주가 상승 추세가 일부 고가 대형주에 의해 주도되는 것이 아니라 호재성 「재료」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주가 등락이 교차되는 종목별 장세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동아일보 94.10.10. 14면>

호텔가

신촌골의 대학가 88학번 출신 호텔우먼들이 최근 후배들에게 입사 정보 제공, 상호간에 선진 홍보 기법 교환 등을 위한 '88클럽'이라는 모임을 만들었다. 그랜드 하얏트 호텔의 김성은(24), 박수진(23), 르네상스 호텔의 박영경(23), 안현정 양(24) 등은 호텔가에서 떠오르는 신세대 여성. <스포츠조선 94.5.21. 16면>

호텔우먼

신촌골의 대학가 88학번 출신 호텔우먼들이 최근 후배들에게 입사 정보 제공, 상호간에 선진 홍보 기법 교환 등을 위한 '88클럽'이라는 모임을 만들었다. 그랜드 하얏트 호텔의 김성은(24), 박수진(23), 르네상스 호텔의 박영경(23), 안현정 양(24) 등은 호텔가에서 떠오르는 신세대 여성. <스포츠조선 94.5.21. 16면>

혼매점

또 제품을 직접 공급받지 못하고 대형 전

속 대리점(일명 정책 대리점)이나 도매상가에서 구입할 경우 여러 가지 브랜드로 전속 대리점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하는 **혼매점**의 특성을 살릴 수 없게 된다. <전자신문 94.7.28. 15면>

홀로서기

그러나 현대산업개발의 이같은 움직임은 이른바 MK(鄭夢九 회장, 정주영 명예회장의 차남)계열 회사로서 『홀로서기』 차원이라는 게 그룹 안팎의 분석. <조선일보 94.8.25. 10면>

홈런포

김기태가 24일만에 **홈런포**를 재가동한 최하위 쌍방울이 4위권 진입에 목이 타는 삼성을 잡았다. <조선일보 94.8.29. 27면>

흙무대

이는 일본이 **흙무대**서 우승을 놓치지 않겠다며 히로시마 마라톤 코스를 초반 급격한 내리막길로 설계했기 때문. <조선일보 94.9.1. 27면>

흙바

당구대 시설이 갖추어진 작은 **흙바**가 있는 아담한 저택에서 아이들을 독립시킨 후 흑인 노부부가 단둘이 노후를 보내고 있었다. <영레이디154 467면>

홈서비스

홈쇼핑, 홈뱅킹, 컴퓨터 예약 등 **홈서비스**를 이용하면 짜증스런 교통 체증을 겪을 필요 없이 안방에서 화면에 나타난 그림을 보고 상품을 주문하고 신용카드로 대금 결

제를 하며 원하는 상품은 우편이나 백화점의 직접 배달로 집에서 받게 된다. <동아일보 94.8.30. 33면>

홈쇼핑

한국 종합 유선방송 위원회가 16일 **홈쇼핑** 문화 예술 만화 바둑 등 4개 분야의 CATV 추가 채널에 대한 참가 신청을 마감한 결과, 모두 14개의 법인(컨소시엄)이 신청했으며, 특히 홈쇼핑 채널은 8개사가 신청, 가장 치열한 경쟁률을 보였다. <조선일보 94.8.17. 2면>

현재 사업자 선정이 진행 중인 유선방송(CATV) **홈쇼핑** 채널은 내년 10월부터 방영된다. 시간대 별로 상품 종류를 달리해 하루종일 상품에 대한 정보가 TV에 소개된다. <동아일보 94.8.30. 33면>

홍수

우리는 음란물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다. <조선일보 94.8.19. 1면>

♣ 의미가 다름

화인

홍콩, 대만, 동남아시아 등의 **화인**(해외 화교를 포함한 중국인의 통칭) 재벌들이 잇따라 중국과 손을 잡고 굵직한 프로젝트를 움켜주어 가고 있는 것이다. 이런 움직임은 특히 외국 기업에 개방을 꺼리는 사회 기반 시설 건설 사업에 화인 재벌들이 잇따라 참여하면서 두드러지고 있다. <한겨레신문 94.8.25. 8면>

화제성

멜린다 클라크 주연의 농도 짙은 애정 영화 「투문정선2」가 전편의 화제성에 힘입어 14위까지 상승, 무려 4편의 속편 영화들이 동시에 20위권 안에 든 게 눈길을 끈다. <조선일보 94.9.7. 16면>

화학차

관악 소방서는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2백80명의 인원과 소방차 24대, 고가차 2대, 화학차 1대 등 모두 34대의 차량을 갖추게 된다. <조선일보 94.9.7. 29면>

확대일로

행정 구역 파문이 反轉에 反轉을 거듭하면서 확대일로로 치닫는 와중에서 여권 상층부엔 난기류가 널리 드리워진 사정이다. <조선일보 94.9.11. 4면>

확실시되다

보사부는 30일 페스트 감염이 확실시되거나 의심이 가는 사람에 대해 입국 즉시 6일간 격리해 페스트 감염 여부를 정밀 관찰기로 했다. <조선일보 94.10.1. 31면>

확인서

대법원 특별3부 주심(申性澤 대법관)은 24일 양도소득세 감면의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파면된 전 마포세무서 직원 뒤편씨가 서울지방 국세청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가 자필 확인서를 작성한 만큼, 파면조치는 정당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했다. <조선일보 94.9.25. 27면>

환경경영인증

오는 96년부터 환경 관리를 잘하는 업체에는 ISO 14000(환경경영)인증이 수여된다. 환경경영인증이란 기업이 환경 보호를 위한 경영 체제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공인기관인 제3자가 증명해 주는 제도이다. <조선일보 94.9.3. 10면>

환경라운드

UR에 이은 「뉴라운드」라고 불리는 분야가 여기에 해당된다. 예를 들면 환경라운드(Green Round)나 경쟁라운드(Competition Round) 등도 역내 국가간 무역자유화 추진 일정에 포함시켜 논의해 나가자고 주장했다. <조선일보 94.9.1. 11면>

환경순찰

경기도 경찰은 그린스카우트 가입을 계기로 환경순찰(Green Patrol) 활동을 벌일 방침입니다. <동아일보 94.10.4. 29면>

환경실명제

인천시가 사업장 정문에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환경 오염물의 오염도를 표시하는 '환경실명제'를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해 오는 10월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한겨레신문 94.8.22. 17면>

환경인종주의

환경인종주의란 환경과 인종은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 대체로 부유한 백인들은 안전하고 쾌적한 곳에 살고 가난한 유색인종들은 위험하고 불결한 곳에 산다는 뜻이다. 이 용어는 지난 87년 「인종 정의를 위한 미국 기독교회 위원회」가 획기적인 환경 관련 인구 통계학 보고서를 공개한 뒤 NA

ACP 당시 사무총장 벤자민 차비스 2세에 의해 만들어졌다. <조선일보 94.8.31. 7면>

환경친화적

『세계적으로는 그린라운드로 인해 환경친화적인 상품이 아니고서는 국제 경쟁력을 갖추기 힘든 실정입니다. 영세한 규모인 환경 상품 제조업체들을 살리기 위해 정부가 환경 상품 의무구매를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동아일보 94.9.2. 16면>

환승

서울시는 시내 주차난과 소통난을 해소하기 위해 31개 지하철 환승 주차장과 1백99개 노외 주차장을 새로 조성, 11만대분의 주차 능력을 확충키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조선일보 94.8.13. 21면>

환승객

이는 분당선 수서~선릉(6.6km)구간 건설이 97년말로 지연된 데 따른 것으로, 2호선 환승객들도 그때까지는 수서역에서 환승, 10개 역을 돌아 교대역에서 2호선으로 갈아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조선일보 94.8.31. 29면>

환지증명서

▣ 딱지

활동가적

이론가나 학자보다는 활동가적 자질을 보였던 그는 학생 운동에 뛰어들어 의대 학생회장 등에 선출돼 지도자적 자질을 드러냈다. <한겨레신문 94.8.25. 9면>

활황세

종합주가지수 1천 포인트 시대가 5년 반만에 다시 시작됐다. 이는 국내 경기 활황이 본격적으로 증시 활황세로 반영되는 신호탄이라 할 수 있다. <조선일보 94.9.17. 11면>

황금연휴

명절이나 공휴일이 겹쳐 쉬는 날이 3,4일 계속 이어지는 연휴가 되면 어김없이 사용하는 단어가 있다. 이번에도 추석 명절에 일요일까지 겹쳐 연휴가 4일이 되다보니 아니나 다를까 모 관광회사에서는 이때를 농칠세라 『황금연휴』라 하며 과대 선전으로 해외 나들이를 부추기고 있다. <조선일보 94.8.25. 13면>

황제주

지난 92년 이후 국내 주식 중 주가가 가장 높은 황제주 자리를 지켜오던 태광산업 주식은 올 1월 22일부터 50만원대 밑으로 주저 앉았으며 지난 달 6일 이동통신에 최고가 자리를 넘겨 줬다. <동아일보 94.10.8. 10면>

황해인

대륙 진출 첨병으로 황해를 넘나들고 있는 황해인들의 교역 현장과 역동하는 兩岸을 취재했다. <조선일보 94.8.21. 3면>

황회

룩소르, 고대 이집트의 영광이 장려한 황회와 함께 남아있는 곳. 그리고 보존된 옛 문명의 정화를 통해 다른 문명들과의 연결고리를 느끼게 해주는 곳. <조선일보 94.9.25. 9면>

회담장

정부는 베를린에서 제기된 새로운 요구 조건들이 단순한 협상 전술 차원인지, 아니면 회담을 파국으로 이끌 만한 결심의 표출인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일단 2차 회담장에 마주앉아 볼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 <조선일보 94.9.17. 4면>

회복세

우선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같은 기관은 독일의 최근 회복세가 주로 대외 경기호전 덕분이라며, 구조적인 회복 여부 판단은 아직 유보하고 있다. <조선일보 94.9.11. 11면>

손 씨는 의식을 잃은 지 5년여만인 올해 1월부터 음식을 받아넘기는 등 현저한 회복세를 보이다 지난 10일 「아멘」을 시작으로 말문을 연 것. <조선일보 94.9.17. 31면>

회전침대

그러다 보니 이들 여관의 경쟁도 치열해져 건물 외양에서 내부 시설까지 웬만한 호텔을 뺄치는 곳이 많다. ‘비디오, 물침대, 회전침대 시설 완비’ 등의 간판이 붙어 있는 곳도 있다. <영레이디154 565면>

횡령액

따라서 우선 정확한 횡령액과 부정 축재 자산의 규모를 밝혀 도둑맞은 세금을 한푼 남김없이 환수케 함으로써 실종된 사회 정의를 조금이라도 회복할 책무를 안고 있다는 판단이다. <조선일보 94.9.23. 29면>

효율화

대도시 행정의 효율화와 시민 편의를 위해 인구 50만명 이상의 시에 대해서는 현 산하에 두되 행-재정상의 특례를 인정하는 제도. <조선일보 94.9.9. 4면>

후불제

도로공사는 경부고속도 수원~남이간이 6~8차선으로 확장이 끝남에 따라 그동안 미뤄왔던 통행료 20% 할증을 이번 후불제 시행과 함께 적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선일보 94.8.13. 7면>

휴대정보기기

무선 데이터통신은 이동통신의 영역을 전화와 무선 호출에서 팩시밀리·컴퓨터 통신 등으로 확대하는 첨단 서비스다. 현재는 노트북컴퓨터를 주로 이용하지만 각국이 열심히 개발하고 있는 휴대정보기기(PDA)가 실용화할 때는 그 쓰임새가 훨씬 폭넓어진다. <한겨레신문 94.9.22. 12면>

휴대폰

이같이 산행시 휴대폰을 소지한 사람들이 많아진 것은 웬만한 사람이면 갖고 있을 정도로 휴대폰 소유자들이 늘어난 것이 무엇보다도 큰 요인이겠지만 산을 찾는 사람들이 갑작스런 조난, 부상 등 예기치 않은 사고를 당했을 경우를 대비해 휴대폰을 갖고 온다는 것이다. 또 항상 통신권 내에 대기할 수 있어 가족이나 직장과의 연락 수단으로도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이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일간스포츠 94.8.30. 30면>

휴먼웨어

보안 관리의 세 가지 필수 요소는 하드웨어·소프트웨어·휴먼웨어 부문이다. 하드웨어란 물리적 보안대책이다. 앞서 말한 출입자 통제 장치 등이 여기에 속한다. 소프트웨어란 보안에 관한 제도·규정 프로그램을 말하며, 휴먼웨어란 종업원의 보안 의식을 말한다. <시사저널247 48면>

휴면계좌

금융 기관 고객이 최근 5년간 한번도 입출금을 하지 않아 금융기관이 잠수익으로 처리한 휴면계좌 금액이 해마다 늘고 있다. <동아일보 94.9.28. 11면>

휴면노조

노동부는 지난 2년간 노조 활동을 하지 않아 휴면노조로 분류된 포항제철 노조에 대해 법적 해산절차를 밟기로 하고 18일중 중앙노동위원회에 해산 의결을 요청키로 했다. <동아일보 94.8.18. 29면>

휴양촌

휴양촌은 우선 주거 시설로 부부를 위한 연립 주택과 독신 노인을 위한 아파트가 건설된다. <조선일보 94.10.5. 10면>

홍포화

민주당 金鍾完 의원은 자존과 사건과 관련, 『경찰이 사건을 접수하고도 공조 수사는 뒤로 한 채 관할 떠넘기기과 사건 축소에 급급했다』며 『이래서야 갈수록 홍포화 지능화하고 있는 강력 범죄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겠느냐』고 질책했다. <조선일보 94.9.23. 4면>

홍포화하다

인력과 장비도 범죄를 누르기 위한 만큼은 늘려야 한다. 현실적으로 필요한 만큼은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범죄 수법은 지능화 집단화 홍포화하는데 원시적 장비와 달리는 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건 당연하다. <동아일보 94.9.30. 3면>

흡수통일

朴 대변인은 또 『정부의 대북 정책이 흡수통일로 선회하고 있다는 의구심을 버릴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도 흡수통일을 원치 않는다는 정부의 입장 표명을 고의로 외면한 태도』라고 비난. <조선일보 94.8.23. 4면>

흡연권

세계 21개국 흡연자들이 27일 이탈리아 휴양지 리치오네에서 '스모크피스(SMOKEPEACE) 94' 회의를 갖고 수세기 동안 즐겨온 흡연에 대한 제재가 늘어나는 데 대응, 흡연권 쟁취를 위해 단결기로 합의했다. <일간스포츠 94.8.30. 27면>

흡연자

세계 21개국 흡연자들이 27일 이탈리아 휴양지 리치오네에서 '스모크피스(SMOKEPEACE) 94' 회의를 갖고 수세기 동안 즐겨온 흡연에 대한 제재가 늘어나는 데 대응, 흡연권 쟁취를 위해 단결기로 합의했다. <일간스포츠 94.8.30. 27면>

흡용자

취리히 암스테르담 등 유럽의 대도시를 여행하다 보면 공원 쓰레기통을 뒤지며 돌아

다니는 젊은이들을 적지않게 발견할 수 있다. 이들은 마약 중독자들이 버린 봉지에 혹시 코카인이나 헤로인 가루가 남아 있지 않나 해서 뒤지는 마약 흡응자들이다. <조선일보 94.10.11. 6면>

흥행업

쫄 씨는 39년 일본 가와카와대를 졸업한 뒤 40년대 연예계와 50년대 전기업에 종사하다 59년 프로복싱 흥행업에 투신, 자신이 설립한 극동체육관과 극동프로모션을 통해 金性俊(김성준) 張正九(장정구) 등 세계 챔피언 21명(IBF포함)을 배출했다. <조선일보 94.9.23. 30면>

흥행작

이에 반해 다른 정보 책자들은 각 달에 새로 나오는 흥행작이나 화제작의 내용 소개에 중점을 두는 편. <조선일보 94.10.5. 16면>

힘겨루기

이번 사태를 법외단체인 전기협과 정부의 힘겨루기 측면으로만 보면, 정부는 분명 승자일 수도 있다. <시사저널245 15면>

民自黨의 세 중진인 崔炯佑 내무장관 李漢東 원내총무 金潤煥 경북도 지부장 사이에 정부가 추진 중인 2차 행정구역 개편을 둘러싸고 미묘한 힘겨루기가 벌어지고 있다. <동아일보 94.9.2. 4면>

힙합룩

올여름 거리에서 관찰되는 다양한 젊은이들의 멋내기 중 가장 두드러지는 형태는 힙합룩 또는 레게룩으로 불리는 새로운 팝

음악의 유행이 불러온 다소 생소하면서도 재미있는 패션이다. <동아일보 94.8.20. 16면>

신어 역순 목록

뒷힘	어린이화	정치도구화
황금연휴	상업주의화	반기계화
황회	지구마을화	루프홀
재지회	효율화	자유혼
*약효	고원화	예술혼
채용박람회	베드타운화	방주형
대호황	정예화	비정형
승환	민영화	간이형
재소환	광역화	초슬림형
전자문서교환	팬시화	슬림형
맞교환	점수화	미래형
전자자료교환	연소화	저가형
노후화	과소화	불위협
비핵화	국산화	현장체험
다핵화	탈역사화	무보험
홍포화	퇴비화	*전매특허
*십자포화	지역정보화	좌편향
이벤트화	차별화	녹색정향
전통화	지방화	여향
컴퓨터화	과밀화	쌍방향
탈정치화	문민화	거북운행
비정치화	대규모화	*항해
지방자치화	능률화	하해
수치화	시디롬화	광해
경직화	정치세력화	복합공해
현지화	컬러화	저공해
진지화	연동화	광공해
집중화	기동화	신공항
탈감정화	공동화	맞고함
이동전화	이상비대화	생태음향학
기장화	온난화	건학
체인화	고급화	홈쇼핑
	분권화	원스톱쇼핑

반덤핑
섹스어필
우편올림픽
아이파
포르노그라피
보트피플
노챔프
번지점프
돌병풍
컨트리풍
평지돌풍
염장품
재활용품
성수품
신상품
저급품
성과품
*거품
브레인폴
동정표
*꼬리표
골풀
카폰
휴대폰
오름폭
상당폭
홈런포
진폐
상품정보우편
빠른우편
룩카페
골수팬
극성팬
올드팬
게임팩
저패니스팝

정치관
*안전관
전자게시관
초저주파
중도좌파
과시파
실속파
반주사파
주사파
울빼미파
침묵파
집념파
최강경파
감각파
폰팅
코마케팅
커팅
빼빼팅
소개팅
스트라이프터
챔피언터
백터
배꼽터
텔리포트
터닝포인트
포인트
더블테이트
커팅시트
*배타테스트
로비스트
헤어스타일리스트
스네이크보트
머니벨트
매니지먼트
사이버어뮤즈먼트
테크노마트

인터넷
대혈투
쓰레기봉투
북한통
특수통
조세통
일본통
폐드럼통
빵기통
미끼통
미국통
불교통
석유환산톤
중간톤
지리정보시스템
가족호텔
러브호텔
마니폴리테
피턴
헤드헌터
펜컴퓨터
노트북컴퓨터
아치스포터
논퀴터
코디네이터
카센터
제삼섹터
콜레터
서민주택
유통업태
신업태
초긴장상태
진흙사태
겨자탄
폭소탄
섬광탄

무의탁
 돈세탁
 재역전타
 청춘스타
 벼락스타
 월드스타
 이미지메이킹
 폰뱅킹
 프라이비트뱅킹
 소프트재킷
 싱글재킷
 서킷
 카토키
 비디오자키
 지하서클
 이념서클
 테마파크
 재테크
 시테크
 공테크
 리메이크
 플로피디스크
 미니디스크
 인공코
 *포켓
 쇼핑컴
 키커
 게임메이커
 트러블메이커
 샐러리캡
 스틸켄
 맞칼
 쇼핑카
 대원칙
 코믹터치
 기준치

참정치
 자동감지장치
 재설치
 신나치
 전통김치
 추계치
 탈가치
 고부가가치
 최고위층
 로열층
 신중산층
 권력층
 비집권층
 최빈곤층
 청티셔츠
 해지와이셔츠
 웨스턴부츠
 키취
 밀반출
 매매춘
 재건축
 호배추
 재개최
 밀집촌
 휴양촌
 갈비촌
 빌당촌
 집단촌
 최약체
 대화형매체
 다매체
 협력체
 법외단체
 주무관청
 소하천
 자천타천

재공천
 투자처
 승부처
 보관처
 규제책
 신정책
 근절책
 보장책
 구원책
 부양책
 차차선책
 무대책
 급팽창
 중고참
 갈참
 환경순찰
 청색경찰
 녹색경찰
 암행감찰
 무공해차
 화학차
 상용차
 유세차
 인민차
 국민차
 미래차
 고가차
 가방모찌
 헛징
 다운사이징
 클렌징
 재편집
 전통찻집
 어린이집
 재소집
 보도집

그늘집
 고품질
 드잡이질
 헛방망이질
 최악질
 지단백질
 *못질
 헛젓가락질
 매개질
 재추진
 투수진
 재검진
 육아휴직
 자유직
 하위직
 간부직
 전문직
 패휴직
 세탁지
 잡종지
 폐건전지
 최적지
 재생화장지
 재생용지
 소식지
 선지
 여백지
 뽀빠이바지
 매립지
 안드로로지
 물딱지
 딱지
 밑둥지
 닳지
 유통단지
 시너지

유가지
 신시가지
 무가지
 보험증
 그린면허증
 환경경영인증
 결신증
 편식증
 추대증
 시내타증
 미니멀리즘
 센세이셔널리즘
 파아니즘
 박시즘
 캐치세일즈
 인베스터릴레이션즈
 오조준
 대형주
 간판주
 폭탄주
 대중주
 황재주
 백일주
 원주
 기대주
 합격주
 껌죄
 계획범죄
 침단범죄
 *성좌
 휴면계좌
 브이존
 미팅족
 고스톱족
 스쿠터족
 선탠족

야타족
 펑크족
 나체족
 오렌지족
 폭주족
 운전족
 태양족
 미시족
 어슬렁족
 스킨헤드족
 슬픔조
 자살조
 기쁨조
 법외노조
 휴면노조
 연봉상한제
 브레인폴제
 팀제
 전작제
 항우울제
 혐오제
 러시아제
 마이너스웁선제
 전용차선제
 발탁인사제
 후불제
 중불제
 환경실명제
 종량제
 유가연동제
 시급제
 시간급제
 탈규제
 신경제
 재지정
 지열정

노사정
 부자가정
 콩가루가정
 무대접
 양판점
 절충점
 저점
 논쟁점
 할인점
 체인점
 대여점
 외식점
 패션점
 감산점
 사점
 무벌점
 가맹점
 혼매점
 반독점
 추가점
 기본예절
 재장전
 응원전
 줄음운전
 재역전
 독소전
 해상전
 정보전
 생물전
 성명전
 여론전
 탈냉전
 낙전
 대추격전
 환경친화적
 탈비판적

좌파적
 핑크적
 비정치적
 반동지적
 대중적
 주적
 경종적
 직간접적
 지도자적
 모험주의적
 온정주의적
 이상주의적
 비고의적
 시대착오적
 자기방어적
 마피아적
 호성적
 최우선적
 탈일상적
 기념비적
 탈규범적
 동시다발적
 비법률적
 반인륜적
 비계량적
 계량적
 비적대적
 구시대적
 신세대적
 전환기적
 특권적
 정권적
 지구적
 무가치관적
 친환경적
 활동가적

원저
 펀드매니저
 식자재
 바닥재
 재포장
 직판장
 성토장
 웨이터장
 단체장
 평생직장
 자기주장
 출전장
 고신장
 쌀시장
 틈새시장
 재래시장
 고성장
 협상장
 인사장
 눈썰매장
 불령장
 경륜장
 직거래장
 위락장
 슬라이딩장
 눈도장
 회담장
 복합극장
 객장
 칼잡
 *겨울잡
 초대형작
 흥행작
 재창작
 초대작
 대성공작

배후자
 만효자
 주진행자
 여성학자
 기성학자
 기초과학자
 견학자
 중복투자
 은퇴자
 장타자
 명연출자
 시발주자
 출장자
 최적임자
 탐미주의자
 흡용자
 피징용자
 감염자
 비흡연자
 흡연자
 깡업자
 양심선언자
 주계약자
 분실자
 이식자
 명해석자
 노비자
 내부자
 *삼박자
 탈문자
 추진론자
 수록자
 교학력자
 격려자
 입대자
 상급자

감독권자
 제공자
 재진입
 피크타임
 노타임
 빅게임
 흡수통일
 루프코일
 반짝세일
 화인
 황해인
 고향인
 부촉인
 유통체인
 모집인
 재즈인
 포장디자인
 금융인
 생활체육인
 피고용인
 주요인
 지역인
 신앙인
 낚시인
 개성인
 탈북인
 핸드볼인
 비백인
 피고발인
 가이드라인
 샤넬라인
 태권도인
 당인
 결식노인
 양궁인
 애견인

사차이익
 잡수익
 비행공수익
 고수익
 묘수풀이
 은행털이
 감찍이
 컴퓨터장이
 참치잡이
 발잡이
 골잡이
 그린웨이
 이디아이
 깡순이
 결함투성이
 부실투성이
 영창살이
 살이
 뽕뽕이
 뽕뽕이
 감뽕이
 신토불이
 마마보이
 인텔리전트베이
 외화벌이
 세벌이
 전화발이
 반쪽발이
 여관발이
 공안몰이
 인기몰이
 *숨방망이
 불방망이
 단독플레이
 프레임릴레이
 딸랑이

*눈높이
 배꼽같이
 표발같이
 *물같이
 재협의
 미협의
 엘리트주의
 신나치주의
 환경인종주의
 반권위주의
 소영웅주의
 나열주의
 보신주의
 여성주의
 공생주의
 명분주의
 비자본주의
 학벌주의
 중벌주의
 엄벌주의
 속물주의
 망라주의
 적당주의
 지역이기주의
 한건주의
 경제정의
 무쟁의
 관의
 맞대응
 생을음
 표지어음
 정치놀이음
 국산화율
 구제율
 점유율
 미회수율

저수율
 폐소율
 유산율
 사고율
 생활체육
 폐식용유
 재급유
 헛스윙
 샴트윈
 최하위
 *노른자위
 영순위
 점통더위
 가마솔더위
 소단위
 키친타월
 비회원
 탐원
 일용직원
 남직원
 주득점원
 폐자원
 주수입원
 오염원
 아이디어원
 계산원
 인턴사원
 여사원
 세대원
 내원
 주공급원
 가구원
 법조타운
 종합레저타운
 실버타운
 베드타운

재활용
 선전용
 역작용
 재사용
 불사용
 무마용
 불관용
 노출육
 술목육
 전통가요
 노외
 비밀과외
 족집개과외
 나시옷
 카보캐타이온
 탄소양이온
 바이오
 주문형비디오
 텔레비디오
 최신예
 자동차야영
 준주거지역
 창구역
 오이엠
 디엠
 흥행업
 재파업
 폐차업
 수작업
 소프트산업
 모험기업
 팬티업
 리뉴얼
 양심선언
 아트페어
 옵션투어

페타이어
 빅바이어
 컴포넌트소프트웨어
 휴먼웨어
 신아이디어
 멀티미디어
 뉴미디어
 *특효약
 대환약
 재계약
 운용액
 손실액
 징수액
 탈루액
 최루액
 횡령액
 분담액
 모자애
 고전압
 아이알
 신공안
 공동육아
 과박태리아
 상그리아
 카레이싱
 군심
 자괴심
 치실
 유리온실
 사차손실
 패킷통신
 무소신
 대변신
 아랫장식
 삭발식
 모던클래식

치고빠지기식
 하우스에이전시
 미시
 스위퍼맥시
 루어납시
 환승
 처녀우승
 가드펜스
 데이트코스
 현금베이스
 에스유엔디에스
 홈서비스
 개인서비스
 립서비스
 매달박스
 오토리스
 슬리브리스
 뉴비즈니스
 강숫
 전통술
 *용병술
 설치미술
 신기술
 고기술
 중계술
 *홍수
 과학수
 생활하수
 재착수
 폭력지수
 체감지수
 불수
 *소방수
 노림수
 방류수
 지니계수

강수
 안테나숍
 감작쇼
 *열쇠
 종합유선방송
 코믹송
 녹송
 계산속
 입단속
 초고속
 물청소
 무허가업소
 크로스오버코디네이션
 코디네이션
 활황세
 하향세
 약보합세
 준조세
 절세
 급신장세
 성장세
 매수세
 감소세
 회복세
 폭등세
 반등세
 도세
 바닥세
 초극세
 무관세
 역공세
 증가세
 편향성
 양방향성
 음해성
 난분해성

적합성
작품성
상품성
대표성
엄포성
퇴폐성
형평성
구조재편성
계과성
방탄성
청탁성
별척성
사치성
질책성
문책성
저질성
조직성
경직성
화제성
반체제성
비경제성
선정성
불공정성
건전성
이적성
호재성
성장성
캠페인성
용이성
항의성
강요성
커리어여성
비직업성
직업성
상업성
억압성

가십성
선심성
편식성
성숙성
줄속성
패션성
로비성
친북성
반정부성
첩보성
진보성
속보성
초법성
불법성
절박성
반박성
뇌물성
불투명성
센터링성
패륜성
청렴성
폭력성
격려성
음란성
기능성
포르노성
엽기성
격기성
시급성
*일과성
연고성
한계성
전격성
몰개성
건강성
심각성

반국가성
제휴선
재주선
살물선
불출석
선석
답변석
확인서
환지증명서
재탄생
죽집개선생
이부동생
*초년생
은회색
연회색
벨트색
와인색
사양색
백인백색
연하늘색
마라톤협상
재협상
야채상
역발상
문란상
갈빗살
비확산
주문자상표부착생산
정치판사
신청사
에이아이조사
수용자반응조사
헛장사
정실인사
신인사
침술사

공조수사
 표적수사
 재수사
 초동수사
 *고해성사
 재복사
 되반사
 겹경사
 이쁨
 태양빛
 사교육비
 공교육비
 대외비
 반소비
 과소비
 식재료비
 수렵비
 넘비
 떡갈비
 헤드테이블
 멀티큐브
 레ιβ
 샤브샤브
 무행정처분
 재방북
 조강지부
 전업주부
 *면죄부
 신정부
 문민정부
 종군위안부
 폐연료봉
 포켓볼
 투심볼
 민간복
 미확보

조기경보
 여해병
 패트병
 공주병
 안전병
 *용병
 생수병
 온산병
 한국병
 중국병
 망국병
 수비벽
 *간접화법
 삼진법
 스리스트라이크아웃법
 민생침해사범
 무규범
 스카이다이버
 미니벤
 벤
 비치백
 어깨백
 표발
 메달발
 최후방
 춤방
 촌방
 놀이방
 비디오방
 빨래방
 노래방
 *마당발
 농반진반
 나박나박
 흠바
 슬리밍

물취미
 영상미
 대가품
 벌크화물
 쇼핑물
 직접투입우편물
 *큰물
 취재물
 성애물
 *아랫물
 음란물
 주상복합건물
 지역신문
 재방문
 비동문
 소감문
 채택근무
 집합목
 먹자골목
 무른모
 백색혁명
 절체절명
 정치생명
 속멋
 호텔우먼
 워킹우먼
 캐리어우먼
 프로슈머
 그랜드슬래머
 컴맹
 요트맨
 포터맨
 마크맨
 오디오맨
 아이디어맨
 블루스맨

그린맨
 현대맨
 서울대맨
 당구맨
 광고맨
 유인판매
 주문판매
 선취매
 영업망
 부가가치통신망
 초고속정보통신망
 밀밥망
 거름망
 판맷
 재출마
 스토리텔링
 캐이터링
 모니터링
 리스트럭처링
 라디엔티어링
 리엔지니어링
 컬러링
 도깨비살림
 절개그림
 멀티스크린
 반카톨릭
 레토릭
 패브릭
 커버스토리
 땡처리
 재정리
 탈윤리
 물회오리
 살림보따리
 풀금리
 알권리

부탁거리
 안줏거리
 문제거리
 위안거리
 음식거리
 간식거리
 뉴스거리
 시뵈거리
 재밋거리
 주목거리
 논란거리
 복합장르
 탈장르
 발생률
 진급률
 비주류
 범주류
 신조류
 초일류
 신기류
 *이상기류
 액정룸
 원룸
 쇼룸
 힙합룩
 그런지룩
 카우보이룩
 밀리터리룩
 란제리룩
 댄디룩
 래계룩
 스쿨걸룩
 *콩가루
 채택료
 각출료
 주차료

야영료
 아이디어료
 모델료
 수거료
 성희롱
 발언록
 호기록
 보행로
 대박프로
 확대일로
 탐방로
 기동로
 자전거전용도로
 정보고속도로
 소각로
 *세례
 악선례
 추상령
 미발령
 기획력
 조형력
 점프력
 상품력
 전화폭력
 언어폭력
 성폭력
 슈팅력
 고탄력
 연출력
 경찰력
 포착력
 연주력
 범죄력
 행정력
 득점력
 영업력

치안력
 장악력
 투수력
 독서력
 협상력
 굴삭력
 수사력
 자본력
 정보력
 감별력
 개발력
 관리력
 경기력
 자금력
 러시아룰렛
 프랑글레
 초베스트셀러
 밀리언셀러
 스테디셀러
 스크램블러
 마이크로컨트롤러
 발생량
 극미량
 신전략
 갱스터랩
 *그랜드슬램
 앞거래
 밀거래
 무자료거래
 망서람
 *맞바람
 돈바람
 대혼란
 부가가치란
 특수란
 인프라

무인감시카메라
 몰래카메라
 기름띠
 노땅
 패러글라이딩
 오피스빌딩
 딜
 브이오디
 비디오시디
 삼디
 스킨헤드
 리펀드
 피피카드
 선불카드
 경쟁라운드
 투자라운드
 그린라운드
 환경라운드
 톱시드
 스웜보드
 팩스온디맨드
 녹색운동
 생명운동
 재시동
 헛소동
 대충돌
 재격돌
 검은돈
 여윳돈
 음악감독
 불쾌도
 만족도
 안전도
 완성도
 분도
 비보도

주목도
 자립도
 피로도
 청렴도
 저체도
 고강도
 슈퍼모델
 삼류모델
 반도덕
 스피더
 회전침대
 물침대
 국책대
 지방화시대
 음수대
 차세대
 와이세대
 엑스세대
 이상비대
 담요부대
 오빠부대
 흙무대
 지방당
 주마당
 무배달
 노메달
 반건달
 항의단
 명교향악단
 방송단
 개미군단
 피난계단
 갱단
 씨먹히다
 총발휘하다
 지하화하다

거품화하다
 흉포화하다
 귀족화하다
 사회문제화하다
 강제화하다
 정치쟁점화하다
 쟁점화하다
 건전화하다
 점자화하다
 지역화하다
 기정사실화하다
 건실화하다
 데이터베이스화하다
 실세화하다
 전산화하다
 기사화하다
 공사화하다
 공론화하다
 정례화하다
 계량화하다
 카드화하다
 해계모니화하다
 공개념화하다
 컨테이너화하다
 고급화하다
 재규합하다
 어필하다
 컬러풀하다
 배팅하다
 빅히트하다
 트리트먼트하다
 리메이크하다
 시니컬하다
 녹취하다
 재창출하다
 재구축하다

재편집하다
 재강조하다
 재등정하다
 역추적하다
 재포장하다
 재단장하다
 선투자하다
 재가입하다
 재선임하다
 *턱걸이하다
 *조율하다
 헛스윙하다
 재사용하다
 무내용하다
 재기용하다
 재취업하다
 *쓱쓱하다
 피식하다
 클래식하다
 범죄인시하다
 최우선시하다
 재상송하다
 유니섹스하다
 언밸런스하다
 강슛하다
 맞제소하다
 비과세하다
 재주선하다
 재해석하다
 불출석하다
 재분석하다
 급부상하다
 단식사하다
 아카데미하다
 커버링하다
 재조립하다

재정립하다
 재정리하다
 재이륙하다
 재상륙하다
 재입력하다
 내추럴하다
 룡런하다
 목말라하다
 코디하다
 오버라이드하다
 풀가동하다
 재가동하다
 쉐네이셔널하다
 땡비난하다
 자리매김하다
 급배기하다
 재입국하다
 재침공하다
 재설계하다
 재점검하다
 실무화시키다
 무력화시키다
 브랜드화시키다
 다각화시키다
 입점시키다
 재무장시키다
 빌트인시키다
 취역시키다
 컴백시키다
 맞받아치다
 미어터지다
 도두워지다
 거저줍다
 *잠자다
 모자섞우다
 물설다

읊겨붙다
 열받다
 받아먹다
 되돌리다
 끌어내리다
 쫓쫓거리다
 연푸르다
 남성스럽다
 시골스럽다
 관행화되다
 파편화되다
 저질화되다
 선진화되다
 감정화되다
 가속화되다
 여성화되다
 일상화되다
 개방화되다
 유료화되다
 상례화되다
 슬럼화되다
 지능화되다
 프로페셔널화되다
 본격화되다
 탈국가화되다
 더블캐스팅되다
 랭크되다
 매칭되다
 재건축되다
 밀수입되다
 밀반입되다
 클로즈업되다
 확실히되다
 미타결되다
 저평가되다
 물건너가다

나으리님
 고객님
 폐비닐
 투명비닐
 마이크로미니
 신기능
 고기능
 주매뉴
 초승달눈
 액체비누
 재생비누
 전업농
 괴청년
 교양녀
 동거녀
 가정부인네
 부인네
 다채널
 스캐너
 엔터테인먼트
 열혈남
 사별남
 택지난
 급수난
 풍수끼
 정치꾼
 범죠힌
 웃음꾼
 택견꾼
 유객꾼
 말피
 순참깨
 국제깡
 카드깡
 *입깡
 유학길

외유길
 녹색길
 군히기
 비화기
 걸핏기
 몸풀기
 끼워팔기
 정채기
 *뒤집기
 성곽지기
 녹즙기
 복제기
 탑재기
 밀어붙이기
 샤워기
 시간때우기
 실외기
 폐악기
 홀로서기
 가다서기
 발사기
 급배기
 비살상무기
 탈모기
 나눠먹기
 발매기
 정보단말기
 세불리기
 힘겨루기
 무동기
 새내기
 *소나기
 꺾기
 휴대정보기기
 사고기
 수준급

고위급
 재보급
 보물급
 정착금
 엠자금
 피자금
 체불임금
 개인연금
 총채국
 마당놀이국
 자살국
 노래국
 마당국
 이어플러그
 무분규
 재복귀
 간접영향권
 대행권
 급행권
 정치권
 진출권
 개최권
 재집권
 도전권
 최하위권
 최상위권
 흡연권
 광역권
 사업권
 시권
 우승권
 보따리상권
 인사권
 적발권
 조망권
 바닥권

편곡권
 행금
 쌍굴
 손목터널증후군
 다국적군
 비보호국
 투자국
 비회원국
 중심국
 적성국
 초강대국
 식견국
 *호구
 관광특구
 재청구
 증구
 건살구
 길거리농구
 열기구
 비정부기구
 정치장교
 무기교
 가격파괴
 바그너광
 전용관
 장급여관
 여보안관
 준정부기관
 직업외교관
 은천공
 초진공
 자책골
 *변주곡
 수출고
 원고
 미신고

근접비행사고
 간접광고
 토막광고
 디자인계
 패션계
 범여성계
 록계
 태권도계
 다단계
 초강경
 맞대결
 대형견
 믹스견
 미견
 최적격
 대반격
 레계
 재점점
 타견
 폐자전거
 분리수거
 쇼핑객
 산책객
 내점객
 나들이객
 물놀이객
 응원객
 환승객
 주관객
 무기장
 물값
 이름값
 박탈감
 승차감
 현장감
 방일감

상실감
사실감
노벨상감
스릴감
무기력감
타구감
최단기간
종합문화공간
정치감각
쇼핑가
팀가
호텔가
교주가
증저가
극장가
구입가
비디오가
금융전업기업가
농어가
오피스가
에송가
패션가
전세가
노동동가
야당가
외교가

담당 연구원 : 조남호(국립국어연구원 어문규범연구부)

신어의 조사 연구

1994년 12월 23일 인쇄

1994년 12월 30일 발행

발행인 : 안 병 희

발행처 : 국립국어연구원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 5-1 덕수궁내

전화 : 779 - 4810~4818

FAX : 779 - 4819

인쇄 : 계문사

전화 : 736 - 5256, 735-6867
